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5호 2019.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중국 신장[新疆] 지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 김재윤 ▣ 4,500년 전 중국 신강성 '석기시대'의 문화범위와 교류지역
- 인접한 카자흐스탄, 몽골, 바이칼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7
- 정재훈 ▣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 51
- 박선영 ▣ 신장에서 중국으로 - 중국 '신장항목' 전후의 연구 변화상 103

논문

- 김남중 ▣ 안악군 당장경 유적과 단군 전승 159
- 김성환 ▣ 20세기 초 단군영정의 보급과 화본(畫本) 검토 201
- 이성제 ▣ 650년대 전반기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동향과 고구려
- 고구려 사절이 아프라시아 궁정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243
- 박양신 ▣ 1920년대 일본의 인구문제와 이식민론(移植民論) 273

서평

- 이영옥 ▣ 바다, 천하 그리고 근대국가
- 『천하의 바다에서 국가의 바다로: 해양의 시각으로 본 근대중국의 형성』,
조세현, 일조각, 2016 315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327



Contents

Special Issue Recent Research Trends about History of Xinjiang Autonomous Regions

Kim Jaeyoun ■ A Study on the Concept of Stone Age in Xinjiang Province of China: A Comparison with Kazakhstan, Mongolia and the Baikal Region in 4,500 Years Ago 7

Jeong Jaehun ■ The Chinese Studies of the History of Xinjiang Silk Road after the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51

Park Sunyoung ■ From Xinjiang History to Chinese History 103

Articles

Kim Namjung ■ Dangjanggyeong Remains in Anak-gun County and the Dangun Tradition 159

Kim Sunghwan ■ The Dissemination of Dangun's Portrait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a Review of Drawings 201

Lee Seongje ■ A Trend of Turkic Northern Power and Koguryo in the First Half of the 650s: A Review on the Background for the Appearance of Koguryo Envoys in the Wall Painting of Afrasiab Palace 243

Park Yangshin ■ The Population Issue and the Theory of Transplantation of Japan in the 1920s 273

Book Review

Lee Yeongok ■ From the Sea of 'All-Under-Heaven' to the Sea of Nation 315

특집

중국 신장[新疆] 지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500년 전 중국 신강성 ‘석기시대’의 문화범위와 교류지역

– 인접한 카자흐스탄, 몽골, 바이칼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김재윤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강의전담교수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 III. 신강성의 ‘석기시대’와 인접한 지역의 신석기 문화 양상
- IV. 신강성 ‘석기시대’의 문화범위와 교류지역
-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 신강성의 선사시대는 ‘석기시대’로 불린다. 토기가 제대로 발견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구석기시대와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다. 석기시대 내에서 세석기의 제작기술 및 마제석기, 토기편의 여부 등을 근거로 신석기시대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석기시대’는 중원의 신석기시대 개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¹ 사용된 용어이다.

그런데 신강과 인접한 카자흐스탄, 몽골에서는 신석기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국 신강성의 자연환경 및 문화 양상과 비슷하지만 시대용어는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문화권을 국가로 나누어서 연구한 결과이다.

따라서 중국 신강성의 석기시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경이 아닌 자연환경에 따른 문화권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² 신강의 석기시대 내에서도 신석기시대를 인접한 지역인 카자흐스탄 동부와 몽골을 집중적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4,500년 전 이후가 되면 신강과 인접한 지역의 물질문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표 1 참조)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지역권을 살필 수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4,500년 전 신강과 인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동부와 몽골을 비교해서 문화범위 및 교류지역, 석기 양상 및 석기시대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 투고: 2019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19년 8월 20일, 게재 확정: 2019년 8월 23일

1 王炳華, 1985, 「新疆細石器遺存初步研究」, 『干旱區新疆第四紀研究論文集』,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74~182쪽.

2 김재운, 2017, 『접경의 아이덴티티:동해와 신석기문화』, 서경출판사, 11쪽.

II.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신강의 선사시대 연구는 1930년대 하미[哈密] 분지를 양종건(楊鐘健)과 프랑스인 테야르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이 함께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 몽골, 신강의 신석기시대는 북중국과 차이가 있고 세석기가 존재하는 신석기시대라고 이해했다.³ 960년대에도 신강의 신석기시대는 신강 동부 및 남부에만 분포하고 있고, 세석기 문화, 채도문화, 역석문화가 신석기 문화의 특징이라는 이전의 주장이 계속되었다.⁴

그러나 이러한 연구 관점을 바꾼 것은 왕병화(王炳華)이다. 그는 채색토기문화와 역석문화가 청동기시대 특징으로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세석기 문화만 신석기시대에 속할 수 있다는 현재 신강 석기시대에 대한 기본틀을 세웠다.⁵

세석기 문화의 기원은 세석기의 형태가 중점이 된 연구와 형질인류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전자는 신강의 세석기 문화가 중국의 세석기 시스템에 속해 있고, 영하, 감속성으로부터 전해져서 천산남로를 따라 남쪽 및 북쪽을 따라서 파미르 고원 및 소련의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⁶ 또한 후자는 신강 석기시대에 고인골이 확인되지 않지만 청동기시대 정황을 석기시대에 대입해서 살피는 것인데, 그 근거로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세석기가 존재하는 것을 들기도 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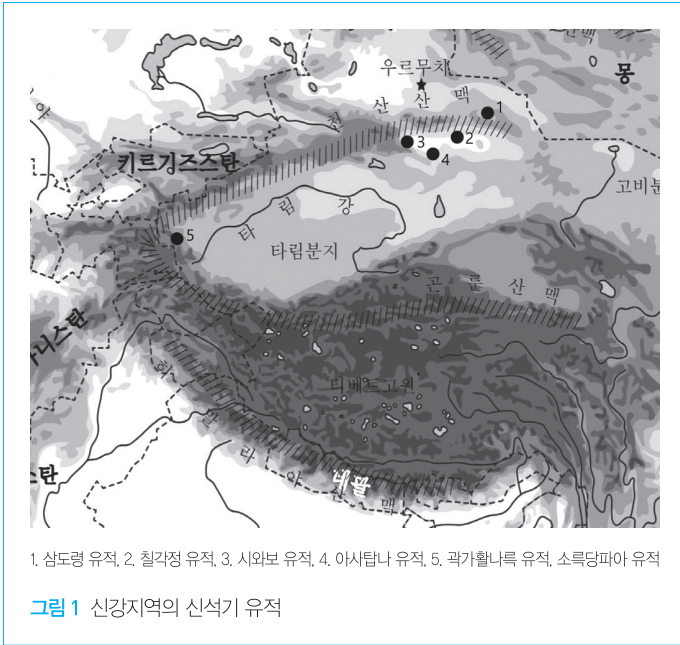
3 P. Teilhard de Chardin, 1939, "On the presume existence of a worldwide Sub-Arctic cheet of human culture at the dawn of the neolithic —", 『地質學報』 3期, 335~341쪽.

4 吳震, 1964, 「新疆東部的几處新石器時代遺址」, 『考古』 7期, 333~341쪽.

5 王炳華, 1985, 「新疆細石器遺存初步研究」, 『干旱區新疆第四紀研究論文集』,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74~182쪽.

6 羊毅勇, 1982, 「新疆木壘縣四道溝遺址」, 『考古』 2期, 113~120쪽.

7 宋亦簫, 2010, 「新疆石器時代考古文化探論」, 『西部考古』 第4輯, 4~9쪽.



그러나 현재 세석기를 제작하는 방법인 눌러떼기 기법의 정확한 기원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⁸ 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 형질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세석기 문화의 경로 확산에 대한 연구도 편협한 의견일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신강의 여러 지역 박물관에서 시베리아 신석기시대의 석촉 및 청동기문화인 안드로노보문화의 토기, 카라숙 계열의 청동기, 카자흐스탄에서 출토되는 석기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누락되어 중국 신강성 연구가 자국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비추어본다면, 신강지역의 세석기가 중국의 세석기 제작 시스템⁹이라는 의견도 국경 중심의 관점일 가능성이 많다. 결국 중국 신강성과 비교하기 위해서

8 북천박물관, 2003, 『기술의 발견』, 북천박물관.

9 羊毅勇, 1982, 앞의 글, 113~120쪽.

는 국가 단위가 아닌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문화권 단위별로 구분되어야 한다.¹⁰

중국 신강성과 접한 천산산맥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신강의 북쪽에는 몽골과도 인접하고 있다. 이 산맥의 방향 때문에 산맥을 경계로 이 지역과 카자흐스탄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산맥을 따라서 인접한 지역에 유사한 문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의 선사시대 문화는 인접한 지역, 즉 카자흐스탄(그림 2) 및 몽골(그림 8)과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신석기 문화는 신강성과 인접한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아무다리야강의 상류와 하류 등에서 알려졌다. 북부지역에는 우랄산맥의 동쪽 지역 신석기 토기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지배적¹¹이었지만,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시베리아 및 카자흐스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토기가 존재하는데, 그 문화는 마흐안다르스카야 문화로 밝혀졌으며 카자흐스탄의 다른 지역에서 출토되지 않는 토기이다. 첨저토기이지만 우랄산맥 이동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구연부가 외반하는 기형으로 바닥의 끝이 매우 뾰족하며 전면이 마연되었다.¹² 뿐만 아니라, 천산산맥의 산지에서 발원한 아무다리야강의 상류에는 8,000년 전의 기사르 문화와 제이툰 문화가 알려졌으나, 토기, 토벽을 세운 지상식 주거지 등이 확인되어 문화적 양상 차이가 뚜렷하다.¹³ 즉, 카자흐스탄 북부 및 천산산맥의 산지이자, 아무다리야강 상류의 카자흐스탄 문화는 본고와는 관련성이 많지 않다. 카자흐스탄 동부지역에는 4,500년 전 우스티 나림 문화가 알려졌는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겠지만 이 지역의 문화는 신강의 석기시대 유물과 유사한 유물이 출토되는 점을 들어서 아무다리야강의 하류이자 아랄해 부근

10 김재윤, 2017, 앞의 책, 11쪽.

11 С. В. Ошибкина(ред), 1996, *Неолит Северной Евразии*, Москва, НА УКА, pp. 130~132.

12 И. В. Шевнина, 2012, “Гончарство Маханджарско культуры”, *Вестник археолог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No. 2(17), p. 26.

13 С. В. Ошибкина(ред), 1996, 앞의 책, pp. 98~100.

에 위치한 켈테미나르 문화와 비교해볼 수 있다.

몽골은 이 지역을 조사한 초창기 연구자 사라 넬슨은 사바라크-우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대부분 후기 구석기시대 석인이지만 장신구 등이 확인되므로 중석기시대라고 명명했다.¹⁴ 이로 인해서 몽골에서도 석기시대 개념이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 오클라드니코프가 사라 넬슨이 발굴한 유적의 다른 지점에서 석기와 망상문토기가 함께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¹⁵ 몽골의 신석기 문화 존재를 확인했다.¹⁶ 몽골의 신석기 문화가 바이칼 유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 문화적 특징도 신석기 문화와 관련성이 있고, 몽골의 시레트 지역 듀나-II 유적의 출토품이 카자흐스탄 동부의 우스티-나림 유적과 비슷하다고 연구된 바 있다.¹⁷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몽골과 카자흐스탄의 신석기 문화에서는 바이칼 유역의 신석기 토기와 낚싯바늘, 조합식 검¹⁸이 출토된다. 양 지역은 4,500년 전부터 중국 신강성에서 확인되는 ‘ㄱ’자형 타제석도, 공이, 마제어망추, 석인, 석핵석기 등 문화의 공통성이 보여서 중국 신강성과 같은 문화범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신강성의 석기시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카자흐스탄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몽골의 신석기시대 유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신강성과 같은 문화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동부의 우스티-나림 문화에서는 160,000여 점의 유물이 확인되는데, 석기시대라는

14 N. C. Nelson, 1926, "Prehistoric Archaeology of the Gobi", *Desert-American Museum Novitates*, No. 222, pp. 1~16.

15 A. П. Окладников, 1964, *Первоытная Монглия - К вопросы древней шей история Монголя*, УБ, pp. 39~40.

16 A. П. Окладников, 1964, 위의 책.

17 Э. А. Новгородова, 1989, *Древняя Монголия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хронологии 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Москва: НАУКА, p. 60.

18 Г. Ф. Коробкова, 1969a, "К вопросы о хронологии кетельминарско й культуры", *История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Узбекистана*, pp. 39~46; Э. А. Новгородова, 1989, 위의 책, pp. 57~58.

용어로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중국 학자들이 중국의 신석기 시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이 지역의 문화를 절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각 국가에서 연구된 각 지역의 문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4,500년 전 이후가 되면 중국 신강성과 인접한 카자흐스탄 동부, 몽골 등에서 뚜렷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석기 양상이 확인되는데, 이 시기를 집중 고찰하여 중국 신강성의 석기시대 개념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Ⅲ. 신강성의 '석기시대'와 인접한 지역의 신석기 문화 양상

1. 신강성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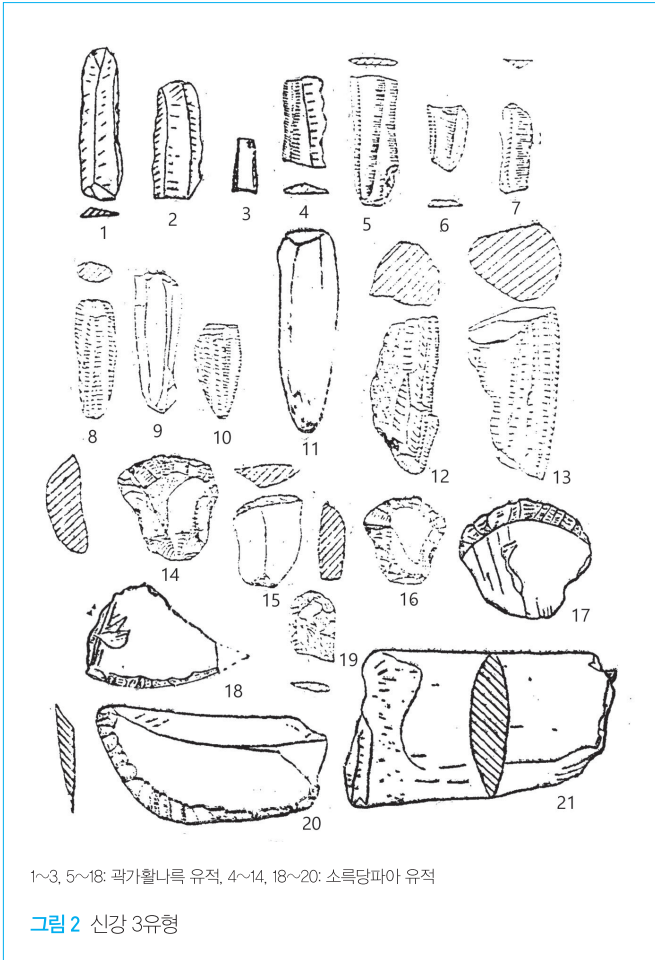
현재 신강에서 알려진 석기시대 유적은 33기이다(그림 1). 삼도령(三道嶺), 극랍마의시(克拉瑪依市), 아극제열극(阿克提熱克), 아사탑나(阿斯塔那), 시와보(柴窩堡), 칠극대(七克台) 유적 등이 있다. 신강 석기시대 문화연구는 이 지역 고고학 연구에서 가장 취약하다. 유물은 대부분 지표 채집되었고, 층위가 불분명하거나 공반 유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¹⁹

신강의 석기시대는 모두 4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3유형(그림 2)과 4유형(그림 3)에서는 앞선 유적과 달리 세석기의 크기 및 종류가 변화하고 채색토기편, 마제석기 등이 포함되어 신석기시대로 본다.²⁰

1유형에는 삼도령 유적, 아니진산(阿你金山) 유적, 저사(這些) 유적 등이 포함된다. 시와보 유적은 인접한 사천의 세석기 문화인 하천(下川)문화, 러시아의

19 宋亦簫, 2010, 앞의 글,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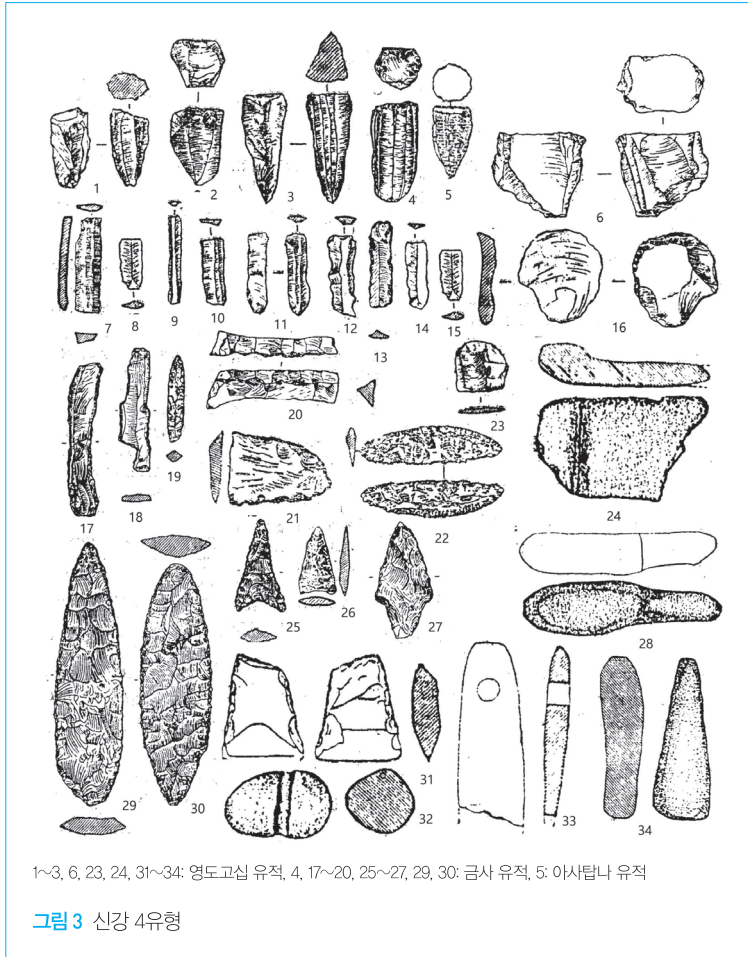
20 伊第利斯·阿不都熱蘇勒, 1993, 「新疆地區細石器遺存」, 『新疆文物』 4期, 15~59쪽; 宋亦簫, 2010, 위의 글, 4~9쪽.



흑해 연안 유적 등과 비교되었으며, 후기 구석기시대 가운데서도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보았다. 1유형의 연대는 대략 1만 년 전후로 추정된다.²¹

2유형은 하미시의 칠각정 유적으로 대표된다. 이 유적의 면적은 넓지 않지

21 伊第利斯·阿不都熱蘇勒, 1993, 앞의 글, 15~16쪽.



1~3, 6, 23, 24, 31~34: 영도고십 유적, 4, 17~20, 25~27, 29, 30: 금사 유적, 5: 아사탑나 유적

그림 3 신강 4유형

만 세석기의 양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핵석기는 선저형 석핵, 원추형 석핵 등이 있고 박편석기가 많이 출토되었다. 박편석기는 길거나 짧은 굽개, 끝이 둥글게 처리된 굽개도 출토되었다. 길이가 가장 긴 것은 약 7cm, 너비는 0.3~0.4cm이다. 세석인을 가공한 소형 석촉, 석추 등이 출토되었다. 시와보 유적과 칠각정 유적의 석기 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한 지역의 구

석기시대에 비추어서 9000년 전후²²로 추정된다.²³

3유형은 오파이향(鄕)의 광가활나룩(霍加闊那勒) 유적과 소룩당파아(蘇勒塘巴俄) 유적으로 대표되는데, 두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이 거의 같아서 오파이 유적으로 통칭된다. 원추형(그림 2-8~11) 및 원통형(그림 2-12, 13)의 석핵석기뿐만 아니라 세석인(그림 2-1~7)이 다량 확인된다. 박편석재를 이용한 굽개(그림 2-14~17)는 한쪽 끝이 둥글게 처리되었고, 박편석기를 이용한 석도(그림 2-20)도 있다. 이 외에 마제석도(그림 2-21)도 확인된다. 세석인(그림 2-8~12) 이외에도 토기, 골기, 마제석기와 소형 동기 등이 확인되어 구석기시대와는 다른 물질문화 양상을 띠어 구석기시대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발굴되지 않은 채집유물이며, 세석기와 소형 동기의 공반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신석기시대 세석기 유적에 좀 더 가능성을 두고 있다. 유적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5,000년 전으로 본다.²⁴

4유형은 아사탑나 유적으로 대표된다. 세석기와 박편석기가 상당히 많이 출토되었다. 일부 석핵석기는 박편을 떼어낸 후의 석핵의 직경이 0.7cm보다 작은 원추형(그림 3-5)이 확인되었는데, 앞서 설명한 유형의 유적에서는 보이지 않아 세석기 제작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굽개형 석핵석기(그림 3-6), 양면떼기로 제작된 것은 석도(그림 3-22), 석촉(그림 3-25~27), 석모(그림 3-29~30)가 있다. 세석인의 끝을 둥글게 손질하여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굽개(그림 3-16, 23)도 출토되었다. 이 외에 마제석기는 석부(그림 3-31), 갈판(그림 3-28), 갈돌(그림 3-24), 어망추(그림 3-32), 타원형 석기(그림 3-33)가 있다. 아주 양은 적지만 채색토기편도 확인되었다. 유물 가운데 눌러떼기 기법의 석기 제작기술이 안정화되어 있고, 이러한 석기가 대량 생산된 점 등으로 보아

22 1유형과 2유형의 연대가 1만 년 전과 9,000년 전은 동북아시아의 신석기시대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적의 절대연대측정치가 없어서 실제로 토기편이 확인되지 않는 유적은 구석기시대로 파악하고 있다.

23 伊第利斯·阿不都熱蘇勒, 1993, 앞의 글, 17~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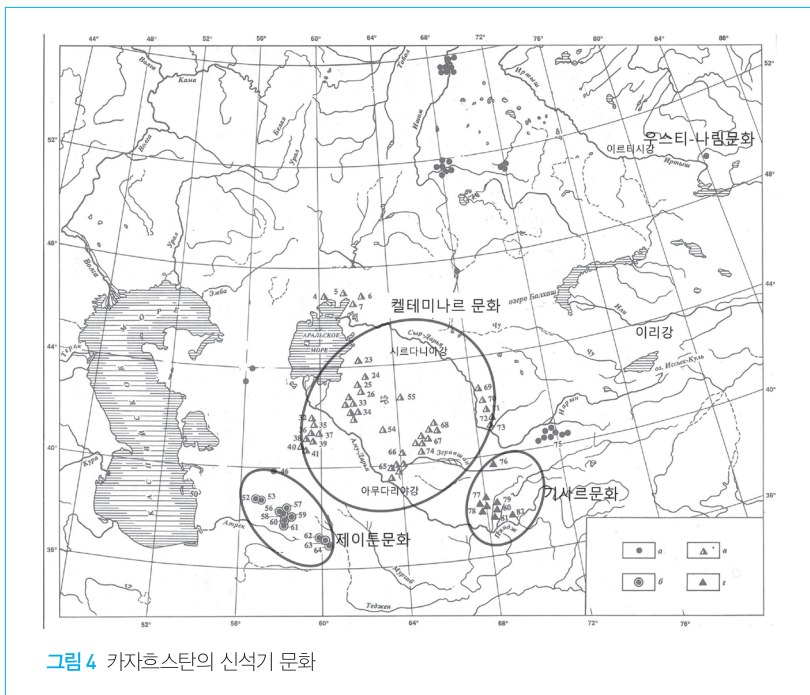
24 伊第利斯·阿不都熱蘇勒, 1993, 위의 글, 17~33쪽.

신강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서 세석기 유적 가운데서 가장 늦은 시기이다. 이 유적의 연대는 발굴된 공작하(孔雀河) 유적의 세석기와 유사해서 이 유적과 비교해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 유형의 연대는 석기시대의 하한 연대로 보고 있다.²⁵

2. 신강성 이북(以北)지역

1) 카자흐스탄 아랄해 부근

기원전 4000년기 후반~2000년기 전반까지 아랄해의 서부 및 남부와 북부에



25 伊伊第利斯·阿不都熱蘇勒, 1993, 위의 글, 34~44, 50쪽.

켈테미나르 문화가 존재했다(그림 4).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잔바스-4, 대형 주거지가 확인된 톨스토프, 카바트-7 유적 등이 발굴되었다.

카바트-7 유적에서 발굴된 주거지는 타원형 주거지(그림 5-5, 6)로 크기가 30~31×18~19m 정도이다. 유사한 주거지가 확인된 잔바스-4 유적(그림 5-1)을 참고하면 이 집터는 수혈의 흔적이 거의 없는 텐트형 주거지인데, 집의 건축재인 사슴의 가죽(360~380m²)과 목재가 실제로 남아 있었다. 집의 중앙에는 돌을 두른 노지 및 그 주변의 저장구덩이 내부에서 대량 토기가 확인되었다.

토기는 저부가 약간 둥글며, 한쪽 끝이 주구처럼 형성되어 소형 토기(그림 5-32) 및 구연부가 외반하는 옹형토기(그림 5-33, 34)가 기본적으로다. 문양은 침선하거나 짙은 방법으로 시문되었고, 대체적으로 횡방향으로 구연부 부근까지만 시문되는 토기가 많다. 토기 문양 중에서 기하학적인 삼각침선문(그림 5-37) 혹은 지그재그(그림 5-34), 방형 문양(그림 5-36) 등이 시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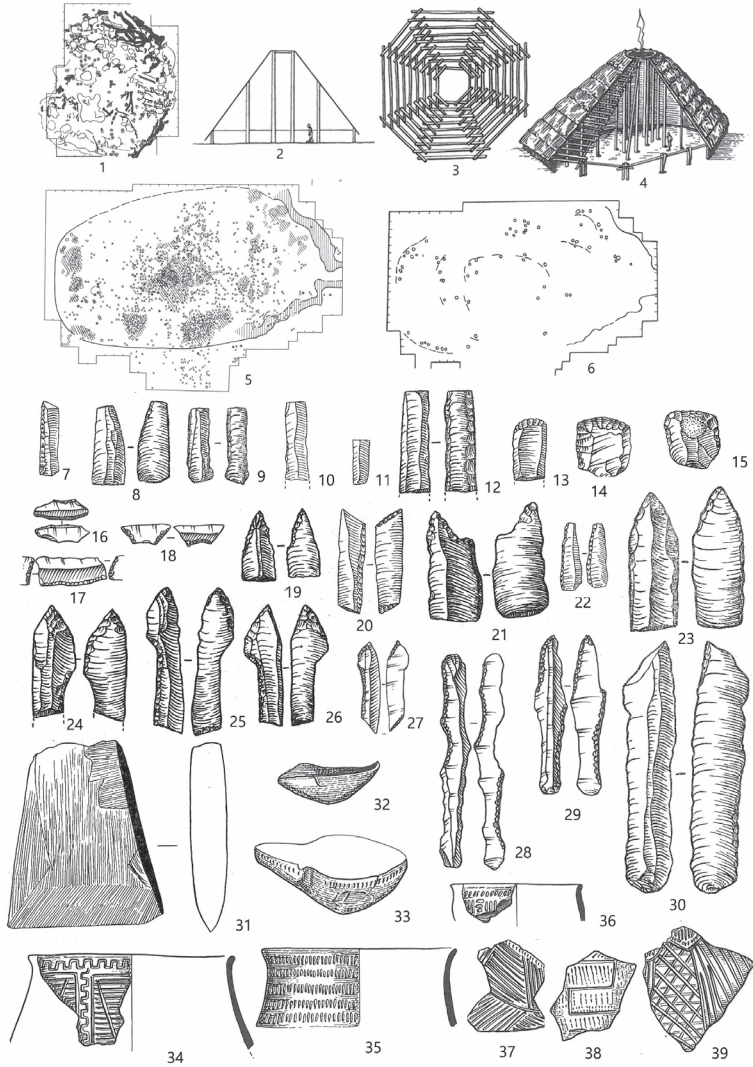
석기는 구조압제를 이용한 눌러떼기 기법으로 제작한 세석인 석기(그림 5-7~30)가 많은데, 특히 비대칭으로 가장자리를 잔손질한 경우가 많다.

석촉은 양 가장자리를 비대칭으로 떼어내는데, 한쪽은 짧게 다른 한쪽은 길게 떼어내어 한쪽만 스페(그림 5-24~27)가 생기게 했으며, 이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²⁶

세석인 석기를 이용한 유물 가운데 여러 형식의 뚜르개(그림 5-18, 21~23)가 확인되는데, 한쪽 변만 잔손질한 뚜르개(그림 5-22), 끝을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다듬은 뚜르개(그림 5-23) 등이 확인된다.

굽개 가운데는 한쪽 변을 부채꼴 모양으로 들어가게 손질한 것(그림 5-28)도 석촉(그림 5-24~27)과 함께 이 문화의 특징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평면

26 Г. Ф. Коробкова, 1969b, *Орудия труда и хозяйство неолитических племен Средней Азии*. (МИА, No. 158), Москва, Ленинград: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p. 110.



1~4: 잔바스-4 유적, 5-6: 카바트-7 유적, 7~39: 톨스토프 출토품

그림 5 아랄해 주변의 켈테미나르 문화[C. B. Ошибкина(ред), 1996 재편집]

형태 방형에 가까우며, 끝을 약간 둥글게 잔손질한 굽개(그림 5-13~15)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문화에서는 평면 형태가 사다리꼴인 양인 마제석부(그림 5-31)가 출토되었다.

2) 카자흐스탄 동부

신석기 문화는 우스티-나림 유적을 지표로 한 문화에서는 석기 및 골각기가 6만여 점이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기도 출토되지만 완형이 확인되지 않아서 토기 전모는 알 수 없다.²⁷ 다만 토기는 기벽이 얇고, 문양은 남아 있는데, 망상문, 어골문, 격자문 등으로 시베리아 바이칼 유역 및 켈테미나르 문화의 신석기 토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⁸

우스티-나림 유적에서는 구조암으로 제작된 원통형 석인석핵(그림 6-4), 원추형 석인석핵(그림 6-3), 베개형으로 양쪽에서 때어낸 석인석핵(그림 6-6), 굽개형 석인석핵(그림 6-1, 5, 9) 등 다양한 석핵석기와 석인박편으로 제작된 세 석인 석기(그림 6-7, 8)가 가장 많다. 그중 세석인은 양 가장자리를 잔손질한 것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다양한 굽개류가 많이 확인되었는데, 양 가장자리가 타원형으로 들어가며 잔손질된 것(그림 6-14)뿐만 아니라 끝부분만 부채꼴 모양으로 잔손질된 것(그림 6-10) 등도 확인되었다. 세석인 석기를 이용한 유물 가운데 끝을 뾰족하게 잔손질하고, 긴 장단의 한쪽 면만 잔손질한 석촉²⁹과 긴 변의 한쪽만 잔손질한 뚜르개(그림 6-24, 25)와 굽개(그림 6-14)가 출토된다.³⁰ 양면을 잔손질해서 때어낸 타제 석도(그림 6-15~17, 21)도 있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그림 6-21)과

27 Г. Ф. Коробкова, 1969b, 위의 책, pp. 142~143.

28 С. В. Ошибкина(ред), 1996, 앞의 책, p. 130.

29 도면은 따로 보고되지 않았으나 본고의 그림 6-19~22를 지칭한다.

30 Г. Ф. Коробкова, 1969b, 앞의 책, p.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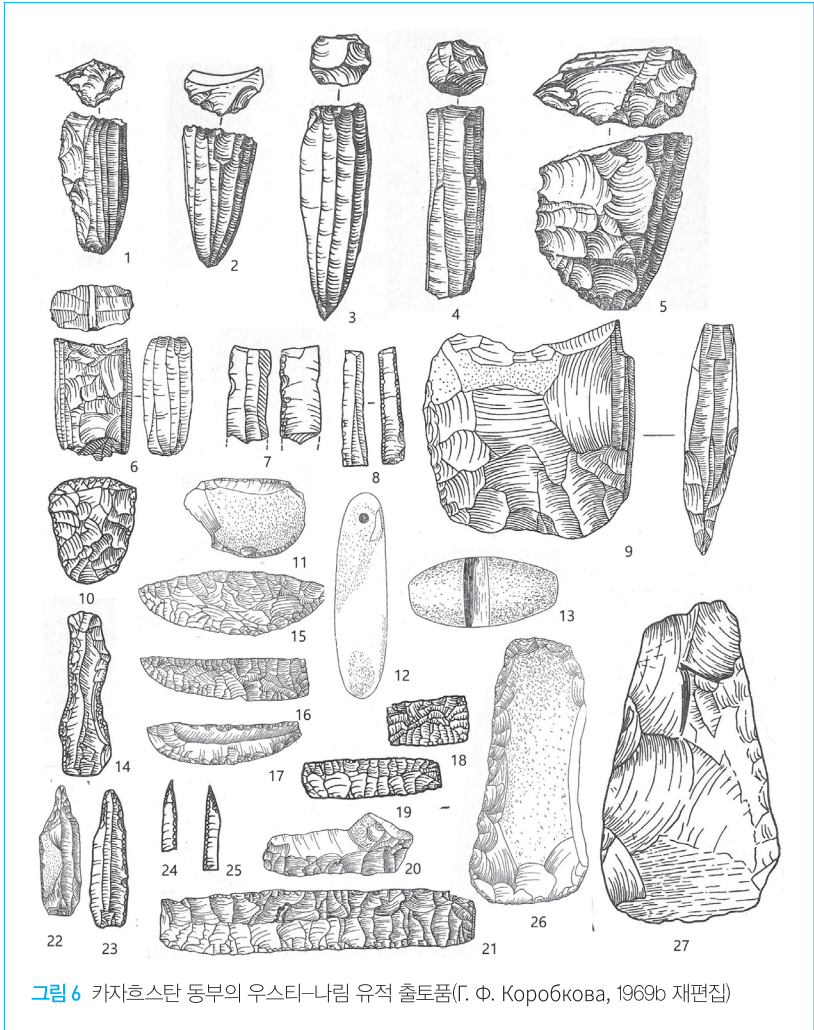


그림 6 카자흐스탄 동부의 우스티-나림 유적 출토품(Г. Ф. Коробкова, 1969b 재편집)

‘ㄱ’자형으로 굽어지게 잔손질된 것(그림 6-16, 17), 타원형(그림 6-15) 등이다. 이 외에 타제석부(그림 6-26, 27) 등도 출토되었다. 마연된 석기로는 석제 어망추(그림 6-13) 및 장타원형의 도구(그림 6-12)가 있다. 어망추는 평면 형태가 육면체에 가깝고 중앙에 홈을 낸 형태이다. 이 유적에서는 대량의 골각기가 출토

되었고, 그중 많은 양이 낚싯바늘이라고 보고되었다. 장타원형 도구는 석기 제작 시에 사용된 누르는 도구로 알려졌다.³¹

이 문화의 연대는 신석기 문화 가운데서도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하한은 기원전 2000년기 전반에 해당된다. 그런데 상한 연대는 이 유적에서 켈테미나르 문화의 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서 켈테미나르 문화의 늦은 시기인 기원전 3000년기 후반에는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³² 카자흐스탄 동부에서 이 보다 이른 신석기시대 유적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카자흐스탄 아랄해 주변의 북부에 위치한 켈테미나르 문화에서 화살촉과 뚜르개(그림 6-24, 25)가 확인되는데, 우스티-나림 문화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켈테미나르 문화의 영향이 카자흐스탄의 동부지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석인석핵 가운데서는 알타이에서 채취된 원료로 제작된 것도 있고, 양쪽 면을 떼어낸 석핵석기, 가장자리가 타원형으로 들어간 굽개, 조합식 검, 낚싯바늘 및 각종 골각기 등도 시베리아의 문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다.³³

3) 몽골

몽골은 지리적으로 바이칼 유역과 가까워 이 지역의 신석기 문화와 관련성이 많다.³⁴

몽골의 신석기시대는 대체로 2~3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기원전 4000년기(6,000~5,000년 전), 2단계는 기원전 3000년기(5,000~4,000년 전), 3단계는 기원전 2000년기(4,000~3,000년 전)로 구분하는 의견과 2단계의 문화가 순동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된다는 의견³⁵으로 구분된다.

31 Г. Ф. Коробкова, 1969b, 위의 책, pp. 154~155.

32 Г. Ф. Коробкова, 1969a, 앞의 글, pp. 39~46.

33 С. В. Ошибкина(ред), 1996, 앞의 책, p. 130.

34 А. П. Окладников, 1964, 앞의 책, pp. 39~40.

35 Э. А. Новгородова, 1989, 앞의 책, p. 63.

1단계는 석기제작소와 주거지가 확인된 솔론케르-쏘몬 유적이 있다. 원추형의 석인석핵(그림 7-2, 3), 석핵형 굽개(그림 7-1), 조합식 검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침저의 토기도 확인되었다.³⁶

2단계는 탐차크-불락 유적은 주거 유적(그림 7-5~9)으로 원뿔 형태의 석인석핵(그림 7-15), 뚜르개(그림 7-26, 27), 굽개, 한쪽 변만 잔손질된 세석인 석기(그림 7-20), 조합식 석인검(그림 7-25) 등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골각제인 화살촉과 송곳니로 제작된 장신구 등도 주거지 바닥에서 여러 점이 함께 출토되었다. 주거지 바닥에서는 무덤 4기(그림 7-6~7)가 확인되었는데, 피장자가 앉은 자세로 다리를 묶은 채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을 기준으로 탐차크-불락 문화가 설정되었다. 듀나-Ⅱ 유적에서도 유사한 유물 양상이 확인되었다. 타제석도(그림 7-34, 36), 타제석부(그림 7-37), 마제석부(그림 7-38)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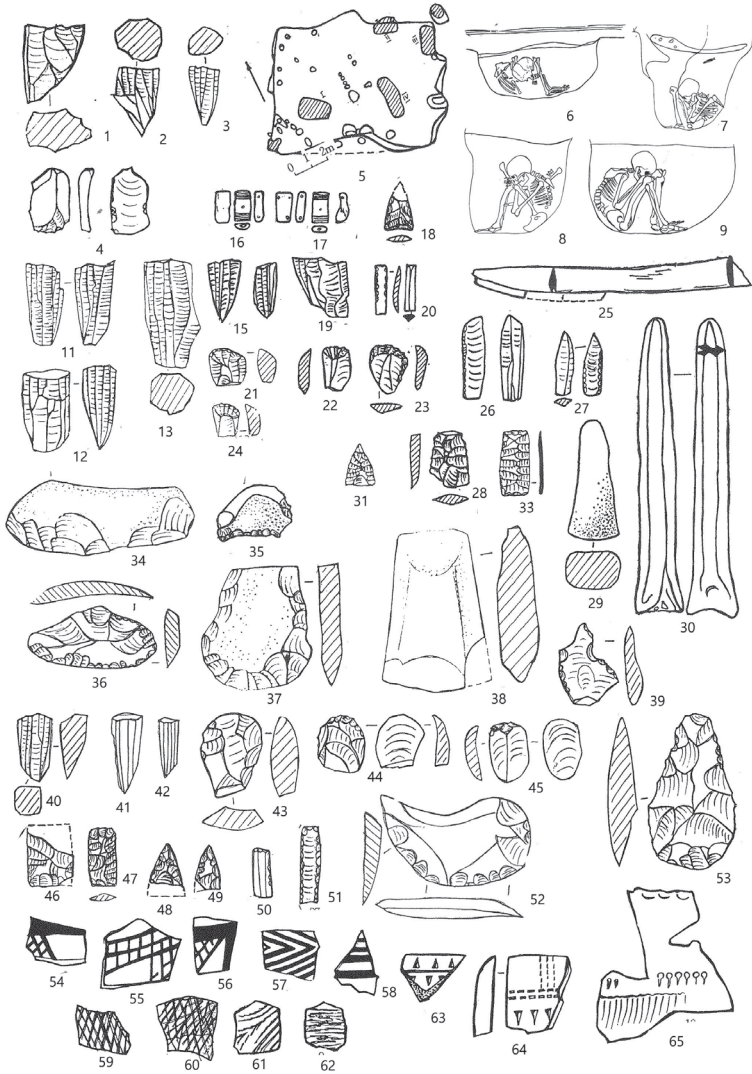
3단계는 사라바크-우스 유적의 상층이 대표적인데 탐차크-불락 문화의 유물과 거의 유사하다. 이 유적은 두 층위로 나뉘지는데, 아래층은 원추형(그림 7-40~42)과 원통형 석인석핵, 뚜르개, 끝이 둥글게 처리된 굽개(그림 7-43~45), ‘ㄱ’자형으로 처리된 타제석도(그림 7-52)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기하학적인 무늬가 침선된 그물문양(그림 7-59~60), 압인(그림 7-63~65) 등이 확인되었다. 당시 아래층은 바이칼 유역의 이사코보 문화(5000~4700 B.P.)와 비교되어서,³⁷ 2단계에 해당한다.

상층에서 석기는 하층과 유사한 바이칼 유역의 토기뿐만 아니라 채색토기(그림 7-54~58)가 확인되면서 3단계로 보았다. 투그르기인-시레트 유적에서도 비슷한 석기 양상(그림 7-53)과 채색토기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2, 3단계 유물은 3단계의 채색토기를 제외하고는 석기 및 토기 양상

36 이 시기 유적에서 침저토기가 확인되었다고 노보고르도바(Э. А. Новгородова, 1989)가 책에서 언급했지만 도면은 확인할 수 없었다.

37 А. П. Окладников, 1964, 앞의 책.



1~4: 쉘론케르-쓰문 유적, 5~9, 15~20, 23, 25~30: 탐차크-불락 유적, 11~12, 21, 24, 31, 33~34, 37~39: 두나-II, 40~52: 사바라크-우수, 53~62: 투르키안-시레트, 63~65: 케를렌강(Э. А. Новгородова, 1989 재편집)

그림 7 몽골의 신석기 문화 유물

이 거의 유사하다(그림 7-54~58). 투그르기인-시레트 유적에서 채색토기가 출토되면서 사바라크-우스 유적의 상층과 같은 3단계로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레트 지역의 듀나-II 유적의 출토품이 우스티-나림 유적과 비슷하다고 연구되었다.³⁸

4) 바이칼 유역

바이칼 유역의 신석기시대는 대체로 7,000~6,000년 전³⁹의 키토이 문화부터 5,200~4,700년 전⁴⁰ 이사코보 문화, 5,000~4,500년 전⁴¹ 세로보 문화로 변화된다. 각각 문화의 토기와 석기 양상(그림 9)에 차이가 있지만, 연속적으로 확인되는 유물은 골제와 석제를 결합해서 제작한 조합식 검(그림 10~11)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중국 신강성에서 확인되는 석촉과 석창 가운데 세로보 문화와 관련성이 있는 유물도 보인다(그림 12). 또한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에서 확인되는 시베리아의 망상문 혹은 격자문이 남아 있는 토기는 키토이 문화, 이사코보 문화, 세로보 문화에서 모두 확인된다.⁴²

세로보 문화는 앞선 문화에 비해서는 토기가 좀 더 많이 확인된다. 동체부가 둥글고 구연부로 올라갈수록 축약되었다가 다시 외반되며 저부는 원저이다. 파수가 수직으로 구연부와 저부 부근에 달리는 것도 있다. 토기 기면에는 타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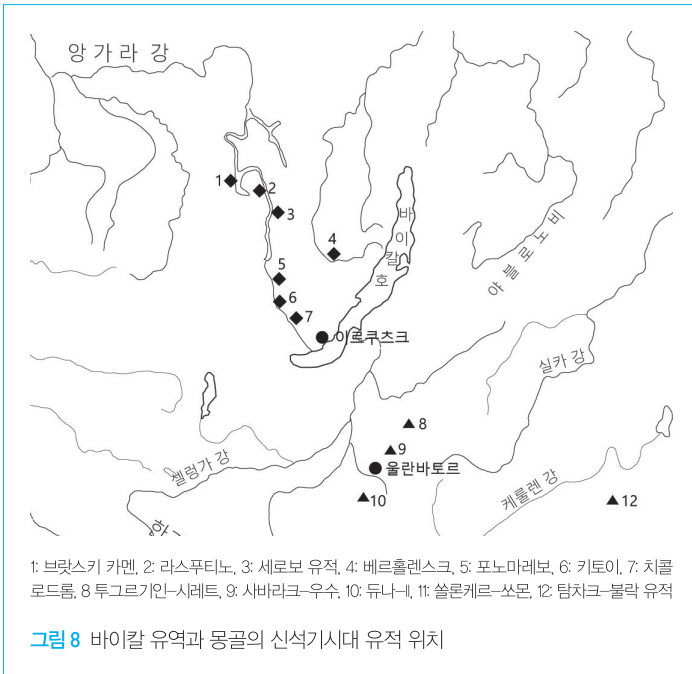
38 Э. А. Новгородова, 1989, 앞의 책, p. 60.

39 Н. Н. Мамонова, Л. Д. Сулержицкий, 1986, “Возраст некоторых неолитических и неолитиче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Прибайкалья по радиоуглеродным данны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итоги и перспективы)*, pp. 19~30.

40 О. И. Горюнова, 2002, *Древние погребения могильник Прибайкалья*, Иркут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Ирку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p. 14.

41 김재윤, 2018a, 「요서지역 소하연문화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9호, 34~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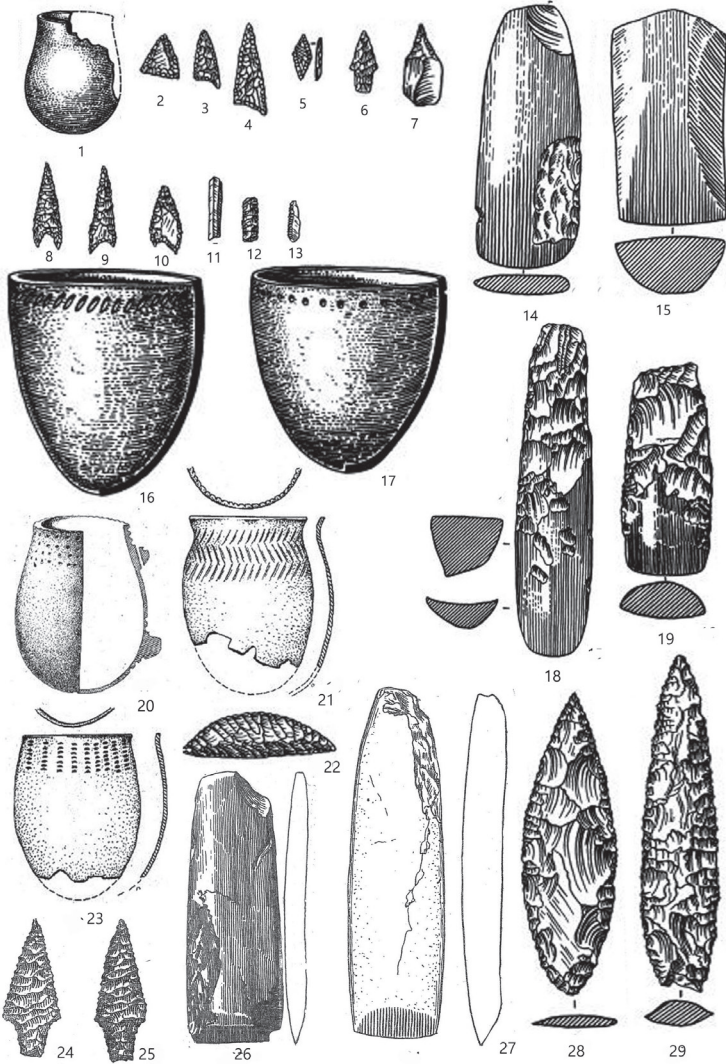
42 김재윤, 2018b, 「제2장 신석기시대」, 『북방고고학개론』, (재)중앙문화재연구원, 62~88쪽.



문 혹은 그물 흔적을 지우고 문질러서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문양도 다치구를 이용하여 눌러서 시문한 것(그림 9-22), 침선문(그림 9-21), 구순각목문(그림 9-20) 등이 있다. 그중 침선문 토기는 구연부가 외반하면서 황주어골문이 시문되었다.

석창은 전면이 타제로 제작된 것이다. 좌우 대칭이며 세장한 능형이나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횡단면은 대체로 렌즈 모양이다(그림 9-28). 가장자리에 형성된 인부는 잔손질되었다. 창 의 용도뿐만 아니라 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석촉은 경부의 모양에 따라서 오목하게 들어가 홈을 이룬 것과 일단정식(그림 9-24, 25)으로 구분된다. 이사코보 문화에 비해서 습베가 있는 것이 양이 좀 더 많으며, 석촉이 크고 무겁다.

세로보 문화는 시묘노보, 세로보 유적에서 연대가 측정되었는데 대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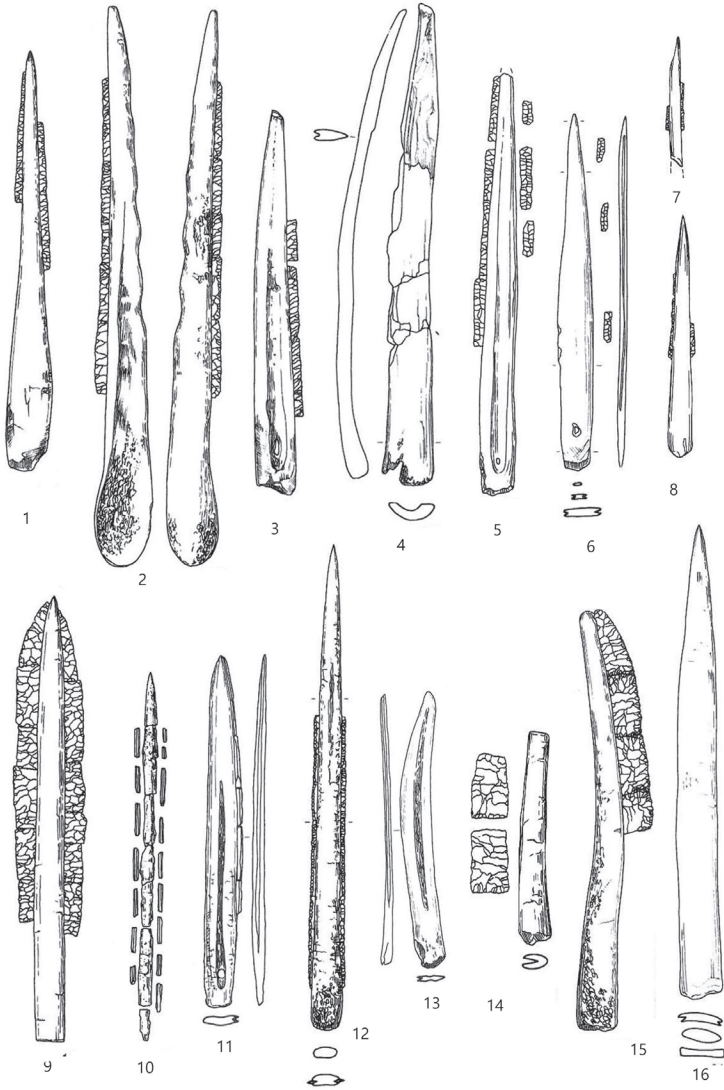


키토이 문화의 유물(1: 키토이 무덤 비트코프스키 1호, 2~7, 14: 키토이 무덤 비트코프스키 발굴 6호, 15, 22: 치클로 드롬 1950년 10호)

이시코보 문화의 유물(16: 포노마레보 11호, 17~18: 포노마레보 10호, 19: 포노마레보 12호, 23: 포노마레보 8호)

세로보 문화의 유물(24~27: 포노마레보 7호, 28: 세레드키노 1호)

그림 9 바이칼 지역의 신석기 문화 유물(김재윤, 2018b 재편집)



키토이 문화(1~4: 리스푸티노 5~6: 우스티-벨리야 69-4호, 7~8: 치클로드롬 48-3호)

이사코보문화(9: 브랏스키 카멘, 10·12·15: 포노마레보 10호, 11: 사면, 13: 사면 3, 14: 베르홀렌스크 30-4호)

그림 10 키토이 문화와 이사코보 문화의 조합식 검

5,000~4,700년 전에 존재했다.⁴³

조합식 검은 키토이 문화(그림 10-1~8), 이사코보 문화(그림 10-9~16), 세로보 문화(그림 11)에서 모두 확인된다. 키토이 문화에서는 양면을 떼어낸 석기를 골재와 조합한 조합식 검(그림 10-1~8)도 출토된다. 이사코보 문화에서는 조합식 검(그림 10-9~12, 16)뿐만 아니라 구부러진 뼈를 이용한 조합식 검(그림 10-13~15)도 확인되는데, 앞선 키토이 문화에서는 볼 수 없었다.

IV. 신강성 '석기시대'의 문화범위와 교류지역

1. 4,500년 전 신강의 문화범위

앞서 살핀 지역에서 신석기시대의 시작 연대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표 1). 그런데 중국 신강성과 인접한 지역에서 공통적인 문화 양상을 보이는 시점은 4,500년 전부터이다(그림 11).

중국 신강 3유형과 몽골 1단계는 5,500년 전쯤에 해당되는데, 원통형 및 원추형 석인석핵이 출토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내용이 빈약하며, 각 지역에서 뒤를 잇고 있는 신강 4유형, 몽골 2단계의 유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5,500년 전쯤에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강 4유형이 되면 카자흐스탄 동부의 우스티-나림 문화와 몽골의 신석기시대 2단계는 아주 유사한 유물 조합을 보인다(그림 11). 원통형(그림 11-2, 5)과 원뿔형 석인석핵(그림 11-1, 4), 석핵형 굽개(그림 11-3, 13)는 이들 지역에서 모두 확인된다.

시모노프는 원통형과 원뿔형 석인석핵은 구조암을 눌러떼기 방법으로 석인을 잘라내는 가운데 생기는 것으로 구석기시대에는 부정형이다가 신석기시대가

43 김재윤, 2018a, 앞의 글, 34~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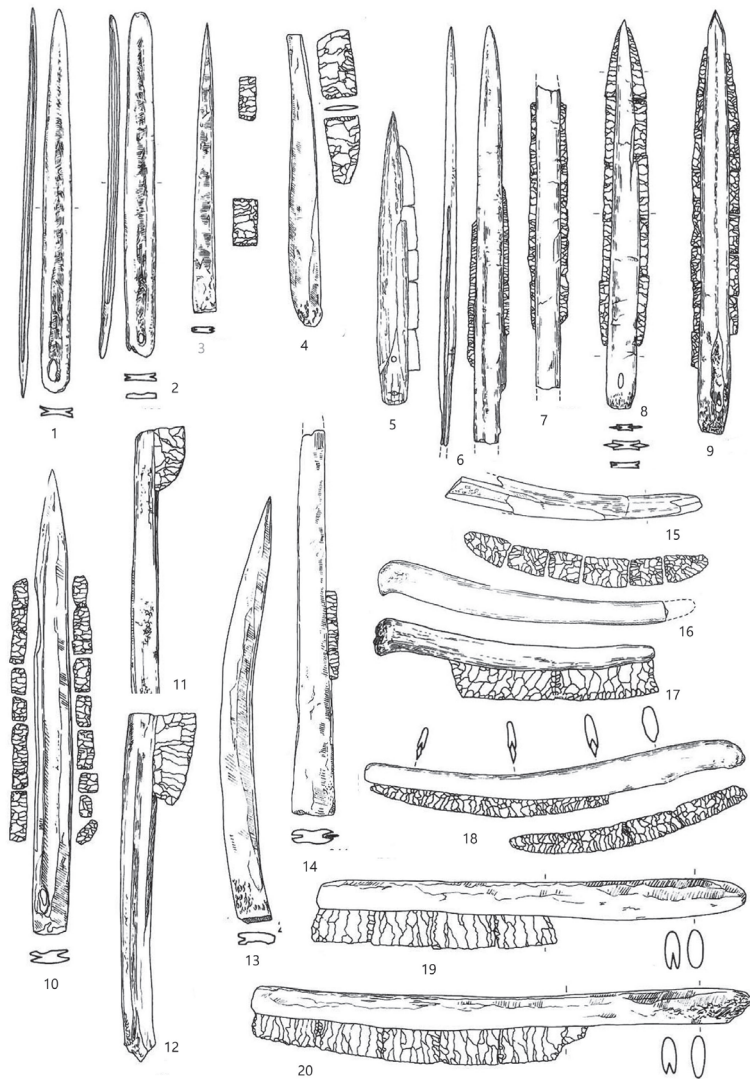
〈표 1〉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아랄해 주변	카자흐스탄 동부	신강	몽골	바이칼
7000 (기원전 5000)					키토이
6000 (기원전 4000)					
5000 (기원전 3000)	켈테미나르 문화	우스티-나림 문화	3유형	1단계	이사코보 세로보
4000 (기원전 2000)			?	2단계	순동시대 글라스코보 문화
3000		순동시대	순동기? 청동기?	3단계 순동시대	

되면서 고착되는 것으로 보았다.⁴⁴ 끝이 둥글게 처리된 굽개는 석인 기법을 이용한 석기로서 신강의 4유형(그림 11-11, 12)과 우스티-나림(그림 11-10) 문화, 몽골 2단계(그림 11-13), 3단계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 외에 석도는 세 지역에서 확인되는데, 인부가 직인으로 ‘ㄱ’자형 석도(그림 11-16, 18, 22) 및 반타원 형에 가까운 석도(그림 11-15, 19)가 우스티-나림 문화와 신강 4유형, 몽골 3단계에서 확인된다. 마연된 어망추(그림 11-23, 24)와 장타원형의 석인 제작 도구(그림 11-25, 28)는 우스티-나림 문화와 신강 4유형에서 같은 형태의 것이 각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우스티-나림 문화와 몽골에서는 유사한 타제석부(그림 11-29, 30)가 확인되며, 몽골과 신강에서는 마제공이(그림 11-40, 42)도 출토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모두 켈테미나르 문화의 흔적이 확인된다. 석

44 C. A. Семенов, 1968, Развитие техники в каменном веке,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pp. 46~51.



1~2: 세로보 93-1호, 3: 베르홀렌스크 7호, 4: 베르홀렌스크 33-2호, 5: 포노마레보 76-1호, 6: 포노마레보 13호, 7: 베르홀렌스크 8호, 8~9: 세레노 57-10호, 10: 세로보 유적, 11: 베르홀렌스크 11호, 12: 세로보 8호, 13: 세로보 11호, 14: 베르홀렌스크 39호, 15~16: 올훈 75-3호, 17: 세레노 55-7호, 18: 세로보 유적, 19~20: 세로보 16호

그림 11 세로보 문화의 조합식 검

인 가운데 한쪽 변만 잔손질해서 다른 쪽보다 길게 처리한 푸르개(그림 11-33)는 우스티-나림 문화(그림 11-36), 신강, 몽골(그림 11-41) 모두에서 확인된다. 또한 켈테미나르 문화의 석촉(그림 11-33)도 신강 4유형(그림 11-36)에서 보인다. 평면 형태 사다리꼴인 켈테미나르 문화와 유사한 형식의 마제석부가 신강(그림 11-40), 몽골(그림 11-42)에서 출토되었다.

한편 바이칼 유역의 석기는 타제석창(그림 11-45)과 유경식 석촉(그림 11-46~47)이 신강 유역(그림 11-43~44)에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우스티-나림 문화에서는 시베리아에서 가져온 석재로 제작된 석인석핵 및 골각기 가운데 낚싯바늘, 납작한 석기, 조합식 검이 시베리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⁵

또한 몽골에서는 바이칼 유역의 토기 및 조합식 검이 바로 북쪽에 위치한 바이칼 지역에서 영향을 받았다.⁴⁶

따라서 카자흐스탄 동부~신강~몽골은 석기 양상으로 보아서 한 문화권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시점은 4,500년 전부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몽골, 카자흐스탄 동부, 신강지역에서 좀 더 이른 시기의 유적이 확인된다면 그 시기는 더 빠를 수도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바이칼 유역 및 카자흐스탄 동부보다 서쪽인 켈테미나르 문화와의 관련성도 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1).

필자가 이 지역을 고고문화보다 좀 더 큰 의미인 문화권으로 설정한 것은 주거 양상 및 토기 때문이다. 토기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스티-나림 문화에서는 시베리아 신석기 토기와 인접한 켈테미나르 문화의 토기가 확인된다.⁴⁷ 신강지역은 시베리아 토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채색토기가 출토되며,⁴⁸ 몽골 3단계에도 채색토기(그림 7-54~58), 시베리아 토기(그림 7-59~65)가 있다. 만약 신강 4유형에 망상문 토기, 침저토기 등 시베리아 토기

45 C. B. Ошибкина(ред), 1996, 앞의 책, p. 130.

46 Э. А. Новгородова, 1989, 앞의 책, pp. 70~73.

47 C. B. Ошибкина(ред), 1996, 앞의 책, p. 130.

48 伊第利斯·阿不都熱蘇勒, 1993, 앞의 글, 15~59쪽; 宋亦簫, 2010, 앞의 글, 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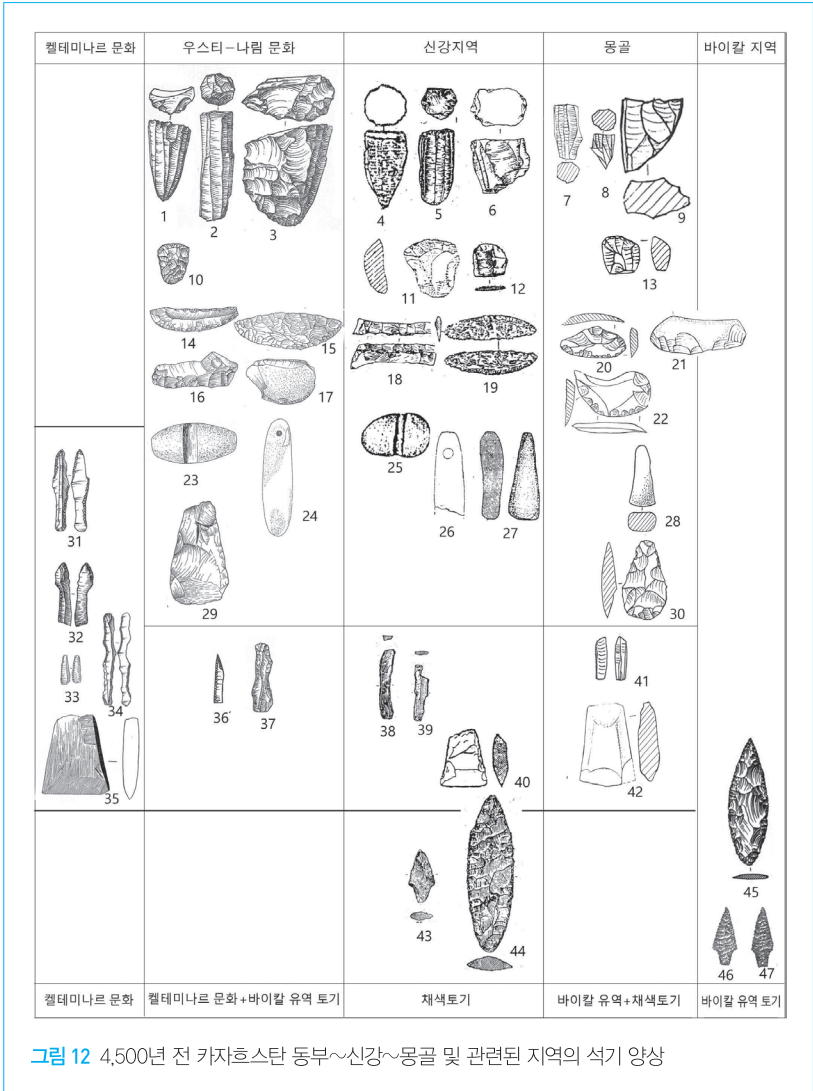


그림 12 4,500년 전 카자흐스탄 동부~신강~몽골 및 관련된 지역의 석기 양상

가 확인되었다면 몽골 3단계와 이 지역이 켈테미나르 문화의 영향을 받은 카자흐스탄 동부에 비해서는 더 유사한 지역일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 양상은 카자흐스탄의 켈테미나르 문화(그림 4) 및 우스

티-나림 문화가 텐트형 주거식⁴⁹인 것에 비해서 주거지가 확인된 몽골은 수혈식(그림 7-5)이다. 즉, 석기 양상은 같은 문화권으로 보이지만, 주거 양상이나 토기 양상에서는 신강지역과 몽골이 더 관련성이 깊다.

2. 조합식 석인검의 존재

신강의 4유형, 우스티-나림 문화, 몽골 2~3단계는 거의 유사한 석기 양상을 보인다. 특히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구조암을 눌러떼기 기법으로 만든 석인(그림 14)이다. 이는 가장자리가 양면 혹은 한 변만 잔손질되었는데, 조합식 석인검의 부속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조합식 석인검은 주로 동물의 뼈나 목재를 이용해서 홈을 내어 세석인을 끼워서 만드는 제품이다(그림 13). 다른 물질을 조합해서 제작하는 검과 아이디어는 같지만 양면떼기를 한 장방형 석기를 끼워 넣는 것이 있는데,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조합식 석인검이 아니라 조합식 검⁵⁰(그림 14-24~29)이다.

전자는 시베리아에서는 후기 구석기시대 초르노오제로 유적에서 확인되었고,⁵¹ 후자는 신석기시대(10~11) 및 순동시대인 글라스코보 문화까지 존재했으며, 그 뒤에 청동기시대 청동검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용했다. 바이칼 지역의 신석기 문화에서는 주로 조합식 검이 출토되고, 신강 및 인접한 지역은 조합식 검과 조합식 석인검이 모두 출토된다(그림 14).

주로 시베리아에서는 완제품이 무덤에서 그대로 확인되기도 하지만 뼈 혹은 목재와 석인이 오랜 시간 흠속에 매장되었던 탓에 분리되어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49 C. B. Ошибкина(ред), 1996, 앞의 책, p. 129.

50 중국에서는 이를 석인골병도 혹은 석인골병검이라고 부른다. 주로 요서지역 소하연 문화에서 출토된다. 본고에서 이를 조합식 검으로 하는 이유는 병부는 골재뿐만 아니라 목재로도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51 П. И. Борисковский(ред), 1994, *Палеолит СССР*, Москва: НАУКА, pp. 309~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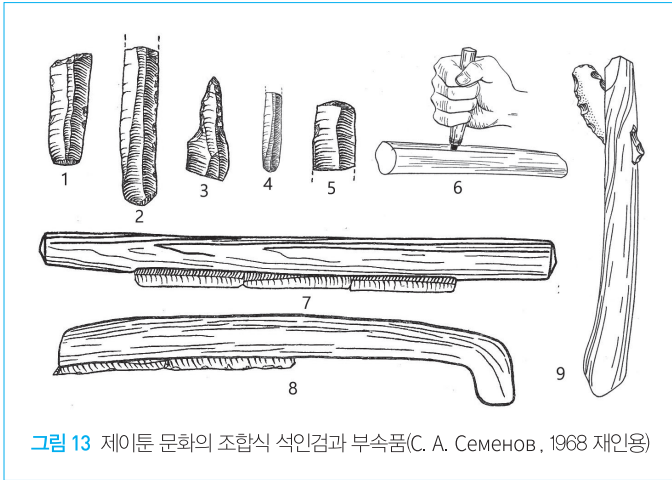


그림 13 제이툰 문화의 조합식 석인검과 부속품(C. A. Семенов, 1968 재인용)

시모노프는 일반적인 석인 외에 뚜르개(그림 13-3)도 조합식 검을 제작할 때 뼈에 홈을 내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합식 석인검의 재료로 보았다(그림 13). 카자흐스탄의 켈테미나르 문화, 우스티-나림 문화, 시베리아 지역의 조합식석인검이 확인되는 유적에서 뚜르개는 함께 확인된다(그림 14-16~22).

신강 4유역에서도 석핵석기 및 비슷한 크기의 석인이 여러 유적에서 확인 되는데, 이 유물은 단독으로 사용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강에서는 실제로 조합식 검과 조합식 석인검의 출토 여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부속품(그림 14-8~10, 20)은 출토되기 때문에 조합식 석인검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스티-나림 문화와 몽골의 2, 3유형에서 확인되는 조합식 검 혹은 조합식 석인검이 시베리아 바이칼 유역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⁵²가 언급했으나 그 시기 및 종류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52 C. B. Ошибкина(ред), 1996, 앞의 책, p. 130; Г. Ф. Коробкова, 1969b, 앞의 책, pp. 168~170; Э. А. Новгородова, 1989, 앞의 책, pp. 6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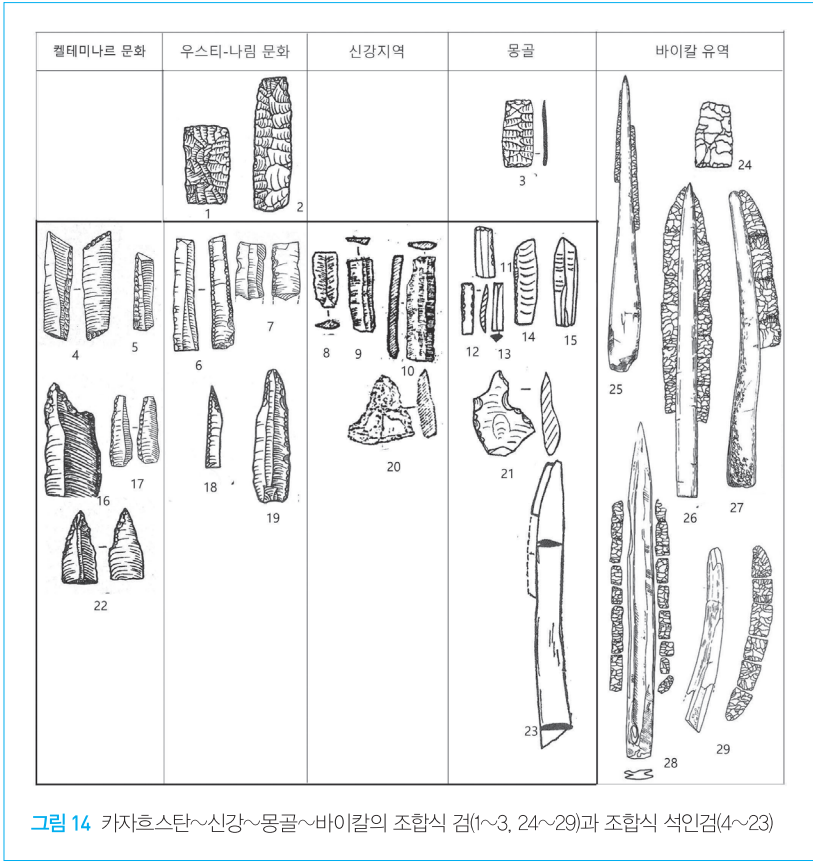


그림 14 카자흐스탄~신강~몽골~바이칼의 조합식 검(1~3, 24~29)과 조합식 석인검(4~23)

바이칼 유역의 신석기 문화인 키토이·이사코보(그림 11)·세로보 문화(그림 12)의 조합식 검은 세석인 석기를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납작하게 전면을 잔손질한 장방형 석기(그림 14-1~3)를 끼워 넣은 것이다.

실제로 몽골에서는 시베리아의 조합식 검과 세석인 석기를 끼워 넣은 조합식 석인검이 함께 출토되며, 카자흐스탄 동부에서도 확인된다. 신강에서는 양 지역과 석기 양상이 유사하고 조합식 석인검과 조합식 검의 부속품이 출토된다. 시베리아에서 몽골을 걸쳐서 카자흐스탄 동부까지 그 문화가 영향을 주었다면

신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즉, 4,500년 전 신강과 인접한 지역은 앞서서 분석한 석기 양상(그림 12) 외에도 조합식 검과 조합식 석인검(그림 14)을 공유한 사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강 및 카자흐스탄 동부, 몽골에서 확인되는 세석인 석기를 조합한 검은 어디서 유래된 것인가?

만약 시베리아의 신석기시대 유물이 들어왔다면, 조합식 검으로 양면떼기를 한 석기를 끼워 넣은 제품(그림 14-1~3)일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경우는 시베리아에는 후기 구석기시대(그림 14-1~4)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훨씬 이전에 제작 아이디어가 이 지역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유물은 카자흐스탄 켈테미나르 문화(그림 14-4, 5, 16~17, 22)에서 확인되며, 보다 서쪽에 위치한 카스피해 부근의 8,000년 전 제이툰 문화(그림 13)에서도 다량의 세석인 석기와 함께 조합식 석인검이 확인된다. 특히 카자흐스탄 아랄해 주변과 카스피해 부근에서는 시베리아 신석기시대 조합식 검(그림 14-24~29)이 보이지 않고, 시베리아 신석기시대 토기도 보이지 않는다. 시베리아의 영향이 없는 가운데 조합식 석인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신강성 지역 및 인접한 카자흐스탄 동부, 몽골에서 확인되는 시베리아 조합식 검과 조합식 석인검은 각 지역에서 켈테미나르 문화의 평면 형태 사다리꼴의 전면마제석부, 석촉 등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세석인 석기로 조합된 조합식 석인검(그림 14-4~22)도 앞서 분석한 석기 양상(그림 11)과 함께 중앙아시아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 볼 수 있다.

3. 신강성 ‘석기시대’ 개념의 문제점

중국에서는 신강의 청동기시대 이전을 ‘석기시대’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이 지역의 세석기 문화는 중국 세석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⁵³ 특히 감숙성과 영하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토기가 상당히 발달한 문화인데, 만

약 신강지역의 세석기가 그 지역에서 기원했다면, 그 지역 토기 양상이 신강지역에서 파악되지 않는 점은 그들 연구의 모순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국 중심의 연구 관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지역에서 세석기가 늦게까지 존재했다는 이유로 단순히 석기시대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스티-나림 유적에서는 16만여 점의 골각기와 석기가 출토되었다. 이를 ‘석기시대’로 단순화할 수 있을까? 중국 신강성과 같은 문화권을 이룬 카자흐스탄,⁵⁴ 몽골,⁵⁵ 시베리아 학계에서는 신석기시대⁵⁶ 개념을 사용한다. 즉, 이 지역은 4,500년 전부터 석기 양상이 유사하지만, 각 국가별로 연구되면서 시대 개념에 차이가 있다. 문화권별로 연구되었다면 좀 더 적합한 개념에 접근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가 동아시아 신석기시대의 개념을 토기 사용이 빈번하지 않는 중앙아시아와 비교하면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및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신석기시대는 토기 등장을 기준으로 한다. 신석기시대에 대해 러복(J. Lubbok)(1865)은 작물 재배, 동물 길들이기, 토기 발명을 시대 개념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고든 차일드(V. Gordon Childe)는 농경을 기본으로 한 ‘신석기 혁명’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시베리아 및 극동의 신석기시대를 조사한 오클라드니코프는 고든 차일드의 신석기 혁명이라는 개념이 동아시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⁷

53 羊毅勇, 1982, 앞의 글, 113~120쪽; 宋亦箫, 2010, 앞의 글, 4~9쪽.

54 С. С. Черников, 1970, *Восточный Казахстан в Эпоху Неолита и бронзы*, Москва: автореф. дис. ... докт. ист. наук.; Г. Ф. Коробкова, 1969b, *Орудия труда и хозяйство неолитических племен Средней Азии*. (М ИА, No. 158), Москва, Ленинград: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pp. 192~199.

55 А. П. Окладников, 1964, 앞의 책; Э. А. Новгородова, 1989, 앞의 책, pp. 57~58.

56 С. В. Ошибкина(ред), 1996, 앞의 책, pp. 87~133.

57 А. П. Окладников, Е. И. Дервянко, 1973, *Далекоё прошлое Примо*

최근 전통적인 신석기시대 개념을 반박하는 주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토기의 발생 시기는 후기 구석기시대이고 동아시아에서부터 발명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자료로서 13,000년 이상 올라가는 유적이 있는 곳은 아무르 강 하류, 일본, 중국(그림 15) 등이고, 17,000년 전 홀로세 이전부터 동아시아 유적에서 출토된 예도 있다. 기원지는 새로운 발굴로 바뀔 수 있지만, 신석기시대의 기준이 된 홀로세(전신세) 이후에 토기가 발명된 것이 아니라 이미 플라이스토세의 사냥채집민(후기 구석기인)들에 의한 것이다.⁵⁸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토기가 모든 지역에서 균일한 시점에 발생되지 않았으며, 신석기시대 개념의 기준이 된 유럽 및 근동보다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빨리 토기가 발명되었다는 점이다⁵⁹(그림 15).

따라서 토기 등장을 기준으로 한 신석기시대 개념은 유럽, 근동, 중앙아시아 등과도 다른 동아시아 특유의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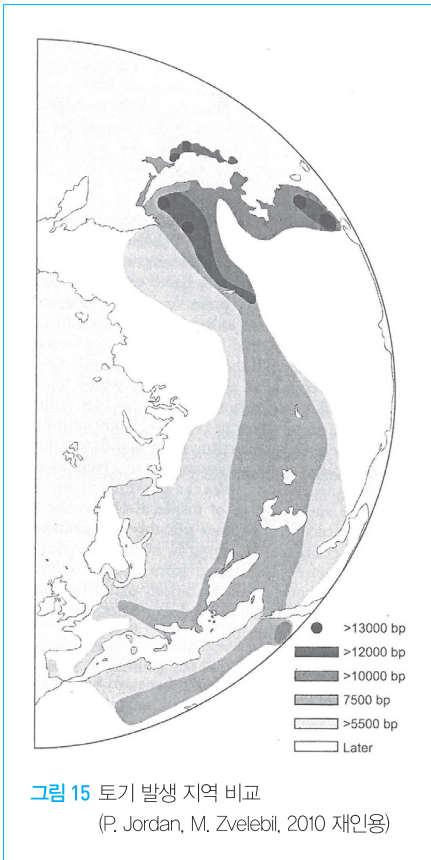
그렇다면 카자흐스탄 동부, 중국 신강, 몽골의 4,500년 전 지역은 토기 발생 혹은 토기 사용을 근거로 한 동아시아의 신석기시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중국 신강지역이 동북아시아와는 다른 선사문화권임을 증명한다.

우스티-나리 유적에서 보이는 유물의 양상은 토기 사용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거나 토기를 대신하는 다른 저장 도구나 조리 도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선사시대 연구에서 토기는 시대 및 시기 구분, 지역성 등 모

рья и Приамурья, Владивото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pp. 130~132

58 P. Jordan, M. Zvelebil, 2010, "Ex Oriente Lux: The Prehistory of Hunter-Gather Ceramic Dispersals", *Ceramic before farming: the dispersal of pottery among prehistoric Eurasian hunter-gathers*. London: Publications of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University College London, pp. 31~89.

59 17,000년 전 이상 올라가는 중국의 데이터 신뢰에 문제가 있어 이를 제외하더라도, 유럽과 근동을 기준으로 한 신석기시대 개념이 생기게 된 지역보다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토기가 빨리 확인된다.



든 연구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⁶⁰ 중앙아시아에서는 이 점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석기 양상이 이 지역의 특징을 대변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본고의 연구 대상 시대 이후에는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도 주요한 유적의 성격이 무덤이라는 점에서 의례⁶¹중심의 사회이다. 또한 동아시아보다 일찍 금속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청동기시대 카라숙 문화에서 본격적으로 청동검이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세 번에 걸쳐 제국을 형성하지만 근대 중국의 대포에 의해서 제국이 굴복되었다⁶²는 점은 곧 무기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기는 이 사회를 대변하는 유물로 볼 수 있는데,

4,500년 전 조합식 석인검과 조합식 검은 이 사회를 대변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의 청동기시대, 초기 철기시대 스키타이 문화권 등으로 이어지는

60 이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동아시아 관련 고고학 논문의 주제는 토기와 관련된 것이 많다. 필자의 그간 연구도 그렇다.

61 강인욱, 2018, 「사카 황금문화의 확산과 고대 실크로드의 형성」, 『카자흐스탄 초원의 황금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80~305쪽.

62 정재훈, 2016, 『돌궐유목제국사』, 사계절, 17쪽.

문화에서 청동검이 등장하기 이전에 특징적인 유물로서 유목사회의 연속성⁶³이 무기에서도 관찰된다고 볼 수 있다.⁶⁴

조합식 석인검과 조합식 검의 분포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 시베리아의 세로보 문화 및 글라스코보 문화에서 확인되는 조합식 검은 가장 동쪽 분포범위가 요서지역의 소하연 문화⁶⁵까지 확인된다(김재운, 2018b). 이 문화의 조합식 검도 양면떼기를 한 석기를 끼워 넣었다.

따라서 중국 신강의 석기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는 4,500년 전쯤에 동아시아 보다는 검의 형태를 갖춘 유물이 일찍 확인되고, 석기와 골각기가 주된 유물이며, 토기가 주요하게 사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개념과 맞지 않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 내의 문화보다는 오히려 인접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유라시아 초원사회의 개념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63 A. M. Хазанов, 2002, *Кочевники и внешний мир*, Изд. 3-е, доп. — Алматы: Дайк-Пресс, pp. 174~216. 하자노프의 책은 소련 붕괴 이후 2002년 알마티에서 러시아어문이 출판되었고, 유학 당시에 알게 되었다. 서문에는 1979년에 책을 케임브리지 출판사로 전달했고 1984년에 영문판으로 먼저 출간되었음을 알렸다. 당시 소련의 정치 및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책은 소련에서 출판될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A. M. Хазанов, 2002). 『유목사회의 구조』(하자노프, 김호동 역)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는데, 후에 한국어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64 A. И. Соловьёв, 2003, *Оружие и доспехи: Сибирское вооружение: от каменного века д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пресс, pp. 12~15. 솔로비요프는 조합식 석인검과 석촉, 석창이 무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확인되지만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후기 구석기시대에 수렵채집민들에게 필요한 1인당 생활공간은 20km²이고, 전기 구석기시대의 인류수가 대략 50만 명가량이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후기 구석기시대는 300만 혹은 그보다 몇 배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해도 도구를 이용한 접촉 정도는 있었지만, 그 사회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65 요서지역에서 조합식 검은 소하연 문화보다 더 이른 시기에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고찰은 별도로 필요하다.

V. 맺음말

이 글은 천산산맥을 매개로 한 신강지역 및 카자흐스탄 동부, 몽골 지역은 조합식 석인검과 시베리아의 조합식 검을 공유하던 사회라는 결론을 도출해서 ‘석기 시대’라는 용어로 폄하되는 후진성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중국 신강성과 인접한 지역의 자료를 비교했고, 그 결과 현재로서는 4,500년 전 이후로 인접한 카자흐스탄 동부 및 몽골과 석기 양상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시베리아의 신석기시대 세로보 문화 및 카자흐스탄 아랄해 주변의 켈테미나르 문화의 유물도 확인되어 고립된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 신강성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몽골이 같은 문화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천산산맥을 매개로 한 자연입지 때문인데, 석기 양상으로 보아서 유사한 생업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기 가운데는 조합식 석인검도 확인되는데, 이 지역의 특징적인 유물이다.

또한 최근 연구는 토기를 기준으로 한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개념을 이 지역에 대입할 수 없다. 4,500년 전 중국 신강성과 같은 유물 구성이 확인되는 카자흐스탄 동부의 우스티-나림 유적에서 출토된 16만여 점의 유물 가운데 토기는 불과 몇 개의 편뿐이다. 이 지역이 후진해서가 아니라 토기가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토기를 기준으로 한 신석기시대는 동북아시아의 특유 개념이며, 중국 신강성 및 인접한 지역은 동북아시아와는 다른 문화권으로서 유라시아 초원 사회와 비교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인옥, 2018, 「사카 황금문화의 확산과 고대 실크로드의 형성」, 『카자흐스탄 초원의 황금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재윤, 2017, 『접경의 아이네티티:동해와 신석기문화』, 서경출판사.
- _____, 2018a, 「요서지역 소하연문화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9호.
- _____, 2018b, 「제2장 신석기시대」, 『북방고고학개론』, (재)중앙문화재연구원.
- 북천박물관, 2003, 『기술의 발견』, 북천박물관.
- 정재훈, 2016, 『돌궐유목제국사』, 사계절.
- 宋亦簫, 2010, 「新疆石器時代考古文化探論」, 『西部考古』 第4輯.
- 羊毅勇, 1982, 「新疆木壘縣四道溝遺址」, 『考古』 2期.
- 吳震, 1964, 「新疆東部的几處新石器時代遺址」, 『考古』 7期.
- 王炳華, 1985, 「新疆細石器遺存初步研究」, 『干旱區新疆第四紀研究論文集』,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 伊第利斯·阿不都熱蘇勒, 1993, 「新疆地區細石器遺存」, 『新疆文物』 4期.

영어

- Jordan, P., Zvelebil, M., 2010, “Ex Oriente Lux: The Prehistory of Hunter-Gather Ceramic Dispersals.” *Ceramic before farming: the dispersal of pottery among prehistoric Eurasian hunter-gathers*. P. Jordan, M. Zvelebil ed. London: Publications of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University College London.
- Nelson, N. C., 1926, “Prehistoric Archaeology of the Gobi”, *Desert-American Museum Novitates*. No. 222.
- Teilhard de Chardin, P., 1939, “On the presume existence of a worldwide Sub-Arctic cheet of human culture at the dawn of the neolithic-”, 『地質學報』 3期.

서양어

- Борисковский, П. И.(ред), 1994, *Палеонт СССР*, Москва: НАУКА.
- Горюнова, О. И., 2002, *Древние погребения могильник Прибайкалья*, Иркут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Ирку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Коробкова, Г. Ф., 1969a, “К вопросу о хронологии кетельминарской культуры”, *История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Узбекистана*.
- _____, 1969b, *Орудия труда и хозяйство неолитических племен Средней Азии*, (МИА, No. 158), Москва, Ленинград: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 Кольцов, Л. К.(Ор), 1989, *Мезолит СССР*, Серия: Археология СССР, [Т. 2] Москва: НАУКА.
- Мамонова Н.Н., Сулержицкий Л.Д. 1986, “Возраст некоторых неолитических и ненеолитиче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Прибайкалья по радиоуглеродным данны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тоги и перспективы)*.
- Новгородова, Э. А., 1989, *Древняя Монголия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хронологии 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Москва: НАУКА.
- Семенов, С. А., 1968, *Развитие техники в каменном веке*,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 Соловьёв, А. И., 2003, *Оружие и доспехи: Сибирское вооружение: от каменного века д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пресс.
- Формозов, А. А., 1977, *Проблемы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каменного ве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СССР*, Москва: Наука, p. 119.
- Логвин, А. В. 2002, *Стоянка маханджарской культуры Екидин 24 на юге Торгайского прогиба*, Алматы: Изв. М-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есп. Казахстан, Сер. обществ. наук. No. 1.
- Окладников, А. П., 1964, *Первобытная Монголия - К вопросу древнейшей истории Монголия*, УБ.
- Окладников, А. П. Деревянко, Е. И., 1973, *Далекое прошлое Приморья и Приамурья*, Владивото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 Ошибкина, С. В. (ред.), 1996, *Неолит Северной Евразии*, Москва: НАУКА.
- Хазанов, А. М., 2002, *Кочевники и внешний мир*, Изд. 3-е, доп. — Алматы: Дайк-Пресс.
- Черников, С. С., 1970, *Восточный Казахстан в Эпоху Неолита и бронзы*, Москва: автореф.дис. ... докт.ист.наук.
- Черников, С. С., 1975, “К вопросу о хронологических периодах в эпоху ранних кочевников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материалам Восточ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Первобытная археология Сибири,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 Шевнина, И.В. 2012, “Гончарство Маханджарско культуры”, *Вестник археолог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No. 2(17).

4,500년 전 중국 신강성 ‘석기시대’의 문화범위와 교류지역

— 인접한 카자흐스탄, 몽골, 바이칼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

김재윤

중국 신강성의 신석기 문화는 중원지역과 비교되면서 ‘석기시대’라는 용어로 정의되었다. 그런데 4,500년 전 이후부터 신강성의 석기시대 4유형, 카자흐스탄의 우스티-나림 문화, 몽골 2~3단계에서는 ‘ㄱ’자형 석도, 반타원형에 가까운 석도가 세 지역에서 확인된다. 이 외에 마연된 어망추와 장타원형의 석인 제작 도구는 카자흐스탄 우스티-나림 문화와 신강 4유형에서, 타제석부는 우스티-나림 문화와 몽골, 마제공이는 몽골과 신강지역에서 유사한 유물이 추출된다.

또한 바이칼 유역의 특징적인 타제석창과 유경식 석촉이 중국 신강성 및 인접한 지역에서 확인된다. 카자흐스탄의 동부에서는 시베리아에서 가져온 석재로 제작된 석인석핵 외에 납작한 석기, 조합식 검, 골각기 가운데 낚싯바늘이 바이칼 지역과 관련성이 높다. 몽골에서는 이 지역 신석기 문화의 토기 및 조합식 검이 바로 북쪽에 위치한 바이칼 지역과 관련성이 높은 유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조합식 검 혹은 조합식 석인검은 중국 신강성에서 분리되어 석인과 제작 도구가 확인되는데 이는 시베리아 혹은 카자흐스탄의 켈테미나르 문화에서 이

들 지역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동부~신강~몽골은 석기 양상으로 보아서 한 문화권을 이루고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자료로는 4,500년 전부터로 볼 수 있다. 중국 신강성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몽골이 같은 문화권을 이루고 교류지역으로 형성된 것은 천산산맥을 매개로 한 자연입지 때문이다. 석기 양상으로 보아서 유사한 생업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신석기시대의 개념은 토기 등장을 기준으로 한 개념에 대한 변화가 있다. 그렇다면 4,500년전 중국 신강성은 인접한 지역의 문화와 비교해볼 때 ‘석기시대’라는 용어로는 설명될 수 없다.

주제어: 중국 신강성, 카자흐스탄, 몽골, 4,500년 전, 문화권, 석기, 조합식 석인검, 천산산맥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Stone Age in Xinjiang Province of China: A Comparison with Kazakhstan, Mongolia and the Baikal Region in 4,500 Years Ago

Kim Jaeyoun

The Neolithic Era of Xinjiang Province, China is defined as “the stone age” due to the absence of potteries being excavated there compared to its neighboring areas. Stone implements of eastern Kazakhstan and Mongolia have been similar since approximately 4,500 years earlier. Similar artifacts have been found from the Siberian Neolithic period’s Serovo culture and Kelteminar culture around the Aral Sea in Kazakhstan.

In addition, the fact that Xinjiang, Kazakhstan and Mongolia were able to achieve the same culture is due to their geographical location defined by the Tien Mountain Range, which has been proven by a large number of stone tools. Stoneware that has a blade at its center appears to be one of the representative relics of this area. Such

stoneware is highly significant as it resembles the shape of weapons.

According to recent archaeological studies, the first appearance of pottery in East Asia, not in Europe or the Near East, has resulted in some changes of the concept of the traditional Neolithic era. Among the 160,000 relics excavated from the ruins of Usty narym in eastern Kazakhstan, where relic compositions such as that of Xinjiang were confirmed 4500 years ago, there are only a few pottery pieces. This means that the area was not backward, but that pottery was not used as an important tool. In other words, the earthenware-based Neolithic is a unique concept of Northeast Asia, and it can be seen that the Xinjiang Province of China and its neighboring regions had different cultures from Northeast Asia.

Keywords: Xinjiang Province of China, Kazakhstan, Mongolia, 4,500 years ago, culture area, stoneware, Tien Mountain Ran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

정재훈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유네스코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중국의 개혁 개방
- III. 1990년대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와 변강 문제
- IV. 21세기 변강사 연구와 신장 실크로드사의 예측
- V. '신실크로드 전략' 추진과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의 위축
- VI. 맺음말



I. 머리말

시진핑[習近平]은 2013년 과거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유지하던 ‘도광양희(韜光養晦)’ 또는 ‘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One belt, One road) 정책’, 즉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을 통해 ‘중국몽(中國夢)’을 구현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선언했다.¹ 이것은 과거 20세기 초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과 러시아가 벌였던 ‘거대 게임(Great Game)의 재판(再版)’이라고 할 만큼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의 재가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배후 기지인 신장[新疆]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도모해 과거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최근 실크로드는 신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주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원래 사주지로(絲綢之路) 내지는 사로(絲路)로 번역되는 ‘실크로드(Silk road)’는² 정치적 측면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동서 교류 내지는 다양한 문화 융합

* 투고: 2019년 4월 28일, 심사 완료: 2019년 8월 19일, 게재 확정: 2019년 8월 23일

- 1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기존 ‘서부 대개발(西部大開發)’ 정책을 발전시켜 해외 확장을 통한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 것인데, 이른바 ‘신실크로드’ 전략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중국 변강 정책 변화와 맞물려 신장뿐만 아니라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폭증시켰다. 중국은 이를 변강 정책과 관련해 신장사의 중국사 귀속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방을 상징하는 실크로드를 연결시켜 정책적 성공을 거두려고 했다(이창주, 2017, 『일대일로의 모든 것』, 서해문집).
- 2 ‘실크로드’는 원래 독일 지리학자였던 리히트호펜(F. von Richthofen)이 1877년 출간된 *China*라는 책에서 쓴 ‘Die Seidenstraße(비단길)’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것은 그의 제자인 헤르만(A. Herrmann)이 쓴 *Die alte Seidenstrassen zwischen China und Syrien: beiträge zur alten geographie Asiens*(1910)에서 처음 학술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후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동서교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은 1938년에 스웨덴의 탐험가 스벤 헤딘(Sven A. Hedin)이 *The Silk road*라고 번역하여 소개한 이후였다. 하지만 이것이 보편화된

등을 다루는 중요한 주제로서 주 무대였던 신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실크로드 관련 연구를 할 경우 신장을 빼면 불가능하듯이 신장의 역사적 역할과 그 성격을 논할 경우 실크로드 역시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도 이미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열강의 활발한 신장 탐사에 대응하는 연구가 있었다. 난징 정부[南京政府] 시기에도 1927년부터 세 차례 학술조사를 벌일 정도였는데,³ 이것은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해 자신의 자주권을 드러냄으로써 신장이 그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에도 실크로드와 연결된 신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폭되었고, 1980년대에 이 개념이 중국에 도입된 이후에는 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더욱이 최근 대외 정책의 중요 슬로건으로 ‘실크로드’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따라서 시사성이 강한 ‘실크로드’ 주제의 부각에 관심을 갖고, 이 글에서는 이것이 중국의 신장사 이해와 연결되어 어떻게 연구되었는가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 개혁 개방 시기부터 최근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장 실크로드사의 연구와 그 성격 변화 과정에 맞춰 검토했다. 먼저 ‘실크로드’가 최근에 비로소 부각된 개념이 아니라 이미 1990년대부터 축적된 성과가 최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 또한 중국의 변강사(邊疆史) 연구와 신장 실크로드사에 대한 이해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최대 현안인 변강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동시에 시도해보려고 한다.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한참 지난 1960년대부터였다. 중국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된 전반적인 상황은 다음을 참조(劉進寶, 2018, 「「絲綢之路」概念的形及其中國的傳播」, 『中國社會科學』 2018-11).

- 3 난징 정부 주도로 1927년, 1930년, 1935년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서역이라고 불렀던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지역에 대한 조사 작업을 했다. 이것은 20세기 초 유럽 열강들의 조사에 자극을 받아 그의 침탈에 맞서 중국의 중주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었다(沈福偉, 2009, 「絲綢之路與東西文化交流: 絲綢之路研究叢書總序一」, 錢雲·金海龍 編, 『絲綢之路 綠洲研究』, 新疆人民出版社, 5쪽).

이를 위해 먼저 개혁 개방 초기 중국에 실크로드 개념이 도입되는 계기를 확인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중국이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크로드에 초점을 맞춰 연구 및 대외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배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가 본격화된 1990년대의 성과가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⁴ 즉 대외적으로 중국 분리 움직임에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 전개에⁵ 따라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개방에 대해 취한 입장과 대내적으로 변강 문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21세기 초 대내외적 위기감 확산 대응 차원에서 2004년 시작된 ‘신장항목’을 비롯한 정부 주도의 변강 문제에 대한 연구가⁶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확인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활발한 연구 분위기 속에서 출간된 관련 총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성격 역시 검토해볼 것이다. 특히 민족사(民族史)의 강조에서 ‘중화민족(中華民族)’ 형성이라는 방향으로 변강사에 대한 이해 방식 변화가⁷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에 어떤 영향

-
- 4 윤휘탁, 2005, 「現代中國의 西部邊疆民族政策과 ‘國民國家’ 完成하기-‘西部大開發’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37집.
 - 5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중국 해체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는 상황과 함께 학술적 측면에서도 구미학계를 중심으로 세계사적 관점 내지는 신청사(新淸史)의 입장에서 중국사에서 분리된 신장사를 설명하려는 것도 중국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제임스 A. 밀워드, 김찬영·이광태 역, 2013, 『신장의 역사』, 사계절; 피터 C. 퍼듀, 공원국 역, 2012, 『중국의 서진』, 길).
 - 6 박선영, 2014, 「신장항목의 성과와 영향 평가」, 『중국의 변경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7 중국의 변강사 연구는 과거 중국에서 파미르를 넘어 인도와 이란 등 서방으로 이어 주던 과거 ‘서역’의 일부로 인식되던 신장을 변강이 아닌 완전한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오홍엽, 2009, 『중국 신장 위구르족과 한족의 갈등』, 친디루스; 안치영, 2008, 「중국의 민족 문제: ‘중화민족’, 한족 그리고 ‘소수민족」, 『동아시아 브리프』 3-2; 王延中, 2018, 「鑄牽中華民族共同體意識建設中華民族共同體」, 『民族研究』 2018-1). 이와 관련한 신장사에 대한 21세기 중국의 연구는

을 미쳤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신실�크로드 전략’ 추진이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신장 실�크로드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다음 이것이 201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실�크로드 관련 신장 지역 유적들의 복원 및 성격 규정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다뤄볼 것이다. 이것은 결국 40년간 진행된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가 개방 정책 과정에서 어떻게 성격 변화를 보이며 진행되었는가를 개괄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II. 유네스코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중국의 개혁 개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UN)의 성립과 함께 그 산하 기구로 설립된 유네스코(UNESCO), 즉 ‘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는 세계 문화의 보호와 발전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활동했다. 이를 위해 유럽과 중국 등 과거의 문명권 세계를 연결시키는 문화 코드인 ‘실�크로드’를 중요한 사업 주제로 설정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아우르며 유무형의 문화적 요소를 연결시키고 통합하는 데 이것만큼 유효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유네스코가 문화적인 세계 평화 구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실�크로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를 위해 ‘실�크로드’는 학술적 측면에서 정의가 본격화될 수 있었다. 이것은 처음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중국의 낙양(洛陽)이나 장안(長安)에서 출발해 터키 이스탄불이나 이탈리아의 로마에 도착하는 ‘사막길’ 정도로 이해되었

다음 연구에서 회고와 전망이 이루어졌다(許建英·阿地力 艾尼, 2019, 『新疆歷史研究評述(1998~2018年)』, 『中國邊疆史地研究』 2019-2.

8 유네스코, <https://en.unesco.org/silkroad/>

다. 하지만 이후 범위가 초원(유럽 초원으로부터 몽골 초원에 이르는 길로 유목민들의 활동 무대), 산악(인도에서 히말라야 산지를 넘는 산악로), 그리고 바다(지중해, 인도양을 거쳐 중국에 이르는 해양로)만이 아니라 밀림(미얀마에서 윈난[雲南]과 쓰촨[四川]으로 가는 서남로) 등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육상(陸上) 실크로드의 상대로 해로(海路)는 스파이시로드(spicy road, 향료길)로 불리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크로드는 현재 동서 세계를 연결하는 다양한 통로로 규정되며 세계적으로 다각적 측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원래 이를 적극 지원해 관심을 확산시키고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일본(日本)이었다. 당시 일본은 1960년대 경제 부흥을 바탕으로 대외 진출을 통해 국제적 역할을 맡기 위해 비정치적 부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마침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문화 기구인 유네스코 역시 일본의 지원을 받고자 했다. 즉, 지구적 차원에서 고유 문화를 보호하고 이를 교류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추구했던 유네스코의 목표와 전후 패전국으로서의 명예를 벗어 던지기 위해 ‘평화’를 표방했던 일본의 입장이 상통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문화 교류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실크로드’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던 유네스코를 통해 자신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미 일본은 서역사(西域史)로 불리던 내륙아시아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관련 연구 성과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학술적 측면에서도 세계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제국주의 침략 시기 대륙 진출을 위해 중국사 나아가 내륙아시아에 대한 연구에 치중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의 활발한 움직임은 경제적 회복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를 재개하고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이를 통해 실크로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으며 세계적으로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다만 일본의 연구는 보편적 측면도 많았지만 일부 과거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일본사 전개와 실크로드를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라[奈良]의 쇼쇼인[正倉院]을 실크로드의 종점으로 규정하려 한 것은 이

런 면을 잘 보여준다.⁹ 일본이 실크로드를 자국사의 범위 속으로 환원시키면서 동시에 대외 진출의 선전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움직임은 당시 개혁 개방을 추진하려던 중국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중국 역시 이를 본보기로 1980년대 이른바 ‘죽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크로드’라는 문화 코드를 적극 이용하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는 1980년 방영된 NHK의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해볼 수 있다.

원래 다큐멘터리 제작은 1972년 9월 일본의 다나카[田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당시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취재진을 초청하자 일본 총리를 수행한 NHK의 임원이 관련 TV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현지 촬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문화 대혁명 과정이었던 중국이 해당 지역의 외부인 출입을 허가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프로그램 제작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1978년 10월 도교를 방문한 덩샤오핑[鄧小平]이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성사되었다. 중국의 지원을 받은 NHK는 CCTV와 공동으로 1979년부터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제작된 프로그램은 1980년 4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총 12회가 1년에 걸쳐 방송될 수 있었다.¹⁰ 시안[西安]에서 신장의 파미르에 이르는 지역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세계에 공개되었는데, 몽환적 여정에 대한 환상을 그려내며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중국의 실상을 보여주어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상영되면서 실크로드 붐을 일으켰다. 결국 실크로드는 이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적 개념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¹¹

9 衫本一樹, 2008, 『正倉院-歴史と寶物』, 中公新書, 8쪽; 林良一, 1962, 『シルクロード』, 美術出版社, 243쪽.

10 NHK 아카이브, <http://www.nhk.or.jp/archives/search/special/detail/?d=special002>.

11 한국에서도 1983년 1월 일본방송협회로부터 「실크로드」 12편을 제공받아 KBS에

제1부 프로그램 제작은 개방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태도를 바꿔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당시 개방을 통해 발전을 추구했던 덩샤오핑 역시 실크로드를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적 이유만이 아니라 중국에게는 실크로드가 일본과 달리 과거 수도 장안을 시발점으로 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 동서 교류를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이것은 결국 이를 통해 향후 대외 진출과 교류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명분을 줄 수도 있었다. 즉, 과거 문화 선진국이었던 자신이 다시 세계와 문화를 교류하고 이를 주도하는 데 실크로드를 통한 접근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중국에서도 실크로드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중국 내에서 관련 연구가 있었다는 점이 연구 재개의 매개를 가능하게 했다. 서양 열강과의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중국과 외국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연구였는데, ‘중서 교통사(中西交通史)’가¹² 바로 이에 대한 접근의 시작이었다. 이런 경향은 1980년대 이후까지도 ‘중외 관계사(中外關係史)’라는 연구로 계속되었다.¹³ 이것은 외부와의 관계 또는 교섭을 중심으로 동등한 세계 간의 문화 교류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춘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와 달

서 1984년 4월 13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밤 편당 50분씩 1부 12편, 2부 18편 총 30편을 방송했다. 이것은 한국에도 실크로드에 대한 선풍적 붐을 일으켰다. 일본에서 관련 책자가 출간되었는데, 한국에서도 번역 소개되었다(『シルクロード 絲綢之路』全6卷, 日本放送出版協會, 1980~1981; 『シルクロード 로마への道』(全6卷), 1983~1984).

제2부는 1983년 4월부터 총 18회가 방송되었는데, 소련의 협조를 얻어 톨산산맥에서부터 소련의 9개 공화국을 거쳐 터키에 이르는 여정을 취재한 것이다. 이것은 최초로 육로 실크로드 전체를 연결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이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붐 조성에도 역시 큰 기여를 했다.

12 方豪, 1987, 『中西交通史』, 岳麓書社.

13 朱傑勤은 1934년부터 中外關係史 저작 활동을 했는데, 이를 묶어 2011년에 출간된 『朱傑勤文集 中外關係史』(廣西師範大學出版社)가 대표적이다.

리, 육로 중심의 고대 중외 관계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¹⁴

당시 실크로드 자체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 수준이었고, 그 무대였던 신장사 연구도 문화 교류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직 어려웠다. 이때까지 신장에 대한 이해는 자치구의 주류인 위구르를 중심으로 한 ‘민족사(民族史)’ 서술이 중요했다. 이것은 소수민족 자체의 역사 내지는 소수민족과 중앙의 관계 설정을 위한 접근이 주류였다.¹⁵ 따라서 신장사는 위구르를 중심으로 위구르사[維吾爾史]의 서술이 주종을 이뤘다.¹⁶ 또한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교류라는 관점이 도입되나 아주 초보적 관심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하게 개방되지 않았고 외부와 연결도 쉽지 않았던 신장과 위구르를 실크로드와 바로 연결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무렵 중국은 이에 큰 관심을 갖고 신장사를 새롭게 이해해보려고 시도하면서 한편으로 개방 정책의 위험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상정될 수 있는 분열 위험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안정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¹⁷ 이것은 이후 변강에 대한 중요한 정책 과제가 신장 실크로드에 대한 접근과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신장 문제의 해결과 개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개방이 더 절실한 상황이었던 중국은 대외적으로 유네스코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다. 이를 위해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에 걸쳐 유네스코가 주도한 “실크로드의 통합연구: 대화의 길 (Integral study of the Silk Roads: Roads of Dialogue)”이라는 학술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했다. 이것은 유네스코가 실크로드를 국제적 이슈로 연구함으로써 관

14 芮傳明, 2009, 『絲綢之路研究入門』, 復旦大學出版社, 8쪽.

15 王鐘翰 主編, 1994, 『中國民族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6 劉志霄, 1985, 『維吾爾族歷史』, 民族出版社는 가장 대표적인 위구르사 저작인데, 그 이후 위구르의 사적 전개는 대부분 이를 기초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17 1983년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이 설립된 다음 1987년 中國社會科學院 지도하에 정비되어 邊疆 역사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런 분야에 대한 연구 붐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었다. 이 무렵 중국은 주도적 입장을 가진 일본과 함께 본 사업에 적극 참여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개방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프로젝트는 주로 현지답사로 이루어졌는데,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세계 각지의 학자들이 다섯 차례에 걸쳐 다섯 가지 길(사막길, 초원길, 바다길, 유목길, 불교길)에 참여했다. 이때 1990년 신장을 중심으로 한 사막길 첫 답사를 중국이 주도했는데, 이는 그 당시 중국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¹⁸ 이것은 세계 각국의 전문가가 대거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실크로드 연구 붐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¹⁹ 중국 역시 이때부터 유네스코가 주도한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정부 주도의 움직임이 1990년대 이후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에 학자들이 활발하게 참가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III. 1990년대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와 변강 문제

당시 중국의 연구 수준은 과거처럼 신장을 ‘서역’과 등치해 이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신장은 여전히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에서 ‘서역’이라고 설정한 모호한 개념에 따라 지칭되던 지역의 일부였다. 장성의 서쪽 끝인 둔황[敦煌] 밖의 지역 중에서 막연한 그 일부에 불과했다. 이에 기초한 신장 실크로

18 UNESCO, 2008, *Integral study of the Silk Roads: Roads of Dialogue*, UNESCO.

유네스코, http://www.unesco.org/archives/multimedia/?pg=33&s=film_details&id=4583

19 한국 학자들도 미수교 상태에서 참가했는데, 이를 계기로 실크로드의 무대였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정재훈, 2019, 「한국의 고대 초원로 연구 성과와 그 의미」, 『동양학』 제76호,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79쪽).

드사 연구는 《중국변강통사총서(中國邊疆通史叢書)》에서²⁰ 『서역통사(西域通史)』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¹ 이는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역사연구소(歷史研究所) 중외관계사연구실(中外關係史研究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시 중국의 공식 입장을 보여준다.

광의로 서역은 중앙아시아를 지칭하나 핵심 지역은 신장을 포괄하는 중앙아시아였는데, 중국은 이곳을 현재의 신장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국사의 일부로 집어넣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구성했다.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신장의 일부가 중앙아시아와 겹치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기 위해 서역사라는 관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신장을 개혁 개방의 전진 기지이나 접경 지역으로 민감한 지역의 하나로 본 연구였다. 하지만 서역이라는 용어를 통해 신장사를 정리한 것은 한계였다. 또한 서역에서 문화가 교류하고 충돌하며 융합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실크로드와 이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도 여전히 중국에서 실크로드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1990년대 과거와 다른 발전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먼저 동서 교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 정리 작업에서 확인된다. 기존에 꾸준히 해오던 작업을 1990년대 후반에 확장시켜 결국 2000년을 전후로 《중외교통사적총간(中外交通史籍叢刊)》이 간행되었다. 이것은 여행기에 대한 교주였는데, 1980년대부터 2012년경까지 모두 20종 총 22책이 출간되었다.²² 과거 중국과 외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여행기는 중요

20 中州古籍出版社에서 출간된 《中國邊疆通史叢書》는 1996년에 출간된 『西域通史』부터 馬大正 主編, 2000, 『中國邊疆經略史』; 陳慶英, 高淑芬, 2003, 『西藏通史』; 李治亭 編, 2003, 『東北通史』; 趙雲田 編, 2003, 『北疆通史』; 方鐵編, 2003, 『西南通史』; 張煒·方堃, 2003, 『中國海疆通史』 등으로 이어져 완성되었다.

21 余太山, 1996, 『西域通史』, 中州古籍出版社.

22 汪大淵, 1981, 『島夷志略校釋』, 中華書局; 王之春, 1989, 『清朝柔遠記』; 嚴從簡, 1993, 『殊域周咨錄』; 義淨, 1995, 『南海寄歸內法傳校注』; 周去非, 1999, 『嶺外代答校注』; 慧立·彥棕·道宣, 2000, 『大慈恩寺三藏法師傳 釋迦方志』;

한 사료였는데, 본 총서는 이를 종합 정리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 총서는 동서 간의 인적 교류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한문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관련 연구에 아주 유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해외 연구 성과의 수용으로 출간된 《법국서역둔황학명저역총(法國西域敦煌學名著譯叢)》은 20세기 초부터 유럽에서 관련 연구를 주도한 프랑스의 연구 성과를 번역한 것이다.²³ 이것은 외국 우수 연구 성과를 이해하기 위함인데, 원래 연구기관에서 번역한 내부 자료를 출간한 것으로, 원래부터 중국 내에도 외국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것이 1990년대 대중적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또한 《서역탐험고찰대계(西域探險考察大系)》 역시 같은 맥락인데, 모두 16권으로 간행되었으며,²⁴ 《서전동방학역총(瑞典東方學譯叢)》이라고도 한다.

黃省曾·張燮·謝方 校注, 2000, 『西洋朝貢典錄校注 東西洋考』; 周達觀, 2000, 『真臘風土記校注』; 玄奘·辯機, 2000, 『大唐西域記校注(上·下)』; 義淨·王邦維 校注, 2000, 『大唐西域求法高僧傳校注』; 慧超, 2000, 『往五天竺國傳箋釋·經行記箋注』; 陳誠, 2000, 『西域行程記 西域番國志 鹹賓錄』; 趙汝適, 2000, 『諸蕃志校釋職方外紀校釋』; 眞人元開, 2000, 『大和上東征傳 日本考』; 黎崱·武尚清 點校, 大汕·余思黎 點校, 2000, 『安南志略』; 宋峴, 2000, 『回回藥方考釋』; 徐松, 2005, 『西域水道記』; 韓琦 校注·吳旻 校注, 2006, 『熙朝崇正集熙朝定案』; 法顯·章巽 校注, 2008, 『法顯傳校注』 2008-11; 鞏珍, 2012, 『西洋番國志 鄭和航海圖 兩種海道針經』.

- 23 阿里·瑪茶海裏, 耿昇 譯, 1993, 『絲綢之路: 中國-波斯文化交流史』, 中華書局; 謝和耐 等, 耿昇 譯, 1993, 『法國學者敦煌學論文選萃』; 伯希和, 耿昇 譯, 1994, 『卡爾梅克史評注: Notes critiques d'histoire Kalmouke』; 莫尼克·瑪雅爾, 耿昇 譯, 1995, 『古代高昌王國物質文明史』; 路易·巴贊, 耿昇 譯, 1997, 『突厥歷法研究』; 董丕, 余欣·陳建偉 譯, 2003, 『敦煌的借貸: 中國中古時代的物質生活與社會』.
- 24 謝彬, 1990, 『新疆遊記』, 新疆人民出版社; [瑞典]斯文·赫定, 徐十周 譯, 1992, 『亞洲腹地探險八年: 1927-1935』; 馬大正·王嶸, 1994, 『楊欒西域考察與研究』; [瑞典]斯文·赫定, 1996, 『絲綢之路』; [瑞典]斯文·赫定, 孫仲寬 譯, 1997, 『我的探險生涯: 原名《亞洲腹地旅行記》』; [英]凱瑟琳·馬嘎特尼, 1997, 『外交官夫人的回憶』; [瑞典]貝格曼, 王安洪 譯, 1997, 『新疆考古記』; 馬大正·楊欒, 1998, 『西域考察與研究續編』; [丹]亨寧·哈士綸, 徐孝祥 譯, 1999, 『蒙古的人』.

이것은 스웨덴의 연구 성과를 번역한 것으로, 20세기 초에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신장을 선교 지역으로 조사 작업을 벌였던 스웨덴의 중요한 성과를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스벤 헤딘(Sven A. Hedin)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한 자료가 중요했다. 그는 독자 조사 작업뿐만 아니라 1927년 중국의 공동 조사에도 참여했다. 당시의 조사와 보고 내용은 현재에도 자료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만큼 의미가 있어 관련 번역 작업은 큰 의미가 있었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영국의 오렐 스타인(Aurel Stein)을 비롯한 많은 제국주의 국가가 탐험가의 침탈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20세기 초 경쟁적으로 벌어진 신장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약탈은 세계적 공분을 샀고, 중국은 이를 번역 출간해 그 실상을 알리고자 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신장 실크로드 유적에 대한 자신의 보호 의지를 강조하고자 했다.

이런 자료 정리와 번역 작업을 토대로 실크로드 자체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이는 1992년부터 출간된 《사주지로연구총서(絲綢之路研究叢書)》가 가장 대표적인데, 중국의 실크로드 연구가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징했

和神』; [德]阿爾伯特·馮·勒柯克, 1999, 『新疆의地下文化寶藏』; [日]橋瑞超, 柳洪亮 譯, 1999, 『橋瑞超西行記』; [瑞典]斯文·赫定, 江紅 譯, 2000, 『遊移의湖』; [瑞典]斯文·赫定, 王安洪·崔延虎 譯, 2003, 『羅布泊探秘』; [我]彼·彼·謝苗諾夫, 2001, 『天山遊記: 天山遊記』.

총서는 2010년 新疆人民出版社에서 일부가 다시 정리, 수정되어 《新西域探險考察大系》 15권으로 재출간되었다. [英]奧裏爾·斯坦因, 向達 譯, 2010, 『斯坦因西域考古記』; [瑞典]斯文·赫定, 孫仲寬 譯, 2010, 『我的探險生涯』; [瑞典]斯文·赫定, 江紅 譯, 2010, 『遊移의湖』; [瑞典]貢納爾·雅林, 崔延虎·郭穎傑 譯, 2010, 『重返喀什噶爾』; [瑞典]斯文·赫定, 江紅·李佩娟, 2010, 『絲綢之路』; 謝彬, 楊籙·張頤青 整理, 2010, 『新疆遊記』; [英]凱瑟琳·馬噶特尼·戴安娜·西普頓, 王衛平·崔延虎 譯, 2010, 『外交官夫人的回憶』; 儲安平·浦熙修, 2010, 『新疆新觀察』; [瑞典]尼爾斯·安博特, 楊子·宋增科 譯, 2010, 『駝隊』; [丹麥]亨寧·哈士綸, 徐孝祥 譯, 2010, 『蒙古的人和神』; [瑞典]斯文·赫定·沃爾克·貝格曼, 李述禮·張鳴 譯, 2010, 『橫渡戈壁沙漠』; 吳藹宸, 田杉 整理, 2010, 『邊城蒙難記』; [蘇聯]費·阿·奧勃魯切夫, 王沛 譯, 2010, 『荒漠尋寶』; [日]橋瑞超, 柳洪亮 譯, 2010, 『橋瑞超西行記』; 林競·楊籙·張頤青, 2010, 『親歷西北』.

다. 서역이나 신장이라고 하지 않고 ‘실크로드’를 단 총서는 처음이었다. 최초 5년에 걸친 연구 성과가 13권으로 간행되었는데,²⁵ 고고학으로부터 미술사학, 문학, 역사학, 인구학, 의학 등 다양한 주제가 망라되었다. 중국 내 권위 있는 학자 대부분이 참가한 연구로서 당시의 수준을 확인시켜준다.

1992년 10월 간행 총서 서문에서 중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실크로드를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역사와 문화 현상이 복잡하게 만들어졌으며 인류 사회의 모든 요소가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전제하고 단편적 연구보다 전 방위에 걸친 접근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 실크로드 연구의 발전을 자극해 실크로드와 관련된 문명에 대한 전면적 이해를 돕고 나아가 동서양 경제, 문화, 과학 기술의 교류를 촉진하자는 제안을 했다. 즉, 실크로드 자체가 주제적 다양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천명했던 것이다.

신장의 의미 역시 실크로드 중에서 중국 범위 내에 있는 세계의 다양한 문명이 모인 땅으로서 동서양 문화 교류의 중심이라고 설정했다. 이를 전제로 현재까지 신장의 역사, 문화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해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후 국제 학계와 광범위한 협작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가 세계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앞으로 연구를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던 당시 중국의 실크로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므로 향후 그의 연구 방향을 보여준 것

25 王炳華, 1993, 『絲綢之路考古研究』, 新疆人民出版社; 周菁葆 主編, 1993, 『絲綢之路岩畫藝術』; 韓康信, 1993, 『絲綢之路古代居民種族人類學研究』; 周菁葆, 1994, 『絲綢之路藝術研究』; 雷茂奎·李竟成, 1994, 『絲綢之路民族民間文學研究』; 王孝先, 1994, 『絲綢之路醫藥學交流研究』; 王博·祁小山, 1995, 『絲綢之路草原石人研究』; 蓋山林, 1996, 『絲綢之路草原民族文化』; 趙予征, 1996, 『絲綢之路屯墾研究』; 蘇北海, 1996, 『絲綢之路與龜茲歷史文化』; 田衛疆, 1997, 『絲綢之路與東察合台汗國史研究』; 周菁葆·邱陵, 1998, 『絲綢之路宗教文化』; 袁祖亮 主編, 1998, 『絲綢之路人口問題研究』.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중국은 개방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유네스코의 실�크로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내적으로도 실�크로드 연구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다. 이것은 실�크로드가 단독 주제로 설정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사료 역주와 해외 연구 성과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신장에 대한 접근은 ‘서역’이라는²⁶ 점에서의 접근이 일반적이었던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한편 이 시기에도 신장 역시 실�크로드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변강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본격적인 접근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분열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을 강하게 추진해야만 했던 중국에게 변강 문제 역시 심각한 고민거리였다. 당시 분열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신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를 실�크로드와 연결하여 중국사로 귀속시켜 안정적으로 지배해야 하는 것도 숙제였다. 따라서 이후 내적

26 중국 내에서는 아직도 ‘서역’이라는 역사 지리적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人民大學 西域歷史語言研究所에서 과거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西域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대 실�크로드 및 신장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런 입장은 과거 선현들의 서역에 대한 연구를 잇고자 하는 것이지만 연구 방향은 현재 변강 내지 실�크로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 中國人民大學出版社에서 《西域歷史言語研究叢書》를 간행했는데, 신장사 내지는 실�크로드 관련 연구 성과도 아주 많다. 沈衛榮 等, 2007, 『黑水城人文與環境研究』; 劉迎勝, 2008, 『《回回館雜字》與《回回館譯語》研究』; 張廣達·榮新江, 2008, 『于闐史叢考』; 馬小鶴, 2008, 『摩尼教與古代西域史研究』; 王炳華, 2008, 『西域考古歷史論集』; 賈應逸, 2010, 『新疆佛教壁畫的歷史學研究』; 張平, 2010, 『龜茲文明: 龜茲史地考古研究』; 李方, 2010, 『唐西州官吏編年考證』; 王頌, 2010, 『西域南海史地探索』; 新獲吐魯番出土文獻研究論集編纂委 編, 2010, 『吐魯番出土文獻研究論集』; 李肖等 編, 2011, 『秩序與生活: 中古時期的吐魯番社會』; 王子今, 2011, 『秦漢邊疆與民族問題』; 畢波, 2011, 『中古中國的粟特胡人』; [日]井上充幸·加藤雄三·森毅一樹, 烏雲格日勒 譯, 2013, 『黑水城兩千年歷史研究』.

통제의 강화를 위한 논리 개발과 함께 신장을 무대로 한 실크로드에 대한 정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 정부는 과거와 달리 변강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것은 기존 소수민족들의 정체성을 인정했던 ‘민족사’ 연구가 아닌 ‘변강사’ 강조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을 지나는 실크로드와 그 자체의 지역적 역할 내지는 특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약화시키고 그에 예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웠다.

IV. 21세기 변강사 연구와 신장 실크로드사의 예측

1990년대에도 중국은 여전히 ‘실크로드’라는 개념을 적극 받아들여 대외적으로 국제기구와의 협업 등을 통해 자기의 입장을 강화하려 했다. 이는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등 개방의 상징 도구로서 실크로드를 적극 활용한 것인데, 21세기에도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유네스코 친선대사였던 히라야마 이쿠오 [平山郁夫]가 10년에 걸쳐 100명의 신진 연구자에게 제공한 실크로드 연구 장학 기금 지원의 성공적 완결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해, 그리고 유네스코 창설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2년 고도(古都) 시안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의 조직과 운영에서 잘 나타났다.

이때 채택된 ‘시안 선언’ 내용은 그동안 유지해온 중국의 입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 역시 잘 보여주고 있다. 주목되는 내용은 21세기 벽두부터 본격화된 테러로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잘 보존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굴 파괴로 문화유산 보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것은 유네스코에서 계속 강조한 문화 간의 대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동시에 그동안 진행된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를 서로 공유한다는 목표와도 연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유네스코의 실크로드 관련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으려고 했다. 이것은 반미적 성격을 띠는 유네스코를 통해 자신의 국



UNITED NATIONS YEAR FOR CULTURAL HERITAGE
 ANNÉE DES NATIONS UNIES POUR LE PATRIMOINE CULTUREL
 AÑO DE LAS NACIONES UNIDAS DEL PATRIMONIO CULTURAL
 سنة الأمم المتحدة للتراث الثقافي
 ГОД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联合国文化遗产年

Xi'an Declaration

20 November, 2002

In commemoration of the UN Year for Cultural Heritage 2002, an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we are assembled in Xi'an, China from 18 to 20 November, 2002, to attend the “UNESCO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Silk Roads 2002”, jointly organized by UNESCO, Prof. Ikuo Hirayama, as a Goodwill Ambassador of UNESCO, and th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symposium, which has brought together beneficiaries of the UNESCO Hirayama Fellowship Programme and international experts in the field from 29 nations, aims to exchange and share research results in the Integral Study of the Silk Roads and to promote world peace by fostering intercultural 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ing.

Mankind has left numerous examples of cultural heritag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throughout its history. Cultural heritage represents irreplaceable properties that cannot be retrieved once they are lost. It is our strong belief that all nations and their citizens have a duty to protect and to pass on the world's cultural heritage to future generations.

As the 21st century dawns, this duty has become of the utmost importance and urgency. Cultural heritage is continuously threatened by destruction not only as a result of natural causes, but also as a consequence of man-made threats, such as urbanization, international conflict, civil war and terrorism. Although 33 sites have been included on UNESCO's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as of June 2002, there are numerous other examples of cultural heritage that require urgent preservation and protection.

In order to pass on our precious cultural heritage and diversity to future generations, UNESCO has established “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nd other related conventions. UNESCO has been urg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tify these conventions. It is our sincere belief that the prevalence of the spirit of these conventions is of the utmost importance at a time of peace as well as at a time of armed conflict.

We hereby resolve to respect the spirit of the preamble to the UNESCO constitution, which states that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to protect cultural diversity; to promote dialogue amongst civilizations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hrough the protection of the world's cultural heritage; and to make further efforts to consolidate world peace.

(Adopted by UNESCO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Silk Roads 2002)

그림 1 2002년 UNESCO 시안 선언문

제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며 실크로드를 통해 자신과 국제사회를 더욱 강하게 연결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중국은 이즈음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 공조와 함께 문화적으로도 반테러리즘 움직임을 관찰하고자 했다. 이것은 신장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향후 본격화된 대테러 전쟁의 전개와 관련해 신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이즈음 시작되었다. 이것은 이미 1990년대부터 분리주의 움직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하려 했던 중국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실제 이런 정책은 이 무렵 새로 집권한 후진타오[胡錦濤]시기 내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따라서 신장은 고대 교류 대상이었던 외부 세계를 의미하는 서역도, 실크로드를 통해 연결된 대상도 아니게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영향과 지배를 계속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강력하게 연결된 곳으로 자리매김되어야만 했다. 이것은 결국 위구르를 중심으로 한 신장이 아니라 신장이라는 단위를 강조하는 변강사 연구의 한 대상으로서 재설정하려는 것이었다. 비록 이후에도 여전히 ‘서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신장이라는 지역 단위가 강조되는 서술이 이 시기부터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2004년 5월 ‘신장 역사와 현상의 종합적 연구항목’ 이른바 ‘신장항목’이라는 특별 연구 사업으로 연결되었다.²⁷ 그 목표에서 신장에 대한 역사 인식의 출발과 귀결점을 “신장은 우리나라 통일적 다민족국가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이며, 그 역사는 중화 여러 민족 공동이 만든 것으로 중화민족 공동 역사의 일부”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신장의 역사 발전의 다섯 가지 기본 문제로 “치리(治理), 민족(民族), 종교 연변(宗教演變), 문화 교용(文化交融), 둔간 수변(屯墾戍邊)” 등을 설정했다. 또한 구체적 내용을 “역대 각 왕조의 신장에 대한 통치, 신장은 여러 민족 공동생활의 대가정(大家庭), 여러 종교의 병존, 다원 문화의 공존과 융합과 상보, 둔간과 수변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필요

27 주 6) 박선영의 ‘신장항목’에 대한 정리를 참조.

성과 합리성의 증명이다”라고 했다.²⁸

이런 연구는 21세기 서부 대개발 사업이 신장 지역까지 확장되고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학술적 측면에서의 역사 귀속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특히 위구르를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차단하고 그 사상적 토대인 ‘범이슬람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 목적이었다. 설정된 목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신장은 중국의 일부이며 위구르라는 특정 민족의 지역이 아닌 여러 민족 공동의 고향이란 점, 그리고 이슬람교 역시 신장 유일의 종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분리주의적 경향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것은 결국 신장 문화의 다원성과 중국과의 교류,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융합과 민족 단결을 강조해 신장 문화가 중화민족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

신장항목 자체는 변강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동안 중요하게 다뤄진 실크로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신장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기도 했지만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다. 그것은 주로 과거의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는 방향이었다. 도출된 성과 역시 새로운 방향보다 이전의 성취를 보충해 재간행하는 것이 흐름이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실크로드 연구 성과 번역이 《중아역사문화번역총서(中亞歷史文化翻譯叢書)》로 재출간되었으며,²⁹ 《사주지로연구총서(絲綢之路研究叢書)》 역시 국가출판기금항목(國家出版基金項目)의 지원을 받아 2009년 9월에 재출간되었다.³⁰

28 馬大正 等著, 2006, 『新疆史鑑』, 新疆人民出版社.

29 [法]阿里·瑪紮海裏, 耿昇 譯, 2006, 『絲綢之路: 中國-波斯文化交流史』, 新疆人民出版社; [法]魯保羅, 耿昇 譯, 2006, 『西域的歷史與文明』, 新疆人民出版社.

30 王炳華, 2009, 『絲綢之路考古研究』, 新疆人民出版社; 蓋山林, 2009a, 『絲綢之路岩畫研究』; 韓康信, 2009, 『絲綢之路古代種族研究』; 李進新, 2009b, 『絲綢之路宗教研究』; 袁祖亮, 2009, 『絲綢之路人口研究』; 蓋山林, 2009, 『絲綢之路草原文化研究』; 薛宗正, 2009, 『絲綢之路北庭研究』; 趙予征,

《사주지로연구총서》는 기존의 13권을 확대 보충해 모두 20권으로 출간되었다.³¹ 총서의 방향을 밝힌 「사주지로역사로학연구(絲綢之路與絲路學研究) 서문 1[總序一]」과 「사주지로역중서문화교류(絲綢之路與中西文化交流) 서문 2[總序二]」에서 출간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기존 총서가 실크로드 연구의 개척가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이후 이를 계기로 중국 내에서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이를 보다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20년간의 축적을 바탕으로 2008년에 새로운 총서의 증보 발간을 결정하고 나아가 기존 ‘서역’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다방면에 걸친 연구 성과를 집결시키려고 했다고 했다.

이때 서역은 초원과 오아시스 실크로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장의 경우도 이것이 통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이는 서역이라는 역사 지리적 개념에 기초해 실크로드학을 발전시키려 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여전히 실크로드와 서역이 혼용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때까지도 여전히 서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크로드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런 지향 속에서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가 심화될 수 있었는데, 이를 다른 방향에서 추동한 것은 ‘유라시아[歐亞]’라는 개념의 도입이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묶어 유라시아라는 관점에서 실크로드를 접근하려는 연구가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중국학계 역시 이에 부응해 다양한

2009, 『絲綢之路屯墾研究』; 田衛疆, 2009, 『絲綢之路吐魯番研究』; 仲高, 2009, 『絲綢之路藝術研究』; 李竟成, 2009, 『絲綢之路民間文學研究』; 金秋, 2009, 『絲綢之路樂舞藝術研究』; 蘇北海, 2009, 『絲綢之路龜茲研究』; 周菁葆, 2009, 『絲綢之路佛教文化研究』; 賀靈, 2009, 『絲綢之路伊犁研究』; 陸暉, 2009, 『絲綢之路戲曲研究』; 李強, 2009, 『絲綢之路戲劇文化研究』; 宋博年, 2009, 『絲綢之路音樂研究』; 李肖冰, 2009, 『絲綢之路服飾研究』; 王博, 2009, 『絲綢之路草原石人研究』.

31 본 총서는 2010년 12월 新疆人民出版社에서 표지를 바꿔 재출간되었다.

접근을 시도했다. 실크로드는 유럽과 아시아 세계를 연결시킨 통로로서 유라시아라는 개념과 분리될 수 없었으며 그 중심에 위치한 신장에 대한 이해 역시 이런 방향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아역사문화문고(歐亞歷史文化文庫)》의 간행 방향에 대한 설명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³² 총서 서문에서 중국 내 관련 연구 역량을 총집결해 내륙 유라시아[內陸歐亞, Eurasian Steppes]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대국인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라시아와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결국 개혁 개방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미 역시 갖고 있었다. 따라서 서역이 아닌 유라시아라는 개념을 도입했지만 원래 중국이 갖고 있던 기본적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국내 전문 연구 성과와 외국의 뛰어난 연구 번역을 총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 이를 소화하기 위해 원래 100권을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최종적으로 102권이 발간되었다.³³ 내용 구성을 검토해보면, 먼저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32 蘭州人民出版社가 출판사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총서 출간은 2009~2012년 “十二五” 國家重點圖書出版規劃項目 國家出版基金資助項目으로 선정되었고, 中國社會科學院院士인 余太山이 주편했다.

33 陳高華, 2010, 『元朝史事新證』, 蘭州人民出版社; [日]堀敏一, 韓昇·劉建英編譯, 2010, 『隋唐帝國與東亞(增訂版)』; 張博泉, 2010, 『甫白文存』; 孫玉良, 2010, 『史林遺痕』; 王炳華, 2010, 『西域考古文存』; 劉文鎖, 2010, 『絲綢之路-內陸歐亞考古與歷史』; [印度]艾哈默得·辛哈, 周翔翼譯, 徐百永校, 2010, 『入藏四年』; [意]伯戴克, 張雲譯, 2010, 『中部西藏與蒙古人-元代西藏歷史(增訂本)』; 王永興, 2010, 『唐代經營西北研究』; 李鍵才, 2010, 『東北亞史地論集』; 孟凡人, 2010, 『新疆考古論集』; 周偉洲, 2010, 『藏史論考』; 趙麗生, 2011, 『弁茲集』; 華喆, 2011, 『陰山鳴鏑-匈奴在北方草原上的興衰』; 楊軍, 2011b, 『走向陌生的地方-內陸歐亞移民史話』; 賀菊蓮, 2011, 『天山家宴-西域飲食文化縱橫談』; 王頌, 2011, 『內陸亞洲史地求索』; 林悟殊, 2011, 『中古夷教華化叢考(繁體印制)』; 馬健, 2011, 『匈奴葬儀的考古學探索-兼論歐亞草原東部文化交流』; [俄]波庫·柯茲洛夫, 王希隆·丁淑琴譯, 2011, 『蒙古, 安多和死城哈喇浩特』; 陳鵬, 2011, 『路途漫漫絲綢情-明清東北亞絲綢之路研究』;

烏雲高娃, 2011, 『元朝與高麗關係研究』; 梁俊豔, 2011, 『英國與中國西藏(1774~1904)』; 楊軍, 2011a, 『夫餘史研究』; [烏茲別克斯坦]艾哈邁多夫, 陳遠光譯, 2011, 『16~18世紀中亞歷史地理文獻(修訂版)』; 耿世民, 2012, 『西域文史論稿』; 楊銘, 2012, 『唐代吐蕃與西北民族關係史研究』; 成一農, 2012, 『空間與形態-三至七世紀中國歷史城市地理研究』; 殷小平, 2012, 『元代也裏可溫考述』; 殷晴, 2012, 『絲綢之路經濟史研究(上·下)』; 顧世寶, 2012, 『蒙元時代的蒙古族文學家』; 余大鈞譯, 2012, 『北方民族史與蒙古史譯文集(修訂版)(上·下冊)』; [美]查爾斯·林霍爾姆, 張士東·楊軍譯, 2012, 『伊斯蘭中東-傳統與變遷』; [美]J. G. 馬勒, 王欣譯, 2012, 『唐代塑像中的西域人』; 韓儒林, 2012, 『蒙元史與內陸亞洲史研究』; 牛汝極等, 2012, 『新疆文化的現代化轉向』; 楊銘, 2012, 『國外敦煌學·藏學研究-翻譯與評述』; 周偉洲, 2012, 『西域史地論集』; 藍琪, 2012, 『16~19世紀中亞各國與俄國關係論述』; 周晶, 2012, 『紛擾的雪山-20世紀前半葉西藏社會生活研究』; 汪受寬, 2012, 『驪軒夢斷-古羅馬軍團東歸偽史辨識』; 許序雅, 2012, 『唐朝與中亞九姓胡關係史研究』; 劉雪飛, 2012, 『上古歐洲斯基泰文化巡禮』; [蘇聯]T. B. 巴爾采娃, 張良仁·李明華譯, 2012, 『斯基泰時期的有色金屬加工業-第聶伯河左岸森林草原地帶』; 王頌, 2012, 『內陸亞洲史地求索(續)』; 尙永琪, 2013, 『胡僧東來-漢唐時期的佛經翻譯家和傳播人』; 葉德榮, 2012, 『漢晉胡漢佛教論稿』; 篠原典生, 2013, 『西天伽藍記』; 桂寶麗, 2013, 『可薩突厥』; 馬小鶴, 2013, 『光明的使者-摩尼與摩尼教』; 張文德, 2013, 『朝貢與入附-明代西域人來華研究』; [俄]格·尼·波塔寧, B. B. 奧布魯切夫編, 吳吉康·吳立珺譯, 2013, 『蒙古紀行』; [蘇聯]伊·亞·茲拉特金, 馬曼麗譯, 2013, 『准噶爾汗國史(修訂版)』; [蘇聯]瓦西裏弗拉基米羅維奇·巴托爾德, 張麗譯, 2013, 『中亞歷史-巴托爾德文集第2卷第1冊第1部分(上·下冊)』; 李鳴飛, 2013, 『蒙元時期的宗教變遷』; [德]迪特·施林洛甫, 劉震·孟瑜譯, 2013, 『敘事和圖畫-歐洲和印度藝術中的情節展現』; 張小貴, 2013, 『祆教史考論與述評』; [蘇聯]K. A. 阿奇舍夫·Г. А. 庫沙耶夫, 孫危譯, 2013, 『伊犁河流域塞人和烏孫的古代文明』; 陳明, 2013, 『文本與語言-出土文獻與早期佛教比較研究』; 李映州, 2013, 『敦煌壁畫藝術論(上·下冊)』; 杜門城, 2013, 『杜撰集』; 徐文堪, 2013, 『歐亞大陸語言及其研究說略』; 芮傳明, 2013, 『內陸歐亞風雲錄』; 鄭炳林·陳於柱, 2013, 『敦煌占蔔文獻敘錄』; 劉迎勝, 2013, 『小兒錦研究(一·二·三)』; 段海容, 2013, 『薩都刺傳』; 許全勝校注, 2014, 『黑韃事略校注(繁體印刷)』; 華喆, 2014, 『帝國的背影』; 趙現海, 2014, 『明長城時代的開啟-長城社會史視野下榆林長城修築研究(上·下冊)』; 楊建新, 2014, 『邊疆民族論集』; 馬曼麗, 2014, 『塞外文論-馬曼麗內陸歐亞研究自選集』; [蘇聯]И. Я. 茲拉特金主編, М. И. 戈利曼·Г. И. 斯列薩爾丘克, 馬曼麗·胡尚哲譯, 2014, 『俄蒙關係歷史檔案文獻集(上·下冊)』; 劉迎勝, 2014, 『蒙元史考論(上·下冊)』; 李鳴飛, 2014b, 『金元散官制度研究』; 王繼光, 2014, 『中國西部文獻題跋』; 李鳴飛, 2014a, 『橫跨歐亞-中世紀旅行者眼中的世界』; И. К. 柯茲洛夫, 丁淑琴·韓莉·齊哲譯, 2014, 『蒙古

하면서 신장 이외의 내용도 많지만 상당 부분이 신장사와 실크로드 관련 내용이 었다. 또한 당시 우수한 대표 연구자들의 성과를 간행하다 보니 기존 성과를 재 정리한 것도 많아 과거의 연구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계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서역과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총서의 발간을 통해 2010년대 이후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연구들을 새롭게 정리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중국학계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신장사’를 변경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신장통사(新疆通史)』를 발간하기 위한 보조 작업으로 총서 발간도 추진되었다.³⁵ 이것은

和喀木」; [英]馬爾克·奧萊爾·斯坦因, 殷晴·張欣怡 譯, 2014, 『沙埋和闐廢墟記』; 李豔玲, 2014, 『田作畜牧-公元前2世紀至公元7世紀前期西域綠洲農業研究』; 韓中義, 2014, 『歐亞與西北研究輯』; 余太山·李錦繡 主編, 2014, 『古代內陸歐亞史綱』; 王永興, 2014b, 『敦煌吐魯番出土唐代軍事文書考釋』; 王永興, 2014a, 『唐代土地制度研究-以敦煌吐魯番田制文書爲中心』; 李錦繡 編, 2014, 『20世紀內陸歐亞歷史文化研究論文選粹(第一輯)』; 李錦繡 編, 『20世紀內陸歐亞歷史文化研究論文選粹(第二輯)』; 李錦繡 編, 2014, 『20世紀內陸歐亞歷史文化研究論文選粹(第三輯)』; 李錦繡 編, 2014, 『20世紀內陸歐亞歷史文化研究論文選粹(第四輯)』; 林悟殊, 2014a, 『摩尼教華化補說(繁體印刷)』; 馬小鶴, 2014, 『霞浦文書研究(繁體印刷)』; [英]尼古拉斯·辛姆斯·威廉姆斯 編, 李鳴飛·李豔玲 譯, 2014, 『阿富汗北部的巴克特裏亞文獻(上·下冊)』; 石雲濤, 2014b, 『絲綢之路的起源』; 許全勝·劉震 編, 2014, 『內陸歐亞歷史語言論集-徐文堪先生古稀紀念』; 林悟殊, 2014b, 『三夷教研究-林悟殊先生古稀紀念文集』; 薛宗正, 2014, 『西域史彙考(上·下冊)』; 尙永琪, 2014, 『鳩摩羅什及其時代』; 芮傳明, 2014, 『摩尼教敦煌吐魯番文書譯釋與研究』; 楊林坤, 2014, 『西風萬裏交河道-明代西域絲綢之路上的使者和商旅研究』; 陳曉露, 2014, 『樓蘭考古』; 石雲濤, 2014a, 『文明的互動-漢唐間絲綢之路與中外交流論稿』; 王邦維, 2014, 『華梵問學集』; [美]梅維恒·徐文堪 編, 2014, 『梅維恒內陸歐亞研究文選』, 2014-12.

34 《歐亞歷史文化文庫》와 같은 맥락에서 甘肅文化出版社에서 2013년에 《西北邊疆史地研究叢書: 絲綢之路與華夏文明研究文庫》로 편찬된 田澗·何玉紅 主編, 2013, 『絲綢之路研究: 交通與文化』, 甘肅文化出版社 역시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준다.

35 『新疆通史』 편찬은 2005년 신장에 대한 역사 저술 작업으로 자치구 단위로 투입된 최대 규모의 社會科學研究項目으로 시작되었다. 본문은 通史體와 專史體를 혼합한 체제로 작성되는데, 導論卷, 史前卷, 兩漢卷, 魏晉南北朝卷, 隋唐卷, 遼

신장 자체가 바로 중국의 실크로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에서의 접근이었다. 또한 이것은 신장사 저술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라는 점에서 기존 자신들의 연구 성과 정리와 외국 성과 번역 등 《신장통사번역총서[『新疆通史』翻譯叢書]》와³⁶ 《신장통사연구총서[『新疆通史』研究叢書]》의³⁷ 두 부분으로 구성된 방대한 구상이었다. 아울러 이것은 총서 작업을 통해 신장사 저술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실크로드에 대한 이해도 심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변강사의 입장에서 신장사를 새롭게 재정리하려는 수준에 머문 것이 한계였다.

宋金卷, 元明卷, 清代卷(上·下冊), 民國卷, 當代卷(上·下冊) 등 시대사와 민족卷, 宗教卷, 屯墾卷, 當代新疆反分裂鬥爭實錄 등 주제권을 포괄해 14권 16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문과 대응하는 14권의 『新疆通史資料簡編』과 고고자료, 관련 도서, 당안, 사진 등을 모은 『新疆通史圖錄』 6권 7冊 역시 제작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초 자료를 정리해 출간하고 외국어로 된 자료 등을 번역하는 작업이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 36 伊斯拉斐爾·玉蘇甫, 安尼瓦爾·哈斯木, 2012, 『西域飲食文化史』, 新疆人民出版社; 李之勤 編, 2012, 『西域史地三種資料校注』; 石墨林, 2012, 『唐安西都護府史事編年』; 王希隆, 2012, 『清代西北屯田研究』; 王小平, 2012, 『當代新疆屯墾口述史』; [明]陳誠, 王繼光 校注, 2012, 『陳誠西域資料校注』; 吐娜 主編, 2013, 『民國新疆焉耆地區蒙古族檔案選編』; 伊弟利斯·阿不都熱蘇勒 主編, 2013, 『新疆文物考古資料匯編』; 程喜霖·陳習剛, 2013, 『吐魯番唐代軍事文書研究』; 王炳華, 2014, 『古墓溝』; 周衛平, 2014, 『清代新疆官制邊史研究』; 吐吾加甫, 2014, 『新疆蒙古藏傳佛教寺廟』; 王鵬輝, 2016, 『清代民初新疆鎮迪道的佛寺道觀研究』; 《新疆通史》編撰委員會, 田疆生 等編, 2016, 『新疆史地論文著作索引(1988~2007)』.
- 37 [日]佐口透, 章瑩 譯, 2012, 『新疆穆斯林研究』, 新疆人民出版社; [蘇聯]H. M. 休金娜, 姬增祿·閻菊玲 譯, 2012, 『中央亞細亞地圖是怎樣產生的』; [美]白桂思, 付建河 譯, 2012, 『吐蕃在中亞: 中古早期吐蕃, 突厥, 大食, 唐朝爭奪史』; 姬增祿, 2012, 『十至十四世紀回鶻王國的經濟和社會制度』; [日]廣中智之, 2013, 『漢唐于闐佛教研究』; 沈志華 譯, 2013, 『俄國解密檔案: 新疆問題』; C. P. Skrine, P. Nightingel, 2013, 『馬繼業在喀什噶爾: 1890~1918年間英國, 中國和俄國在新疆活動真相』; 楊銘·貢保紮西·索南才讓, 2014, 『英國收藏新疆出土古藏文文書選譯』; 《新疆通史》編撰委員會 編, 2014, 『英屬印度的北部邊疆』; [蘇聯]C. B. 吉謝列夫, 王博 譯, 2014, 『南西伯利亞古代史』; 趙榮織·王旭送, 2015, 『沙陀簡史』.

이렇게 21세기 후진타오가 집권한 10년 동안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면서 일부가 심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정부의 변강 정책 추진과 연결되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원래 중국의 신장에 대한 입장은 대외적 측면에서 제국주의 침탈에 반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의 하나였고, 이를 통해 중국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실크로드의 문명 교류를 주도했던 신장의 역할을 설명할 경우 같은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옥죄었던 논리와 비슷했는데, 이것은 중국에게 신장은 통제의 대상, 즉 ‘내지 식민지(內地植民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³⁸ 즉, 신장은 공존하는 인정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과 동화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방, 평화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등을 상징하는 실크로드라는 개념은 반대로 내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를 관철시키는 유용한 논리적 분석 도구가 되었다. 결국 변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는 과거 제국주의적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리고 변강의 통합을 지향하는 데 필수적 일원에 불과한 신장은 그만큼의 의미만 부여받고 모두 중국에 예속되어야만 했다. 또한 실크로드 역시 변강인 신장을 귀속시키려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이제 실크로드는 위와 같은 역할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논리의 하나 또는 변강사 연구의 목표로 설정된 ‘중화민족 대가족(大家族)의 구성’이라는 대전제에 충실히 복무하는 방향에서만 연구되어야만 했다. 즉, 신장 실크로드사는 변강사 연구가 강화되면서 그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8 苗普生·田衛疆 主編, 2004, 『新疆史綱』, 新疆人民出版社와 田衛疆, 伊第利斯·阿不都熱蘇勒, 2009, 『中國新疆通史』, 新疆美術攝影出版社에서도 신장사가 중국의 통일적 민족국가 역사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21세기 중국의 신장사에 대한 성격 규정이 당국의 정치적 노선에 맞추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준다.

V. '신실크로드 전략' 추진과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의 위축

21세기 중국은 실크로드와 직접 연결된 유라시아 및 신장, 그리고 서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계속 축적해 관련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이 중에서도 특히 다른 것에 비해 관심을 받아 연구에 탄력이 생긴 주제는 실크로드였다. 이것은 시진핑이 2013년 '일대일로' 정책, 즉 '신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하게 된 이후 '실크로드'가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이 정책은 경제 개발과 대외 확장이 주요 목적이었지만 '실크로드'라는 용어의 등장으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다시금 집중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크로드 자체에 대한 활발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신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역사 귀속 문제와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신장통사』 저술이나 실크로드 자체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과거와 같은 보편적 측면의 접근은 급속히 위축되었다. 그 연구 방향 역시 정부의 추진 전략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신장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5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³⁹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째, 장건(張騫, ?~BC 114)이 서역으로 진출한 이후 실크로드의 문화 교류와 불교 전파, 둘째, 중국 다민족국가의 형성과 각 민족 문화의 교류 융합, 셋째, 당대(唐代)의 강력한 변영은 다민족 융합과 문화 교류의 결과, 넷째, 원대(元代)에 지금 신장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각 민족의 중국 문명에 대한 흥미가 많아 서역인의 한화(漢化)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다섯째, 15~16세기 이후 동서양의 서로 다른 운명 등이었다.

개별 주제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장건의 서행(西行)으로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가 본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개척한 길을 통해 이후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중국은 불교가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

39 王治來, 2017, 「絲綢之路的歷史文化交流與“一帶一路”建設」, 『西域研究』 2017-2.

온 것은 인정하나 불교 자체의 성격이 중국적이므로 다른 종교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불교가 오랜 시간을 거치며 중국화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지만 불교의 유입에는 신장 오아시스 도시들의 역할이 중요했고, 초기에 도입된 불경의 역경 작업 역시 이들의 번역을 재번역한 것이었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럼에도 장건의 실크로드 착공을 통해 서방과 관계를 확립하고 이후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자 했다.

둘째, 위진남북조 시기(魏晉南北朝時期) 호한(胡漢)의 융합을 강조함으로써 다민족 국가의 구성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를 통해 우월한 한의 문화에 호가 융합되어 중화 문화가 풍부해졌으며 여러 민족의 융합이 이루어져 중화민족의 층계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이 시기부터 민족 융합이 활발해져 수당 시대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은 결국 민족 이동과 혼재의 시대였던 위진남북조 시대가 수당 시기의 전주(前奏)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접근이었다. 즉, 혼란과 분열을 지나 통합된 국가로 발전하려면 민족의 융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다민족국가에서 융합을 통해 중화민족을 건설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에 불과했다.

셋째, 당대의 번영과 대외 확장 성공이 다민족의 융합과 문화 교류의 결과물이라고 설정했다. 당조는 이런 배경하에서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적으로 관용적이었으며, 그 결과 다른 시기에 비해 풍부한 문화적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당조의 발전과 함께 활성화되었던 실크로드를 통한 교통이 751년 탈라스 전투로 주춤했다가 이후 몽골의 등장과 함께 다시 회복되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당과 원을 강력한 통일 왕조로서 대외 확장을 했던 시기로 이해하려고 했다.

넷째, 500년의 분열이 몽골의 등장으로 재통일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중국의 확대이자 발전적 통일 상태라는 점이다. 이 시기 다양한 민족과 종교 등이 융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새로운 문화가 중국에 들어와 혼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은 몽골제국을 중국사의 틀에 완전히 녹여 제국 전반으로 연결해 설명하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이 시기 원조를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 실

크로드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대외 교류를 강조했다.

다섯째, 실크로드가 몽골제국 시기 이후 분열되면서 번영이 약화된 이후 내적으로 대륙 지향적 발전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양 지향적 발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 두 세계가 근대로 발전했는데, 이를 통해 실크로드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방향은 정부에서 제시한 ‘일대일로’라는 정책적 구상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정해졌음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과거 중서 교통을 통해 무역을 발전시키고 경제적 발전과 함께 나아가 문화 교류를 하는 데 중국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작금의 신실크로드 전략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준다. 이것은 2013년 이후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장의 중국사 귀속 노력과 연결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실크로드의 중추인 신장은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로 완전히 포용되었다. 또한 그 역할 역시 중국사의 범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동화(同化)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강한 정책이 신장에서 관철되어야만 했다. 더욱이 신장의 역사적 독자성을 지우고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해 그의 영향까지 강하게 받았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장 실크로드사에 대한 중국의 이런 태도는 2014년 실크로드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등재와 관련한 정비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원래 세계 문화유산의 등재는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중요 사업의 하나로 이들에게 세계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라는 전제를 관철시켜 문화적으로 세계적 권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중요 수단이었다. 반대로 등재를 원하는 국가에게는 관광 산업 진흥이라는 목적, 문화의 세계성 확보, 자국 문화의 자랑 등 부가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세계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반미적 성격을 띠는 유네스코

를 무대로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는 G2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런 중국의 위상은 오히려 등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쉽게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따라서 중국은 실크로드 관련 문화유산의 등재 과정에서 자신들의 연구 성과에 기반한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자 했다. 이것은 내지와 달리 변강 지역의 유적에 대한 다른 접근 태도의 관철, 즉 변강 정책에 기초한 연구에 토대를 둔 성격 규정이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2014년 6월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중국 내 실크로드 관련 유적을 등재시켰다. 실크로드가 한 나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접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실크로드: 창안[長安]-텐산[天山] 회랑 도로망(Silk Roads: the Routes Network of Chang'an-Tianshan Corridor)’으로 모두 33곳을 공동 등재시켰다.⁴⁰ 등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세계문화유산위원회(ICOMOS)에 제출된 등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⁴¹

이 내용을 보면, 중국은 이를 통해 실크로드가 낙양(洛陽)과 장안(長安)에서부터 자기 영역을 통과해 중앙아시아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를 과거부터 자신들이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서역과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해 신장의 실크로드 관련 유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실크로드 관련 세계 문화유산을 보존해야만 한다는

40 유네스코, <http://whc.unesco.org/en/list/1442/>

중국은 2006년 투루판에서 열린 회담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실크로드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대상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2년 회랑별로 등재하기로 결정한 다음 天山回廊을 2014년에 3개국 공동으로 등재했다.

41 State Admin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the Kyrgyz Republic, 2014, *Silk Roads: Initial Section of the Silk Roads, the Routes Network of Tian-shan Corridor*, p. 5710.

입장에서 등재를 시도하려는 다른 입장을 묵살하고 자신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했다.⁴² 즉, 신장사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는 방향에 맞춰 유적지에 대한 복원과 정비를 했던 것이다.

실제 유적의 등재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면, 33곳의 등재 문화유산 중에 신장에 위치한 것은 중심도시로 설정된 고초 발릭[高昌故城], 야르 발릭[交河故城], 베시 발릭[北庭故城] 등의 유지와 불교 전파 유적인 크즐 천불동[克孜尔石窟], 수바시 불교유적[蘇巴什佛寺遺址], 그리고 신장 최대의 봉수 유적인 크즐가하 봉수대[克孜爾尕哈烽燧] 등 모두 6곳이다. 이곳만 등재된 것은 실크로드에서 신장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곳도 등재 기준에 부합하나 다른 유적과의 연관성 및 주변국과 형평성, 그리고 정부의 입장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한다.

신장 소재 실크로드 유적의 선정과 기준 등을 분석해보면,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 성과가 어떻게 관철되었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등재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보면, 기준 (ii)에서 “회량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며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서로 이어주었던 역동적 통로로서 해당 문명과 문화 사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상호 교류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세계사 속의 특별한 사례이다.” 기준 (iii)에서 “기원전 2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라시아 대륙에서 있었던 사회적 발전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갖고 있다.”, 기준 (vi)에서 “회량은 유라시아 대륙의 인류 문명·문화 교류에서 일대 사건인 장건을 중심으로 한 사신단의 서역 파견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이후 동아시아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교가 고대 중국에 얼마나 깊은 충격을 주었는지 가시적으로 조명하며, 네스토리우스교(서기 500년경에 중국에 도래)·조로아스터교·마니교, 그리고 초기 이슬람교의 확산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⁴³ 이것은 전술한 왕즈라이[王治來]의 실크로드의 역

42 景峰, 2015, 『絲綢之路文化路線系列跨境申遺研究』, 科學出版社.

43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whs/실크로드-창안-텐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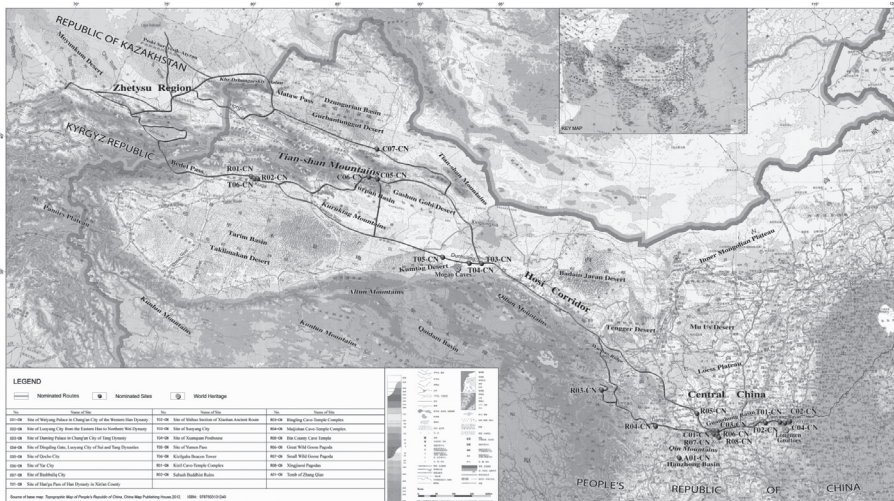


그림 2 창안-텐산 회랑 실크로드 관련 세계 문화유산 분포도[세계문화유산위원회(ICOMOS) 보고서]

사 교류에 대한 설명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⁴⁴ 중국의 공식적 입장을 보여 준다.

기준과 중국의 입장을 연결해보면, 먼저 교류에 따른 다양한 영향 관계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강하게 설파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유라시아 대륙에 큰 영향을 끼친 문화 교류가 실크로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 것이다. 세계사의 보편 가치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자신의 입장만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장건묘를 유산으로 등재시켜 착공(鑿空)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것은 중국이 실크로드를 주도적으로 열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은 등재된 유적의 정비 현장에서 장건과 함께 이후 실크로드에 활동한 중요 중국인들의 흉상을 만들어 전시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고창고성(高昌故城), 교

량-도로망/
44 주 39) 참조.

하고성(交河故城)의 유적 입구에 신축한 전시장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⁴⁵

또한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친 불교의 전파를 강조하기 위해 불교 유적인 크즐 천불동을 등재시켰다. 이곳에는 중국에 들어와 한문으로 불경을 번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쿠마라지마[鳩摩羅什]의 동상을 세웠는데, 그 역시 중국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가 이곳 출신으로 후량(後凉)의 여광(呂光)에게 잡혀 양주(凉州)에 갔다가 후진(後秦) 시기인 401년에 장안에 들어가 최고의 역경가로 활동했지만 쿠차(龜茲) 출신이라는 점보다 중국인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려고 한 것이었다.

또한 구법승으로 가장 유명한 현장(玄奘)도 장건에 비견할 정도로 강조되었다. 그와 관련한 중요 유적인 고창고성에서도 먼저 복원된 곳이 그가 설법한 원형 강학당이였다. 또한 신축한 남쪽 입구에 그의 동상을 세운 것이나 10km 떨어진 유적 입구에 있는 고창고성 이정표 안내판에 “현장서역강경처(玄奘西域講經處)”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 모두 그를 통한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고창고성은 원래 5세기 기존 세력과 한인들의 대거 이주로 투루판의 정치적 중심이었다가 당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주(西州)의 중심이었고, 9~13세기 초에는 고창 위구르[高昌回鶻, Qocho Uyghur]의 수도였다.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음에도 북쪽에 위치한 위구르 시대의 왕성보다 주로 불교 유적을 집중 복원했다. 이것은 그곳의 특징을 불교와 연결 지어 설명하려고 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곳에는 원래 다양한 종교적 특징, 즉 마니교, 불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 관련 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또한 640년 당조의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설치 이후 서주(西州)로의 편입과 함께 인근의 아스타나 고분에서도 다양한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45 정재훈, 2017, 「투루판 역사 유적 개발과 관광 양상」, 『중아시아연구』 22-2.

교하고성 역시 당대 안서도호부의 설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곳도 중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불교 사원 중심의 복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텐산 북쪽에 짐사르 시내 외곽에 있는 북정고성도 비슷한데, 이곳 역시 원래 6~7세기 서돌궐(西突厥)의 거점으로 발전했다가 이후 계절 이동을 하는 고창 위구르의 수도였는데도 703년에 설치된 북정도호부(北庭都護府)의 치소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불교가 발전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쿠차의 수바시 불교 사원 유적도 동일한데, 안서도호부가 쿠차로 이동한 시기와 현장이 설법했다는 곳을 강조해 복원했다.

위의 다섯 곳과 한대(漢代)에 만들어진 봉수대를 포함해 모든 유적에서 중원 왕조의 진출과 그의 문화적 영향을 통해 신장이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일부 실크로드의 세계사적 의미를 통해 문화 보편성을 강조하기도 하나 그 속에는 강력한 통제, 중국의 진출과 정복, 그리고 동화로 이어지는 지배 공식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이를 현지에 강요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중국의 신장 관련 변강 정책, 나아가 역사 귀속 노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신장의 유적들은 중국의 일부이고 원래 그 자체가 갖고 있던 역사적 의미는 더 이상 부여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장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얼마나 강하게 반영시키려 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중국은 이렇게 실크로드를 통한 진출, 즉 개방을 이를 통해 설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변강 문제는 절대로 개방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신장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이미 21세기 초부터 대테러 전쟁을 벌이며 동시에 경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을 잠재워 이슬람 분리주의자의 위협을 제거하고 지역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들어 통제를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일대일로 정책 추진과 함께 강력한 동화 정책이 현실화되어 2016년부터 무슬림의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고 고유의 문화 관련 교육마저 제약했다. 또한 2017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전후로 통제를 강화하며 2018년에는 안면 인식을 통한 이동 자유마저 막는 등 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양면적 태도를 확인시켜주고 결국 슬로건으로 다시 부각된 ‘실크로드’마저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게 한다.

VI. 맺음말

G2로 성장한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은 중앙아시아의 진출을 통한 경제적 발전과 강대국 간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을 더 가속화하고자 한 것이었다.⁴⁶ 이를 위해 신장에 대한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통제를 구사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 집권기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2017년 5월 일대일로 세계 정상회담을 개최해 국제 여론을 환기하기도 했다. 또한 이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유대 관계가 깊은 유네스코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안 사업인 ‘실크로드 상호 작용 지도(Silk Roads Interactive Map)’ 제작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2017년 6월 2일 학술회의의 종료와 함께 ‘베이징 선언(Peace Garden Declaration Announced in Beijing)’을 채택했는데,⁴⁷ 이는 중국이 향후 유네스

46 본 정책을 추진한 것은 표면적으로 2011년 9월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제기한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이다. 이후 러시아의 푸틴도 구소련(CIS)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4년 ‘유라시아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로 약칭)’ 결성을 선언하며 경쟁을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중앙아시아를 두고 경쟁이 전개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 한반도와 아시아,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 경제권으로 발전시키려는 신유라시아 건설 구상, 이른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북방 정책’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런 대외적 환경 이외에도 중국이 과거 개혁 개방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대외 확장 정책을 펼침으로써 G2에서 G1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는 평가도 있다.

47 중국세계화평기금회, <http://www.cwpcf.org.cn/en/a/41/1339.html>, 유네스코, <https://en.unesco.org/silkroad/events-festivals/expert->

코와 함께 실크로드와 관련한 국제적 학술 연구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것은 일대일로 정책 추진 이후 중국에서 실크로드가 가장 주목되는 논의의 대상임을 다시금 보여준다. 덕분에 정부의 지원 속에서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40여 년 지속해온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공을 기반으로 ‘실크로드’라는 개념을 적극 이용해 세계를 주도하는 개방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실크로드는 정부의 중요한 슬로건이 될 만큼 정치적으로도 아주 유효한 개념이 되었다. 이것은 최근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라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한 40년 동안 중국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해온 성과물이었다. 이런 정부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 관련 연구가 많이 축적되었으며 이와 긴밀한 신장사 연구 역시 풍부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실크로드는 대외 관계에서 중국의 개방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주제로 계속 이용되어왔다.

동시에 이것은 변강 문제가 현안이었던 신장과 맞물리면서 개방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과 모순을 해결하고 나아가 중앙의 변강 통제력 강화의 논리를 포장하는 데 이용되었다. 중국은 ‘실크로드’를 슬로건으로 걸고 유네스코를 무대로 비정치적이고 개방적 모습을 분식했지만 내부적으로 변강에 대한 강한 통제, 나아가 동화 정책을 추진해왔다.⁴⁸ 이런 모습은 결국 변강 문제라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보편적 주제인 실크로드가 늘 그의 논리에 매몰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중국이 지금 다시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학술적 개념으로 대외 진출이나 확장을 내세우는 데 유효한 슬로건인 실크로드는 문화적 측면이 강하지

meeting-development-interactive-atlas-cultural-interactions-along-silk-roads.

48 巴莫曲布嫫, 2018, 「“一帶一路”作爲方法-聯合國教科文組織“對話之路”系列項目的萌蘗與分蘗」, 『西北民族研究』 2018-4.

만 그 속에 분식되어 감춰진 정치적 속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변강 문제와 관련될 경우에 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이것은 만주[東北]를 비롯한 다른 변강 지역의 역사 귀속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연구서

- 김호동, 1999,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 사계절.
- 밀워드, 제임스 A., 김찬영·이광태 역, 2013, 『신장의 역사』, 사계절
- 오홍엽, 2009, 『중국 신장 위구르족과 한족의 갈등』, 친디루스.
- 이창주, 2017, 『일대일로의 모든 것』, 서해문집.
- 퍼듀, 피터 C., 공원국 역, 2012, 『중국의 서진』, 길.
- 衫本一樹, 2008, 『正倉院-歴史と寶物』, 中公新書.
- 日本放送出版協會 編, 1980~1981, 『シルクロード 絲綢之路』 全6卷, 日本放送出版協會.
- _____, 1983~1984, 『シルクロード 로마への道』(全6卷), 日本放送出版協會.
- 林良一, 1962, 『シルクロード』, 美術出版社.
- [丹]亨寧·哈士綸, 徐孝祥 譯, 1999, 『蒙古的人和神』, 新疆人民出版社.
- [丹麥]亨寧·哈士綸, 徐孝祥 譯, 2010, 『蒙古的人和神』, 新疆人民出版社.
- [德]阿爾伯特·馮·勒柯克, 1999, 『新疆的地下文化寶藏』, 新疆人民出版社.
- [德]迪特·施林洛甫, 劉震·孟瑜 譯, 2013, 『敘事和圖畫-歐洲和印度藝術中的情節展現』, 蘭州大學出版社.
- [明]陳誠, 王繼光 校注, 2011, 『陳誠西域資料校注』, 新疆人民出版社.
- [美]梅維恒, 徐文堪 編, 2014, 『梅維恒內陸歐亞研究文選』, 蘭州大學出版社.
- [美]白桂思, 付建河 譯, 2012, 『吐蕃在中亞: 中古早期吐蕃, 突厥, 大食, 唐朝爭奪史』, 新疆人民出版社.
- [美]查爾斯·林霍爾姆, 張士東·楊軍 譯, 2012, 『伊斯蘭中東-傳統與變遷』, 蘭州大學出版社.
- [美]J. G. 馬勒, 王欣 譯, 2012, 『唐代塑像中的西域人』, 蘭州大學出版社.

- [法]魯保羅, 耿昇 譯, 2006, 『西域的歷史與文明』, 新疆人民出版社.
- [法]阿里·瑪紮海裏, 耿昇 譯, 2006, 『絲綢之路: 中國-波斯文化交流史』, 新疆人民出版社.
- [瑞典]貢納爾·雅林, 崔延虎·郭穎傑 譯, 2010, 『重返喀什噶爾』, 新疆人民出版社.
- [瑞典]尼爾斯·安博特, 楊子·宋增科 譯, 2010, 『駝隊』, 新疆人民出版社.
- [瑞典]斯文·赫定, 『絲綢之路』, 1996, 新疆人民出版社.
- [瑞典]斯文·赫定, 江紅 譯, 2000, 『遊移的湖』, 新疆人民出版社.
- [瑞典]斯文·赫定, 江紅 譯, 2010, 『遊移的湖』, 新疆人民出版社.
- [瑞典]斯文·赫定, 江紅·李佩娟 譯, 2010, 『絲綢之路』, 新疆人民出版社.
- [瑞典]斯文·赫定, 徐十周 譯, 1992, 『亞洲腹地探險八年: 1927~1935』, 新疆人民出版社.
- [瑞典]斯文·赫定, 王安洪·崔延虎 譯, 2003, 『羅布泊探秘』, 新疆人民出版社.
- [瑞典]斯文·赫定, 孫仲寬 譯, 1997, 『我的探險生涯: 原名《亞洲腹地旅行記》』, 新疆人民出版社.
- [瑞典]_____ , 2010, 『我的探險生涯』, 新疆人民出版社.
- [瑞典]斯文·赫定·沃爾克·貝格曼, 李述禮·張鳴 譯, 2010, 『橫渡戈壁沙漠』, 新疆人民出版社.
- [瑞典]貝格曼, 王安洪 譯, 1997, 『新疆考古記』, 新疆人民出版社.
- [蘇聯]費·阿·奧勃魯切夫, 王沛 譯, 2010, 『荒漠尋寶』, 新疆人民出版社.
- [蘇聯]C. B. 吉謝列夫, 王博 譯, 2014, 『南西伯利亞古代史』, 新疆人民出版社.
- [蘇聯]H. M. 休金娜, 姬增祿·閻菊玲 譯, 2012, 『中央亞細亞地圖是怎樣產生的』, 新疆人民出版社.
- [蘇聯]瓦西裏 弗拉基米羅維奇 巴托爾德, 張麗 譯, 2013, 『中亞歷史-巴托爾德文集 第2卷 第1冊 第1部分(上·下冊)』, 蘭州大學出版社.
- [蘇聯]伊·亞·茲拉特金, 馬曼麗 譯, 2013, 『准噶爾汗國史(修訂版)』, 蘭州大學出版社.
- [蘇聯]И. Я. 茲拉特金 主編, М. И. 戈利曼·Г. И. 斯列薩爾丘克, 馬曼麗·胡尚哲 譯, 2014, 『俄蒙關係歷史檔案文獻集(上·下冊)』, 蘭州大學出版社.
- [蘇聯]И. К. 柯茲洛夫, 丁淑琴·韓莉·齊哲 譯, 2014, 『蒙古和喀木』, 蘭州大學出版社.

- [蘇聯]K. A. 阿奇舍夫·Г. A. 庫沙耶夫, 孫危 譯, 2013, 『伊犁河流域塞人和烏孫的古代文明』, 蘭州大學出版社.
- [蘇聯]T. B. 巴爾采娃, 張良仁·李明華 譯, 2012, 『斯基泰時期的有色金屬加工業—第聶伯河左岸森林草原地帶』, 蘭州大學出版社.
- [俄]格·尼·波塔寧·B. B. 奧布魯切夫 編, 吳吉康·吳立珺 譯, 2013, 『蒙古紀行』, 蘭州大學出版社.
- [俄]波·庫·柯茲洛夫, 王希隆·丁淑琴 譯, 2011, 『蒙古, 安多和死城哈喇浩特』, 蘭州大學出版社.
- [我]彼·彼·謝苗諾夫, 2001, 『天山遊記: 天山遊記』, 新疆人民出版社.
- [英]凱瑟琳·馬嘎特尼, 1997, 『外交官夫人的回憶』, 新疆人民出版社.
- [英]凱瑟琳·馬嘎特尼·戴安娜·西普頓, 王衛平·崔延虎 譯, 2010, 『外交官夫人的回憶』, 新疆人民出版社.
- [英]尼古拉斯·辛姆斯·威廉姆斯 編, 李鳴飛·李豔玲 譯, 2014, 『阿富汗北部的巴克特裏亞文獻(上·下冊)』, 蘭州大學出版社.
- [英]馬爾克·奧萊爾·斯坦因, 殷晴·張欣怡 譯, 2014, 『沙埋和闐廢墟記』, 蘭州大學出版社.
- [英]C. P. Skrine, P. Nightingel, 2013, 『馬繼業在喀什噶爾: 1890-1918年間英國、中國和俄國在新疆活動真相』, 新疆人民出版社.
- [英]奧裏爾·斯坦因, 向達 譯, 2010, 『斯坦因西域考古記』, 新疆人民出版社.
- [烏茲別克斯坦]艾哈邁多夫, 陳遠光 譯, 2012, 『16~18世紀中亞歷史地理文獻(修訂版)』, 蘭州大學出版社.
- [意]伯戴克, 張雲 譯, 2010, 『中部西藏與蒙古人—元代西藏歷史(增訂本)』, 蘭州大學出版社.
- [印度]艾哈默得·辛哈, 周翔翼 譯, 徐百永 校, 2010, 『入藏四年』, 蘭州大學出版社.
- [日]廣中智之, 2013, 『漢唐于闐佛教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日]堀敏一, 韓昇·劉建英 編譯, 2010, 『隋唐帝國與東亞(增訂版)』, 蘭州大學出版社.
- [日]橋瑞超, 柳洪亮 譯, 1999, 『橋瑞超西行記』, 新疆人民出版社.
- [日]_____, 2010, 『橋瑞超西行記』, 新疆人民出版社.
- [日]井上充幸·加藤雄三·森穀一樹, 烏雲格日勒 譯, 2013, 『黑水城兩千年歷史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日]佐口透, 章瑩 譯, 2012, 『新疆穆斯林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賈應逸, 2010, 『新疆佛教壁畫的歷史學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蓋山林, 1996, 『絲綢之路草原民族文化』, 新疆人民出版社.
- , 2009a, 『絲綢之路岩畫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 2009b, 『絲綢之路草原文化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景峰, 2015, 『絲綢之路文化路線系列跨境申遺研究』, 科學出版社.
- 耿世民, 2012, 『西域文史論稿』, 蘭州大學出版社.
- 桂寶麗, 2013, 『可薩突厥』, 蘭州大學出版社, 2013-01.
- 顧世寶, 2012, 『蒙元時代的蒙古族文學家』, 蘭州大學出版社.
- 鞏珍, 2012, 『西洋番國志 鄭和航海圖 兩種海道針經』, 中華書局.
- 金秋, 2009, 『絲綢之路樂舞藝術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藍琪, 2012, 『16~19世紀中亞各國與俄國關係論述』, 蘭州大學出版社.
- 路易·巴贊, 耿昇 譯, 1997, 『突厥歷法研究』, 中華書局.
- 雷茂奎·李竟成, 1994, 『絲綢之路民族民間文學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段海容, 2014, 『薩都刺傳』, 蘭州大學出版社.
- 童丕, 余欣·陳建偉 譯, 2003, 『敦煌的借貸: 中國中古時代的物質生活與社會』, 中華書局.
- 杜門城, 2013, 『杜撰集』, 蘭州大學出版社.
- 梁俊豔, 2011, 『英國與中國西藏(1774~1904)』, 蘭州大學出版社.
- 黎崱·武尚清 點校, 大汕·余思黎 點校, 2000, 『安南志略』, 中華書局.
- 馬健, 2011, 『匈奴葬儀的考古學探索-兼論歐亞草原東部文化交流』, 蘭州大學出版社.
- 馬大正 等著, 2006, 『新疆史鑑』, 新疆人民出版社.
- 主編, 2000, 『中國邊疆經略史』, 中州古籍出版社.
- 楊簾, 1998, 『西域考察與研究續編』, 新疆人民出版社.
- 王嶸, 1994, 『楊簾西域考察與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馬曼麗, 2014, 『塞外文論-馬曼麗內陸歐亞研究自選集』, 蘭州大學出版社.
- 馬小鶴, 2008, 『摩尼教與古代西域史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 2013, 『光明的使者-摩尼與摩尼教』,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 『霞浦文書研究(繁體印刷)』, 蘭州大學出版社.
- 莫尼克·瑪雅爾, 耿昇 譯, 1995, 『古代高昌王國物質文明史』, 中華書局.
- 孟凡人, 2010, 『新疆考古論集』, 蘭州大學出版社.
- 苗普生·田衛疆 主編, 2004, 『新疆史綱』, 新疆人民出版社.
- 方鐵 編, 2003, 『西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 方豪, 1987, 『中西交通史』, 岳麓書社.
- 伯希和, 耿升 譯, 1994, 『卡爾梅克史評注: *Notes critiques d'histoire Kalmouke*』, 中華書局.
- 法顯·章巽 校注, 2008, 『法顯傳校注』, 中華書局.
- 謝彬, 1990, 『新疆遊記』, 新疆人民出版社.
- 謝彬, 楊鐮·張頤青 整理, 2010, 『新疆遊記』, 新疆人民出版社.
- 謝和耐 等, 耿昇 譯, 1993, 『法國學者敦煌學論文選萃』, 中華書局.
- 尚永琪, 2012, 『胡僧東來-漢唐時期的佛經翻譯家和傳播人』,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 『鳩摩羅什及其時代』, 蘭州大學出版社.
- 徐文堪, 2013, 『歐亞大陸語言及其研究說略』, 蘭州大學出版社.
- 徐松, 2005, 『西域水道記』, 中華書局.
- 石墨林, 2012, 『唐安西都護府史事編年』, 新疆人民出版社.
- 石雲濤, 2014a, 『文明的互動-漢唐間絲綢之路與中外交流論稿』,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b, 『絲綢之路的起源』, 蘭州大學出版社.
- 薛宗正, 2009, 『絲綢之路北庭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_____, 2014, 『西域史彙考(上·下冊)』, 蘭州大學出版社.
- 成一農, 2012, 『空間與形態-三至七世紀中國歷史城市地理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蘇北海, 1996, 『絲綢之路與龜茲歷史文化』, 新疆人民出版社.
- _____, 2009, 『絲綢之路龜茲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篠原典生, 2013, 『西天伽藍記』, 蘭州大學出版社.
- 孫玉良, 2010, 『史林遺痕』, 蘭州大學出版社.
- 宋博年, 2009, 『絲綢之路音樂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宋峴, 2000, 『回回藥方考釋』, 中華書局.
- 《新疆通史》編撰委員會 編, 2014, 『英屬印度的北部邊疆』, 新疆人民出版社.
- 《新疆通史》編撰委員會·田疆生 等編, 2016, 『新疆史地論文著作索引(1988~2007)』,

- 新疆人民出版社.
- 新獲吐魯番出土文獻研究論集編纂委 編, 2010, 『吐魯番出土文獻研究論集』, 人民大學出版社.
- 阿里·瑪紮海裏, 耿昇 譯, 1993, 『絲綢之路: 中國-波斯文化交流史』, 中華書局.
- 楊建新, 2014, 『邊疆民族論集』, 蘭州大學出版社.
- 楊軍, 2011a, 『夫餘史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1b, 『走向陌生的地方-內陸歐亞移民史話』, 蘭州大學出版社.
- 楊林坤, 2014, 『西風萬裏交河道-明代西域絲綢之路上的使者和商旅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楊銘, 2012a, 『國外敦煌學·藏學研究-翻譯與評述』,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2b, 『唐代吐蕃與西北民族關係史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楊銘·貢保紮西·索南才讓, 2014, 『英國收藏新疆出土古藏文文書選譯』, 新疆人民出版社.
- 嚴從簡, 1993, 『殊域周咨錄』, 中華書局.
- 余大鈞 譯, 2012, 『北方民族史與蒙古史譯文集(修訂版)(上·下冊)』, 蘭州大學出版社.
- 余太山, 1996, 『西域通史』, 中州古籍出版社.
- _____, 李錦繡 主編, 2014, 『古代內陸歐亞史綱』, 蘭州大學出版社.
- 葉德榮, 2012, 『漢晉胡漢佛教論稿』, 蘭州大學出版社.
- 芮傳明, 2009, 『絲綢之路研究入門』, 復旦大學出版社.
- _____, 2013, 『內陸歐亞風雲錄』,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 『摩尼教敦煌吐魯番文書譯釋與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吳謁宸, 田杉 整理, 2010, 『邊城蒙難記』, 新疆人民出版社.
- 烏雲高娃, 2011, 『元朝與高麗關係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王繼光, 2014, 『中國西部文獻題跋』, 蘭州大學出版社.
- 汪大淵, 1981, 『夷志略校釋』, 中華書局.
- 王博, 2009, 『絲綢之路草原石人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王博·祁小山, 1995, 『絲綢之路草原石人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王邦維, 2014, 『華梵問學集』, 蘭州大學出版社.
- 王炳華, 1993, 『絲綢之路考古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_____, 2008, 『西域考古歷史論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_____, 2009, 『絲綢之路考古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_____, 2010, 『西域考古文存』,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 『古墓溝』, 新疆人民出版社.
- 王鵬輝, 2016, 『清代民初新疆鎮迪道的佛寺道觀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王小平, 2012, 『當代新疆屯墾口述史』, 新疆人民出版社.
- 汪受寬, 2012, 『驪軒夢斷-古羅馬軍團東歸偽史辨識』, 蘭州大學出版社.
- 王永興, 2010, 『唐代經營西北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a, 『唐代土地制度研究-以敦煌吐魯番田制文書爲中心』,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b, 『敦煌吐魯番出土唐代軍事文書考釋』, 蘭州大學出版社.
- 王子今, 2014, 『秦漢邊疆與民族問題』,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王頌, 2010, 『西域南海史地探索』,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_____, 2011, 『內陸亞洲史地求索』,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2, 『內陸亞洲史地求索(續)』, 蘭州大學出版社.
- 王鐘翰 主編, 1994, 『中國民族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王之春, 1989, 『清朝柔遠記』, 中華書局.
- 王孝先, 1994, 『絲綢之路醫藥學交流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王希隆, 2012, 『清代西北屯田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劉文鎖, 2010, 『絲綢之路-內陸歐亞考古與歷史』, 蘭州大學出版社.
- 劉雪飛, 2012, 『上古歐洲斯基泰文化巡禮』, 蘭州大學出版社.
- 劉迎勝, 2008, 『《回回館雜字》與《回回館譯語》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_____, 2013, 『小兒錦研究(一·二·三)』,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 『蒙元史考論(上·下冊)』, 蘭州大學出版社.
- 刘志霄, 1975, 『维吾尔族历史』, 民族出版社.
- 陸暉, 2009, 『絲綢之路戲曲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牛汝極 等, 2012, 『新疆文化的現代化轉向』, 蘭州大學出版社.
- 袁祖亮, 2009, 『絲綢之路人口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袁祖亮 主編, 1996, 『絲綢之路人口問題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殷小平, 2012, 『元代也裏可溫考述』, 蘭州大學出版社.

- 殷晴, 2012, 『絲綢之路經濟史研究(上·下)』, 蘭州大學出版社.
- 義淨, 1995, 『南海寄歸內法傳校注』, 中華書局.
- 義淨·王邦維 校注, 2000, 『大唐西域求法高僧傳校注』, 中華書局.
- 伊斯拉斐爾·玉蘇甫, 安尼瓦爾·哈斯木, 2012, 『西域飲食文化史』, 新疆人民出版社.
- 伊弟利斯·阿不都熱蘇勒 主編, 2013, 『新疆文物考古資料匯編』, 新疆人民出版社.
- 李強, 2009, 『絲綢之路戲劇文化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李鍵才, 2010, 『東北亞史地論集』, 蘭州大學出版社.
- 李竟成, 2009, 『絲綢之路民間文學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李錦繡 編, 2014a, 『20世紀內陸歐亞歷史文化研究論文選粹(第一輯)』,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b, 『20世紀內陸歐亞歷史文化研究論文選粹(第二輯)』,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c, 『20世紀內陸歐亞歷史文化研究論文選粹(第三輯)』,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d, 『20世紀內陸歐亞歷史文化研究論文選粹(第四輯)』, 蘭州大學出版社.
- 李鳴飛, 2013, 『蒙元時期的宗教變遷』,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a, 『橫跨歐亞-中世紀旅行者眼中的世界』,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b, 『金元散官制度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李方, 2010, 『唐西州官吏編年考證』,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李豔玲, 2014, 『田作畜牧-公元前2世紀至公元7世紀前期西域綠洲農業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李映州, 2013, 『敦煌壁畫藝術論(上·下冊)』, 蘭州大學出版社.
- 李之勤 編, 2012, 『西域史地三種資料校注』, 新疆人民出版社.
- 李進新, 2009, 『絲綢之路宗教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李肖等 編, 2011, 『秩序與生活: 中古時期的吐魯番社會』,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李肖冰, 2009, 『絲綢之路服飾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李治亭 編, 2003,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 林競·楊謙·張頤青, 2010, 『親歷西北』, 新疆人民出版社.

- 林悟殊, 2011, 『中古夷教華化叢考(繁體印制)』,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a, 『摩尼教華化補說(繁體印刷)』,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b, 『三夷教研究-林悟殊先生古稀紀念文集』, 蘭州大學出版社.
- 張廣達·榮新江, 2008, 『于闐史叢考』,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張文德, 2013, 『朝貢與入附-明代西域人來華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張博泉, 2010, 『甫白文存』, 蘭州大學出版社.
- 張小貴, 2013, 『祆教史考論與述評』, 蘭州大學出版社.
- 張煒·方堃, 2003, 『中國海疆通史』, 中州古籍出版社.
- 張平, 2010, 『龜茲文明: 龜茲史地考古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才吾加甫, 2014, 『新疆蒙古藏傳佛教寺廟』, 新疆人民出版社.
- 儲安平·浦熙修, 2010, 『新疆新觀察』, 新疆人民出版社.
- 田衛疆, 1997, 『絲綢之路與東察合台汗國史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_____, 2009, 『絲綢之路吐魯番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田衛疆·伊第利斯·阿不都熱蘇勒, 2009, 『中國新疆通史』, 新疆美術攝影出版社.
- 田澍·何玉紅 主編, 2013, 『絲綢之路研究: 交通與文化』, 甘肅文化出版社.
- 鄭炳林·陳於柱, 2013, 『敦煌古葛文獻敘錄』, 蘭州大學出版社.
- 程喜霖·陳習剛, 2013, 『吐魯番唐代軍事文書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趙儷生, 2011, 『弁茲集』, 蘭州大學出版社.
- 趙汝適, 2000, 『諸蕃志校釋職方外紀校釋』, 中華書局.
- 趙予征, 1996, 『絲綢之路屯墾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_____, 2009, 『絲綢之路屯墾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趙榮織·王旭送, 2015, 『沙陀簡史』, 新疆人民出版社.
- 趙雲田 編, 2003, 『北疆通史』, 中州古籍出版社.
- 趙現海, 2014, 『明長城時代的開啟-長城社會史視野下榆林長城修築研究(上·下冊)』, 蘭州大學出版社.
- 鐘民和 主編, 2009, 『一個真實的新疆』, 人民出版社.
- 周去非, 1999, 『嶺外代答校注』, 中華書局.
- 朱傑勤, 2011, 『朱傑勤文集 中外關係史』,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周達觀, 2000, 『真臘風土記校注』, 中華書局.
- 周偉洲, 2010, 『藏史論考』, 蘭州大學出版社.

- , 2012, 『西域史地論集』, 蘭州大學出版社.
- 周衛平, 2014, 『清代新疆官制邊吏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周晶, 2012, 『紛擾的雪山-20世紀前半葉西藏社會生活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周菁葆, 1994, 『絲綢之路藝術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 2009, 『絲綢之路佛教文化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周菁葆 主編, 1993, 『絲綢之路岩畫藝術』, 新疆人民出版社.
- 周菁葆·邱陵, 1998, 『絲綢之路宗教文化』, 新疆人民出版社.
- 仲高, 2009, 『絲綢之路藝術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陳慶英·高淑芬, 2003, 『西藏通史』, 中州古籍出版社.
- 陳高華, 2010, 『元朝史事新證』, 蘭州大學出版社.
- 陳明, 2013, 『文本與語言-出土文獻與早期佛教比較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陳鵬, 2011, 『路途漫漫絲綢情-明清東北亞絲綢之路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陳誠, 2000, 『西域行程記 西域番國志 鹹賓錄』, 中華書局.
- 真人元開, 2000, 『大和上東征傳 日本考』, 中華書局.
- 陳曉露, 2014, 『樓蘭考古』, 蘭州大學出版社.
- 沈衛榮 等, 2007, 『黑水城人文與環境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沈志華 譯, 2013, 『俄國解密檔案: 新疆問題』, 新疆人民出版社.
- 吐娜 主編, 2013, 『民國新疆焉耆地區蒙古族檔案選編』, 新疆人民出版社.
- 畢波, 2011, 『中古中國的粟特胡人』,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賀菊蓮, 2011, 『天山家宴-西域飲食文化縱橫談』, 蘭州大學出版社.
- 賀靈, 2009, 『絲綢之路伊犁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韓康信, 1993, 『絲綢之路古代居民種族人類學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 2009, 『絲綢之路古代種族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韓琦·吳旻 校注, 2006, 『熙朝崇正集熙朝定案』, 中華書局.
- 韓儒林, 2012, 『蒙元史與內陸亞洲史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韓中義, 2014, 『歐亞與西北研究輯』, 蘭州大學出版社.
- 許序雅, 2012, 『唐朝與中亞九姓胡關係史研究』, 蘭州大學出版社.
- 許全勝 校注, 2014, 『黑韃事略校注(繁體印刷)』, 蘭州大學出版社.
- 許全勝·劉震 編, 2014, 『內陸歐亞歷史語言論集-徐文堪先生古稀紀念』, 蘭州大學出版社.

- 玄奘·辯機, 2000, 『大唐西域記校注(上·下)』, 中華書局.
- 慧立·彥悰·道宣, 2000, 『大慈恩寺三藏法師傳 釋迦方志』, 中華書局.
- 慧超, 2000, 『往五天竺國傳箋釋·經行記箋注』, 中華書局.
- 華喆, 2011, 『陰山鳴鏑-匈奴在北方草原上的興衰』, 蘭州大學出版社.
- _____, 2014, 『帝國的背影』, 蘭州大學出版社.
- 黃省曾·張燮·謝方 校注, 2000, 『西洋朝貢典錄校注 東西洋考』, 中華書局.
- 姬增祿, 2012, 『十至十四世紀回鶻王國的經濟和社會制度』, 新疆人民出版社.

State Admin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the Kyrgyz Republic, 2014, *Silk Roads: Initial Section of the Silk Roads, the Routes Network of Tian-shan Corridor*, p. 5710.

UNESCO, 2008, *Integral study of the Silk Roads: Roads of Dialogue*, UNESCO.

연구논문

- 박선영, 2014, 「신장항목의 성과와 영향 평가」, 『중국의 변경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안치영, 2008, 「중국의 민족 문제: '중화민족', 한족 그리고 '소수민족」, 『동아시아 브리프』 3-2.
- 윤휘탁, 2005, 「現代中國의 西部邊疆民族政策과 '國民國家' 完成하기- '西部大開發'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37집.
- 정재훈, 2017, 「투르판 역사 유적 개발과 관광 양상」, 『중앙아시아연구』 22-2.
- _____, 2019, 「한국의 고대 초원로 연구 성과와 그 의미」, 『동양학』 제76호.
- 沈福偉, 2009, 「絲綢之路與東西文化交流: 絲綢之路研究叢書 總序一」, 錢雲·金海龍 編, 『絲綢之路 綠洲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王延中, 2018, 「鑄牽中華民族共同體意識建設中華民族共同體」, 『民族研究』 2018-1.
- 郝時遠, 2017, 「習近平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與民族工作」, 『民族研究』 2017-6.

- 吳月剛·肖銳·金炳鎬, 2017, 「試論習近平時代民族工作思想體系」, 『民族研究』 2017-6.
- 王治來, 2017, 「絲綢之路的歷史文化交流與“一帶一路”建設」, 『西域研究』 2017-2.
- 劉進寶, 2018, 「「絲綢之路」概念的形及其在中國的傳播」, 『中國社會科學』 2018-11.
- 李良品·葛天博, 2018, 「習近平新時代民族工作重要思想初探」, 『民族研究』 2018-3.
- 李庚倫, 2015, 「“一帶一路”戰略與中國邊疆治理」, 『雲南民族大學學報』 2015-5.
- 朱金春, 2018, 「“一帶一路”視域下的邊疆內地一體化」, 『中央民族大學學報』 2018-3.
- 巴莫曲布嫫, 2018, 「“一帶一路”作為方法-聯合國教科文組織“對話之路”系列項目的萌蘗與分蘗」, 『西北民族研究』 2018-4.
- 許建英·阿地加 艾尼, 2019, 「新疆歷史研究評述(1998~2018年)」, 『中國邊疆史地研究』 2019-2.

관련 사이트

- NHK 아카이브, <http://www.nhk.or.jp/archives/search/special/detail/?d=special002>
- 유네스코, <http://whc.unesco.org/en/list/1442>
- _____, http://www.unesco.org/archives/multimedia/?pg=33&s=films_details&id=4583
- _____, <https://en.unesco.org/silkroad/events-festivals/expert-meeting-development-interactive-atlas-cultural-interactions-along-silk-roads>
-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whs/실크로드-창안-텐산-회랑-도로망>
- 중국세계화평가금회, <http://www.cwpcf.org.cn/en/a/41/1339.html>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

정재훈

중국은 1980년대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개방의 상징이었던 실�크로드에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에 더욱 강화되면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활동으로 이어졌고, 학술 연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내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중국 민족사의 관점에서 위구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변강사의 관점에서 신장이라는 단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21세기 대테러 전쟁의 확산과 함께 중국이 내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된 것 역시 신장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중국의 신장 실�크로드사 연구는 다방면에 진행되어 일부 심화되기도 하나 변강 정책의 추진에 맞춰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4년에 추진된 ‘신장항목’의 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실�크로드에 대한 접근 태도 역시 이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신장 지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과거 제국주의에 침탈당한 경험으로 대외적 반감을 표현하는 수단인 하나였지만, 중국이 실�크로드의 문명을 교류하는 주도 세력으로서 신장 지배를 설명할 경우 달랐다. 중국에게 신장은 통제 대상, 즉

‘내지 식민지’였고, 이것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실크로드 역시 변강을 역사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중국에게 이를 정당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결국 이것은 변강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된 ‘중화민족 대가족 구성’이라는 대전제에 충실하게 복무하고자 한 것이었다.

2013년 일대일로, 즉 신실크로드 전략 추진 이후 더 적극적으로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전개되나 반대로 신장의 역사 귀속 문제는 더욱 강조되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2014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같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신장의 실크로드 유적의 현재 복원 상황에서도 확인된다. 기존 중국의 실크로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신장의 역사를 중국에 귀속시키려는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입장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인데, 이것은 겉으로 문화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실크로드의 정치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실크로드사, 신장사, 유네스코, 일대일로(신실크로드 전략), 변강 정책, 개혁 개방 정책

ABSTRACT

The Chinese Studies of the History of Xinjiang Silk Road after the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Jeong Jaehun

The Chinese government has shown interest in the Silk Road, a symbol of openness, since it started a reform in the 1980s. Such trend has intensified since the 1990s, leading to international activities centered on UNESCO. Around this time, the Chinese government actively participated in UNESCO's efforts to protect the Silk Road to confirm its image of openness. In addition, the academic research results could also begin in earnest. Unlike the one that emphasized Uighur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history, it focused on inner stability and moved its focus to emphasize the units of height from the viewpoint of a lecturer.

Since then, the spread of the war against Rus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d the intensifying crackdown on the inland of China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earch of the Xinjiang Silk Road. Thus, China's study of the Xinjiang Silk Road was enhanced in many ways, mostly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metamorphosis policy.

In particular, the study of the Xinjiang Project, a policy initiative promoted in 2014, played an important role and the approach to the Silk Road also had relations with this project.

Originally, China's position on the domination over Xinjiang was one of the means of expressing external animosity through its experience of encroaching on imperialism in the past, but it was different when the Chinese described its dominance as a leading force in the exchange of civilization on the Silk Road. To China, Xinjiang was a subject of control or an internal colony, and this had to be explained in a way that further strengthens such perception. The term Silk Road was also a useful tool to justify the Chinese policy, which historically attempted to attribute the metamorphosis to China. In the end, it was meant to serve faithfully on the grand premise of "creating a large family of Chinese people," which was set as the primary goals of the frontier policy.

As research and activities on the Silk Road became more active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n 2013, the issue of history attribution was further empathized. This can also be seen i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ilk Road relics, which were 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such as Kazakhstan and Kyrgyzstan in 2014. It also strongly demonstrated its stance to attribute Xinjiang's history to the Chinese government's intention through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Silk Road. This trend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future, and the more China tries to reopen the Silk Road to Central Asia, the more attention it will have on stabilizing the displacement.

Keywords: history of the Silk Road, history of Xinjiang, UNESCO, One Belt and One Road (New Silk Road Strategy), frontier policy of China,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신장에서 중국으로

– 중국 ‘신장항목’ 전후의 연구 변화상

박선영 | 세종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 II. 중국 신장 연구의 외연적 변화상
- III. 중국 신장사 연구의 제도적·내용적 변화
- IV. 『신장연구총서』 내용 분석
- V. 맺음말



I. 머리말

신장은 중국 중원에서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데 거쳐야 할 중요한 관문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교통로로서, 또 각종 자원 매장량으로 보아도 중요한 지역이다.¹ 중국의 개혁 개방 이래 국제관계의 변화뿐 아니라 소련의 해체, 9·11 사태로 볼 수 있는 이슬람 세력의 국제적 활동 등은 중국으로 하여금 신장 지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하였다. 중국은 다변하는 국제질서에 맞서 국가 통일, 민족 단결, 변강 안정이라는 기치하에 변강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² 단순히 정치적·경제적 통치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변강의 역사 문화를 정리하고 이 문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래 중국의 민족 연구는 중국의 시대적 정책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는 중국 중앙의 요구를 소수민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민족 간부 양성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민족학 연구는 민족 간부 양성을 위한 교안을 만드는 데 집중되었다. 이후 사회경제 조사를 통해 각 소수민족의 간사(簡史) 및 개황(概況)을 출판하였으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민족학 자체가 자본주의 학문으로 매도

* 투고: 2019년 5월 4일, 심사 완료: 2019년 8월 29일, 게재 확정: 2019년 8월 29일

- 1 陈元龙·许思愿·彭辉波·张枭龙, 2019, 「新疆哈密地区矿产资源分布特征及找矿方向」, 『世界有色金属』 2019-12; 陈贵民, 2019, 「探究新疆地区矿产资源勘查及成矿规律」, 『世界有色金属』 2019-11; 杨愿玲, 2019, 「乌鲁木齐水资源现状分析及对策」, 『陕西水利』 2019-7; 窦燕, 王芝皓·宋香荣, 2019, 「新疆铁路沿线城市交通可达性及经济联系对比研究」, 『湖北农业科学』 2019-7; 樊家军, 2019, 「新时代新疆落实“总目标”的战略分析」, 『教育教学论坛』 2019-18.
- 2 徐步军, 2014a, 「铲除危害国家统一, 民族团结, 社会稳定的毒瘤: “三股势力”(一)」, 『统一论坛』 2014-5; 徐步军, 2014b, 「铲除危害国家统一, 民族团结, 社会稳定的毒瘤: “三股势力”(二)」, 『统一论坛』 2014-6; 徐步军, 2015, 「铲除危害国家统一, 民族团结, 社会稳定的毒瘤: “三股势力”(三)」, 『统一论坛』 2015-1.

되었다. 개혁 개방 이후 민족 연구가 재개되었는데, 특히 1992년 이후 중국 자료의 개방이나 소수민족 지역의 개방으로 민족학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이론 연구도 하였다.³

중국의 민족사 연구는 개별 민족의 역사⁴에서 중화민족 공동체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연구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⁵ 즉, 위구르라는 개별 민족에서 신장이라는 지역적 특성 연구⁶로, 더 나아가 지역과 중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 3 施正一, 1981, 「关于发展我国民族学的几个问题」, 『民族学研究』; 李绍明, 2001, 「21世纪初我国民族学发展的几个问题」, 『西南民族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张振伟, 2018, 「“新时代民族学研究议题与期待”论坛综述」, 『思想战线』 2018-6; 강현사 등, 2008, 『중국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 4 위구르족과 관련된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新疆少数民族社会历史调查组, 1963, 『维吾尔族简史简志合编(初稿)』, 中国科学院民族研究所; 编写组, 1980, 『维吾尔族简史(一)古代部分』, 维吾尔族简史编写组; 刘志宵, 1981, 『维吾尔族历史(上下编) 维吾尔文』, 民族出版社; 维吾尔族简史编写组 编, 1985, 『维吾尔族简史 上下 第二次修订稿 油印本』, 新疆人民出版社; 新疆维吾尔自治区编辑组, 1985, 『维吾尔族社会历史调查』, 新疆人民出版社; 刘志宵, 1985, 『维吾尔族历史(上编)』, 民族出版社; 维吾尔族简史编写组, 1989, 『维吾尔族简史』, 新疆人民出版社; 维吾尔族简史编写组, 1991, 『维吾尔族简史』, 新疆人民出版社; 刘志宵, 1996, 『维吾尔族历史 中编』, 中国社会科学出版; 王茜, 2005, 『维吾尔族: 历史与现状』, 新疆大学出版社; 维吾尔族简史编写组, 2006, 『(哈萨克文)维吾尔族简史』, 新疆人民出版社; 国家民委民族问题五种丛书编辑委员会, 2009, 『维吾尔族简史』, 民族出版社; 钱伯泉, 2015, 『通俗维吾尔族史』, 新疆人民出版社.
- 5 周育国·尹航, 2019, 「中华民族伟大复兴的历史前进逻辑」, 『辽宁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9-5; 斯琴格日乐, 2019, 「习近平中华民族共同体思想的逻辑体系与时代价值」, 『科学社会主义』 2019-4; 李贲, 2019, 「“中华民族共同体”叙事的逻辑结构和历史意义探析」, 『西南民族大学学报(人文社科版)』 2019-9.
- 6 신장이라는 지역으로 포괄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新疆历史文物, 1977, 『新疆历史文物』, 文物出版社; 新疆维吾尔自治区博物馆编, 1977, 『新疆历史白问』, 文物出版社; 新疆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 1985, 『新疆历史研究』, 新疆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 本社 编, 1994, 『新疆历史词典』, 新疆人民出版社; 王炳华主编, 1999, 『新疆历史文物』, 新疆美术摄影出版; 邵纯 主编, 2000, 『新疆历史主旋律上卷』, 中共中央党校出版社; 田卫疆, 2002, 『新疆历史』, 五洲传播

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주창 이후로는 역사적인 실크로드와 일대일로의 연관성 및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신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가는 실정이다.⁷ 위구르 민족에서 신장 지역으로 더 나아가 일대일로 정책의 실크로드인 신장이자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연구 경향성이 보인다.

중국에서 신장 연구가 언제 어떤 요인으로 변화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은 거시적으로는 중국의 신장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신장 역사에 대한 기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 글에서는 CNKI에서 신장을 편명(篇名)으로 검색하여 최근까지 관련 논문의 증감 과 그 요인, 연구비 수령 여부와 연구자 소속 등을 통해 중국이 신장지역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각종 논문에서 ‘신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분석하는 이유는 신장지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의 변화를 볼 때 신장이라는 주제를 통해 신장의 인문, 사회 및 이공계 논문을 포괄해서 전체 연구 규모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비 수령 여부는 국가연구비가 언제 어떤 식으로 투입되었는지 확인하여 정책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의미 있는 설

出版社; 谷苞, 2006, 『新疆历史人物』, 新疆人民出版社; 刘锡涛, 2006, 『新疆历史文稿』, 新疆人民出版社; 历声, 2006, 『中国新疆历史与现状』, 新疆人民出版社; 寇新华, 2006, 『新疆历史及民俗』, 中国戏剧出版社; 田卫疆, 2009, 『简明新疆历史』, 新疆人民出版社; 诸学鸿, 2009, 『新疆历史的足迹』, 新疆教育出版社; 马登杰编著, 2010, 『新疆历史与发展』, 新疆人民出版社; 谷苞, 2010, 『新疆历史与社会』, 新疆人民出版社; 田卫疆, 2012, 『新疆历史与文化』, 新疆人民出版社; 历声, 2013, 『中国新疆历史与现状』, 五洲传播出版社; 苗普生, 2015, 『新疆历史常识』, 新疆人民出版社.

- 7 郑松, 2017, 「发挥新疆在“一带一路”建设中的区位支点作用」, 『世界宗教文化』 2017-5; 卢晓莉, 2018, 「一带一路战略下的新疆民族团结: 机遇与挑战」, 『云南行政学院学报』 2018-2; 夏文斌, 2019, 『“一带一路”与新疆发展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 “一带一路”大型系列丛书로 구성하고 新疆是个好地方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中央民族大学出版社에서 출판된 것으로는 高华, 『苜蓿花语』; 申尊敬, 『家国大漠』; 李佩红, 『行色新疆』; 任茂谷, 『哈密往事』; 刘刚, 『诗意北庭』; 毕化文, 『昆仑神曲』; 郝贵平, 『我的大新疆』; 任茂谷, 『牵着心海的湖岸线』; 袁正祥, 『巩宁城今昔』가 있다.

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신장 연구의 변화상을 제도적인 차원과 연구 내용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신장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변화, 발전하게 된 요인과 신장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것이다. 신장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의 의도를 가장 집약적으로 정리한 ‘신장항목’의 결과물인 『신장연구총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신장항목’은 역사 이래 중국 정부가 신장 연구에서 가장 많은 힘을 쏟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신장항목’ 전후로 중국의 신장 연구 변화의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중국의 신장사 연구의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중국 신장 연구의 외연적 변화상

CNKI에서 논문 편명(篇名)을 ‘신장’으로 검색하면 총 192,385건이 나온다.⁹ <그림 1> 신장 연구의 논문 분포도와 같이, 전체 논문 중 자연과학 기술 관련이 22.02%, 자연과학 기초 및 응용연구가 19.73%인데 사회과학 기초연구가 25.67%를 차지한다. 사회과학과 관련하여 세분화된 응용 및 다른 분야도 많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사회과학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논문 편명 중 신장이 포함된 것은 1958년에 104편이며, 1965년에 86편이 연구된 후, 1978년에 가서야 다시 64편이 발표되었다. 10년의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연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1956~1957년 민족 식별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민족정

8 菅志翔, 2013, 「建国后的新疆研究状况分析报」, 『西北民族研究』 2013-1, 143쪽.

9 <http://new.gb.oversea.cnki.net/kns/Visualization/VisualCenter.aspx> (2019. 9. 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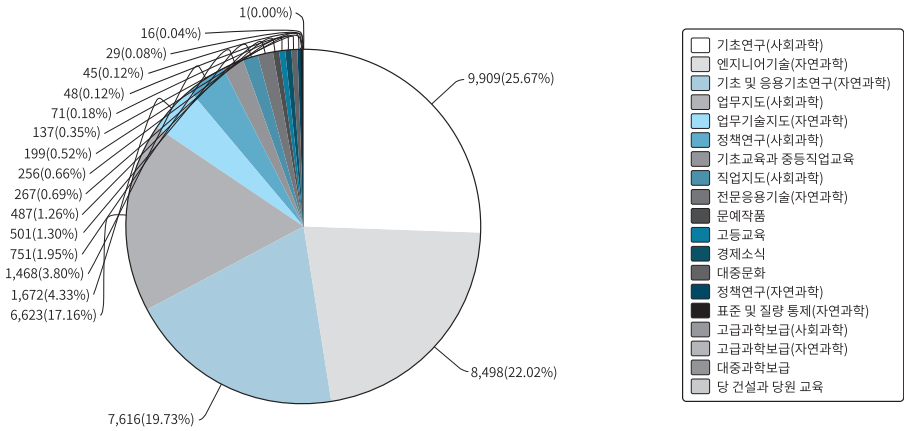


그림 1 신장 연구의 논문 분포도

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민족 식별 작업¹⁰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수민족을 세분화하여 분리, 해체시켜 소수민족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으므로 중국의 영토 안정을 위해 동일 민족도 양분화하는 등 민족 명칭을 의도적으로 바꾸기도 하였다.¹¹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각종 사회주의 개혁과 정풍운동, 대약진운동 및 문화대혁명 등의 정치 풍파와 맞물리면서 소수민족에 대한 급진적인 동화정책을 추진한 것¹²이 관련 연구와 논문 발표 편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0 尚晴, 2018, 「国家治理与历史遗绪下的民族识别研究」, 『中央民族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8-5; 余丽, 2018, 「民族识别对新中国民族关系的意义」, 『戏剧之家』 2018-26, 35쪽에서는 민족 식별이 중국 통일 다민족 국가 건설에 있어야 할 역사적 필연이라고 강조하였다.

11 강현사 등, 2008, 앞의 책, 29쪽; 이진영, 2002,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민족연구』 9, 12쪽.

12 박병광, 2000,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국제정치논총』 40-4, 435쪽.

이 시기는 중국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서구에서 하나의 단일체인 ‘다민족국가 중국’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¹³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고립폐쇄 정책으로 외부인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미국에서 신장에 대한 연구가 인류학, 민족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언어학 및 국제관계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¹⁴

-
- 13 이진영, 1999,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아태연구』 6-2, 278쪽.
- 14 郭旭崗, 2016, 「“七五”事件以来美国的新疆研究」, 兰州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37쪽; 周泓·郭宏珍·王耀, 2015, 「近年新疆研究专题概述(上)」, 『民族论坛』 2015-3, 10~14쪽. 이 당시 서구의 주요 저작물 중 신장 역사와 관련하여서는 James A. Millward, 2007, *Eurasian Crossroads: A History of Xinjiang*, London: Hurst & Company; David Brophy, 2013, “The Junghar Mongol Legacy and the Language of Loyalty in Qing Xinjiang”,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73, No. 2, December, pp. 231~258; Justin Jacobs, 2008, “How Chinese Turkestan Became Chinese: Visualizing Zhang Zhizhong’s Tianshan Pictorial and Xinjiang Youth Song and Dance Troup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7, No. 2 May, pp. 545~591; Michael Share, 2010, “The Russian Civil War in Chinese Turkestan (Xinjiang), 1918~1921: A Little Known and Explored Front”, *Europe-Asia Studies*, Vol. 62, No. 3, May, pp. 389~42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인류학과 민족학 차원의 신장 연구는 다음과 같다. Ildiko Beller-Hann, 2008, *Community Matters in Xinjiang 1880-1949: Towards a Historical Anthropology of the Uyghur*, Ildiko Beller-Hann, Leiden: Brill; Elise Anderson, 2012, “The Construction of männisä Khanas a Uyghur Musical Culture Hero”, *Asian Music*, Vol. 43, No. 1, Winter/Spring, pp. 64~90; Eric T. Schluessel, 2009, “History, identity, and mothertongue education in Xinjiang”, *Central Asian Survey*, Vol. 28, No. 4, December, pp. 383~402; Sean R. Roberts, 2009, “Imagining Uyghurstan: reevaluating the birth of the modern Uyghur nation”, *Central Asian Survey*, Vol. 28, No. 4, December, pp. 361~381; Kara Abramson, 2012, “Gender, Uyghur Identity, and the Story of Nuzugu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71, No. 4, Nov., pp. 1069~1091; Rian Thum, 2012, “Modular History: Identity Maintenance before Uyghur Nationalis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71, No. 3, Aug., pp. 627~653; Paula Schrode, 2008, “The

CNKI에서 검색해보면, 신장에 대한 연구는 1985년에 605편, 1992년에 883편, 1996년에 1,407편이었는데, 2000년에는 2,830편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에는 5,274편, 2009년에는 10,573편, 2015년에는 13,494편,

Dynamics of Orthodoxy and Heterodoxy in Uyghur Religious Practice”, *Die Welt des Islams, New Series*, Vol. 48, Issue 3/4, pp. 394~433; Rachel Harris, 2008, *The Making of a Musical Canon in Chinese Central Asia: The Uyghur Twelve Muqam*, Aldershot: Ashgate; Eric Trombert, 2008, “The Karez Concept in Ancient Chinese Sources Myth or Reality?”, *T’oung Pao, Second Series*, Vol. 94, Fasc. 1/3, pp. 115~150.

사회발전과 응용 인류학 차원의 신장 연구는 다음과 같다. Michael Clarke, 2007, “China’s Internal Security Dilemma and the “Great Western Development”: The Dynamics of Integration, Ethnic Nationalism and Terrorism in Xinjiang”, *Asian Studies Review*, September, Vol. 31, pp. 323~342; Michael L. Zukosky, 2012, “Quality, Development Discourse, and Minority Subjectivity in Contemporary Xinjiang”, *Modern China*, Vol. 38, No. 2, March, pp. 233~264; Steve Hess, 2009, “Dividing and conquering the shop floor: Uyghur labour export and labour segmentation in China’s industrial east”, *Central Asian Survey*, Vol. 28, No. 4, December, pp. 403~416; Nimrod Baranovitch, 2007, “Inverted Exile: Uyghur Writers and Artists in Beijing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ir Work”, *Modern China*, Vol. 33, No. 4, Oct., pp. 462~504; Yangbin Chen, 2008, *Muslim Uyghur Students in a Chinese Boarding School: Social Recapitalization as a Response to Ethnic Integration*, Lanham, MD: Lexington Books; Yangbin Chen, 2009, “Muslim Uyghur Students in a Dislocated Chinese Boarding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 as a Response to Ethnic Integration”, *Race/Ethnicity: Multidisciplinary Global Contexts*, Vol. 2, No. 2, pp. 287~309; Adila Erkin, 2009, “Locally modern, globally Uyghur: geography, identity and consumer culture in contemporary Xinjiang”, *Central Asian Survey*, Vol. 28, No. 4, December, pp. 417~428. 신장 지역 정치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Yufan Hao and Weihua Liu, 2012, “Xinjiang: increasing pain in the heart of China’s borderland”,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1(74), March, pp. 205~225; Christian Tyler, 2003, *Wild West China: The Taming of Xinjiang*, London: John Murray; Michael Dillon, 2004, *Xinjiang China’s Muslim Far Northwest*, London, New York: Routledge Curzon 등이 있다. 이 외에 미국 국가 정보위원회에서 추정한 신장 문제의 전략적 종합연구 성과물로, Frederick Starr, 2004, *Xinjiang: China’s Muslim Borderland*, Armonk, NY [u.a.]: M. A. Sharpe 등을 주목할 만하다.

2018년에는 9,505편이 발표되었다.

〈그림 2〉의 논문 발표 추세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신장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추세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 개혁 개방 이후에 조금씩 연구가 시작되다가 2000년도 서부대개발이라는 정책 변화로 논문 수가 크게 확대되었다.¹⁵ 2004년부터 5년간 본격적으로 ‘신장항목’이 추진되었고, 이와 관련된 성과들이 점차 논문으로 발표된 것도 신장 연구가 확대되는 데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2013년부터 일대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신장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여, 2015년에 13,494편으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 후로는 조금씩 하강하는 추세이다. 2018년에 9,505편이었으며, 2019년에는 9,199편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2015년 이후 신장에 대한 논문 편수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서부대개발 이후 확장되었던 신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논문 발표 추세도에서 위쪽 그래프는 신장 관련 사회과학 논문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도이고, 아래쪽 그래프는 국가 기금을 받아 연구한 추세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1996년 이래 국가사회과학 기금에 의한 연구가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

2013년부터 중국이 일대일로를 주창하였는데, 여기에서 신장은 일대일로를 실현하는 중요한 루트이다. 신장은 비단길 경제핵심지역[絲綢之路經濟帶核心區]¹⁶이기 때문에 일대일로 정책에 힘입어 신장의 경제적인 발전을 확대하기

15 서부대개발과 신장과 관련된 논문으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高国力·張燕·李天健, 2017, 「西部大开发战略实施以来新疆发展的成效, 问题和对策」, 『发展研究』 2017-6; 夏米斯亚·卡米力江, 2016, 「西部大开发战略对新疆经济发展的效果评价: 基于全要素生产方法研究」, 『新疆职业大学学报』 2016-3; 潘志, 2015, 「西部大开发与构建丝绸之路经济带的战略研究: 以新疆为例」, 『商场现代化』 2015-5; 程广斌·王永静, 2013, 「新疆在新一轮西部大开发中的地位与作用」, 『科技经济市场』 2013-10.

16 闫海龙·胡青江, 2014, 「关于推进新疆丝绸之路经济带“核心区”建设的思考与建议」, 『经济研究参考』 2014-61; 李建军·马思超, 2016, 「丝绸之路经济带核心区基础设施投资估计与融资模式探析」, 『新疆财经』 2016-1; 李豫新·孙培



그림 2 논문 발표 추세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신장의 관광업뿐 아니라 산업, 금융, 무역 등의 발전과 언어 및 민족 관계 변화까지도 고려하는 등¹⁷ 일대일로로 인해 신장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CNKI에서 일대일로라는 편명으로 검색하였을 때, 2014년부터 가파르게 논문 편수가 확대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 766편이었으나, 2017년에는 17,901편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9년에는 총 20,419편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⁸ 따라서 신장에 대한 연구도 신장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넘어 일대일로 정책과도 연관되는 역사적인 비단길로서의 신장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포괄적으로 보면, 실크로드도 신장 연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CNKI에서 주제로서 실크로드[絲綢之路]를 검색해보면 1977년에 1편이

蕾, 2017, 「丝绸之路经济带核心区农产品贸易潜力研究」, 『江西财经大学学报』 2017-6.

17 刘艳芝, 2016, 「“一带一路”背景下的新疆经济发展研究」, 『经济论坛』 2016-2; 吴瑜, 2017, 「“一带一路”背景下新疆对外贸易的发展潜力研究」, 『中国商论』 2017-2; 田珺瑶, 2017, 「“一带一路”战略下新疆旅游经济发展策略研究」, 『现代商业』 2017-31; 蔡志全·赵红霞, 2016, 「“一带一路”背景下新疆外语教育政策面临的挑战与变革」, 『中国大学教学』 2016-1; 杨鱼彦, 2018, 「“一带一路”倡议下新疆民族文化的社会功能研究」, 『兵团党校学报』 2018-1.

18 <http://new.gb.oversea.cnki.net/kns/Visualization/VisualCenter.aspx> (검색어: 一带一路, 2019. 9. 14. 검색) 물론 일대일로에 대한 연구 중 일부가 신장 연구에 속하는 것은 감안하여야 한다.

발표되었는데, 2013년에는 883편이었으며, 2014년에는 3,501편, 2015년에는 3,582편으로 상승하였다.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된 것은 시대에 따른 중국의 신장 정책의 변화로 신장 연구가 변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며, 논문 수가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관련 논문 수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연구비가 증가하는 것도 신장 관련 논문이 확대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림 3〉의 국가 기금에 의한 연구비 분포도를 보면 국가자연과학기금에 의한 연구가 3,294건, 국가사회과학기금에 의한 연구가 1,634건이다.

신장 연구에 지원된 기금으로는 신장위구르자치구자연과학기금[新疆維吾爾自治區自然科學基金], 국가과학기술지탱계획[國家科技支撐計劃] 및 중국지질조사국지질조사항목경비(中國地質調查局地質調查項目經費),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國家重點基礎研究發展計劃), 중국박사후과학기금(中國博士後科學基金) 등 다양한 연구비가 있다. 또한 국가사회과학기금(國家社會科學基金)으로 연구된 것과 중국사회과학원 중점 지원 사항인 신장연구항목(新疆研究項目)의 지원을 받은 것, 교육부전향기금(教育部專項基金)을 받은 것 등 다양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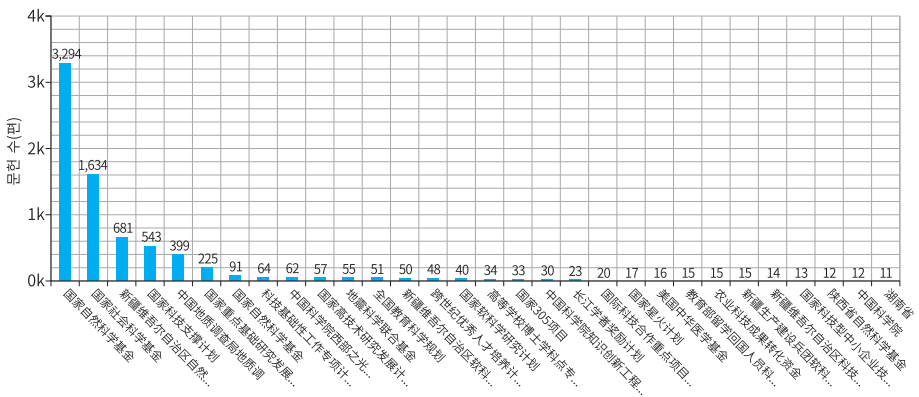


그림 3 국가 기금에 의한 연구비 분포도

구지원이 신장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다양한 연구비는 서부대개발 및 일대 일로의 인프라 구축 계획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장지역 관련 연구가 확대되는 것은 다양한 국가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 편수의 확대뿐만 아니라 연구 분위기가 활성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2012년 중국사회과학원 민족학과 인류학연구소 왕옌중(王延中)은 국가사과기금중대위탁항목(國家社科基金重大委托項目)인 ‘21세기 중국 소수민족 경제사회 발전 종합 조사(21世紀中國少數民族經濟社會發展綜合調查)’를 수행하기 위해 신장 카스시(喀什市), 모위현[墨玉縣], 타스쿠얼간타지크자치현[塔什庫爾干塔吉克自治縣], 허부커사이얼몽골족자치현(和布克塞爾蒙古族自治縣), 알타이지역[阿勒泰地區] 푸온현[富蘊縣], 투루판지역[吐魯番地區]의 산산현[鄯善縣]과 커얼커즈족자치주[柯爾克孜族自治州] 우치아현[烏恰縣]을 조사, 연구하였다.¹⁹

또한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신장과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어 신장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었다. 2010년 변강발전중국논단(邊疆發展中國論壇)이나 중앙민족대학 생태 인류학 국제학술대회, 2013년 11월 복단대학(復旦大學) 등이 개최한 ‘다원화된 시각의 중국 연구[多維視野下的中國研究]’라는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신장 지역 문제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4년에는 중앙민족대학 소수민족연구중심에서 ‘새로운 실크로드, 새로운 사고[新絲路新思路]’라는 회의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신장 문제를 논의하였다. 즉, 각종 학술대회에서 신장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신장 관련 논문의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신장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정책과 이에 발맞추어 나오는 다양한 연구는 논문 발표자 소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논문을 발표한 저자의 소속을 확

19 周泓·郭宏珍·王耀, 2015, 「近年新疆研究专题概述(上)」, 『民族论坛』 2015-3, 14쪽.

인하는 이유는 중국 정책의 변화상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가늠해보기 위해서이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해당 지역에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신장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저자의 소속을 보면 대부분 신장에 있는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이는 베이징, 상하이 등지를 포함하여 중국 15개 성시자치구에서 발행되는 각종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주제를 분석해보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온다.²¹ 그런데 최근의 신장 연구에서는 신장 이외의 지역인 베이징대학, 중앙민족대학 및 중국과학원대학(中國科學院大學) 소속 연구자들도 참여한 것으로 보아 국가의 정책적 연구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신장의 사회경제 문제가 부각되자 중국 정부는 중앙 각 부문에서 신장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하였다. 특히 2005년과 2006년에 국가민위민족문제연구중심(國家民委民族問題研究中心)이 베이징대학, 신장사범대학, 신장자치구민종위[新疆自治區民宗委] 등 여러 기관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신장의 안정과 사회 경제 발전의 다층적인 문제를 전면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연구 조사 활동을 하였다.²³

2013년에는 중국 내지의 주요 대학에서 신장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베이징대학 사회학과와 절강대학 인문학원은 신장 무슬림 사회와 신장 불교 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칭화대학 사회학과와 복단대학은 인류학·민족학 센터를 성립하여 신장문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신장사범대학은 베이징대학, 중앙민족대학 및 내지의 민족학교나 민족학·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초빙하여 ‘문명을 넘나드는 상호 작용[跨文明互動]’ 등의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특이사항으로는 내지의 주요 대학에서 신장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20 근거로 신장 관련 연구자 소속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도표를 만들었으나 논문 분량과 본문 핵심 내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명으로 대신한다.

21 菅志翔, 2013, 앞의 글, 145쪽.

22 菅志翔, 2013, 위의 글, 144쪽.

23 菅志翔, 2013, 위의 글, 141쪽.

삼는 석·박사 학위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²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신장 연구는 서부대개발, ‘신장항목’, 일대일로 등 정부 정책의 변화와 다양한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 규모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장지역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기초 및 응용 연구에도 관심을 쏟고 있으며, 신장지역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지의 주요 대학에서 신장을 연구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장 연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중국 신장사 연구의 제도적·내용적 변화

앞 장에서 신장 연구의 계량적 추이를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자연과학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기초 및 응용 연구는 중국 정책의 변화에 따라 논문의 증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차원과 연구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도적인 차원의 변화를 살펴보자. 근현대 중국에서 크게 세 번에 걸쳐 변강 지역이 집중적으로 연구되는데, 모두 변강 지역에 대한 위기의식과도 관계된다. 시기적으로는 ① 19세기 중·후반기와 ② 1930~1940년대²⁵ 그리고 중화

24 周泓·郭宏珍·王耀, 2015, 앞의 글, 16쪽. 중국 내지 주요 대학에서 신장 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은 李楠, 2018, 「新疆维吾尔族织绣纹样研究」, 山东大学博士论文; 刘刚, 2018, 「新疆民族团结教育历史进程, 基本经验与实践策略研究」, 山东大学博士论文; 付婧娇, 2017, 「伊斯兰极端主义意识形态政治功能研究」, 北京外国语大学博士论文; 董宁, 2017, 「晚清至民国维吾尔族经济史研究」, 中央民族大学博士论文; 赵曼, 2016, 「何为新疆?」, 中央民族大学博士论文; 依丽米古丽·阿不力孜, 2012, 「沙漠干旱地区的人类文化适应: 以新疆于田县达里雅博依乡维吾尔族人为例」, 中央民族大学博士论文; 孔杜孜·沙卡尔, 2013, 「散杂居柯尔克孜族文化变迁研究」, 中央民族大学硕士论文 등이 있다.

25 成龙, 2014, 「二十世纪四十年代的边疆和边疆学术研究」, 云南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인민공화국 시기 중에서도 특히 ③ 개혁 개방 이후라고 할 수 있다.²⁶ 변강을 연구하게 되는 계기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 국가 영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위원(魏源), 하추도(何秋濤), 하섭(夏燮), 양정남(梁廷楠), 조정걸(曹廷杰) 등이 변강 연구²⁷에 힘을 쏟았던 아편전쟁 이후나 일본의 만주침략으로 변강 연구²⁸에 힘을 쏟았던 시기는 모두 직접적으로 외부세력의 침입을 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에는 직접적인 외부 침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신장을 포함하여 변강 지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혁 개방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붕괴와 9·11 사태 등도 중국이 변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정부가 연구기관을 동원하여 2004년에 ‘신장항목’, 2005년에 ‘신장통사 항목’을 추진한 것은 신장 지역이 중국의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물론 변강 지역 연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83년 “변강사지

-
- 26 马大正, 1992a, 「当代中国边疆研究者的历史使命」, 『中国边疆史地研究』 1992-2; 厉声·贾建飞, 2009, 「60年来西北边疆史地研究的回顾与展望」, 『中国边疆史地研究』 2009-3, 1쪽; 朱尖·苗威, 2015, 「中国边疆研究的文献计量分析」, 『云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 15쪽.
- 27 吴泽主编, 袁英光·桂遵义著, 1989, 『中国近代史学史』, 江苏古籍出版社; 胡逢祥·张文建, 1991, 『中国近代史学思潮与流派』, 华东师范大学出版社; 马汝琦·张世明, 1992, 「嘉道咸时期边疆史地学的繁荣与经世致用思潮的复兴」, 『中国边疆史地研究』 1992-1.
- 28 曾问吾, 1936, 『中国经营西域史』, 商务印书馆; 胡斯振, 1985, 「西北学当议」, 『西北民族学院学报』 1985-1; 刘起钎, 1986, 『顾颉刚先生学述』, 中华书局; 王煦华, 1988, 「顾颉刚先生的学术贡献述评」, 『顾颉刚选集』, 天津人民出版社; 吴怀祺, 1983, 「禹贡半月刊的爱 国主义史学思想」, 『史学史研究』 1983-1; 徐兆奎, 1981, 「禹贡学会的历史地理研究工作」, 『历史地理』 1981-1; 冯春龙, 1987, 「试论禹贡学会对历史地理学的贡献」, 『杨州师院学报』 1987-4; 朱士嘉, 1984, 「顾颉刚先生与禹贡半月刊」, 『晋阳学刊』 1984-4; 吴丰培, 1983, 「顾颉刚先生和所著西北考察日记」, 『西北史地』 1983-4; 马大正, 1992, 「略论禹贡学会的学术组织工作」, 『中国边疆史地研究』 1992-1.

연구의 새로운 기점²⁹이 된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설립과도 관계가 있다. 이때부터 변강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된 귀중한 도서자료를 구비하였을 뿐 아니라 민족, 역사, 근대사로 나누어 연구 인력을 보충하였고, ‘중국변강연혁사(中國邊疆沿革史)’, ‘중국근대변계형성사(中國近代邊界形成史)’ 및 ‘역대변정연구(歷代邊政研究)’ 등 30여 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였다. 그중에서도 조선과 관련된 명실록(『明實錄·鄰國朝鮮篇』)과 청실록(『清實錄·鄰國朝鮮篇』) 편은 내부적으로 출판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중국과 마얀마 등의 변계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는 1983년에서 1987년까지 관심을 쏟았던 주요 과제였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체제로 제대로 된 변강 연구가 어렵다고 보고 1987년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는데,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을 개방적인 연구기관으로 하면서 민족연구소에서 근대사연구소 소속으로 변경하고 뤼이란[呂一燃]을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으로 하고, 마다정[馬大正]을 부주임으로 하였다. 뤼이란, 마다정, 쉬성우[徐繩武], 리우존관[劉存寬], 두룽쿤[杜榮坤], 덩루이링[鄧銳齡], 천커웨이[陳可畏] 등 7명이 학술위원회를 맡았으며, 연구소 경비는 단독적으로 편성하여 근대사연구소에 위탁 관리하고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배분하였다.³⁰

1987년부터는 국가사회과학기금 변강사지학평심소조(邊疆史地學評審小組)를 두고 1987~1990년까지 변강사지와 관련된 16개의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1987~1990년까지 16개의 다양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³¹ 1991년부터는 국가사회과학기금 변강사지학의 평가 작업을 중국역

29 呂一燃, 2003, 「欣慰的回顧: 紀念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建立20周年」, 『中國邊疆史地研究』 2003-3, 15쪽.

30 呂一燃, 2003, 위의 글, 16쪽.

31 16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清代的邊疆政策’, ‘中亞浩罕國與清代新疆’, ‘英俄侵略西藏史’, ‘英國侵略新疆史與中印西藏邊界問題研究’, ‘中朝界務史’, ‘釣魚島島嶼歸屬研究: 兼質奧原敏雄教授’, ‘中國西北屯田實地史’, ‘新疆經濟開發史’, ‘吐爾羌汗國史’, ‘清代政區沿革圖集’, ‘中國歷代西北開發思想與政策’, ‘中國西部邊疆發展史’, ‘20世紀中國邊疆研究史’, ‘察哈台汗國史’, ‘7~10世紀青藏

사학평심소조(中國歷史學評審小組)가 관할하여 중국 역사와 변강의 관계를 강화시켰다.³²

1983년에 설립한 변강사지연구중심은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산하에 두고 내부적으로 연구를 시도했는데, 근대사연구소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개방적인 연구기관으로 성격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연구 조직의 변화는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변강 지역 소요로 인한 분리 독립 운동의 ‘위험’을 내포한 변강 문제를 공개화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좀 더 학술의 틀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변강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중국 역사와 변강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국민교육의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변강학이라는 학문 형성과정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조직상의 변화뿐 아니라 연구된 과제를 실질적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학술잡지도 출간하였다. 1987년에는 『서북사지(西北史地)』라는 학술잡지에 ‘중국변강사지연구’라는 전문 항목을 두었고, 변강학이론, 중국근대변계사, 중국고대강역사, 중국변강민족사 등의 연구 성과물을 게재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중국변강사지연구보고(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를 창간하고 변계 문제를 연구하여 외부에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내부적인 출판(內部出版)을 하였다. 이때 주로 육지강역[陸疆]과 해양강역[海疆]에 대해 초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영토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³³

1988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중국변강사지연구도보(中國邊疆史地研究導報)』를 출판하여 새로운 주제에 대한 탐색과 교류를 강조하고 변강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성과 및 인물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1990년 12월에 총 16기를

高原与外部交通’, ‘突厥语诸部在天山地区的活动及其伊斯兰化的发展(8~12世纪)’.

32 이때 다음과 같은 주제가 연구되었다. ‘唐努乌梁海史’, ‘中国古代疆域史’, ‘清代中俄恰克图贸易’.

33 당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변계 문제로는 中朝, 中俄, 中蒙, 中印, 中尼, 中不, 中锡, 中缅, 中越 및 香港, 台湾, 南海诸岛, 钓鱼列岛 등이 있다.

출간한 후 폐간되었다가 1991년 7월부터는 변강 지역 역사, 지리, 사회, 문화, 외교 등 다양한 학술성고를 게재하는 『중국변강사지연구(中國邊疆史地研究)』를 계간으로 출간하게 되었다.³⁴

변강 지역과 관련된 연구성고를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는 『중국변강사지연구총서(中國邊疆史地研究叢書)』라는 이름으로,³⁵ 흑룡강교육출판사는 『변강사지총서(邊疆史地叢書)』로,³⁶ 사회과학문헌출판사는 『중국변강사지문고(中國邊疆史地文庫)』³⁷로, 전국도서관문헌축미복제중심(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은 『중국변강사지자료총간(中國邊疆史地資料叢刊)』³⁸으로 출간하였으며, 기타 신장인민출판사와 다른 출판사³⁹에서도 개별적으로 다양한 성과를 출간하

34 呂一燃, 2003, 앞의 글, 18~19쪽.

35 중국사회과학출판사는 『中国边疆史地研究丛书』라는 이름으로 『中国古代边疆政策研究』, 『清代边疆政策研究』, 『中国边疆管理机构沿革史』, 『中亚浩罕国与清代新疆』 등을 출간하였다.

36 흑룡강교육출판사는 『边疆史地丛书』라는 이름으로 『马克思恩格斯论国家领土与边界』, 『中国北部边疆史研究』, 『外贝加尔地区和黑龙江流域各族与中原的关系史』, 『南海诸岛:地理, 历史, 主权』, 『叶尔羌汗国史纲』, 『两汉时期的边政与边吏』, 『安西与北庭:唐代西陲边政研究』, 『二十世纪的中国边疆研究』, 『中国古代海疆史纲』, 『东北亚国际关系史』, 『中国西北边疆史研究』 등을 출간하였다.

37 사회과학문헌출판사는 『中国边疆史地文库』로 『南海诸岛史地研究』, 『中越边界历史资料选编』, 『中国边防史』, 『俄国护路军与东北边疆政局』을 출간하였다.

38 『中国边疆史地资料丛刊』으로는 『清代新疆稀见史料汇辑』, 『新疆乡土志』, 『清末蒙古史地资料汇粹』, 『达赖喇嘛三世四世传』, 『光绪朝黑龙江将军奏稿』 등이 있다.

39 新疆人民出版社는 1980년에 『新疆简史』 1, 2권(新疆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编著)을 출판하고, 1987년에 제3권을 출판하였다. 신장인민출판사에서 출간된 또 다른 저서로는 苗普生·田卫疆 主编, 2004, 『新疆史纲』; 厉声 主编, 2006, 『中国新疆历史与现状』; 马大正 等, 2006, 『新疆史鉴』; 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刘戈·黄咸阳, 1988, 『西域史地论文资料索引』이 있다. 이 외에 余太山 主编, 2003, 『西域通史』, 中州古籍出版社; 耿世民, 2006, 『新疆历史与文化概论』, 中央民族大学出版社; 王欣, 2013, 『文本解读与田野实践: 新疆历史与民族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牛平汉 主编, 1990, 『清代政区沿革综表』, 中国地图出版社; 牛汉平 主编, 1990, 『明代政区沿革综表』, 中国地图出版社; 中国人

였다.

1978년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은 근대 중국의 변강 관리, 근대 중국의 변란과 변계 문제, 근대 중국의 변강 연구 등을 연구하였다.⁴⁰ 그러나 향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변강 관련 학술 성과에 대한 회고를 통해 연구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1999년에 개최된 신장 역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世紀之交新疆歷史研究回顧與展望]에서는 향후 주목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정리, 그중에서도 청대와 민국시대 당안 정리 및 민족문자 문헌의 중국어 번역과 당대사 해당 인물의 회고록 정리가 필요하다. ② 신장 역사 연구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이민사, 인구사, 탐험사, 오아시스 변천사[綠洲變遷史] 및 신장 분열세력 등 새로운 주제와 영역을 연구해야 한다.⁴¹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 ‘신장항목’이라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관련 성과를 출판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신장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통한 신장 연구의 변화상을 보면, 신장 연구에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정리뿐만 아니라, 이민사, 인구사, 탐험사 및 신장 분열세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역사적인 기초연구와 현실에 부합하는 응용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현실화한 것이 ‘신장항목’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는 신장 역사와 현상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인 연구를 해야 하며, 신장 각 민족의

民大学清史研究所, 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编, 1988, 『清代边疆史地论著索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主编, 李国强·寇俊敏 编, 1994, 『海南及南海诸岛史地论著资料目录索引』, 中州古籍出版社; 郝建恒 主编, 2000, 『中俄关系史译名辞典』, 黑龙江教育出版社 등의 성과가 있다.

40 马大正, 1994, 「1978年以来中国近代边疆问题研究述评(上)」, 『中国边疆史地研究』1994-3.

41 边众, 1999, 「“世纪之交新疆历史研究回顾与展望”学术研讨会纪要」, 『中国边疆史地研究』1999-4, 118쪽.

역사와 각 민족의 관계사, 역사적으로 신장 지방 정권과 중원 중앙왕조의 관계 문제 등을 더욱 체계화하고 심도 있는 이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⁴² 따라서 ‘신장항목’에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다. 기초연구의 결과물이 『신장연구총서』로 출판되었다.

2009년의 회고와 전망에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관계 강화를 주문하여 학술연구가 현실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변강사지연구학과 건설의 필요성, 외국어뿐 아니라 민족 언어를 할 수 있는 청년 인재 배양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국제교류를 강화하여 중국의 변강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족 언어로 구성된 문헌 자료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해당 인물들의 회고록을 정리할 뿐 아니라 사회사 영역의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사는 사회경제, 생활사, 부녀사, 아동사, 위생사, 출판 인쇄사, 의료사 및 도시사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⁴³

국제적인 교류와 관련하여서는 2003년에 개최된 「20세기 서역고찰과 연구 국제학술토론회」가 신장 지역 연구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변강사지연구중심과 스웨덴 국가민족박물관 등의 기관이 공동 개최한 학술회의로 1927~1935년 중국과 스웨덴 서북과학고찰단의 경험과 성과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물은 후에 『서역고찰과 연구[西域考察與研究]』로 출간하였다.⁴⁴

2013년에 개최된 「중국 변강 및 변강 치리 이론의 도전과 창신 학술 토론회 [中國邊疆及邊疆治理理論的挑戰與創新學術研討會]」에서는 자료적인 측면에서 변강과 관련된 국외 사료의 수집 필요성, 과거에는 중국에 속했지만 현재는 중

42 http://bjs.cssn.cn/zdxm/zdxm_xjxm/xjxm_xmjj/ 新疆项目简介(2019. 9. 7. 검색)

43 厉声·贾建飞, 2009, 「60年来西北边疆史地研究的回顾与展望」, 『中国边疆史地研究』2009-3, 8쪽.

44 吕一燃, 2003, 앞의 글, 20쪽.

국 영역이 아닌 영토와 민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변강 지역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를 함과 동시에 변강 연구의 일반화(보편화) 작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변경 지역이 국가의 영향을 받으므로 해당 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변경 통치 경험도 연구하여 전반적으로 변강사지학의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학문 분야와의 융합뿐 아니라 외국과의 교류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⁴⁵

변강 관련 국외 사료 수집이나 변강 연구의 일반화 작업 등은 ‘신장항목’에서도 추진되었던 것이지만 이에 대해 더욱더 확산시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중국 영역에 속했지만 현재는 중국 영역이 아닌 영토와 민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향후에는 전통적인 중국 질서 체제에 있던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어떻게 중국 중심적으로 해석해나갈 것인가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21세기 신장 연구의 변화상을 보려면, 경제무역사, 사회생활사, 정치 군사사, 민족사, 종교사, 역사지리 등의 범주에서 연구되는 개별 주제의 연구 심화 내용뿐만 아니라 고고학 및 당안 문헌 관련 자료의 연구성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⁴⁶ 당안 문헌 관련 자료 중 2013년 신장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러시아 비밀 해제 당안[俄國解密檔案·新疆問題]』이나 2008년 신장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근대신장몽골역사당안[近代新疆蒙古歷史檔案]』은 역사 사료로 중요한 것이다. 특히 후자는 신장 몽골족과 관련된 당안으로 청말부터民国 시기 신장 몽골족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등에 걸친 몽골족 역사 발전 변화상을 볼 수 있는 1차 사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신장항목’ 결과물인 『신장연구총서』의 내용을 통해 21세기 중국 신장 연구의 특

45 刘清涛, 2014, 「“中国边疆及边疆治理理论的挑战与创新学术研讨会”综述」, 『中国边疆史地研究』 2014-1, 174쪽.

46 周泓·郭宏珍·王耀, 2015, 「近年新疆研究专题概述(上)」, 『民族论坛』 2015-3 참조.

징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IV. 『신장연구총서』 내용 분석

‘신장항목’은 각종 학술적인 회고에서 논의된 방향에 부합하게 실시되었다. ‘신장항목’은 중국에서 오랜 시간 제도적·내용적 검토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중국민족사학회 제9차 학술 토론회에서 “민족과 변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변강의 역사와 현실도 상호 관련이 있다. 사학의 기초를 강화하여 연구함과 동시에 변강의 현실문제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⁴⁷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건의는 연구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며, ‘신장항목’의 결과물은 『신장연구총서』에 반영되었다.

『신장연구총서』는 ‘신장항목’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연구 결과물이 최종 심의에서 통과된 것만 출판하기 때문에 중국이 추구하는 연구 방향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신장연구총서』는 2010년까지 신장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다가, 2011년부터는 사회과학문헌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중국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 정책의 변화 및 중국사회과학원 내부 사정으로 ‘신장항목’과 관련된 연구 성과물들이 계획대로 출판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변화무쌍한 대내외적 현실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면서 새로운 정책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에 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의 실행으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변화했을 수도 있다.

‘신장항목’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이 응용연구인데 이는 민감한 현실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성과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신장 연구의 전체적인 변화상을 탐구

47 灵均, 2002, 「中国民族史学会第九次学术研讨会纪要」, 『中国边疆史地研究』 2002-12, 112쪽.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관련 연구 기관이 연구성과를 공개해야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최근까지 확인된 『신장연구총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신장연구총서』 목록을 <표 1>로 작성하였다.

<표 1> 『신장연구총서』 목록

번호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1	지아지엔페이[賈建飛]	청대 서북 사지학 연구[清代西北史地學研究]	신장인민출판사	2010
2	치칭순[齊清順]	1759~1949년 신장 다민족 분포 국면 형성[1759~1949年新疆多民族分布格局的形成]	신장인민출판사	2010
3	신장당위정책연구실 편저[新疆黨委政策研究室編著]	신장 빈곤 상황 및 구휼 개발[新疆貧困狀況及扶貧開發]	신장인민출판사	2010
4	아부다리[阿布達里]	신장 카자흐족 문화 전형 연구[新疆哈薩克族文化轉型研究]	신장인민출판사	2010
5	상리[向莉]	신장 위구르 자치 법제 건설 50년 [新疆維吾爾自治法制建設50年]	신장인민출판사	2010
6	차이우지아푸[才吾加甫]	신장 고대 불교 연구[新疆古代佛教研究]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1
7	리샤오샤[李曉霞]	신장 민족 혼합 가정 연구[新疆民族混合家庭研究]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1
8	진취엔취엔[靳娟娟]	신장 변방 관리와 변방 건설[新疆邊防管理與邊防建設]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1
9	지아지엔페이[賈建飛]	청 건륭·가경·도광 시기 신장의 내지 이민 사회[清乾嘉道時期新疆的內地移民社會]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2
10	미나와·아부도라이무[米娜娃·阿不都熱依木], 아이리·우푸얼[艾力·吾甫爾]	당대 위구르 언어 문자 응용과 발전[當代維吾爾語言文字應用與發展]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2

번호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11	예얼다[葉爾達]	오이라트 고승 라푸진바·자야반 디다 연구[衛拉特高僧拉布緊 巴·咱雅班第達研究]	사회과학문헌 출판사	2012
12	두안광다[段光達]·마더 이[馬德義]·송타오[宋 濤]·예엔화[葉豔華]	중국 신장과 러시아 동부 석유업 발전의 역사와 현상[中國新疆和 俄羅斯東部石油業發展的歷史 與現狀]	사회과학문헌 출판사	2012
13	아부도러자커·사이무[阿 布都熱扎克·沙依木]	위구르족 민간 문예와 전통 기예 [維吾爾族民間文藝與傳統技藝]	사회과학문헌 출판사	2012
14	신장위구르자치구당위정 책연구실 편[新疆維吾爾 自治區黨委政策研究室 著, 新疆維吾爾自治區 黨委政策研究室編]	신장 인구 발전과 가족 계획 연구 [新疆人口發展與計劃生育研究]	사회과학문헌 출판사	2013
15	지아·아오비얼파티[加· 奧其爾巴特]	신장 몽골족 사회 현상 보고[新疆 蒙古族社會現狀報告]	사회과학문헌 출판사	2013

〈표 1〉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장지역의 문제를 연구했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 주제가 굉장히 제각각이다. 한편으로는 신장지역의 빈곤 문제나 다민족가정의 문제, 인구 및 가족 계획, 변강 관리 등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말 신장지역의 역사지리학에 대한 관심이나 이민 및 문화 문제 등 역사적 차원과 현실을 접맥할 수 있는 주제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각 주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연구가 있으면 비교 검토하여 관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기가 매우 용이하지만, 출판된 저서마다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작들 간의 시각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공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고, 각 주제에 대한 비교 검토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결림돌이 있어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 어려운 것이 본고의 한계이다. 그렇지만 현재 ‘신장항목’의 결과물로서 『신장연구총서』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연구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

악하는 것은 향후 신장 연구 내용을 질적으로 비교 고찰하는 데 기초적인 연구가 될 수 있어서 본고가 향후 연구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신장연구총서』로 출판된 저서는 기본적으로 신장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한 다기보다 신장의 역사적 사실을 중국 통치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는 중국의 목적에 맞는 신장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로 집약될 수 있다. 그것이 ‘신장항목’에서 요구하는 연구목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답사를 통해 신장을 이해하려고 한 지아지엔페이[賈建飛]는 『청대 서북사지학 연구(清代西北史地學研究)』를 통해 청조가 신장을 통일하면서 신장 연구도 활성화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청조 가경(嘉慶) 시기에 이르러 근대 과학적 의미의 서북지역 역사지리학은 칠십일(七十一)·홍량길(洪亮吉)·기운사(祁韻士)·공자진(龔自珍)·심요⁴⁸·장목(張穆)·위원·하추도·이광정(李光廷)·홍균(洪鈞)·도보렴(陶保廉)·허경징(許景澄) 등의 손을 거쳐 더욱 흥성한 것으로 보았다. 지아지엔페이는 일찍이 송균(松筠)이 청말 서북사지학이 흥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논구하였다.⁴⁹

19세기 이후 신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실용적인 신장의 면모를 연구하는 새로운 풍조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도광(道光)·함풍(咸豐) 이래의 새로운 학풍이라고 할 수 있다. 청조의 학자들은 건륭(乾隆)·가경(嘉慶) 연도 고증학의 폐단을 발견하고 상응하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서북사지 연구를 돌파구로 삼아 학술적인 변화 발전 추세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고 저자는 평가하였다.

청대 서북사지학에 이어 신장의 이민을 연구한 지아지엔페이의 『청 건륭·가경·도광 시기 신장의 내지 이민사회[清乾嘉道時期新疆的內地移民社會]』는 내지로부터의 이민이 신장 민족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구 유동, 변강 개발이 청대 신장 생태 환경에 미친 영향 및 내지인

48 郭丽萍, 2005, 「显学的背后: 沈垚西北史地学述论」, 『中国边疆史地研究』 2005-3.

49 贾建飞, 2004, 「论松筠与晚清西北史地学的兴起」, 『中国边疆史地研究』 2004-1.

의 신장 인식의 변화 발전을 분석하였다. 건륭 중기 청조가 신장을 통일하여 중원 왕조가 신장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목민족의 위협을 영구히 해소시켜 중원 왕조의 서역 통치를 공고히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유목민족의 미래 통치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하면서 “유목민족의 위협을 영구히 해소”시켰다고 표현한 것은 중국의 정치 현실에 부합하려는 연구 의도가 충실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장지역이 이민 사회이자 다민족 사회라는 것은 치칭순[齊清順]의 『1759~1949년 신장 다민족 분포 국면 형성[1759~1949年新疆多民族分布格局的形成]』에서도 강조되었다. 일전의 청말 신장의 신정(新政)이라든가 중국 역대 왕조의 신장 정책 등의 연구가 바탕이 되었다.⁵⁰ 신장이 선진 시기부터 한대, 위진남북조, 수당송요금, 원명청에 이르기까지 다민족 공존지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청이 신장을 통일한 후 서북지역의 만족, 한족, 회족이 신장으로 이민했을 뿐 아니라 동북 및 북방 지역의 각 민족도 이주하였고, 근대 이후에는 러시아, 우즈베크족, 타타르족 등이 이주하여 다민족이 분포하는 특질을 지녔다고 보았다.

그러나 시대마다 다민족이 공존했다는 것 이외에 언제, 어떻게 어느 민족이 어느 정도의 인구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만, 중국 정치 특성상 이를 명쾌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으므로 부분적인 연구를 통해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다. 중화민국 시기 둔전이나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한족 30만 명이 신장지역으로 이민하였고,⁵¹ 1909년에 신장지역 총인구가 200만 명 정도였으나 1948년에는 404만 명 이상으로 102%가 증가하였다.⁵² 1949~1978년

50 齊清順, 2000, 「論清末新疆“新政”: 新疆向近代化邁進的重要開端」, 『西域研究』 2000-3; 齊清順, 2004, 『中國歷代中央王朝治理新疆政策研究』, 新疆人民出版社.

51 李浩, 2009, 「民國時期新疆漢族移民探析」, 『中國邊疆史地研究』 2009-12, 129쪽.

52 李智宇, 2018, 「民國時期新疆人口研究」, 新疆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

신장 인구가 연평균 3.65% 증가하였을 때, 중국의 다른 지역 평균 증가율은 2.5%였다.⁵³ 2010년 신장지역 한족은 40.47%,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은 59.53%이다.⁵⁴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는 인구의 질적 수준 저하와 경제 발전에도 부담이 되지만,⁵⁵ 신장 지역에 다민족이 공존한다는 것은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강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중국은 신장의 인구 구성이 신장 지역 안정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신장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미래의 신장을 예측하는 데도 유용하다. 신장위구르자치구당위정책연구실[新疆维吾尔自治区党委政策研究室]에서 편찬한 『신장 인구 발전과 가족 계획 연구[新疆人口發展與計劃生育研究]』는 신장 인구 발전과 가족 계획 정책의 역사, 현상, 문제를 분석하였다. 가족 계획 정책의 이론과 실천 문제를 중심으로 미래 특정 시기의 인구 발전을 예측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인구 문제가 신장의 발전과 안정 또는 국가 발전과 안정에 어떤 현실적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10년 중국과학원 신장 생태와 지리연구소의 장샤오레이[張小雷]의 『신장 인구 지역 계통 이론과 방법 체계 연구[新疆人口地域系統理論與方法體系研究]』와도 연관성이 있다. 장샤오레이는 신장의 인구 발전 전략뿐 아니라 도시 발전 전략 및 공간 형태의 변화 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장지역 인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론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신장 인구 발전 방안을 공간 활용 개념과 더불어 연구한 것이다.⁵⁶

54쪽.

53 云洁·毛克贞, 2007, 「新疆区域人口发展状况分析」, 『新疆财经学院学报』 2007-2, 66쪽.

54 李金军, 2016, 「新疆人口结构变化对区域经济发展的影响研究」, 石河子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17쪽.

55 云洁·毛克贞, 2007, 앞의 글, 69쪽.

56 신장 인구 관련 연구는 陈笑利·陈俊科·余国新·聂春霞, 2019, 「新疆地区人口-经济-土地系统城镇化耦合协调演化研究」, 『天津农业科学』 1; 王金涛, 2018, 「人口迁移对新疆区域经济发展的影响研究」, 新疆大学硕士学位论文; 王兆

다민족이 거주하는 신장지역의 민족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리샤오샤[李曉霞]의 『신장 민족 혼합 가정 연구[新疆民族混合家庭研究]』가 있다. 이는 인구조사와 혼인등기, 호구당안을 수량적으로 분석하고 민족혼합 가정에 대해 실지 조사하여 신장 민족 혼합 가정 및 민족 간 결혼 상황을 통해 혼합 가정의 성립, 민족 정체성의 형성, 사회적 신분의 확립, 다민족 문화의 교류와 충돌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신장 민족 간 통혼과 혼합 가정 형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제약하는 요인으로 서로 다른 민족의 자녀가 민족 선택에서 실용주의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민족 간 통혼을 개인 혼인 권리로 간주하여 국가가 구체적으로 간여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신장의 혼합 가정 연구에 대해서는 신장지역 각 민족 간의 관계와 이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가 있다.⁵⁷ 이런 논문은 실지 조사를 바탕으로 신장지역 각 민족 간의 관계를 규명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족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도 하였지만, 부정적인 면도 제시하였다.

신장 카자흐족에 대해 아부다리(阿布達里)는 『신장 카자흐족 문화 전형 연구[新疆哈薩克族文化轉型研究]』에서 카자흐족[哈薩克族]의 전통문화가 ‘자연

萍·冯莉, 2018, 「新疆南疆五地州近三十年人口发展演变特征」, 『中共乌鲁木齐市委党校学报』 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57 李建新, 1996, 「新疆维汉关系的调查研究」, 『西北民族研究』 1; 中共新疆维吾尔自治区委组织部课题组·李泽·曹红·李晓霞·巴哈尔, 2001, 「关于正确认识和处理新形势下新疆民族问题的调查报告」, 『马克思主义与现实』 2; 王海霞·杨圣敏, 2007, 「新疆库车县民族关系调查与试分析」, 『西北民族研究』 2; 贺萍, 2006, 「新疆少数民族文化变迁现状的实证分析」, 『实事求是』 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신장 각 민족 간의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것으로는 玉颖, 2002, 「人口流动与新疆民族关系初探」, 『新疆社科论坛』 1; 吴琼, 2007, 「流动人口及城镇化对新疆民族关系的影响」, 『新疆大学学报(哲学人文社会科学版)』 4; 阿布杜热合曼·吾拉依木, 2008, 「社会转型视角下调适新疆民族关系的思考」, 『湖北第二师范学院学报』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장 경제 발전과 민족 문화 융합 정책 중에서 민족 간 관계의 부정적인 문제를 제시하였다. 周泓·马艳·孙媪, 2015, 「近年新疆研究专题概述(下)」, 『民族论坛』 2015-5, 26~27쪽.

주의와 경험주의적 초원문화 모델’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대적 생산과 생활방식에 적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저자는 이미 2001년에 검토한 카자흐족의 근대 문화 전형을 바탕으로⁵⁸ 사회변화[社會轉型]와 문화변화[文化轉型]의 개념을 연결하여 상호 관계 속에서 문화 위기, 문화 성찰과 문화 변화라는 3자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화 성찰은 문화 위기에 대한 이성적 반응으로 문화 변화의 촉진 역량으로 보았다.

신장지역이 다민족 지역임을 강조하려는 중국은 몽골족을 주목하였는데, 2008년 『신장통계연감』에 의하면, 신장지역에 거주하는 몽골족 인구는 177,000여 명이다. 거주 형식은 소규모 취락으로 주로 바이골몽골자치주[巴音郭楞蒙古自治州, Bayingol Mongolian Autonomous Prefecture], 보탈라몽골자치주[博爾塔拉蒙古自治州, Bortala Mongol Autonomous Prefecture] 호복사르몽골자치현[和布克賽爾蒙古自治縣, Mongolian Autonomous County of Hoboksar] 과 이리카자흐자치주[伊犁哈薩克自治州, Ili Kazak Autonomous Prefecture] 및 우루무치시[烏魯木齊市] 등지에 분산 거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아·아오치얼바터[加·奧其爾巴特]의 『신장 몽골족 사회 현상 보고』는 신장 바이골몽골자치주[혹은 巴州] 2개 현(허징현[和靜縣], 허수오현[和碩縣]), 이리카자흐자치주 3개 현(자오수현[昭蘇縣], 토크쓰현[特克斯縣], 니르크현[尼勒克縣])과 우루무치시 몽골족 사회경제, 생활수준과 문화 교육 발전 및 현존하는 문제에 대해 현지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각종 대책을 건의하였다. 이리주(伊犁州) 직속 3개 현의 몽골족 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신중국 성립 전후를 비교하여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대책을 모색하였다.

서로 다른 유형의 농촌 및 도시에 거주하는 몽골족 각 계층을 검토하기 위해, 신장 몽골족 주요 거주지 중의 하나인 바이골몽골자치주의 허징현과 허수오현을 선정하였고, 오아시스에 거주하며 원래 형태의 특색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

58 阿布达里, 2001, 「新疆哈萨克族近代文化转型 进程述论」, 『西域研究』 2001-2,

부루커[巴音布魯克] 몽골족은 유목민의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리카자흐자치주 3개 현 내의 몽골족은 농업과 목축업이 결합된 생산과 생활 특징이 있어서 신장 몽골족 중에서도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몽골족의 사회 경제 상황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문화생활도 풍부하며 몽골족 민족의식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국가 농업세 면제와 양식 보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분산 거주하는 생존 환경이나 의료 위생도 낙후하여 재정지원의 어려움 및 몽골족의 취업 문제 등으로 정부에 대한 공신력이 결여되어 국가 정책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문제로는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중 언어 교육 환경에서 몽골어의 발전이 영향을 받게 되어 심지어 소실될 위험에 처했으므로 신장 몽골족 사회의 안정을 위해 민족교육 특히 민족언어의 학습과 사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몽골족의 생존 현상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소수민족의 사회경제 변천에 관심을 두고 조사 연구한 것으로 난콰이모더거[南快莫德格]와 마하이쇼우[馬海壽] 등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⁵⁹

신장은 신장위구르족자치구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구르족에 대한 이해는 신장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위구르와 관련하여서는 언어 문자 및 민간 문화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

미나와·아부도레이무[米娜娃·阿不都熱依木] 등의 『당대 위구르 언어 문자 응용과 발전[當代維吾爾語言文字應用與發展]』은 현대 위구르 언어 문자의 응용 측면을 고찰하였다. 위구르 언어와 관련된 기존 연구로는 하칸 아이데미르(Hakan Aydemir)의 『고대 위구르 언어 ‘현장전(玄奘傳) 제4권』』(Aydemir,

59 南快莫德格, 2009, 『新疆图瓦人社会文化田野调查与研究』, 民族出版社; 马海寿·刘贡南, 2013, 『绿洲上的新月: 当代新疆昌吉地区回族生计方式变迁研究』, 民族出版社; 孙岩·何晓芳·金海燕, 2012, 「族际互动模式: 自发合作, 契约合作与指导合作」, 『满族研究』2012-4 참조.

2013)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대 위구르어 현장전을 소개하고 연구와 관계된 문제, 부호, 참고문헌, 번역 등과 해석을 더하였다. 또한 위구르 언어 문학 및 사상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⁶⁰

미나와·아부도라이무는 역사 자료와 현실 자료를 활용하여 당대 위구르족 언어 발전의 계승 및 비물질 문화유산의 전승과 보호를 통해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발전에 유익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에릭(Eric T. Schluessel)은 그의 저서에서 민족정체성은 집단행위를 하는 촉진제 일뿐 아니라 역사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관념과 사회 변천에 기인하여 당대 사회 행위와 태도에 반영된다고 하였다.⁶¹ 미나와는 역사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관념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일까? 위구의 언어 문자 발전과 관련된 연구에서 위구르족이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으로 어떻게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중 번영하고 발전하여 조화사회를 이루어나가며, ‘3개 문명’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대부흥을 이루는 데 공헌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였다. 역사적인 위구르족 언어 발전을 ‘중화민족의 대부흥’이라는 목적에 맞게 연구하는 것은 위구르 언어 문자의 발전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구르의 민간 문화와 관련하여 아부도라자크·샤이무[阿布都熱扎克·沙依

-
- 60 力提甫·托乎提, 2012, 『现代维吾尔语参考语法』,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扎米尔赛都拉, 2011, 『阿鲁孜格律理论』, 新疆大学出版社; 乌买尔·达吾提, 2011a, 「简论维吾尔古典文学史上的双语创作」, 『民族文学研究』, 2011-2; 乌买尔·达吾提, 2011b, 「麻赫穆德·喀什噶里与比较语言学」, 『新疆大学学报』 2011-3; 阿依达尔·米尔卡马力, 2011, 「吐鲁番博物馆藏回鹘文〈慈悲道场忏法〉残叶研究」, 『敦煌研究』 2011-4; 海热提江·乌斯曼, 2011, 「中国辞书“纳瓦依”条目解释的思考」, 『民族文学研究』 2011-4; 吐尔逊托合提·阿塔吾拉, 2011, 「论玉素普·哈斯·阿吉普的政治思想」, 『新疆大学学报[维文]』 2011-4; 阿合买提·苏来曼, 2011, 『丝绸之路与维吾尔人』, 新疆人民出版社 등이 있다.
- 61 Eric T. Schluessel, 2009, “History, identity, and mother tongue education in Xinjiang”, *Central Asian Survey*, Vol. 28, No. 4, December, pp. 383~402.

木)의 『위구르족 민간 문예와 전통 기예[維吾爾族民間文藝與傳統技藝]』 연구는 철학, 민속학, 사회학, 예술학, 문화인류학 등을 활용하였다. 문자와 사진 기록을 통해 위구르족의 생활 내용과 전통 생활방식을 재현하여 민간 문화의 특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민간 문예와 전통 기예를 중심으로 예술인 상황, 구체적인 민간 예술, 재료의 가공, 민속, 기예 전승 및 소비 유통 등을 조사하여 민간 문예와 전통 기예의 본질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위구르족의 민간 음악, 민간 무도, 민간 곡예, 민간 미술, 민간 구전 문학, 민간 잡기 및 경기(競技), 전통 기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장의 종교와 관련하여서는 다민족 다종교를 강조하는 중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대 불교가 흥성했던 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불경번역사업에 역할을 했던 인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신장 고대 불교에 대한 연구로 차이우지아푸[才吾加甫]의 『신장고대불교연구』에서는 신장에 불교가 전파된 이후 2,000여 년의 흥망성쇠 역사를 통해 신장 각 시기 불교 발전의 역사적 궤적과 신장 지역 불교 발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장 불교와 관련된 사건 및 저명한 불교 인물 및 신장 불교가 증원 불교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고대 신장 불교 발전을 통해 동서문화 교류와 융합의 역사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세계 인류 문명 발전 궤적을 더듬어본 것이다. 그는 장족의 언어를 통해 본 불교, 원명 시기 신장의 티베트 불교 등을 포함해서 신장의 불교 연구에 주력하였다.⁶²

차이우지아푸는 실크로드상의 고대 종교뿐만 아니라 신장 불교, 불탑, 몽골 풍의 제사문화 및 경제사회 발전과 민족문화 전형에 대해 연구한 것을 종합하여 『신장고대불교연구』를 저술하였다. 그의 기존 연구에서도 서역 실크로드의 각 민족이 서역 역사 발전에 함께 노력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다민족 국가라

62 才吾加甫, 2011a, 「藏文文献所见于阩佛教」, 『西域研究』 2011-4; 才吾加甫, 2007, 「文明时期的新疆藏传佛教」, 『西域研究』 2007-3.

는 것을 중시하였다.⁶³

또한 예얼다(葉爾達)의 『오이라트 고승 라푸진바·자야반디다 연구(衛拉特高僧拉布攣巴·咱雅班第達研究)』에서는 몽골어, 티베트어, 중국어 등 사료 및 국내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17세기 몽골 역사에서 유명한 언어학자이자 번역가 이면서 문학가이자 정치가인 라푸진바·자야반디다를 연구하였다. 특히 그의 일생 사적 중 불경번역사업 및 그와 상관된 오이라트 역사 문화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는 라푸진바·자야반디다 연구로 2005년에 중앙민족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⁶⁴ 자야반디다에 대해 계몽 교육가, 종교선전가이자 탁월한 정치가적인 면모가 강조된 연구도 있다.⁶⁵

바이리[白莉]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법제 건설 50년(新疆維吾爾自治區法

-
- 63 才吾加甫, 1998, 「佛敎道德与社会主义道德」, 『新疆社会经济』 1998-1; 才吾加甫, 2001, 「新疆蒙古族藏传佛敎节日」, 『中国藏学』 2001-1; 才吾加甫, 2002, 「柔然时期的新疆佛敎」, 『西北民族研究』 2002-4; 才吾加甫, 2003, 「魏晋南北朝时期的西域喀什及其他诸地佛敎」, 『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3-4; 才吾加甫, 2004, 「汉代佛敎传入西域诸地考」, 『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4-3; 才吾加甫, 2005, 「清朝时期的新疆准噶尔汗国藏传佛敎」, 『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5-3; 才吾加甫, 2006b, 「土尔扈特蒙古与藏传佛敎」, 『新疆社会科学』 2006-2; 才吾加甫, 2006a, 「藏传佛敎在新疆卫拉特蒙古的传播及发展」, 『新疆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6-5; 才吾加甫, 2007, 앞의 글; 才吾加甫, 2009, 「论藏传佛敎文化在新疆的传播」, 『西藏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9-2; 才吾加甫, 2010, 「当代新疆土尔扈特蒙古佛敎高僧」, 『世界宗教研究』 2010-4; 才吾加甫, 2011b, 「塔里木盆地吐蕃佛敎文化研究」, 『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1-5; 才吾加甫, 2011a, 앞의 글; 才吾加甫, 2014, 「丝绸之路上的古代宗教」, 『丝绸之路』 2014-12; 才吾加甫, 2016, 「丝绸之路上的新疆佛塔研究」, 『丝绸之路』 2016-14; 才吾加甫, 2017, 「丝绸之路上的柔然佛敎研究」, 『青海民族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7-1; 才吾加甫, 2018, 「土尔扈特蒙古风俗及祭祀文化」, 『中国俗文化研究』 2018-1.
- 64 叶尔达, 2005, 「拉布占巴·咱雅班第达·那木海扎木苏之研究」, 中央民族大学博士论文; 叶尔达, 2012, 「浅谈卫拉特高僧咱雅班第达游历西藏及返回四卫拉特」, 『西部蒙古论坛』 2012-1.
- 65 И·兹拉特金·段文明, 1989, 「作为政治活动家的咱雅班第达」, 『民族译丛』, 1989-5.

制建設50年』은 1955년 10월 1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선언 이후 자치구 50년 법제건설 발전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신장 각 민족구역자치제도는 민족 분열을 반대하고 국가 안전을 수호하며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치구 입법과公安 및 검찰제도 강화를 중시하였다.

이 저서에서는 민족구역자치제도가 민족 분열을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민족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원래의 취지에다 현실적인 민족구역자치제의 운영 실상 및 분리 독립 운동 등을 고려한다면, 민족구역자치제가 민족 분열을 반대하고 국가 안전을 수호하며 사회 안정적 발전을 추구했다고 결론 내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당위정책연구소[新疆維吾爾自治區黨委政策研究室]의 『신장 빈곤 상황 및 구휼 개발[新疆貧困狀況及扶貧開發]』에서 신장은 8개국과 변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중국 면적의 1/6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동서 문명이 교류하던 길목이며 고대에는 서역으로 범칭되었던 곳이다. 수천 년의 역사발전과 문명 교류로 역사문화가 풍부한 신장은 근대 열강의 외침으로 중국이 수모를 겪었던 축소판으로 규정하였다. 민국시대는 군벌이 할거하고 빈곤과 전란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이 제한적이었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신장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성 중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장에서 빈곤 구휼은 경제 문제이자 중요한 정치적인 임무라고 규정하고,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사회의 안녕과 번방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구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신장의 취약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만들어 신장과 소강사회의 조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구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1978년 이래 신장의 농촌 체제 개혁으로 시작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구휼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전략적 사고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층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구휼 개발 전략 중 하나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며, 농촌문화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를 보장하고, 과학기술을 보급하여 위생적인 의

료 조건 개선이나 자금 관리 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신장지역 변방을 관리하는 차원과 국제적인 관계에서 본 연구로는 진취엔위엔[靳娟娟]과 진티엔이[金天義]의 『신장 변방 관리와 변방 건설[新疆邊防管理與邊防建設]』과 두안광다[段光達]의 『중국 신장과 러시아 동부 석유업 발전의 역사와 현상[中國新疆和俄羅斯東部石油業發展的歷史與現狀]』에 대한 연구가 있다. 진취엔위엔은 국가의 안녕 흥망성쇠와 생사존망은 변방과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신장의 역사와 현실을 통해 증명하였다.⁶⁶ 그는 경제 안전, 문화안전, 정보안전이라는 비전통적인 측면의 국가 안전과 공포주의자들의 활동이 중국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⁶⁷ 따라서 정보 관리 문제를 중시하였다.⁶⁸ 기존 연구에서는 신장지역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세 가지 세력’(공포세력, 민족분열세력, 종교극단세력), 경제 민생 요소, 민족 종교 요소, 문화 교육 요소, 개혁 개방 이래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외부적인 요소를 중시하였다.⁶⁹ 신장지역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 세력’ 소탕과 경제민생 문제 해결, 의식 교육 강화, 법치 건설 중시, 국제관계 강화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안광다의 『중국 신장과 러시아 동부 석유업 발전의 역사와 현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러시아 동부 지역 석유 오염 등의 문제를 연구

66 靳娟娟, 金天義 主編, 2011, 『新疆边防管理与边防建设』,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쪽; 박선영, 2014, 「신장항목의 성과와 영향 평가」, 박장배 등, 『중국의 변경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22쪽.

67 孙韶聰·靳娟娟, 2017, 「国家安全与反恐情报危机决策机制构建研究」, 『情报杂志』 2017-3.

68 靳娟娟, 2011a, 「公安边防群体性事件情报工作的SWOT分析」, 『图书情报工作』 2011-S1; 靳娟娟, 2011b, 「情报管理的问题管理之研究」, 『图书情报工作』 2011-S2; 靳娟娟, 2011c, 「情报主导我国公安边防工作之研究」, 『现代情报』 2011-2; 靳娟娟, 2001, 「边防情报学的形成与发展研究」, 『情报杂志』 2001-11.

69 龙群·崔希涛, 2017, 「影响新疆社会稳定的主要因素及其对策研究综述」, 『黑龙江民族丛刊』 2017-1, 32~34쪽.

한 바 있다.⁷⁰

신장과 러시아 동부 지역은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발 건설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환경 문제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중시하는 것이므로 중국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 저탄소 경제와 석유 자원 개발 간의 관계에서 석유 공업과 현지 경제사회 발전을 상호 양성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다.

위의 연구 내용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청조가 신장을 장악한 이래 어떻게 신장을 연구했는지에 대한 서북지역 역사지리학의 연구 변화상을 검토하였다. 둘째, 이민사회로서의 신장을 강조하면서도 고대로부터 신장은 다민족 사회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다민족 사회 신장의 민족 정체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넷째, 신장의 다종교를 강조하기 위해 불교의 역사와 인물 등에 관심을 가졌다. 다섯째, 신장의 법제 건설의 문제점 및 빈곤의 구휼 방안에 관심을 가졌다. 여섯째, 변경 관리와 국제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는 신장 역사를 정치적인 현실 필요에 부합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장항목’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성과물은 신장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역사적인 측면의 연구가 출판되었다. 각 연구의 주제가 다르고 동일 주제의 다양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비교 검토하여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관통되는 사실은 신장지역의 각 소수민족은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민족자치구역 조차도 각 소수민족의 자치 및 정체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정을 수호하며 사회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여 민족 분열을 반대하는 중국의 일원이라는 것이 중시되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다민족·다문화·다종교의 공

70 段光达, 2013, 「20世纪70年代日苏联合开发西伯利亚过程中的矛盾与分歧」, 『社会科学战线』 2013-12; 马德义·段光达, 2014, 「俄东部地区石油污染问题及其对黑龙江省石油工业的启示」, 『西伯利亚研究』 2014-6.

준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장항목’에서 제시하는 과제 지침⁷¹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중국의 개혁 개방과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는 외부세력의 직접적인 침입이 없는 상황인데도 중국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전통적인 중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현재의 중국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소수민족의 분열도 없이 안정된 변강을 통해 통일된 국가의 기초를 튼실하게 하려는 중국으로서는 변강이 중요하였다. 변강으로부터의 소요는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분열은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중국은 변강 연구에 집중하였다.

중국의 중요한 변강 중의 하나인 신장지역에 대해 본고에서는 21세기 중국 신장 연구의 변화상을 양적·질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양적으로는 CNKI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신장사 연구의 변화상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중국의 신장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서부대개발, ‘신장항목’, 일대일로 등의 정책 변화와 다양한 연구비를 지급하여서 연구논문 편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으로는 신장사 연구가 확대되는 변강 연구 기관의 제도적 변화상과 신장 연구에 대한 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신장 연구에 가장 연구비를 많이 투여했던 ‘신장항목’ 추진 결과로 출판된 『신장연구총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뤄이란은 변강사지연구중심 건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회고에서 중국은 각 민족이 오랜 역사를 통해 공동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강역이 형성되었으며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에 따라 국경의 범위가 많이 변했다

71 http://bjs.cssn.cn/zdxm/zdxm_xjxm/xjxm_wjxz/ 课题指南(2019. 9. 7. 검색)

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 변강은 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⁷² 그렇지만 중국이 추구하는 역사 연구는 이동하며 고정되지 않은 중국의 강역 이론이 아니라 변강 지역이 ‘자고이래’로 중국의 강역이라는 ‘고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강역의 고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신장 자체의 특징적인 역사보다는 자고이래 중국 내에서 살아 숨 쉬는 신장을 강조하여 ‘신장’에서 ‘중국’을 강조하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는 개별 민족의 특성에 집중하였으나 위구르족보다는 다문화, 다종교, 다원화된 신장 지역을 강조하다가 이제는 ‘중국’의 다문화성 속에서의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강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변강 이론을 개발하여 변강 지역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 신장 연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변강 이론과 관련된 연구이다.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신장 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집중했으며, 이를 특정 변강 이론에 접목하여 해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장은 중국이 중요시하는 변강일 뿐 아니라 중국 내 다른 변강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강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떤 이론으로 포괄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과거 서양에서 활용하던 변강 이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중국이 전통적으로 활용하던 변강 이론에 더해 새로운 변강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3권설(三圈說),⁷³ 오대판괴(五大板块),⁷⁴ 통로지대(Corridor Belt)⁷⁵ 등의 이론은 향후 지속적인 학술 검토를 통해 중국의 실정에 맞게 다듬어질 것이다. 중

72 吕一燃, 2003, 앞의 글, 14쪽.

73 王铭铭, 2015, 「三圈说: 另一种世界观, 另一种社会科学」, 『西北民族研究』 2015-1.

74 于逢春, 2015, 「‘中国疆域五大文明板块’视野下的西域」, 『新疆师范大学学报(汉文哲学社会科学版)』 2015-1.

75 徐黎丽, 2017, 「通道地带理论: 中国边疆治理理论初探」, 『思想战线』 2017-2, 67~68쪽.

국의 변강 이론 연구는 ‘동북공정’과 ‘신장항목’ 추진 전의 변강 연구와는 다른 새롭고도 중요한 특징이지만 현재 연구되고 있는 이론이 직접적으로 신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본고의 내용적인 연구 정합성을 볼 때 변강 이론에 대한 것은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본고에서는 신장 연구의 새로운 특징 중의 하나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를 언급해두고자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변강 이론을 체계화하여 독립적인 학문체계로서 변강학이 성립된 것이다. 변강학의 내연과 외연적인 내용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고대, 근대, 현대 변강을 역사적 실마리로 삼아 변강을 규정하고 관리했던 방식을 확인하는 『중국변강학개론(中國邊疆學概論)』⁷⁶이 출판되었다. 중국의 신장 연구는 개별 주제에 대한 연구를 넘어 변강 이론과 변강학을 형성하여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틀을 갖추어나가고 있다. 변강 이론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국가로서 중국의 변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별 지역보다는 중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학술계는 역사적으로 한족과 소수민족의 관계를 규명하고 중국의 역사 강역 범위나 범주의 형성 시기를 정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 역사에서 과거와 현재의 강역을 구별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중국의 현실은 역사적인 ‘중국’의 함의와 오늘날 ‘중국’의 함의를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⁷⁷

따라서 21세기 신장 연구는 소수민족 지역이자 변강인 신장사에서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자 중국사로서의 신장사로 고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중국의 꿈’⁷⁸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21세기 신장 연구가

76 郑汕等, 2012, 『中国边疆学概论』, 云南人民出版社.

77 灵均, 2002, 앞의 글, 110쪽.

78 鞠连和·杨朝霞, 2019, 「论“中国梦”的文明新常态及其世界意义」, 『理论探讨』 2019-5.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다지는 중요한 기초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별적인 주체들이 견고하게 대집합체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국가 통일, 민족 단결, 그리고 변강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순도 감내하고 있는 것인가?

참고문헌

- 강현사 등, 2008, 『중국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 박병광, 2000,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국제정치논총』 40-4.
- 박선영, 2014, 「신장항목의 성과와 영향 평가」, 박장배 등, 『중국의 변경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이진영, 1999,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아태연구』 6-2.
- _____, 2002,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민족연구』 9.
- 贾建飞, 2004, 「论松筠与晚清西北史地学的兴起」, 『中国边疆史地研究』 2004-1.
- 高国力·张燕·李天健, 2017, 「西部大开发战略实施以来新疆发展的成效, 问题和对策」, 『发展研究』 2017-6.
- 谷苞, 2006, 『新疆历史人物』, 新疆人民出版社.
- _____, 2010, 『新疆历史与社会』, 新疆人民出版社.
- 郭雨萍, 2005, 「显学的背后: 沈垚西北史地学述论」, 『中国边疆史地研究』 2005-3.
- 郭旭岗, 2016, 「“七五”事件以来美国的新疆研究」, 兰州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 菅志翔, 2013, 「建国后的新疆研究状况分析报」, 『西北民族研究』 2013-1.
- 寇新华, 2006, 『新疆历史及民俗』, 中国戏剧出版社.
- 国家民委民族问题五种丛书编辑委员会, 2009, 『维吾尔族简史』, 民族出版社.
- 鞠连和·杨朝霞, 2019, 「论“中国梦”的文明新形态及其世界意义」, 『理论探讨』 2019-5.
- 靳娟娟, 2001, 「边防情报学的形成与发展研究」, 『情报杂志』 2001-11.
- _____, 2011a, 「公安边防群体性事件情报工作的SWOT分析」, 『图书情报工作』 2011-S1.
- _____, 2011b, 「情报管理的问题管理之研究」, 『图书情报工作』 2011-S2.
- _____, 2011c, 「情报主导我国公安边防工作之研究」, 『现代情报』 2011-2.
- 靳娟娟·金天義 主編, 2011, 『新疆边防管理与边防建设』,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南快莫德格, 2009, 『新疆图瓦人社会文化田野调查与研究』, 民族出版社.

- 卢晓莉, 2018, 「一带一路战略下的新疆民族团结:机遇与挑战」, 『云南行政学院学报』 2018-2.
- 段光达, 2013, 「20世纪70年代日苏联合开发西伯利亚过程中的矛盾与分歧」, 『社会科学战线』 2013-12.
- 窦燕·王芝皓·宋香荣, 2019, 「新疆铁路沿线城市交通可达性及经济联系对比研究」, 『湖北农业科学』 2019-7.
- 马大正, 1992a, 「当代中国边疆研究者的历史使命」, 『中国边疆史地研究』 1992-2.
 _____, 1992b, 「略论禹贡学会的学术组织工作」, 『中国边疆史地研究』 1992-1.
 _____, 1994, 「1978年以来中国近代边疆问题研究述评(上)」, 『中国边疆史地研究』 1994-3.
- 马德义·段光达, 2014, 「俄东部地区石油污染问题及其对黑龙江省石油工业的启示」, 『西伯利亚研究』 2014-6.
- 马登杰 编著, 2010, 『新疆历史与发展』, 新疆人民出版社.
- 马汝琦·张世明, 1992, 「嘉道咸时期边疆史地学的繁荣与经世致用思潮的复兴」, 『中国边疆史地研究』 1992-1.
- 苗普生, 2015, 『新疆历史常识』, 新疆人民出版社.
- 潘志, 2015, 「西部大开发与构建丝绸之路经济带的战略研究:以新疆为例」, 『商场现代化』 2015-5.
- 樊家军, 2019, 「新时代新疆落实“总目标”的战略分析」, 『教育教学论坛』 2019-18.
- 边众, 1999, 「“世纪之交新疆历史研究回顾与展望”学术研讨会纪要」, 『中国边疆史地研究』 1999-4.
- 本社 编, 1994, 『新疆历史词典』, 新疆人民出版社.
- 斯琴格日乐, 2019, 「习近平中华民族共同体思想的逻辑体系与时代价值」, 『科学社会主义』 2019-4.
- 尚晴, 2018, 「国家治理与历史遗绪下的民族识别研究」, 『中央民族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8-5.
- 徐步军, 2014a, 「铲除危害国家统一, 民族团结, 社会稳定的毒瘤:“三股势力”(一)」, 『统一论坛』 2014-5.
 _____, 2014b, 「铲除危害国家统一, 民族团结, 社会稳定的毒瘤:“三股势力”(二)」, 『统一论坛』 2014-6.

- _____, 2015, 「铲除危害国家统一, 民族团结, 社会稳定的毒瘤: “三股势力”(三)」, 『统一论坛』2015-1.
- 徐黎丽, 2017, 「通道地带理论: 中国边疆治理理论初探」, 『思想战线』2017-2.
- 徐兆奎, 1981, 「禹贡学会的历史地理研究工作」, 『历史地理』1981-1.
- 成龙, 2014, 「二十世纪四十年代的边疆和边疆学术研究」, 云南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 邵纯 主编, 2000, 『新疆历史主旋律上卷』, 中共中央党校出版社.
- 孙岩·何晓芳·金海燕, 2012, 「族际互动模式: 自发合作, 契约合作与指导合作」, 『满族研究』2012-4.
- 孙韶聪·靳娟娟, 2017, 「国家安全与反情报危机决策机制构建研究」, 『情报杂志』2017-3.
- 施正一, 1981, 「关于发展我国民族学的几个问题」, 『民族学研究』.
- 新疆历史文物, 1977, 『新疆历史文物』, 文物出版社.
- 新疆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 1985, 『新疆历史研究』, 新疆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
- 新疆少数民族社会历史调查组, 1963, 『维吾尔族简史简志合编(初稿)』, 中国科学院民族研究所.
- 新疆维吾尔自治区博物馆 编, 1977, 『新疆历史白问』, 文物出版社.
- 新疆人民出版社, 1985, 『维吾尔族社会历史调查』, 新疆人民出版社.
- 阿依达尔·米尔卡马力, 2011, 「吐鲁番博物馆藏回鹘文〈慈悲道场忏法〉残叶研究」, 『敦煌研究』2011-4.
- 阿布达里, 2001, 「新疆哈萨克族近代文化转型 进程述论」, 『西域研究』2001-2.
- 阿合买提·苏来曼, 2011, 『丝绸之路与维吾尔人』, 新疆人民出版社.
- 杨鱼彦, 2018, 「“一带一路”倡议下新疆民族文化的社会功能研究」, 『兵团党校学报』2018-1.
- 杨惠玲, 2019, 「乌鲁木齐水资源现状分析及对策」, 『陕西水利』2019-7.
- 余丽, 2018, 「民族识别对新中国民族关系的意义」, 『戏剧之家』2018-26.
- 厉声·贾建飞, 2009, 「60年来西北边疆史地研究的回顾与展望」, 『中国边疆史地研究』2009-3.
- 吕一燃, 2003, 「欣慰的回顾: 纪念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建立20周年」, 『中国边疆史地研究』2003-3.

- 厉声, 2006, 『中国新疆历史与现状』, 新疆人民出版社.
- , 2013, 『中国新疆历史与现状』, 五洲传播出版社.
- 力提甫·托乎提, 2012, 『现代维吾尔语参考语法』,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闫海龙·胡青江, 2014, 「关于推进新疆丝绸之路经济带“核心区”建设的思考与建议」, 『经济研究参考』2014-61.
- 灵均, 2002, 「中国民族史学会第九次学术研讨会纪要」, 『中国边疆史地研究』2002-12.
- 龙群·崔希涛, 2017, 「影响新疆社会稳定的主要因素及其对策研究综述」, 『黑龙江民族丛刊』2017-1.
- 乌买尔·达吾提, 2011a, 「简论维吾尔古典文学史上的双语创作」, 『民族文学研究』2011-2.
- , 2011b, 「麻赫穆德·喀什噶里与比较语言学」, 『新疆大学学报』2011-3.
- 吴丰培, 1983, 「顾颉刚先生和所著西北考察日记」, 『西北史地』1983-4.
- 吴怀祺, 1983, 「禹贡半月刊的爱国主义史学思想」, 『史学史研究』1983-1.
- 吴瑜, 2017, 「“一带一路”背景下新疆对外贸易的发展潜力研究」, 『中国商论』2017-2.
- 吴泽主编, 袁英光·桂遵义著, 1989, 『中国近代史学史』, 江苏古籍出版社.
- 王金涛, 2018, 「人口迁移对新疆区域经济发展的影响研究」, 新疆大学硕士学位论文.
- 王铭铭, 2015, 「三圈说: 另一种世界观, 另一种社会科学」, 『西北民族研究』2015-1.
- 王炳华主编, 1999, 『新疆历史文物』, 新疆美术摄影出版.
- 王兆萍·冯莉, 2018, 「新疆南疆五地州近三十年人口发展演变特征」, 『中共乌鲁木齐市委党校学报』2.
- 王茜, 2005, 『维吾尔族: 历史与现状』, 新疆大学出版社.
- 王煦华, 1988, 「顾颉刚先生的学术贡献述评」, 『顾颉刚选集』, 天津人民出版社.
- 于逢春, 2015, 「中国疆域五大文明板块’视野下的西域」, 『新疆师范大学学报(汉文哲学社会科学版)』2015-1.
- 云洁·毛克贞, 2007, 「新疆区域人口发展状况分析」, 『新疆财经学院学报』2007-2.
- 刘起钎, 1986, 『顾颉刚先生学述』, 中华书局.
- 刘锡涛, 2006, 『新疆历史文稿』, 新疆人民出版社.
- 刘艳芝, 2016, 「“一带一路”背景下的新疆经济发展研究」, 『经济论坛』2016-2.

- 维吾尔族简史编写组, 1989, 『维吾尔族简史』, 新疆人民出版社.
- _____, 1991, 『维吾尔族简史』, 新疆人民出版社.
- _____, 2006, 『(哈萨克文)维吾尔族简史』, 新疆人民出版社.
- 维吾尔族简史编写组 编, 1985, 『维吾尔族简史 上下 第二次修订稿 油印本』, 新疆人民出版社.
- 刘志宵, 1981, 『维吾尔族历史(上下编) 维吾尔文』, 民族出版社.
- _____, 1985, 『维吾尔族历史(上编)』, 民族出版社.
- _____, 1996, 『维吾尔族历史(中编)』, 中国社会科学出版.
- 刘清涛, 2014, 「“中国边疆及边疆治理理论的挑战与创新学术研讨会”综述」, 『中国边疆史地研究』 2014-1.
- 李建军·马思超, 2016, 「丝绸之路经济带核心区基础设施投资估计与融资模式探析」, 『新疆财经』 2016-1.
- 李金军, 2016, 「新疆人口结构变化对区域经济发展的影响研究」, 石河子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 李洁, 2009, 「民国时期新疆汉族移民探析」, 『中国边疆史地研究』 2009-12.
- 李绍明, 2001, 「21世纪初我国民族学发展的几个问题」, 『西南民族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 李豫新·孙培蕾, 2017, 「丝绸之路经济带核心区农产品贸易潜力研究」, 『江西财经大学学报』 2017-6.
- И. 兹拉特金·段文明, 1989, 「作为政治活动家的咱雅班第达」, 『民族译丛』 1989-5.
- 李赞, 2019, 「“中华民族共同体”叙事的逻辑结构和历史意义探析」, 『西南民族大学学报(人文社科版)』 2019-9.
- 李智宇, 2018, 「民国时期新疆人口研究」, 新疆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 张振伟, 2018, 「“新时代民族学研究议题与期待”论坛综述」, 『思想战线』 2018-6.
- 才吾加甫, 1998, 「佛教道德与社会主义道德」, 『新疆社会经济』 1998-1.
- _____, 2001, 「新疆蒙古族藏传佛教节日」, 『中国藏学』 2001-1.
- _____, 2002, 「柔然时期的新疆佛教」, 『西北民族研究』 2002-4.
- _____, 2003, 「魏晋南北朝时期的西域喀什及其他诸地佛教」, 『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3-4.
- _____, 2004, 「汉代佛教传入西域诸地考」, 『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

- 版』2004-3.
- _____, 2005, 「清朝时期的新疆准噶尔汗国藏传佛教」, 『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05-3.
- _____, 2006a, 「藏传佛教在新疆卫拉特蒙古的传播及发展」, 『新疆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06-5.
- _____, 2006b, 「土尔扈特蒙古与藏传佛教」, 『新疆社会科学』2006-2.
- _____, 2007, 「元明时期的新疆藏传佛教」, 『西域研究』2007-3.
- _____, 2009, 「论藏传佛教文化在新疆的传播」, 『西藏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9-2.
- _____, 2010, 「当代新疆土尔扈特蒙古佛教高僧」, 『世界宗教研究』2010-4.
- _____, 2011a, 「藏文文献所见于闽佛教」, 『西域研究』2011-4.
- _____, 2011b, 「塔里木盆地吐蕃佛教文化研究」, 『新疆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1-5.
- _____, 2014, 「丝绸之路上的古代宗教」, 『丝绸之路』2014-12.
- _____, 2016, 「丝绸之路上的新疆佛塔研究」, 『丝绸之路』2016-14.
- _____, 2017, 「丝绸之路上的柔然佛教研究」, 『青海民族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7-1.
- _____, 2018, 「土尔扈特蒙古风俗及祭祀文化」, 『中国民俗文化研究』2018-1.
- 田珺瑶, 2017, 「“一带一路”战略下新疆旅游经济发展策略研究」, 『现代商业』2017-31.
- 钱伯泉, 2015, 『通俗维吾尔族史』, 新疆人民出版社.
- 田卫疆, 2002, 『新疆历史』, 五洲传播出版社.
- _____, 2009, 『简明新疆历史』, 新疆人民出版社.
- _____, 2012, 『新疆历史与文化』, 新疆人民出版社.
- 郑汕等, 2012, 『中国边疆学概论』, 云南人民出版社.
- 郑松, 2017, 「发挥新疆在“一带一路”建设中的区位支点作用」, 『世界宗教文化』2017-5.
- 程广斌·王永静, 2013, 「新疆在新一轮西部大开发中的地位与作用」, 『科技经济市场』2013-10.
- 齐清顺, 2000, 「论清末新疆“新政”: 新疆向近代化迈进的重要开端」, 『西域研究』2000-3.

- _____, 2004, 『中国历代中央王朝治理新疆政策研究』, 新疆人民出版社.
- 诸学鸿, 2009, 『新疆历史的足迹』, 新疆教育出版社, 2009
- 朱士嘉, 1984, 「顾颉刚先生与禹贡半月刊」, 『晋阳学刊』1984-4
- 周育国·尹航, 2019, 「中华民族伟大复兴的历史前进逻辑」, 『辽宁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9-5.
- 朱尖·苗威, 2015, 「中国边疆研究的文献计量分析」, 『云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47-1.
- 周泓·郭宏珍·王耀, 2015, 「近年新疆研究专题概述(上)」, 『民族论坛』2015-3.
- 周泓·马艳·孙媪, 2015, 「近年新疆研究专题概述(下)」, 『民族论坛』2015-5.
- 曾闻吾, 1936, 『中国经营西域史』, 商务印书馆, 1936.
- 陈贵民, 2019, 「探究新疆地区矿产资源勘查及成矿规律」, 『世界有色金属』2019-11.
- 陈笑利·陈俊科·余国新·聂春霞, 2019, 「新疆地区人口-经济-土地系统城镇化耦合协调演化研究」, 『天津农业科学』1.
- 陈元龙·许思愿·彭辉波·张泉龙, 2019, 「新疆哈密地区矿产资源分布特征及找矿方向」, 『世界有色金属』2019-12.
- 扎米尔赛都拉, 2011, 『阿鲁孜格律理论』, 新疆大学出版社.
- 蔡志全·赵红霞, 2016, 「“一带一路”背景下新疆外语教育政策面临的挑战与变革」, 『中国大学教学』2016-1.
- 吐尔逊托合提·阿塔吾拉, 2011, 「论玉素普·哈斯·阿吉普的政治思想」, 『新疆大学学报[维文]』2011-4.
- 编写组, 1980, 『维吾尔族简史(一)古代部分』, 维吾尔族简史编写组.
- 冯春龙, 1987, 「试论禹贡学会对历史地理学的贡献」, 『杨州师院学报』1987-4.
- 夏文斌, 2019, 『“一带一路”与新疆发展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
- 夏米斯亚·卡米力江, 2016, 「西部大开发战略对新疆经济发展的效果评价: 基于全要素生产方法研究」, 『新疆职业大学学报』2016-3.
- 海热提江·乌斯曼, 2011, 「中国辞书“纳瓦依”条目解释的思考」, 『民族文学研究』2011-4.
- 叶尔达, 2005, 「拉布占巴·咱雅班第达·那木海扎木苏之研究」, 中央民族大学博士学位论文.
- _____, 2012, 「浅谈卫拉特高僧咱雅班第达游历西藏及返回四卫拉特」, 『西部蒙古

论坛』2012-1.

胡逢祥·张文建, 1991, 『中国近代史学思潮与流派』, 华东师范大学出版社.

胡斯振, 1985, 「西北学当议」, 『西北民族学院学报』1985-1.

Abramson, Kara, 2012, “Gender, Uyghur Identity, and the Story of Nuzugu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71, No. 4, Nov.

Anderson, Elise, 2012, “The Construction of männisā Khanas a Uyghur Musical
Culture Hero”, *Asian Music*, Vol. 43, No. 1, Winter/Spring.

Baranovitch, Nimrod, 2007, “Inverted Exile: Uyghur Writers and Artists in
Beijing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ir Work”, *Modern China*, Vol. 33,
No. 4, Oct.

Beller-Hann, Ildiko, 2008, *Community Matters in Xinjiang 1880-1949: Towards
a Historical Anthropology of the Uyghur*, Ildiko Beller-Hann, Leiden: Brill.

Brophy, David, 2013, “The Junghar Mongol Legacy and the Language of Loyalty
in Qing Xinjiang”,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73, No. 2,
December.

Chen, Yangbin, 2008, *Muslim Uyghur Students in a Chinese Boarding School:
Social Recapitalization as a Response to Ethnic Integration*, Lanham, MD:
Lexington Books.

_____, 2009, “Muslim Uyghur Students in a Dislocated Chinese
Boarding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 as a Response to Ethnic
Integration”, *Race/Ethnicity: Multidisciplinary Global Contexts*, Vol. 2, No. 2.

Clarke, Michael, 2007, “China’s Internal Security Dilemma and the “Great
Western Development”: The Dynamics of Integration, Ethnic Nationalism
and Terrorism in Xinjiang”, *Asian Studies Review*, Vol. 31, September.

Dillon, Michael, 2004, *Xinjiang China’s Muslim Far Northwest*, London, New
York: Routledge Curzon.

Erkin, Adila, 2009, “Locally modern, globally Uyghur: geography, identity and
consumer culture in contemporary Xinjiang”, *Central Asian Survey*, Vol. 28,
No. 4, December.

- Hao, Yufan and Liu, Weihua, 2012, "Xinjiang: increasing pain in the heart of China's borderland",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1(74), March.
- Harris, Rachel, 2008, *The Making of a Musical Canon in Chinese Central Asia: The Uyghur Twelve Muqam*, Aldershot: Ashgate.
- Hess, Steve, 2009, "Dividing and conquering the shop floor: Uyghur labour export and labour segmentation in China's industrial east", *Central Asian Survey*, Vol. 28, No. 4, December.
- Jacobs, Justin, 2008, "How Chinese Turkestan Became Chinese: Visualizing Zhang Zhizhong's Tianshan Pictorial and Xinjiang Youth Song and Dance Troup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7, No. 2, May.
- Millward, James A., 2007, *Eurasian Crossroads: A History of Xinjiang*, London: Hurst & Company.
- Roberts, Sean R., 2009, "Imagining Uyghurstan: reevaluating the birth of the modern Uyghur nation", *Central Asian Survey*, Vol. 28, No. 4, December.
- Schluessel, Eric T., 2009, "History, identity, and mother tongue education in Xinjiang", *Central Asian Survey*, Vol. 28, No. 4, December.
- Schrode, Paula, 2008, "The Dynamics of Orthodoxy and Heterodoxy in Uyghur Religious Practice", *Die Welt des Islams, New Series*, Vol. 48, Issue 3/4.
- Share, Michael, 2010, "The Russian Civil War in Chinese Turkestan(Xinjiang), 1918-1921: A Little Known and Explored Front", *Europe-Asia Studies*, Vol. 62, No. 3, May.
- Starr, Frederick, 2004, *Xinjiang: China's Muslim Borderland*, Armonk, NY [u.a.]: M. A. Sharpe.
- Thum, Rian, 2012, "Modular History: Identity Maintenance before Uyghur Nationalis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71, No. 3, Aug.
- Trombert, Eric, 2008, "The Karez Concept in Ancient Chinese Sources Myth or Reality?", *T'oung Pao, Second Series*, Vol. 94, Fasc. 1/3.
- Tyler, Christian, 2003, *Wild West China: The Taming of Xinjiang*, London: John Murray.
- Zukosky, Michael L., 2012, "Quality, Development Discourse, and Minority

Subjectivity in Contemporary Xinjiang”, *Modern China*, Vol. 38, No. 2, March.

http://bjs.cssn.cn/zdxm/zdxm_xjxm/xjxm_wjxz/ 课题指南(2019. 9. 7. 검색)

http://bjs.cssn.cn/zdxm/zdxm_xjxm/xjxm_xmjj/ 新疆项目简介(2019. 9. 7. 검색)

<http://new.gb.oversea.cnki.net/kns/Visualization/VisualCenter.aspx> (2019. 9. 7. 검색)

<http://new.gb.oversea.cnki.net/kns/Visualization/VisualCenter.aspx> (2019. 9. 14. 검색)

신장에서 중국으로

— 중국 ‘신장항목’ 전후의 연구 변화상 —

박선영

중국의 개혁 개방과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는 외부세력의 직접적인 침입이 없는 상황인데도 중국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전통적인 중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현재의 중국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소수민족의 분열도 없이 안정된 변강을 통해 통일된 국가의 기초를 튼실하게 하려는 중국으로서는 변강 연구가 중요하였다. 변강으로부터의 소요는 바로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분열은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서라도 변강 연구는 필요하였다.

본고에서는 21세기 중국 신장 연구의 변화상을 양적·질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양적으로는 CNKI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신장사 연구의 변화상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질적으로는 신장사 연구가 확대되는 제도적 변화상을 규명하고 다양한 연구 주제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중국에서 신장 연구에 가장 연구비를 많이 투여한 ‘신장항목’ 추진 결과로 출판된 『신장연구총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종합하면, 21세기 신장 연구는 소수민족 지역이자 변강인 신장사에서 중국

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자 중국사로서의 신장사로 고착화되고 있다. 중국은 개별적인 주제들이 견고하게 대집합체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국가 통일, 민족 단결, 그리고 변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제어: 신장, 위구르, 신장항목, 신장연구총서, 다민족, 다문화

ABSTRACT

From Xinjiang History to Chinese History

Park Sunyoung

Despite the absence of direct intrusion by any external forces, China's consciousness of crisis was awakened due to the reformation to open up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search of frontier is crucial in order for China to restore the great status it once held. The research of frontier is also a key step to take to stabilize the nation's foundation by unifying all minorities without any of them being disintegrated. China would face significant difficulties if there are divisions among the minorities, which would result in disintegration. The frontier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liminate potential factors that may lead to such disintegration.

In this paper, China's research about Xinjinag in the twenty-first century is analyz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quantitative terms, the CNKI is used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study of Xinjiang history. As for qualitatively terms, the paper reviews the changes in the research of Xinjiang history and analyzes various research topics. In

particular, *Volume of Xinjiang Research* has been discussed.

In summary, the research of Xinjiang histo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s gradually changed from history of the local minorities in the frontier area to become fixed as a part of Chinese history. As numerous research topics and theories would suggest, China is spending a great amount of effort to achieve national unification, people's alliance and frontier stability.

Keywords: Xinjiang, Uygur, Xinjiang Xiangmu(Xinjiang Project), Volume of Xinjiang Research, Multi-nations, Multi-cultures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안악군 당장경 유적과 단군 전승

김남중 |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 I. 머리말
- II. 당장경 기록과 구월산 일대 단군 전승
- III. 당장경 유적 일대의 고고학적 상황과 구월산 단군 신앙의 형성 시기
- IV. 당장경 명칭의 사용 배경
- V. 맺음말



I. 머리말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에는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단군이 장당경으로 옮겨갔다고 하여, 장당경을 평양, 아사달과 함께 단군이 도읍한 여러 지역 중 하나로 전한다. 장당경은 사료에 따라 당장경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사』에서는 유주의 장장평이 단군이 도읍한 당장경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는 문화현에 당장경의 옛터가 여전히 존재했다고 전한다. 유주는 곧 문화현으로, 당장경 터에 대한 전승이 조선 이후까지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장당경은 단군 신화의 한 내용이지만, 『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전하는 당장경 유적은 구체적인 실체를 지닌 곳이다. 당장경 터는 조선 시대 행정 구역상으로는 문화현에 포함되며, 현재 행정 구역상으로는 안악군 룡산리 일대에 해당한다. 단군을 비롯한 환인, 환웅 등을 모신 구월산 삼성사 인근 지역으로, 당장경 터는 전설과 실재가 만나는 장소 중 하나이다. 당장경이라는 이름이 전설에 근거해서 붙여진 것인지, 어떤 실체가 있는 곳에 신화의 내용이 덧붙여진 것인지 알기 어렵다. 다만 오랫동안 이 일대가 당장경 또는 장당경으로 불려왔다는 점에서 당장경 터는 고조선의 실체나 단군 신화의 전래 과정을 밝히기 위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당장경 터에 대한 발굴 보고는 1989년 『조선고고연구』에 간략히 소개된 바 있다.¹ 여기서 룡산리 당장평 마을 일대는 조선 시대 지리지에 소개된 정황과 유사하다는 점, 예전부터 장평으로 불렸으며 부근에 장평이나 장장평 등으로 불리는 곳이 없다는 점 등에서 조선 시대에 알려진 당장경 터로 볼 수 있다고 하였

* 투고: 2019년 5월 23일, 심사 완료: 2019년 8월 20일, 게재 확정: 2019년 8월 23일

1 남일룡, 1989, 「구월산성과 그 주변의 유적」, 『조선고고연구』 1989-1, 16~17쪽.

다. 이 일대에 고구려, 고려 시대 유물·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언제부터 이 일대가 당장경(또는 장당경)으로 불렸으며, 실제로 단군과 관련이 있는 지역인지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나, 당장경 유적에 대한 발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일대의 고고학적 상황과 문헌에 나타난 당장경 전승 등을 검토하여 이 유적을 둘러싼 역사와 유적의 성격에 대한 초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당장경 기록과 구월산 일대 단군 전승

당장경은 여러 기록에서 장당경(藏唐京), 당장경(唐莊京), 장장평(莊莊坪), 장장평(庄庄坪), 장장(藏壯) 등으로 불렸는데, 고려 충렬왕 때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평양에 도읍한 단군이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다가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장당경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전한다.² 고려 말 학자 이첨(1345~1405)의 『쌍매당협장집』에도 비슷한 내용이 전하는데, 장당경을 당장경으로 표기한 점만 다르다.³ 두 기록 모두 당장경의 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당장경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삼한시귀감』에 대한 공민왕 때⁴ 조운흥의 주가 처음으로, 장당경이 문화현 구월산 동쪽에 있다고 전한다.⁵ 『삼

2 『三國遺事』卷1, 紀異1, 古朝鮮,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 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檀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3 『雙梅堂篋藏集』雙梅堂先生篋藏文集 卷22, 雜著, 檀君朝鮮, “開國號朝鮮 與堯同時 或云都平壤城 始稱朝鮮 又移都放白岳山 未知是否 周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 乃移於唐藏京.”

4 박대재, 2015, 「檀君紀元과 「古記」」, 『韓國史學報』 61, 25~26쪽.

5 『三韓詩龜鑑』 卷之下, 政承 李混, “西京 永明寺[石碣曰 古朝鮮檀君已 檀君壽

국유사』와 마찬가지로 장당경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후 조선 초에 편찬된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당장경의 위치가 다시 언급된다.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유주(문화현)에 장장평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단군이 도읍한 당장경의 와전이라고 전하였다.⁶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도 장장평이 문화현 동쪽에 있는데, 장장평은 당장경의 와전이라고 하였다.⁷ 그리고 당장경의 위치를 조운흥의 주와 동일하게 현의 동쪽이라고 하였다. 다만 도읍을 의미하는 ‘경(京)’이 빠지고 들밭을 의미하는 ‘평(坪)’이 들어갔다는 특징을 보인다. 조선 초에 이미 당장경 일대에 건물은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었음을 추론케 한다. 세종 10년에 문화현 출신으로 우의정을 지낸 류관이 올린 글 속에서도 단군의 도읍 터가 자기 고향의 장장이라는 땅에 있었다고 하였다.⁸ 조선 시대에 들어와 장당경은 장장 또는 장장평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성종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당장경이 문화현의 동쪽 15리에 있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인 위치가 언급되어 있다.⁹ 이후 당장경이 문화현 동쪽 15리에 있다는 내용은 여러 기록에 되풀이된다. 17세기에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에도 당장경의 터가 문화현 동쪽 15리에 남아 있다고 전한다.¹⁰ 영조 때 활동한 신경준의 문집 『여암전서』¹¹나 정조 때 편찬된 『춘관통고』,¹² 1895년

一千八百歲 在位一千五百年 後箕子受武王命 移都 檀君舊都莊唐京 京在今文化郡九月山東].”

- 6 『高麗史』 卷58, 志12, 地理3, 西海道 儒州, “莊莊坪[世傳 檀君所都 卽唐莊京之訛].”
- 7 『世宗實錄』 卷152, 地理志, 黃海道 豐川郡 文化縣, “庄庄坪在縣東[世傳 朝鮮檀君所都 卽唐莊京之訛].”
- 8 『世宗實錄』 卷40, 世宗 10년 6월 乙未, “文化之東 有地名藏壯者 父老傳以爲檀君之都.”
- 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 文化縣 古跡, “莊莊坪[在縣東十五里 世傳檀君所都 基址尚存 高麗史以爲莊莊坪 乃唐藏京之訛].”
- 10 『東國輿地志』 卷6, 黃海道 文化縣 古蹟.
- 11 『旅菴全書』 卷4, 疆界考 我東國別號 三朝鮮 前朝鮮國.
- 12 『春官通考』 卷44, 吉禮 三聖祠.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서인 『조선역대사략』¹³ 등에도 당장경은 문화현 동쪽에 있었다고 전한다. 또한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을 거치면서 장당경보다는 당장경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당장경이 문화현 북쪽에 있다는 기록도 전한다. 영조 때 편찬한 『여지도서』에는 장장평이 문화현 북쪽 10리에 있는 것으로 전한다.¹⁴ 『승정원일기』 영조 조에서도 당시 학자 서명응의 말 속에 비슷한 내용이 전한다.¹⁵ 고종 시기에 편찬한 『해서읍지』,¹⁶ 『문화군읍지』¹⁷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화현의 치소가 1520년에 옮겨졌기 때문으로 본다.¹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중종 15년에 옛 읍에 전염병이 돌아 13리 떨어진 곳으로 읍을 옮겼다고 전한다.¹⁹ 이 내용은 『여지도서』에도 나온다.²⁰ 영조 이후 기록에서 당장경의 위치를 달리 표현한 것을 보면, 『여지도서』 편찬 이전에 『동국여지승람』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던 것에 수정을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거리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당장경 터의 위치를 조선 후기에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에서 최소한 고려 말부터 단군 전승과 관련된 당장경 터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언제부터 이 지역에 그러한 전승이 있었는지는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세종 때 류관의 상소²¹와 『고려사』, 『세종실록』

13 『朝鮮歷代史略』卷1, 檀君紀.

14 『輿地圖書』25, 黃海道 3, 文化縣 古跡, “莊莊坪[在縣北十里].”

15 『承政院日記』英祖 41년 12월 己酉, “命膺曰 …… 所謂唐莊京 在文化縣北十里 謂之莊莊坪也.”

16 『海西邑誌』卷6, 文化縣 古跡 莊莊坪.

17 『文化郡邑誌』古跡 莊莊坪.

18 남일룡, 1989, 앞의 글, 16~17쪽.

1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2, 黃海道 文化縣 建置沿革, “[新增] 今上十五年 以舊邑居多 癘疫 移于今治 北距舊縣十三里.”

20 『輿地圖書』25, 黃海道 3, 文化縣 建置沿革.

21 『世宗實錄』卷40, 世宗 10년 6월 乙未.

지리지 등을 통해 조선 초 문화현에서 단군과 관련된 아사달, 삼성사, 당장경에 대한 전승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악군 당장경 전승의 형성은 구월산의 단군 신앙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충렬왕 때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아사달, 장당경 등에도 읍하였고 단군이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다는 내용은 전하나 구체적으로 그곳이 구월산 일대에 있었다는 언급은 없다. 충렬왕 이전 문화현 지역에 당장경을 포함한 단군 전승이 있었는지 의문케 하는 부분이다.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아사달의 위치와 관련하여 무엽산으로 보는 자료와 백악과 관련하여 배주, 개성 동쪽의 백악궁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²² 배주는 고구려 시기 도랍현이었던 곳으로 고려 때 배주로 바뀌었다가 조선 시대 배천군으로 이름이 바뀐 곳이다.²³ 개성 동쪽의 백악궁에 대해서는 고려 고종 때 백악에 궁궐을 처음 건립했다는 기록과²⁴ 공민왕 때 백악궁궐을 건립했다는 기록을 살필 수 있는데, 임진현 북쪽 5리에 있었다고 전한다.²⁵ 두 곳 모두 개성 근처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구월산과는 무관하다. 『경』에서 언급하였다는 무엽산의 경우는 ‘무(無)’를 ‘패(貝)’의 오자로 보고 패엽사가 있는 구월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²⁶ 아사달을 구월산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추론이나 『경』의 성격도 불분명하고 글자 오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설령 패엽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연 본인은 아사달과 패엽산의 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여러 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일연은 아사달과 구월산의 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연은 구월산 일대에 단군 전승이 전한다는

22 『三國遺事』卷1, 紀異1, 古朝鮮,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經云 無葉山 亦云 白岳在白州地 或云 在開城東 今白岳宮是.”

23 『世宗實錄』卷152, 地理志, 黃海道 延安都護府 白川郡.

24 『高麗史』卷22, 世家 第22, 高宗 4年 12월.

25 『高麗史』卷39, 世家 第39, 恭愍王 9年 7월.

26 金成煥, 2002,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景仁文化社, 179~180쪽.

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같은 충렬왕 시기에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에서는 아사달산은 구월산이며 이곳에 단군의 사당이 여전히 존재했다고 기록하였다.²⁷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 점에서 볼 때 그 당시 구월산에 단군 사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거의 같은 시기에 저술된 『삼국유사』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연과 이승휴가 참고한 자료가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²⁹ 즉, 이승휴는 구월산 일대의 단군 전승을 알았지만 일연은 알지 못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제왕운기』에 구월산의 단군 신앙이 전하게 된 배경으로 이승휴와 류경의 관계가 주목된다. 류경(1211~1289)은 문화현에서 대대로 거주하였던 문화 류씨가문 출신이다. 조선 세종 때 문화현의 단군 신앙을 알린 류관의 조상으로, 고종~충렬왕 때 활동하였다. 특히 고종 때 무신 집권자 최의를 제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이러한 공으로 그의 내향(內鄉)인 유주의 감무는 문화현령관으로 승격되었다.³⁰ 이후 류경은 위세를 떨쳤는데 원종 초 공신각에 그의 초상이 걸리기도 하였다. 비록 몇 차례 실각하여 유배를 당하기는 하였으나 복귀하여 충렬왕 초에는 첨의시랑찬성사·감수국사·판판도사사에 이르렀다. 이렇게 류경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승휴는 이장용과 류경의 천거를 받아 경흥부서기라는 관직을 받았다.³¹ 즉, 이승휴는 류경의 도움을 얻어 관직에 나아갔다. 류경은 고종~

27 『帝王韻紀』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 前朝鮮紀. “今九月山也 一名弓忽 又名三危 祠堂猶在.”

28 『成宗實錄』 기록에 보이는 삼성당을 이승휴가 언급한 구월산의 사당으로 이해한다(崔柄憲, 1994, 「檀君認識의 歷史的 變遷 - 고려시대 檀君神話 傳承文獻의 檢討」, 『檀君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53~154쪽).

29 고려 시대 단군 신화는 여러 유형이 전해졌는데, 『帝王韻紀』의 단군 신화는 『三國遺事』에서 인용된 『古記』나 『本紀』 유형과는 다른 갈래의 전승으로 본다(김성환, 2006, 「고려시대 단군관의 역사적 정립」, 『白山學報』 75, 316~326쪽).

30 『高麗史』 卷105, 列傳 第18, 柳璈.

31 『高麗史』 卷106, 列傳 第19, 李承休.

충렬왕 시기 정치 거물이자 이승휴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셈이다. 이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일연과 달리 이승휴는 구월산의 단군 전승을 알게 된 듯하다. 즉, 문화현 출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승휴는 구월산 일대의 단군 전승을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셈이다. 물론 일연도 류경과 교류가 없지는 않았으나³² 이승휴만큼 깊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듯하다.

문화 류씨 가문은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기 이전부터 문화현에 거주하였다. 문화 류씨의 시조로 알려진 류차달은 태조를 보좌하여 공신이 되었는데,³³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류차달이 태조에게 많은 수레와 말을 지원하여 군량 길을 통하게 하였다고 전한다.³⁴ 1349년 안진이 지은 류둔의 묘지명에 류차달이 구월산 호랑이를 구해준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³⁵ 최소한 고려 건국 무렵부터 문화 류씨는 문화현 일대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한 가문이 계속해서 문화현에 거주하였다는 점은 고려 이전부터 있었던 구월산 일대 전승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화 류씨 출신이 득세한 시점에 『제왕운기』에 구월산 단군 신앙이 알려졌다는 점은 고려 시대 단군 전승과 관련해 주목해볼 만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구월산의 단군 신앙이 고려 초 이전부터 있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기우용단에서의 제사이다. 기우용단은 구월산 삼성당에서 100여 보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조선 성종 때 황해도 관찰사 이예가 올린 글에 문화현 사람 최지와 최득강을 통해 얻은 ‘삼성당 사적’에 언급되어 있다.³⁶ 삼성당

32 金成煥, 2002, 앞의 책, 271~272쪽.

33 『高麗史』 卷99, 列傳 第12. “柳公權 字正平 儒州人 六世祖大丞車達 佐太祖爲功臣.”

3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 文化縣.

35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류차달의 아들 孝金の 일로 나온다.

36 『成宗實錄』 卷15, 成宗 3년 2월 癸酉. “黃海道觀察使李芮馳啓曰 …… 一 祈雨龍壇在三聖堂下百餘步 未知設置日月 縣所藏宋景德三年丙午五月儀注載 用

은 단군, 환웅, 환인을 모시는 사당이다. 기우용단은 명칭을 통해 기우제를 드리던 제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문화현에 ‘송경덕삼년병오오월의주(宋景德三年丙午五月儀注)’가 보관되어 있었음을 전한다. 송 경덕 3년, 즉 고려 목종 9년(1006년)에 구월산에서 제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기우용단에 모셔진 신격은 구월산신이고, 구월산신은 단군으로 본다.³⁷ 이러한 기우용단에 대해 삼성사의 부대시설로 이해하고 삼성사가 늦어도 10세기에는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⁸ 또한 ‘삼성사 사적’에 삼성당 주변 사찰들의 위치가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폐업사 창건이 삼성사의 위치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폐업사 창건 이전에 삼성사가 구월산에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⁹ 폐업사는 출토 유물을 통해 고려 이전에 세워진 사찰임을 알 수 있다.⁴⁰ 구월산 사왕봉과 대증산의 이른바 단군사터에서 고구려 시기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⁴¹ 고구려 시기부터 구월산에 특별한 시설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월산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의례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유추케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상황은 단군사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에서는 단군이 아사달 산신이 되어 누린 햇수가 1,908년이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918년 고려 건국에 맞추어진 것으로 본다.⁴² 『고기』의 단군 이야기가 고려 건국 무렵에 채록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즉, 최소한 고려 건국 직후에 단군이 구월산의 아사달, 당장경 등에 도읍하

餅飯酒及白鵝 行祭 今代用白雞 不用豚.”

37 김성환, 2008, 「단군전승과 단군묘」, 『역사민속학』 28, 16~17쪽.

38 姜萬吉, 1969, 「李朝時代의 檀君認識」,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260쪽.

39 金成煥, 2002, 앞의 책, 166~168쪽.

40 조선고고연구, 1993, 「폐업사, 쌍계사터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993-2, 44쪽.

41 박진욱·안병찬, 1994, 「구월산의 단군사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3, 7~11쪽.

42 박대재, 2015, 앞의 글, 32~38쪽.

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군 전승이 고려 사회에 알려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구월산에서의 의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삼국유사』에 구월산과 단군의 관계가 제시되지 않은 것을 보면 고려 시대에 구월산 단군 전승은 한동안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고려 초에 구월산 단군 전승이 고려 사회에 알려졌지만 한동안 잊혀졌다가 고려 후기 충렬왕 때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구월산 단군 신앙에 대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인식 차는 여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단군 전승이 존재한 시기는 고려 초까지 올려볼 수 있다.

Ⅲ. 당장경 유적 일대의 고고학적 상황과 구월산 단군 신앙의 형성 시기

앞서 문헌에 나타난 당장경과 단군 전승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구월산 단군 전승이 최소한 고려 초에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문헌의 한계로 그 이전 시기부터 구월산에 단군 전승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당장경 터 유적과 이 일대 고고 자료를 통해 구월산 단군 전승이 존재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당장경 터는 황해남도 안악군 통산리 당장평 마을 일대에 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본래 신천군이었으나 1952년 군면 통합 과정에서 안악군에 포함된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문화현(군) 지역이다. 구월산 동쪽에 위치하며, 구월산이 감싸 안은 넓은 평지에 위치한다. 서·남쪽으로 재령강을 끼고 펼쳐진 안악, 신천, 재령 일대의 평야와 이어져 있으나 당장평 마을은 대체로 구월산 쪽에 치우친 평지에 있다.

당장경 유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고고연구』 1989-1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장경 유적 일대에는 고대의 무덤이 많으며, 고구려 기와편들이 동서 약 4km, 남북 약 2km 되는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이 밖에도 삼감청자 편을 비롯한 고려, 조선 시대 기와도 출토되었으며, 원형으로 가공

있는데, 고구려 시대의 성으로 전한다.⁴⁵ 이 밖에 월지리의 회화, 지촌, 상봉, 석성, 류촌, 상현, 수촌 등과 한월리의 구장동, 지촌, 평문동 등에서 수기에서 수십 기의 연대 미상의 옛 무덤이 조사되었다.⁴⁶ 북한 자료에서 산현, 상현, 수촌, 지촌, 구장동, 평문동 무덤군을 고적으로 분류하고 ‘옛 무덤’, ‘력사 유적’으로 표기한 것을 보면⁴⁷ 이른 시기의 무덤일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당장경 유적 서쪽의 구월산 부근에서는 고구려 이후 시기 유적들이 주로 확인된다. 행정구역상 패엽리, 월정리 지역으로, 석실봉토분, 벽화고분 등이 확인된다. 구월산에서는 구월산성과 고구려 시대 집터,⁴⁸ 사왕사지와 쌍계사 등 여러 사찰 유적이 확인되었다.⁴⁹ 월정리에서는 수많은 고구려 시대 석실봉토분이 확인되었으며⁵⁰ 벽화고분도 조사되었다.⁵¹ 패엽리에서도 돌곽흙무덤이 조사되었다.⁵² 월정리는 당장경 유적에서도 가깝지만 옛 문화현 지역이었던 삼천고고현리와도 가깝다.

구월산 위에서는 사황봉 마루, 대증산 위, 소증산 중턱 등에서 이른바 단군

45 한국평화문제연구소·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조선향토대백과 9-황해남도 II』, 평화문제연구소, 104쪽.

46 조선고고연구, 1999, 앞의 글, 42~43쪽.

47 한국평화문제연구소·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앞의 책, 147·157쪽.

48 남일룡, 1989, 앞의 글, 11~16쪽.

49 조선고고연구, 1993, 앞의 글, 44~46쪽; 조선고고연구, 1999, 앞의 글, 42쪽.

50 『조선향토대백과 9-황해남도 II』(평화문제연구소, 2004, 한국평화문제연구소·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03쪽)에서는 1,000여 기가 있었다고 전하나 「황해도지역 고구려유적의 분포정형」(최승택, 2015, 『조선고고연구』 2015-3)에서는 안악군에 고구려 무덤이 100여 기 있다고 한 점에서 볼 때 『조선향토대백과』의 내용은 오류일 수 있다.

51 한인덕, 1989, 「월정리 고구려벽화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89-4, 41~43쪽.

52 조선고고연구, 1999, 앞의 글, 43쪽.

사당 터라 불리는 유적이 조사되었다.⁵³ 사황봉 마루에서는 봉우리 밑 구월산성 안에서 주춧돌과 기와가 확인되었다. 대증산 위 단군 사당 터는 봉우리 동남쪽 아래에서 조사되었으며, 이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사당지기 집자리도 조사되었다. 단군 사당 터에서는 주춧돌과 기와들이 조사되었는데, 사당지기 집자리에서 나온 것과 같은 기와편이 조사되었다. 사당지기 집자리는 두 층으로 구분되는데, 출토된 도기를 통해 고구려에서 고려 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사황봉과 대증산의 단군 사당은 고구려 시기, 소증산의 단군 사당은 고려 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본다. 고려 이전부터 구월산 위에서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룡산리 서남쪽에는 삼천군 고현리가 있는데, 구월산 남쪽의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한다. 고구려 무덤이 많이 조사된 월정리에서는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곳에는 고인돌 유적, 고구려 시기 성터가 확인된다. 고인돌은 고현리⁵⁴와 그 주변의 석관동, 하검동 등에서 9기가 확인되었다.⁵⁵ 고현리 문화고현 유적에서는 고구려 시기 기와와 벽돌, 고려 시기 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다.⁵⁶ 이곳의 동쪽에 있는 하동의 언덕에서는 둘레 약 400m의 옛 성터가 조사되었다.⁵⁷ 1520년 이전까지 문화현의 치소가 있던 곳이라는 점에서 고구려 시기 월부로 비정된다. 고현리 남쪽에 있는 추릉리 추동에서는 ‘태강 4년(283년)’ 명문전이 있는 벽돌무덤이 조사되었다.⁵⁸

룡산리 남쪽으로 문화천을 건너면 신천군 청산리이다. 이곳에서는 청산리

53 박진옥·안병찬, 1994, 앞의 글, 7~11쪽.

54 문화유산, 1958, 「우리 나라 원시 유적의 분포 정형」, 『문화유산』 1958-6, 69쪽.

55 조선고고연구, 1998, 「조선력사유적유물지명표(북반부편 18)」, 『조선고고연구』 1998-3, 44쪽.

56 남일룡, 1989, 앞의 글, 18쪽.

57 최승택, 2015, 앞의 글, 41쪽.

58 안병찬·홍원표, 1990, 「새로 드러난 추릉리 벽돌무덤」, 『조선고고연구』 1990-1, 43~45쪽.

토성이 확인되었는데, 성 둘레가 약 1.8km 정도 된다.⁵⁹ 토성 부근에서 세형동검 여러 점이 수습되었으며,⁶⁰ 벽돌무덤, 석실봉토분, 토광묘 등이 널려 있고 화분형토기, 기와, 벽돌 등이 출토되었다.⁶¹

청산리 인근 지역에서도 세형동검 유적과 벽돌무덤 등이 조사되었다. 청산리 동쪽의 석당리에서는 세형동검과 동과가 출토되었으며,⁶² 서쪽의 신천군 룡산리에서는 돌곽에서 세형동검과 정문경이 출토되었다.⁶³ 청산리와 인근 석당리·우룡리 일대에서는 ‘태강 4년(283년)’, ‘태안 2년(303년)’, ‘영화 8년(352년)’, ‘원흥 3년(404년)’과⁶⁴ ‘건원 3년(345년)’⁶⁵ 명문전 등이 조사되었다. 대방군 시기부터 고구려 진출 이후까지 벽돌무덤 축조가 오랫동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석당리 동남쪽의 새날리 벽돌무덤에서는 ‘태시 4년(268년)’, ‘건원 3년(345년)’ 명문전이 조사되었다.⁶⁶ 새날리 동쪽의 백석리에서도 기년명 벽돌이 조사되었다.⁶⁷ 서강과 문화천을 따라 남쪽의 신천군 지역에 벽돌무덤이 널리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우룡리에서는 고인들이 조사되었다.⁶⁸

59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93쪽.

60 황기덕, 1974, 「최근에 새로 알려진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 관계의 유적유물」, 『고고학자료집』 4, 161쪽.

61 한국평화문제연구소·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앞의 책, 32쪽.

62 리규태, 1990, 「최근년간 황해남도에서 드러난 좁은놋단검 관계유물」, 『조선고고연구』 1990-2, 46쪽.

63 리규태, 1990, 위의 글, 45~46쪽.

64 樞本龜次郎 外, 1933, 「樂浪·帶方郡時代紀年銘磚集錄」, 『昭和七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 金鍾太, 1977, 「樂浪時代の 銘文考」, 『考古美術』 135; 井内功, 1979, 「朝鮮瓦磚略考」, 『朝鮮瓦磚圖譜』 7(이상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事蹟開發研究院, 374~375, 379~380, 384~386쪽)에서 재인용).

65 국립중앙박물관, 2001, 『樂浪』, Sol, 182쪽.

6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앞의 책, 369, 383~384쪽.

67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위의 책, 390~391쪽.

68 석광준, 2002, 앞의 책, 346~348쪽.

청산리 남쪽의 신천읍 일대에서는 세형동검, 청동과 등이 수습되었으며,⁶⁹ ‘함화 10년(335년)’ 명문전이 조사되었다.⁷⁰ 신천읍 남쪽의 서원리에서는 고인돌 5기가 조사되었고,⁷¹ ‘영가(307~312년)’ 명문전이 조사되었다. 서원리 서쪽의 복우리에서는 유물 산포지 및 석관묘,⁷² 고인돌⁷³ 등이 조사되었다. 복우리에서는 ‘태녕 5년(327년)’, ‘건무 16년(350년)’, ‘건시 원년(407년)’⁷⁴ 명문전이 조사되었다. 신천읍 동남쪽의 새길리에서는 봉황리 1호분으로도 불리는 왕경 무덤⁷⁵, ‘가평 4년(252년)’ 명문전이 나온 벽돌무덤⁷⁶ 등이 조사되었다. 왕경 무덤에서는 ‘정시 9년(248년)’ 명문전이 나왔다. 안악·신천·삼천 일대 명문전 중에서는 가장 시기가 빠르다. 이 밖에 새길리 동남쪽에 있는 명사리에서는 옹관묘가 조사되었으며,⁷⁷ 명사리와 서원리 사이에 있는 근로자리 일대에서는 여러 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⁷⁸

안악군 룡산리 동북쪽의 로암리에서는 고인돌, 벽돌무덤, 벽화고분, 석실봉토분 등이 조사되었다.⁷⁹ 고인돌은 리 소재지 서쪽으로 3km 떨어진 화평 마을 부근에서 4기가 조사되었다.⁸⁰ 벽돌무덤에서는 ‘건무 8년(342년)’⁸¹ 명문전이

69 문화유산, 1958, 앞의 글, 69쪽.

70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앞의 책, 382쪽.

71 석광준, 2002, 앞의 책, 301~306쪽.

72 조선고고연구, 1998, 앞의 글, 46쪽.

73 석광준, 2002, 앞의 책, 348~350쪽.

74 국립중앙박물관, 2001, 앞의 책, 182쪽.

7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앞의 책, 366~367쪽.

76 윤송하, 2004, 「황해남도 신천군 새날리 벽돌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4-4, 39~43쪽.

77 도유호, 1962, 「신천 명사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독널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2-3.

78 석광준, 2002, 앞의 책, 350~352쪽; 조선고고연구, 1998, 앞의 글, 46쪽.

79 조선고고연구, 1998, 위의 글, 47쪽.

80 석광준, 1993, 「로암리고인돌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3-1, 2~7쪽; 석광준, 2002, 앞의 책, 293~298쪽.

조사되어 고구려 진출 이후에 축조된 무덤임을 알 수 있다. 로암리에서는 세형 동검도 출토되었다.⁸²

로암리에서 동북쪽 안악읍 일대에서는 여러 기의 고인돌과 벽화고분이 조사되었다.⁸³ 다시 안악읍에서 북쪽으로 약 2km 거리에는 양산성이 있다. 양산에 쌓은 성으로, 둘레 1km인 고로봉식산성이다.⁸⁴ 양산 북쪽의 판륙리 일대에는 두 지점에서 20여 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⁸⁵ 판륙리에서는 석실봉토분도 조사되었다.⁸⁶

로암리 남동쪽 오국리에서는 벽돌무덤, 벽화고분, 고인돌 유적⁸⁷ 등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조사된 벽화고분은 안악 3호분이라고도 하는데, 황해도 지역에서 조사된 벽화고분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벽돌무덤을 축조하던 이 일대 재지 세력 기술자가 축조했을 것으로 본다.⁸⁸ 또한 오국리에서는 ‘태강 9년(288년)’, ‘원강 5년(295년)’ 명문전도 조사되었다.⁸⁹ 3세기 말에 서강·문화천을 끼고 남북으로 벽돌무덤이 널리 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안악읍 동쪽으로 봉성리, 평정리, 대추리, 복사리 일대에서도 벽화고분이 출토되었는데, 대체로 생활풍속을 주제로 한 벽화들이 남아 있다.⁹⁰ 대추리에서 조사된 벽화고분은 안악 1·2호분으로도 불린다. 평정리에서는 벽화고분뿐만

81 한인덕, 2003, 「로암리돌천정벽돌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3-3, 35~40쪽.

82 리규태, 1990, 앞의 글, 46쪽.

83 문화유산, 1958, 앞의 글, 69쪽; 조선고고연구, 1998, 앞의 글, 47쪽.

84 최승택, 2015, 앞의 글, 41쪽.

85 석광준, 2002, 앞의 책, 299~300쪽.

86 조선고고연구, 1999, 앞의 글, 43쪽.

87 조선고고연구, 1998, 앞의 글, 48쪽.

88 강현숙, 2011, 「3-4세기 고구려 황혈식 무덤의 등장과 확산」, 『역사문화연구』 40, 17~20쪽.

89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앞의 책, 377, 379쪽.

90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401~403쪽.

아니라 석실봉토분도 조사되었다.⁹¹ 복사리에서는 토광묘와 옹관묘,⁹² 벽돌무덤, 주거지, 고구려 고분벽화 등이 확인되었다.⁹³ 복사리 북쪽의 유성리에서는 ‘함자왕군’명 벽돌이 조사되었다.⁹⁴

이상 당장경 유적이 있는 룡산리를 중심으로 안악, 삼천, 신천군 일대 고고학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동기 시대 이래 꾸준히 이 일대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3세기 이전 낙랑군 시기의 목곽묘나 귀틀무덤 등 중원 계통 무덤은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황해도 지역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황해도 지역에는 귀틀벽돌무덤, 벽돌곽무덤 등 중간형 전실묘도 보이지 않는다.⁹⁵ 반면 안악 로암리, 신천군 청산리·석당리·룡산리·신천읍 일대에서 세형동검 유적이 확인된다. 신천 명사리, 안악 복사리의 옹관묘 유적 등도 비록 세형동검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기원전 3~2세기 무렵으로 편년된다는 점에서⁹⁶ 세형동검 유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형동검 유적이 안악·신천 일대에 넓게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청산리 세형동검과 명사리 토기는 윤가촌 유형으로 분류되며,⁹⁷ 청산리에서는 상보촌 유형으로 분류되는 동검도 출토되어⁹⁸ 요동 지역 청동기 문화 주민의 이주 흔적도 살필 수 있다. 다만 세형동검 유적과 벽돌무덤 사이 시기인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 이전의 유적은 불분명하다.

91 조선고고연구, 1999, 앞의 글, 43쪽.

92 전주농, 1963, 「복사리 망암동 토광무덤과 독무덤」, 『고고학자료집』 3, 91~101쪽.

93 문화유산, 1959, 「1959년 춘기 유적 발굴 정리 정형」, 『문화유산』 1959-5, 69~70쪽.

94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앞의 책, 395~396쪽.

95 오영찬, 2006, 앞의 책, 197~198쪽.

96 박선미, 2013, 「고고학 자료로 본 위만조선의 문화 성격-평양 일대의 고분을 중심으로」, 『東洋學』 53, 249~254쪽.

97 이후석, 2014, 「遼東~西北韓地域의 細形銅劍文化和 古朝鮮-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동북아역사논총』 44, 186~187쪽.

98 이후석, 2017, 「上堡村類型的 변천과 성격」, 『고고학』 16-2, 31쪽 그림 1.

벽돌무덤은 안악 룡산리 일대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삼천 추릉리, 신천 청산리, 안악 로암리 등 룡산리에서 5~8k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확인된다. 신천읍보다도 남쪽에 있는 새길리 지역의 벽돌무덤이 3세기 중반으로 가장 빠르고 추릉리, 청산리, 오국리 등에서는 3세기 후반 이후의 명문전이 확인된다. 명문전 기년으로 볼 때 대체로 신천읍 남쪽 일대에서 점차 북쪽으로 벽돌무덤 축조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형동검 유적지를 따라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벽돌무덤 축조 세력이 세형동검 문화 세력을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세력의 존재 시기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에서 벽돌무덤 축조 세력이 이전 세력을 몰아내고 들어갔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황해도 벽돌무덤의 등장과 관련해서는⁹⁹ 공손씨 세력이 건안(196~220년) 중에 둔유현 남쪽의 황무지를 대방군으로 만든 뒤 유민을 모아 한·예를 공략한 사건을 주목한다.¹⁰⁰ 황해도 일대가 황폐화된 상황에서 대방군이 만들어지고 벽돌무덤 축조가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벽돌무덤은 조선현이 있었던 평양 지역에서 발전했다는 점에서 대방군 설치 무렵 조선현 지역 주민의 대규모 이주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황무지 상태에 있던 지역에 조선현 주민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벽돌무덤이 나타난 셈이다.

벽돌무덤이 신천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벽화고분, 석실봉토분 등은 안악군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¹ 이러한 고분은 무덤 구조가 집안 지역 횡혈식 무덤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고구려와 관련해서 확산된 것으로 보는데,¹⁰² 벽화고분은 월정리, 한월리, 로암리, 안악읍, 오국리, 평정리, 대추리, 봉

99 오영찬, 2006, 앞의 책, 191~214쪽.

100 『三國志』 卷30, 魏書 第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 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101 고구려 석실봉토분이 벽돌무덤 축조 중심 지역과 약간 비껴 있는 모습은 평안도 일대에서도 확인된다(안정준, 2013, 「高句麗의 樂浪·帶方 故地 영역화 과정과 지배방식」, 『한국고대사연구』 69, 140쪽).

102 강현숙, 2011, 앞의 글, 33~36쪽.

성리, 복사리 등 안악군 전체에 널리 퍼져 있다. 고구려 진출 이후 이 일대 거주민의 활동 범위가 구월산에 좀 더 가까운 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황해도에서 확인된 벽화고분 중 3기를 제외한 11기가 안악군에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¹⁰³ 이 일대가 고구려 진출 초기 옛 대방군 지역 통치 거점이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다만 고구려 진출 이후에도 벽돌무덤이 계속 축조되었다는 점에서¹⁰⁴ 3세기 이후에 형성된 안악 일대의 사회문화적 전통이 상당 기간 유지되었을 것으로 본다.¹⁰⁵

한편, 안악 룡산리를 비롯한 한월리, 월지리와 구월산 일대 등 로암리 서쪽에서는 벽화고분과 석실봉토분은 조사되었으나 벽돌무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당장경과 구월산 일대는 고구려 진출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형동검 유적과 벽돌무덤이 인근 로암리에서 조사된 바 있기 때문에 이전 문화와 단절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당장경 일대는 세 차례 정도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인돌 단계에서 세형동검 문화 단계로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3세기 무렵에 벽돌무덤의 등장이며, 세 번째는 4세기경 고구려의 진출이다. 세형동검 유적, 벽돌무덤, 고구려 유적 지역이 어느 정도 겹치는데, 고구려 진출 이후에도 벽돌무덤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3세기 이후에는 단절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가운데 단군 신앙과 관련하여 주목해볼 만한 것은 벽돌무덤과 벽화고분 축조 세력이다. 고인돌이나 세형동검 유적은 평안·황해도 일대는 물론 남한 지역까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만의 독특성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고구려 유적 역시 이 일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반면 벽돌무덤과 벽화고분은 평양과 안악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일대

103 全虎兌, 2006, 「고구려 안악3호분 재론」, 『한국고대사연구』 44, 129~134쪽.
 104 오영찬, 2006, 앞의 책, 238쪽.
 105 전호태, 2006, 앞의 글, 136~137쪽.

의 특수성을 살피는 데 주목된다. 평양은 조선현이 설치되었던 곳이고 고조선 관련 전승이 전해졌던 곳이다. 또한 평양과 구월산 일대는 모두 고려 시대에 단군이 도읍한 곳이라는 전승이 있었던 곳이다.¹⁰⁶ 두 지역은 공통적으로 3세기 이후 벽돌무덤과 벽화고분이 널리 축조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3세기 초 대방군 설치 과정에서 평양 일대 주민(낙랑인¹⁰⁷)의 이주가 구월산 일대의 고조선 시조 전승이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장경 유적 주변과 구월산 일대에는 벽돌무덤이 없고 고구려 시기 고분이 주로 나온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영향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월산 일대에는 기자와 관련된 전승이 없다는 점에서 평양 지역 고조선 전승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¹⁰⁸ 기자 전승이 없다는 것은 중원과의 관계를 내세우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고구려 지배가 가져온 변화인지 아니면 이 지역으로 이주된 조선현 주민의 성격 때문인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 사회에서도 단군 신화가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나¹⁰⁹ 안악 일대 고분벽화에는 단군 신화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고구려의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기는 어렵다. 한편, 고고학적으로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벽돌무덤 축조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원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의 토착민 유적이 발견·조사되어야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세형동검 문화 이전 시기에 이 지역에 살던 주민의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106 金成煥, 2002, 앞의 책, 128~185쪽.

107 낙랑인은 오영찬이 제시한 개념으로, 낙랑군 사람들은 낙랑인이라는 자의식을 지녔을 것으로 보았다(오영찬, 2006, 앞의 책, 159~164쪽).

108 고려 이전에 기자 전승은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제한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파악된다(조원진, 2015,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韓國史學史學報』 32, 185~192쪽).

109 조법중, 2001, 「고구려 사회의 檀君認識과 종교문화적 특징-蘇塗文化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21, 174~181쪽.

IV. 당장경 명칭의 사용 배경

당장경(唐藏京)은 관련 유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단군왕검의 도읍이었다는 전승 이외에는 실제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지금 남아 있는 당장경 유적은 고고학적 성과로 볼 때 고구려 시기부터 사용되었다는 점은 파악되나 어떤 배경에서 단군의 도읍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당장경(또는 장당경)으로 불렸는지 등은 알기 어렵다. 궤구, 울구, 판마곳, 양악 등 고구려 시기 이 일대의 지명은 고려 초 무렵에 한 차례 변경된 것을 보면¹¹⁰ 당장경 역시 처음부터 사용된 이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당장경은 단군 신화 이외에는 아무런 역사 기록이 없기에 명칭을 통해서나마 그 역사의 일단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다만 ‘당장(장당)’이라는 명칭은 중국 명나라 시기 지명에는 확인되나¹¹¹ 우리나라 옛 지명에는 당장경(장당경)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미흡하나마 한 글자씩 떼어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당(唐)’은 ‘갑자기, 허풍, 당황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글자이며, 618년 건립된 당나라를 의미하기도 한다. 고려 이전에 이러한 ‘당’이 들어간 지명으로는 당산현(唐山縣), 당진현(唐津縣), 당악현(唐嶽縣), 당성군·진(唐城郡·鎭), 당은군·현·포(唐恩郡·縣·浦), 당문(唐文) 등이 확인된다.

당산현은 당나라가 백제 옛 땅에 설치하려던 노산주에 포함되어 있던 현으로, 본래 구지지산이었다.¹¹² 당산현은 당나라에 의해 명명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구지지산은 경덕왕 때 금구로 개명되었다.¹¹³

110 『高麗史』卷58, 志 第12, 地理 3, 西海道 豐州.

111 ‘唐藏(藏唐)’이라는 이름이 확인되는 곳은 중국 陝西省 鳳縣의 唐藏鎭이 유일하다. 본래 唐傘이라 불렀던 곳인데, 명나라 萬曆 연간에 唐藏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唐나라 때 三藏 법사가 불법을 구하려고 인도로 갈 때 지나갔다는 전승이 남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12 『三國史記』卷37, 雜志 第6, 地理 4, 魯山州六縣.

113 『三國史記』卷36, 雜志 第5, 地理 3, 全州.

당진현은 본래 백제의 별수지현으로 경덕왕 때 당진으로 개명되며,¹¹⁴ 지금의 충남 당진이다. 당악현은 본래 가화압으로 헌덕왕 때 당악으로 개명되었으며,¹¹⁵ 지금의 평남 중화군이다. 두 지명 모두 신라에 의해 변경되었다.

당성군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고구려 때 당성군으로 불리던 곳이 경덕왕 때 당은군으로 바뀌었다고 전한다.¹¹⁶ 당은군은 흥덕왕 때 다시 당성진으로 바뀌었는데,¹¹⁷ 현안왕 2년 기사에 당성군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¹¹⁸ 어느 시점에 다시 군으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화성시 남양 일대이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에 포함된 시기는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한 475년에서 백제 성왕이 이 지역을 차지한 551년 이전으로 매우 짧다. 아직 당나라가 있기 전이며, 고구려가 차지한 기간도 짧다. 이런 점에서 고구려의 당성군이라는 표현은 오류로 본다.¹¹⁹ 또한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하였을 시기의 명칭은 당항성군(党項城郡) 또는 당성군(党城郡)이었을 것으로 보거나¹²⁰ 닭목·당목으로 불리다가 당 건국 이후 ‘당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당항(唐項)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¹²¹ 『삼국사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등에는 당항성(党項城)으로 언급되어 있을 따름이다. 즉, 당성(唐城)으로 불리게 된 것은 신라 통일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당문은 고려 시대 안변도호부가 설치되었던 화주로, 『고려사』에서는 장령진, 당문, 박평군 등으로 불렸으며 ‘당(唐)’은 ‘당(堂)’으로도 썼다고 전한다.¹²²

114 『三國史記』卷36, 雜志 第5, 地理 3, 樞城郡.

115 『三國史記』卷35, 雜志 第4, 地理 2, 取城郡.

116 『三國史記』卷35, 雜志 第4, 地理 2, 唐恩郡.

117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 第10, 興德王 4년 2월.

118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 第11, 憲安王 2년.

119 최희준, 2016, 「신라 ‘黨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先史와 古代』 47, 66쪽.

120 전덕재, 2013a, 「新羅의 對中·日 交通路와 그 變遷」, 『역사와 담론』 65, 158쪽.

121 최희준, 2016, 앞의 글, 70~71쪽.

122 『高麗史』卷58, 志 第12, 地理 3, 東界 安邊都護府 登州. “和州本高句麗之地

즉, 당문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별칭 중 하나였을 뿐이다. 당문 지역에 대한 여러 명칭 중 『삼국사기』에 확인되는 것은 장령진뿐인데, 신라 아달라이사금 때 순행한 곳¹²³과 지리지의 위치 미상 지역 항목¹²⁴에 보인다. 당문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이상 ‘당’이 들어간 지명 중 고대에 사용된 것은 논란이 있는 당성군을 제외하면 모두 신라나 당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당장경의 ‘당’ 역시 고구려 때부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고구려에서 이러한 글자를 사용하였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다른 지명과 마찬가지로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한 이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구려 시기부터 사용된 명칭이 변화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 ‘장(藏)’은 ‘감추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신라 시대에 물장고, 물장전 등 물품 보관 부서의 이름에 사용된 바 있다. 지명으로 사용된 예는 흔치 않은데, 『고려사』에서 안동을 신라 시대에 고장군으로 불렀다는 내용이 있다.¹²⁵ 정식 명칭은 아니고 민간에서 고창군을 다르게 표현할 때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 밖에 『삼국유사』에서는 천년보장도,¹²⁶ 민장사,¹²⁷ 화장사,¹²⁸ 지장사,¹²⁹ 무장사¹³⁰ 등이 나오는데, 사찰 이름에 ‘장’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

或稱長嶺鎮 或稱唐文[唐一作堂] 或稱博平郡 高麗初 爲和州.”

123 『三國史記』卷2, 新羅本紀 第2, 阿達羅尼師今 4년 3월.

124 『三國史記』卷37, 雜志 第6, 地理 4 三國有名未詳地分.

125 『高麗史』卷57, 志 第11, 地理 2. “安東府 本新羅古陁耶郡 景德王改爲古昌郡 …… 別號 綾羅郡 地平郡 石陵郡 一界郡 花山郡 古藏郡[皆新羅時稱號].”

126 『三國遺事』卷3, 興法 第3, 寶藏奉老 普德移庵.

127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敏藏寺.

128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臺山五萬眞身.

129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天龍寺.

130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蓋藏寺彌陁殿.

려사』에서도 삼장사,¹³¹ 장의사,¹³² 용장사,¹³³ 지장사,¹³⁴ 화장사¹³⁵ 등 ‘장’이 들어간 사찰을 살필 수 있다.

조선 초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장’이 들어간 이름이 많이 확인되는데, 사찰은 30곳이 넘으며 산과 관련된 곳은 10곳이 넘는다. 고을 이름으로 사용된 경우는 5곳 정도이다. 이 밖에 섬, 하천, 포구, 정자와 관련된 이름

〈표 1〉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장(藏)’이 포함된 명칭

사찰 이름	한양부의 藏義寺(권3), 경기도 개성부의 地藏寺(권4), 영평현의 寶藏寺(권11), 가평현의 地藏庵(권11), 장단 도호부의 華藏寺(권12), 강화 도호부의 德藏寺와 龍藏寺(권12), 경상도 경주부의 鑿藏寺(권21), 영일현의 慈藏寺(권23), 대구 도호부의 地藏寺(권26), 전라도 금구현의 天藏寺와 龍藏寺(권34), 흥덕현의 雲藏寺와 龍藏寺(권34), 태인현의 龍藏寺(권34), 장흥 도호부의 金藏寺(권37), 황해도 문화현의 華藏寺(권42), 풍천 도호부의 華藏寺(권43), 강원도 강릉 대도호부의 地藏寺(권44), 삼척 도호부의 看藏菴(권44), 흡곡현의 華藏寺(권45), 회양 도호부의 三藏寺(권47), 철원 도호부의 地藏寺(권47), 함경도 단천군의 花藏寺(권49), 경성 도호부의 龍藏寺(권50), 평안도 용강현의 華藏寺(권52), 정주목의 地藏寺(권52), 의주목의 佛藏寺(권53), 박천군의 大藏寺(권54), 태천현의 華藏寺(권54), 강계 도호부의 法藏寺(권55)
산 관련 이름	경기도 양주목의 天藏山(권11), 영평현의 寶藏山과 金藏山(권11), 장단 도호부의 華藏山(권12), 충청도 보은현의 文藏臺(권16), 회덕현의 食藏山(권18), 경상도 경주부의 金藏臺(권21), 전라도 정읍현의 內藏山(권34), 광산현의 藏秋臺(권35), 황해도 재령군의 金藏山(권42), 평안도 용강현의 華藏山(권52), 박천군의 大藏山(권54)
고을 이름	충청도 보은현의 軍藏洞(권16), 석성현의 藏軍洞(권18), 경상도 의령현의 藏谷鄉(권31), 전라도 나주목의 北藏里(권35), 진도군의 龍藏里(권37)
기타	충청도 천안군의 仙藏島(권15), 아산현의 佛藏院(권20), 경상도 영천군의 藏巖川과 藏軍谷(권25), 전라도 김제군의 經藏渠(권33), 나주목의 藏春亭(권35), 순천 도호부의 大加藏島·少加藏島(권40), 광양현의 地藏院(권40), 강원도 삼척 도호부의 藏吾里浦(권44)

131 『高麗史』卷71, 志 第25, 樂 2 俗樂 三藏.

132 『高麗史』卷10, 世家 第10, 宣宗 7년 10월 丙午.

133 『高麗史』卷40, 世家 第40, 恭愍王 11년 8월 己酉.

134 『高麗史』卷94, 列傳 第7, 徐熙.

135 『高麗史』卷108, 列傳 第21, 金怡.

도 보인다. 대체로 사찰, 깊은 산과 계곡 등의 이름에 ‘장’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깊다’, ‘숨다’의 의미와 ‘불교 경전’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장경 유적 일대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찰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사왕사, 월정사, 각명사, 패엽사, 연대사, 화장사, 안양사, 묘각사, 운계사, 흥륜사, 활복사, 청석사, 수월사, 금강사, 미타사, 선암사, 묘선굴, 도솔암, 달마암, 계조암, 인우암, 남명암, 은적암, 동일암 등이 구월산에 있었다고 전한다.¹³⁶ 당장경 일대 논밭에는 현재에도 고장사터라는 이름이 전하며,¹³⁷ 지금도 월정리에는 갯명사·달마사·밀양사·봉림사·북독사·송림사·쌍계사·월정사·채미나 절간 등의 터, 패엽리에는 패엽사·화장사의 터, 한월리에는 갈궁사 터, 로암리에는 묘곡사 터가 있다.¹³⁸ 패엽사와 월정사 터는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패엽사는 고려 이전, 월정사는 고구려 시기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¹³⁹ 이렇게 구월산 일대에 사찰이 많다는 점에서 장당경의 ‘장’은 ‘불교 경전’을 지칭하는 ‘장(藏)’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 시대 문집에서는 사찰을 궁궐로 표현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곡의 『가정집』에는 강원도 금강산에 있던 장안사라는 절의 중건 비가 있는데, 장안사에 아미타불과 범기보살 등을 안치한 해장궁(海藏宮)이 있었다고 전한다.¹⁴⁰ 이곡은 이 비문에서 장안사는 건물이 120여 개에 이르는 큰 절로 금강산 일대의 도회라고 표현하였다.¹⁴¹ 해장은 바다같이 넓은 불법이라는 의미로, 불경을 보

136 『新增東國輿地勝覽』卷42, 黃海道 文化縣.

137 남일룡, 1989, 앞의 글, 17쪽.

138 한국평화문제연구소·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앞의 책, 122~158쪽.

139 조선고고연구, 1993, 앞의 글, 42~46쪽.

140 『稼亭集』卷6, 碑, 金剛山長安寺重興碑. “阿彌陀五十三佛法起菩薩翊盧舍那居海藏之宮.”

141 『稼亭集』卷6, 碑, 金剛山長安寺重興碑. “而長安寺居其麓 爲一山之都會也.”

관한 전각을 해장전이라고도 한다. 금강산의 유점사,¹⁴² 표훈사¹⁴³ 등에 여러 불경을 보관한 해장전이 있다. 당장의 ‘당’을 ‘크다, 넓다’로 보면 해장과 비슷한 의미가 되며, 당을 ‘당나라’로 보면 ‘당에서 들어온 불경’의 의미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장’이 불경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당장경이라는 칭호 역시 불교와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만하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이 불교적 표현이라는 점에서도¹⁴⁴ 불교적 변용을 생각해볼 만하다.

단군 신화의 불교적 요소는 고구려 시기에 이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월산에는 패엽사, 월정사 등 고려 이전에 건립된 사찰이 확인되며, 안악 2호분 벽화를 통해서도 5세기 중엽에 안악 일대에 불교적 내세관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⁴⁵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고유의 산신 신앙과 습합하여 불교와 고유 신앙의 경계가 사라질 정도였다고 평가되는데,¹⁴⁶ 구월산을 배경으로 하는 단군 신앙 역시 일찍 불교와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장은 앞서 언급한 『삼한시귀감』의 주,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등 조선 초 문헌에는 ‘전장, 장원’ 등을 의미하는 ‘장(莊)’, ‘장(庄)’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선 초에는 이미 이 일대가 장장평 또는 장장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들판을 의미하는 ‘평(坪)’이 덧붙여 있듯이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는 이 지역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사』 등에서 장장평은 당장경의 와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본래 명칭이 상실된 이후 ‘장(莊)’, ‘장(庄)’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의 변용으로 보인다.

142 『樂全堂集』 卷7, 記, 遊金剛內外山諸記. “楡岾寺 …… 右有海藏殿 藏諸佛乘及大妃御書及貞明公主手寫佛經甚夥.”

143 『陶谷集』 卷25, 記, 遊金剛山記. “入表訓寺 …… 般若 四聖 十王等殿 極其精麗 海藏殿 藏佛經諸板 寮舍凡十餘所.”

144 최병현, 1994, 앞의 글, 145~147쪽.

145 전호태, 2009, 「고구려 안악2호분 벽화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54, 450~457쪽.

146 장정태, 2013, 「한국불교 속의 산신신앙 연구-『삼국유사』에 나타난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3, 203~208쪽.

마지막으로 ‘경(京)’은 ‘도읍, 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글자이다. 아시소경, 금관경, 중원경, 복원경 등 신라의 소경이나 고구려의 3경 등 도읍이나 도읍에 버금가는 지역에 ‘경’을 붙였다. 일본에서도 7세기 이후 궁도의 이름에 ‘경’을 사용하였다.¹⁴⁷ 대체로 삼국 초기보다 후대로 갈수록 도성에 ‘경’을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경은 도회 지역이라는 의미를 좀 더 지닌 것으로 본다.¹⁴⁸ 안악·신천 일대는 한 나라의 도읍이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특정 왕과 관련된 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안악 일대에 왕과 관련된 시설이 존재했을 시기로 먼저 4세기 고국원왕 시기를 주목할 수 있다. 안악군 오국리에서 조사된 안악 3호분의 서쪽 측실 입구 벽면에는 목서가 적혀 있는데, 영화 13년, 즉 357년(고국원왕 27)에 동수가 사망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사지절도독제군사 평동장군 호무이교위 낙랑상 창려현 도대방태수’라는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다. ‘상(相)’은 글자가 애매하지만 1963년 주영현의 논문에서 ‘상’으로 판독한 이후 이를 따른다.¹⁴⁹ 이 자료를 통해 안악 3호분은 357년에 사망한 동수의 무덤으로 본다.¹⁵⁰

이 중 낙랑상이라는 관직명이 주목되는데, 창려, 현도, 대방에 대해서는 태수를 칭한 것과 달리 낙랑에 대해서는 상을 칭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상은 태수와 성격은 비슷하나 후(왕)국에 파견된 관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낙랑상은 낙랑국(공)을 전제로 하는 관직명이다. 그런데 당시 고구려의 고국원왕은 전연으로부터 ‘영주제군사 정동대장군 영주자사 낙랑공 고구려

147 宋浣範, 2008, 「고대일본의 宮都에 대하여-변천과 의미를 중심으로」,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9, 254~272쪽.

148 기경량, 2017, 「한국 고대사에서 왕도(王都)와 도성(都城)의 개념-고구려의 용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4, 178~179쪽.

149 주영현, 1963, 「안악 제3호 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2, 2쪽.

150 안악 3호분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동수, 고국천왕, 미천왕 등 여러 설이 있으나 동수설이 가장 유력하다(공석구, 2007, 「안악 3호분의 주인공과 고구려」, 『백산학보』 78).

왕의 책봉을 받은 바 있다.¹⁵¹ 이러한 점 때문에 고국원왕이 전연으로부터 낙랑공에 봉해졌을 때 동수 역시 낙랑상의 관직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¹⁵² 또는 동수의 관직으로 언급된 것은 모두 동수가 자기 세력권을 과시하기 위해 자칭한 것으로 본다.¹⁵³ 동수의 관직이 자칭이든 타칭이든 대체로 동수가 이러한 관직을 받은 것은 고구려의 통치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고구려에 상 관직이 확인되고¹⁵⁴ 낙랑군 지역은 중국의 군현 통치 시스템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던 곳이라는 점에서 낙랑상은 고구려에 의해 부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하튼 동수가 낙랑 태수가 아닌 상을 칭하였던 점에서 낙랑은 당시 군이 아닌 후국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 왕이 낙랑공을 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랑국의 수장은 형식적으로나마 고구려 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구려 왕이 안악 일대에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왕 관련 시설이 있었을 법하다.

또한 묵서명에 나타난 관직으로 볼 때 동수는 고구려 진출 이후 낙랑·대방 지역 인물 중 가장 높은 관직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 지역 최고 세력가로 볼 수 있다.¹⁵⁵ 낙랑상이 고구려로부터 부여받은 실질적인 직책이 아니었다

151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25년 12월.

152 林起煥, 1995,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안악3호분·덕흥리고분의 墨書銘 검토를 중심으로」, 『歷史學報』147, 7~9쪽.

153 孔錫龜, 2000, 「高句麗의 南進과 壁畫古墳」, 『韓國古代史研究』20, 393~407쪽.

154 『三國志』東夷傳에 고구려가 3세기 이전에 이미 옥저 지역에 相을 파견하여 통치하였음을 전한다. 즉, 沃沮傳에서 “沃沮 ……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 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使相主領’과 ‘使大加~’ 부분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相이 관직 명임을 알 수 있다(김남중, 2013, 「위만조선과 고구려 초기의 相」, 『韓國古代史探求』14, 27~31쪽). 漢이 영동 7현의 토착 세력을 현후로 삼았던 것을 통해 상이 파견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김병준, 2015,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邊縣과 군 현지배」, 『한국고대사연구』78, 168~177쪽), 고구려가 낙랑군 통치 지역에 중국 통치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155 林起煥, 1995, 앞의 글, 26~28쪽.

하더라도 동수가 이 지역 통치의 중심인물이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안악 3호분은 이 일대 벽화고분 중 가장 규모가 큰 고분이다. 이러한 동수의 무덤이 안악 지역에 있다는 것은 최소한 동수가 활동할 무렵에는 이 일대가 당시 고구려의 통치 거점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안악 3호분과 가까운 청산리 토성을 동수의 세력 근거지로 보기도 한다.¹⁵⁶ 그런데 고구려 시기에 축조된 당장경 유적에서 안악 3호분과의 거리는 약 6~7km로 청산리 토성에서의 거리와 비슷하다. 오히려 서강·문화천 건너편에 있는 청산리 토성보다도 당장경 유적에서 안악 3호분으로 접근하기가 더 쉽다. 더구나 벽돌무덤 이전 유적만 나오는 청산리 일대와 달리 당장경 유적 주변의 월지리, 한월리에서는 벽화고분, 석실봉토분 등 고구려 시기 유적이 조사되었다. 또한 당장경 유적은 삼천 고현리나 안악 복사리 등 고구려 시기 주거 유적보다도 안악 3호분에서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당장경 유적은 안악 3호분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고구려 시기 유적이다.

『고기』에서는 단군왕검이 장당경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했을 뿐이며 장당경을 세웠다고 하지는 않았다. 당장경 유적이 고구려 시기에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단군 신화와 어긋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오히려 고구려의 왕, 고조선의 왕 등 왕이라는 공통점에서 고구려 시기 중요 통치 시설이 있던 곳에 지역민들에 의해 후대에 단군 이야기가 덧붙여졌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만하다.

‘경’이라는 칭호가 붙여졌을 만한 두 번째 시기는 통일 신라 시대이다. 안악 일대는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의 땅이 되었다. 다만 신라가 구월산 일대를 포함한 황해도 지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한 것은 통일 직후가 아닌 훨씬 뒤였다. 나·당 전쟁 종결 이후 한동안 임진강 이서~압록강 이남은 당과 신라의 완충 지대로 존재하였으며,¹⁵⁷ 성덕왕 34년(735년)에 가서야 신라는 발해를 건

156 공석구, 2016, 「4세기 高句麗 땅에 살았던 중국계 移住民」, 『高句麗渤海研究』 56, 20쪽.

157 김종복, 2017, 「완충지대로서의 요동을 통해 본 신라·발해·당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88, 272~273쪽.

제하려던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영유권을 인정받았다.¹⁵⁸ 그리하여 신라는 경덕왕 이후에 대곡성 축조,¹⁵⁹ 패강 300리의 장성 축조¹⁶⁰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신라가 패서 지역으로 통치권을 확대해나갔지만 재령강 이서 지역에 대한 통치는 더디게 이루어져 9세기 초 헌덕왕 이후 시기에 균현 편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¹⁶¹ 재령강 이서 지역은 통일 이후에도 오랫동안 신라의 통치가 제대로 미치지 못한 지역이었던 셈이다. 고려 이전에는 구을현, 궐구, 읍구, 마경이, 양악, 판마곳, 웅한이, 승산 등 옛 고구려 시대 이름만 전하는 것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통제는 대체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월산 서쪽 서해안 지역에 당나라 사신이 왕래하던 당관이란 곳이 있었던 점에서 재령강 서쪽 지역을 신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했을 것으로는 본다.¹⁶² 최근에는 헌덕왕 때 쌓은 패강 장성을 중화 연안에서 장연에 이르는 선으로 보고 안악, 문화, 신천 일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⁶³ 즉, 최소한 헌덕왕 무렵에 재령강 이서 지역에 신라의 통치권이 미쳤다는 것이다.

당장정의 명칭에 ‘당’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신라에 의해 본래 사용되던 명칭이 바뀌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통일 이후 신라가 어떤 식으로든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구월산 일대의 단군 신앙은 신라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면 하였지 불리한 것이 아니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첫머리에 보면 신라의 6촌은 고조선 유민에 의해 이루어져 있

158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34년.

159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第9, 景德王 7년.

160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 第10, 憲德王 18년 7월.

161 姜鳳龍, 1997, 「新羅下代 涇江鎭의 設置와 運營」, 『韓國古代史研究』 11, 223~225쪽.

162 전덕재, 2013b, 「新羅 下代 涇江鎭의 設置와 그 性格」, 『大丘史學』 113, 53~56쪽.

163 朴南守, 2013, 「신라 涇江鎭典의 정비와 漢州 西北境의 郡縣 設치」, 『동국사학』 54, 73쪽.

었다고 전한다.¹⁶⁴ 건국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신라는 고조선 유민이 근간이 되어 이루어졌다는 의식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고조선을 세웠다고 알려진 단군을 숭배하는 구월산 일대 주민이 신라에 친근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군 신앙은 신라에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신라적인 요소였다. 『삼국지』 동이전에도 진한인이 낙랑인을 ‘아잔(阿殘)’이라 불렀다고 전한다.¹⁶⁵ ‘아(阿)’는 ‘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진한과 낙랑인의 친근성이 일찍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조선을 계승하였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 단군의 도읍이라는 전승이 있는 당장경을 폐쇄하기보다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구월산 일대 통치에 유리하였음은 자명하다. 오히려 당장경은 신라와 황해도 일대 주민의 유대감을 고양시켜주는 비공식적 통치거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경’은 고구려가 아니더라도 신라에 의해 붙여졌을 수도 있다.

이상 당장경 세 글자를 통해 고려 이전 당장경 유적 일대의 역사를 유추해 보았다. 단순히 명칭만으로 이 일대 역사를 유추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도읍을 의미하는 ‘경’이라는 글자가 붙여졌다는 점에서 이곳이 예사지역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나라와 관련 있는 ‘당’ 글자 역시 통일신라 시대에 특별한 역사가 있었음을 유추케 한다.

V. 맺음말

안악군 당장경 유적은 1989년 『조선고고연구』에 간략히 소개되었지만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다. 출토 유물을 통해 고구려 시기 유적이라는 것 이외에는

164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第1, 赫居世居西干.

165 『三國志』卷30, 魏書 第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辰韓 ……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출토 유물과 단군 신화의 시대가 맞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경 유적은 신화와 실재가 만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단군 신화의 전승이나 이 지역과 관련된 역사 규명에 중요한 유적이다.

구월산 서쪽 안악군 룡산리의 평지에 위치한 당장경 유적은 고려 말과 조선 시대 문헌을 통해 구체적인 위치가 지속적으로 전해졌다. 최소한 고려 말부터 지금의 위치에 단군이 도읍하였다는 당장경이 있었다는 전승이 이어져왔다.

당장경 전승은 구월산 일대 단군 전승의 일부에 해당한다. 구월산에는 일찍이 단군을 모시는 사당인 삼성사가 있었으며, 구월산은 아사달로 불렸다. 이러한 구월산 일대 단군 전승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고려 충렬왕 때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에서이다. 같은 시기 일연이 쓴 『삼국유사』와 달리 『제왕운기』에 구월산 일대 단군 전승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승휴와 문화현 사람 류경의 관계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류경은 이승휴가 관료가 될 수 있도록 추천해 준 인물이다. 이러한 류경의 가문은 고려 건국 이전부터 문화현에서 살았는데, 이러한 점은 구월산 일대 단군 전승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배경 중 하나가 된다. 또한 단군 신앙은 구월산에서의 의례와 관련해서 이해되는데, 목종 때 이루어진 구월산의 기우용단 제사나 고구려 시기부터 사용 흔적이 있는 구월산 사왕봉과 대증산의 이른바 단군사터 유적을 통해 구월산 의례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고구려 시기부터 구월산에서 단군 관련 의례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로는 알 수 없다.

당장경 유적이 위치한 룡산리를 중심으로 안악·삼천·신천군 일대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 유적에서부터 세형동검 유적, 벽돌무덤, 벽화고분, 석실봉토분 등 고구려 시기 유적까지 확인된다. 고인돌은 안악·신천군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세형동검 유적은 안악 로암리, 신천 청산리· 룡산리· 신천읍 일대에서 조사되었다. 벽돌무덤은 신천읍 남쪽 새길리 일대에서 3세기 중엽의 기년명전이 조사되었고, 삼천 추릉리와 신천 청산리· 석당리· 우룡리· 새날리와 안악 오국리 등 서강·문화천을 끼고 남북으로 3세기 후반 무렵의 기년명전이 조

사되었다. 기년명전은 5세기 초 자료까지 확인되는데, 벽돌무덤은 신천읍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벽화고분과 석실봉토분은 벽돌무덤보다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확인되는데, 주로 안악군 일대에서 확인된다.

안악·신천 일대는 크게 세형동검 유적, 벽돌무덤, 고구려 무덤 등장이라는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단군 신앙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3세기 이후 축조되는 벽돌무덤과 벽화고분 축조 세력이다.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 이전의 유적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벽돌무덤 등장 이전 시기의 토착 세력이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는가 하는 문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군 신앙과 관련해서 논하기는 어렵다. 벽돌무덤과 벽화고분은 평양과 안악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두 지역은 고려 시대 단군이 도읍한 곳이라는 전승이 있던 유이(唯二)한 곳이었다. 이런 점에서 3세기 초 대방군 설치 과정에서 조선현이 설치된 평양 일대 주민의 이주가 구월산 단군 전승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고구려에도 단군 전승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 단군 신앙의 형성에 고구려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장경 명칭의 어원을 통해 고구려와 고려 사이의 역사를 유추해보았다. 먼저 ‘당’이 사용된 고대의 지명을 검토한 결과 주로 신라 통일 이후 사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장’의 경우는 불교 사찰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통해 불교의 영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장’은 불교 경전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구월산 일대에는 많은 사찰이 있었고 고구려 시기에 이미 불교적 내세관이 유입된 바 있다.

도움을 의미하는 ‘경’이 붙여진 시기는 고구려와 통일 신라 시기 모두 가능함을 살폈다. 고구려 시기의 경우 특히 4세기 중엽에 왕과 관련된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악 3호분의 주인공 동수라는 인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통일 신라는 성덕왕 이후 패서 지역 개발에 나섰다. ‘당’이 들어간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후 어느 시기에 재령강 이서 지역에 대한 신라의 통치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고조선 유민이 근간이 되어 성립되었다는 의식을 지닌 신라 입장에서 구월산 일대의 단군 신앙은 재령강 이서

지역 통치에 유리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당장경은 신라와 황해도 일대 주민의 유대감을 고양시켜주는 비공식적 통치 거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 당장경 유적과 단군 전승의 성격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보았다. 다만 당장경과 관련된 역사 기록이 거의 없고 당장경 유적 주변에 대한 발굴이 체계적으로 조사·보고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당장경 일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구월산 단군 신앙의 형성과 전개, 고구려와 신라의 재령강 이서 지역 통치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2001, 『樂浪』, Sol.
- 김성환, 2002,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景仁文化社.
- 석광준, 2002, 『각지고인돌무덤조사 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세계철.
-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세계철.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事蹟開發研究院.
- 한국평화문제연구소·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조선향토대백과 9- 황해남도 II』, 평화문제연구소.
- 강만길, 1969, 「李朝時代의 檀君認識」,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 강봉룡, 1997, 「新羅下代 溟江鎭의 設置와 運營」, 『韓國古代史研究』 11.
- 강현숙, 2011, 「3-4세기 고구려 황혈식 무덤의 등장과 확산」, 『역사문화연구』 40.
- 공석구, 2000, 「高句麗의 南進과 壁畫古墳」, 『韓國古代史研究』 20.
- _____, 2007, 「안악 3호분의 주인공과 고구려」, 『백산학보』 78.
- _____, 2016, 「4세기 高句麗 땅에 살았던 중국계 移住民」, 『高句麗渤海研究』 56.
- 기경량, 2017, 「한국 고대사에서 왕도(王都)와 도성(都城)의 개념-고구려의 용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4.
- 김남중, 2013, 「위만조선과 고구려 초기의 相」, 『韓國古代史探求』 14.
- 김병준, 2015,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邊縣과 군현지배」, 『한국고대사연구』 78.
- 김성환, 2006, 「고려시대 단군관의 역사적 정립」, 『白山學報』 75.
- _____, 2008, 「단군전승과 단군묘」, 『역사민속학』 28.
- 김중복, 2017, 「완충지대로서의 요동을 통해 본 신라·발해·당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88.
- 남일룡, 1989, 「구월산성과 그 주변의 유적」, 『조선고고연구』 1989-1.
- 도유호, 1962, 「신천 명사리에서 드러난 고조선 독널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2-3.
- 리규태, 1990, 「최근년간 황해남도에서 드러난 좁은숫단검 관계유물」, 『조선고고연구』

- 1990-2,
 문화유산, 1958, 「우리 나라 원시 유적의 분포 정형」, 『문화유산』 1958-6.
 _____, 1959, 「1959년 춘기 유적 발굴 정리 정형」, 『문화유산』 1959-5.
 박남수, 2013, 「신라 溟江鎭典의 정비와 漢州 西北境의 郡縣 설치」, 『동국사학』 54.
 박대재, 2015, 「檀君紀元과 「古記」」, 『韓國史學報』 61.
 박선미, 2013, 「고고학 자료로 본 위만조선의 문화 성격-평양 일대의 고분을 중심으로」, 『東洋學』 53.
 박진욱·안병찬, 1994, 「구월산의 단군사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3.
 석광준, 1993, 「로암리고인돌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3-1.
 송완범, 2008, 「고대일본의 宮都에 대하여-변천과 의미를 중심으로」,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9.
 안병찬·홍원표, 1990, 「새로 드러난 추릉리 벽돌무덤」, 『조선고고연구』 1990-1.
 안정준, 2013, 「高句麗의 樂浪·帶方 故地 영역화 과정과 지배방식」, 『한국고대사연구』 69.
 윤송학, 2004, 「황해남도 신천군 새날리 벽돌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04-4.
 이후석, 2014, 「遼東~西北韓地域의 細形銅劍文化和 古朝鮮-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동북아역사논총』 44.
 _____, 2017, 「上堡村類型의 변천과 성격」, 『고고학』 16-2.
 임기환, 1995,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안악3호분·덕흥리고분의 墨書銘 金토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47.
 장정태, 2013, 「한국불교 속의 산신신앙 연구-『삼국유사』에 나타난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3.
 전덕재, 2013a, 「新羅의 對中·日 交通路와 그 變遷」, 『역사와 담론』 65.
 _____, 2013b, 「新羅 下代 溟江鎭의 設置와 그 性格」, 『大丘史學』 113.
 전주농, 1963, 「복사리 망암동 토광무덤과 독무덤」, 『고고학자집』 3.
 전호태, 2006, 「고구려 안악3호분 재론」, 『한국고대사연구』 44.
 _____, 2009, 「고구려 안악2호분 벽화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54.
 조법중, 2001, 「고구려 사회의 檀君認識과 종교문화적 특징-蘇塗文化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21.
 조선고고연구, 1993, 「패엽사, 쌍계사터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1993-2.

- _____, 1998, 「조선력사유적유물지명표(북반부편 18)」, 『조선고고연구』 1998-3.
- _____, 1999, 「조선력사유적유물지명표(북반부편 19)」, 『조선고고연구』 1999-3.
- 조원진, 2015,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韓國史學史學報』 32.
- 주영현, 1963, 「안악 제3호 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2.
- 최병헌, 1994, 「檀君認識의 歷史的 變遷 - 고려시대 檀君神話 傳承文獻의 檢討」,
『檀君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승택, 2015, 「황해도지역 고구려유적의 분포정형」, 『조선고고연구』 2015-3.
- 최희준, 2016,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先史와 古代』 47.
- 한인덕, 1989, 「월정리 고구려벽화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89-4.
- _____, 2003, 「로암리돌천정벽돌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3-3.
- 황기덕, 1974, 「최근에 새로 알려진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 관계의 유적유물」, 『고고 학자료집』 4.

안악군 당장경 유적과 단군 전승

김남중

황해남도 안악군 룡산리에서 조사된 당장경 유적은 고려 말과 조선 시대 문헌을 통해 구체적인 위치가 전해져왔다. 안악군 구월산 일대에는 단군 전승이 전해졌는데,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승휴와 류경의 관계가 컸다. 단군 신앙은 구월산에서의 의례와 관련해서 이해되는데, 기우용단 제사나 단군사터 유적을 통해 구월산 의례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장경 유적 주변의 안악·삼천·신천군 일대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 유적에서부터 세형동검 유적, 벽돌무덤, 벽화고분, 석실봉토분 등 고구려 시기 유적까지 확인된다. 대체로 3세기 이전의 기년명전이 출토된 벽돌무덤은 신천군과 안악군 동·남 일대에서, 고구려의 벽화고분·석실봉토분은 안악군 일대에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3세기에 조선현이 있었던 평양 일대 주민의 대방군 지역으로의 이주가 구월산 단군 전승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고구려의 통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다.

마지막으로 당장경 명칭의 어원을 통해 그 역사를 유추해보았다. 먼저 ‘당’을 통해 통일 신라 시대에 명칭의 변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장’은 불교와 관

련해서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살폈다. 도읍을 의미하는 ‘경’이 붙여진 시기로는 먼저 고구려 시기를 살폈는데, 4세기 중엽에 축조된 안악 3호분을 통해 당시 이 일대에 왕과 관련된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에 명칭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통치 행위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단군 신앙과 관련된 당장경은 신라와 황해도 일대 주민의 유대감을 고양시켜주는 비공식적 통치 거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안악군 룡산리, 당장경, 단군 전승, 제왕운기, 벽돌무덤, 안악 3호분

ABSTRACT

Dangjanggyeong Remains in Anak-gun County and the Dangun Tradition

Kim Namjung

The location of Dangjanggyeong remains excavated in Ryongsan-ri, Anak-gun County, Hwanghaenam-do Province has been known through the records from late Goryeo period and the Joseon Dynasty. The Dangun tradition has been passed down in the area of Guwolsan Mountain in Anak, which was known in earnest in *Jewang-ungi* written by Yi Seunghyu.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Yi Seunghyu and Yi Yugyeong made it possible. The Dangun faith is understood in relation with the rituals performed on Guwolsan Mountain. Through the ruins of the Dangun Temple and the Giuyongdan Ceremony,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rituals have been around for a long time

Dolmens, ruins where slender bronze dagger was excavated, tombs with bricks, mural tombs and chamber tombs that were built from the Bronze Age to the Koguryo period have been found in the Anak, Samcheon and Sincheon areas around the Dangjanggyeong ruins. In

general, tombs with bricks carved with the production date of around the third century were surveyed in Sincheon and the southern and eastern part of Anak, while mural tombs and chamber tombs of Koguryo were surveyed in the Anak region. With that in mind,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migration of the people who were living in Pyongyang, where the Zhaoxian Prefecture was located, to Daifang County in the third century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Dangun tradition in Guwolsan Mountain. Of course, it is possible that the rule of Koguryo had some influence on it as well.

Finally, this paper attempts to deduce its history through etymology of Dangjanggyeong. First, it identifies the change of the name in the Unified Silla period through the character “tang.” In the case of letter “zhang,” this paper observes that it was more likely to be related to Buddhism. As the letter “kyung,” which means city, was used in the name, this study analyzes the Koguryo period through the Anak Tomb No. 3 built in the middle of the fourth century. The author observes the possibility that there was a facility associated with the king in the area at that time. As there was a change of name in the Unified Silla period,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eign of Silla over this region actually took place, and that Dangjanggyeong related to the Dangun religion had been used as an informal ruling base to enhance the bond of people living in the area of Hwanghae-do Province and Silla.

Keywords: Ryongsan-ri, Anak-gun, Dangjanggyeong, Dangun tradition, *Jewang-ungi*, tombs with bricks, Anak Tomb No.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세기 초 단군영정의 보급과 화본(畵本) 검토

김성환 | 경기도박물관 관장

- I. 머리말
- II. 단군영정의 등장과 보급
- III. 단군영정의 화본(畵本) 검토
- IV. 맺음말



I. 머리말

그림 등의 시각화된 자료는 문자 등의 기호보다 전달력이 월등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시조로 자리한 단군에 대한 이미지는 고조선의 역사성을 대중들에게 구체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단군영정으로 알려진 초상이 수십여 종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중에서 대종교에서 봉안하고 있는 단군영정과 1978년 현정회에서 제작한 표준영정, 그리고 북한 평양의 단군릉에 모셔져 있는 영정 등이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단군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관심도를 반영하지만, 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고려시대에 구월산 삼성사(三聖祠, 三聖堂) 등에서 환인·환웅·단군은¹ 나무로 조각된 목상(木像)으로 모셔져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삼국사기』에서 선인왕검(仙人王儉)으로 기록되고, 『고려사』 등에서 확인되는 평양의 서경신사(西京神祠, 평양사당)에 모셔졌을 서경신[西京神, 평양신·평양군(平壤君)]의² 신체(神體)도 목상이었을 것이다. 이후 조선 건국 직후 단군은 국가제사에서의 수용 논의 및 기자사(箕子祠)에 합사(合祀)되었다가 세종 때 국가제사의 측면에서 비로소 건립된 단군사(檀君祠)에 봉안되어 유교의례에 따라 위패로 모셔졌다. 이것은 적어도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공인 또는 준용되었던 단군영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민간에서의 사정은 달랐을 것이다. 특히 무속에서의 단군은 중요한 신격 중의 하나로 모셔졌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린 무속화 계열의 작품은 전해지고 있었다.

* 투고: 2019년 5월 17일, 심사 완료: 2019년 8월 20일, 게재 확정: 2019년 8월 23일

1 김성환, 1996, 「高麗時代 三聖祠의 檀君崇拜」, 『백산학보』 46(김성환, 2002,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재수록).

2 김성환, 1998, 「高麗時代 平壤의 檀君傳承」, 『문화사학』 10, 123~142쪽(김성환, 위의 책, 128~154쪽).

단군영정³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한말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조선혼’ 등에서 찾아지고, 이른바 단군민족주의⁴의 실체로 단군이 부각되면서부터다. 단군영정 봉안을 위한 움직임과 이에 대한 대중에게의 보급 노력은 당연히 대중교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의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⁵

이 글에서는 대중교의 증광과 함께 등장하는 단군영정의 모습, 대중교와 단군교의 단군영정 봉안과 보급 과정을 다루려고 한다. 특히 한말 일제강점기에 유통되었던 단군영정에 대한 전체적인 범위를 아우르고, 이를 화본(畫本)에 따라 분류하여 그 갈래를 정리하는 한편, 의미 역시 찾아보고자 한다.

II. 단군영정의 등장과 보급

불화(佛畫)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적인 초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당 또는 특정 공간에 봉안되어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역사인물과 관련한 초상은 9세기 후반 궁예가 부석사에 모셔져 있던 신라 왕의 화상(畫像)을 칼로 베어 새로운 국가건설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는 『삼국사기』 기록에서 확인된다.⁶ 고려 왕실에서는 태조를 비롯한 역대 국왕의 초상을 경령전(景靈殿)을 비롯하여 개경과 서

3 단군영정 전래에 대한 개략은 조준희, 2005, 「단군영정」, 『알소리』 7 참조.

4 정영훈, 1995, 「한국사 속에서의 ‘檀君民族主義’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 정영훈, 2013, 「한민족의 정체성과 단군민족주의」, 『민족문화논총』 55, 93~137쪽.

5 김성환, 2018, 「남파 박찬익 집안 소장 단군영정」, 『정신문화연구』 151, 41~64쪽.

6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19세기에 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제천 太古寺, 순천 松廣寺, 문경 陽山寺에도 金傅大王의 화상이 모셔져 있었다고 기록하였다(『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5, 논사류1, 「金傅大王辨證說」).

경, 남경은 물론 전국의 사찰과 사당 등에 모셨다.⁷ 민간에서도 조상이나 부모의 영정을 모시고 추모했는데, 990년(성종 9) 전주에 속한 구례현의 백성 손순흥(孫順興)이 어머니 화상을 봉사(奉祀)했다는 것은⁸ 그 예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전기에 평안도 삼등현의 지중련(池中連)은 부모가 돌아가시자 사당을 지어 화상을 모시고 조석(朝夕)으로 제사했고, 청도 양인(良人)의 딸이었던 종비(終非)도 마찬가지였다. 또 가산군(嘉山郡)의 갑사(甲士)였던 방권(方權)의 부인 윤씨는 남편이 죽자 제청(祭廳)을 지어 벽에 화상을 봉안했다.⁹

화상을 그럴 때 첫 번째 조건은 외모는 물론 내면까지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식(李植, 1584~1647)은 “수염 하나라도 흡사하게 그리지 못하면, 부조(父祖)를 모시는 도리가 못 된다”고 언급했다.¹⁰ 이것은 사가(私家)에서 그려졌던 초상 작업에 대한 언급인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을 국왕 초상이나 공신상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조공직(趙公直)이 조선 중기에 전해지던 강감찬 영정을 얻어 장유(張維, 1587~1638)에게 그 의심스러운 바를 물었던 이유도¹¹ 비슷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종교적인 성격을 띠는 화상은 그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종교 직능자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신심(信心)을 그대로 담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고구려의 시조모(始祖母)를 모셨던 개경의 동신사(東神祠), 송악의 팔

7 고려시대 태조의 초상 봉안에 대해서는 김성환, 2018, 「고려시대 太祖의 眞殿과 奉業寺」, 『선사와 고대』 57, 55~77쪽 참조. 특히 태조는 畫像과 별도로 통천관을 쓴 청동의 皇帝像으로 만들어져 원찰인 奉恩寺에 모셔졌다(노명호, 2012, 『고려 태조왕건의 동상- 황제제도 고구려 문화 전통의 형상화』 참조).

8 『고려사』 권3, 성종 9년 9월 병자(4일).

9 『성종실록』 권22, 성종 3년 9월 기유(16일); 『연산군일기』 권41, 연산군 7년 8월 정사(12일); 『중종실록』 권57, 중종 21년 7월 병오(25일).

10 『택당집』 별집 권18, 書, 「與任疏庵[叔英○請先祖考遷墓誌文書].

11 『청음집』 권2, 칠언절구, 「同年趙公直 得姜邯贊畫像疑問 以詩答之」.

선궁(八仙宮) 등에서 신격(神格)은 나무로 만든 목상이었다.¹² 그런데 민속종교에서 신격을 모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화상으로 모시는 것이었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개경의 무당에 대해 읊은 시인 「큰 무당[老巫篇]」을 보면, 무당집에서는 나무를 엮어 다섯 자 남짓한 감실을 만들어 천제석(天帝釋, 제석천황)을 모시고, 칠원(七元)·구요(九曜) 등을 붉고 푸른 귀신 형상으로 그려 온 벽에 붙여놓았다고 한다.¹³ 칠원·구요 등이 화상으로 모셔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선 초기 유교적인 예제의 실행에 따라 곳곳의 신사(神祠)·사당 등에 봉안되었던 신상(神像)과 화상은¹⁴ 위패로 바뀌었다. 신격의 구체적인 모습이 추상적인 것으로 바뀔으로써 신심은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 제사의 영역에서 관리되었던 역대시조묘(歷代始祖廟)에서 각국의 시조들은 위패로 봉안되었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종교에서의 신격은 여전히 화상으

12 『선화봉사고려도경』 권17, 祠宇, 「東神祠」 및 「崧山神祠」; 『속동문선』 권21, 錄, 「遊松都錄」(俞好仁).

13 『동국이상국전집』 권2, 고을시, 「老巫篇并序」.

14 화상 봉안에 대해 조선 중기의 曹好益(1545~1609)은 다음과 같은 張子의 평을 소개하였다. “畫像은 影이라고 한다. 張子가 말하기를 ‘옛사람들은 影像을 쓰지 않았다. 그림으로 그린 것은 진짜가 아니라서 세대가 멀어지면 내다 버리게 되어 소홀하게 취급함을 면치 못해서’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楚詞』 招魂을 보면, ‘님 머물던 방에 님의 형상 모시거니, 고요하고 편안하며 한가롭게[像設君室 靜安閒些]’라 했는데, 세속에서 사당에 영정을 모시는 것은 여기에서 근본한 것이다”(『芝山集』, 가례고증 권1, 「影堂」).

15 1425년(세종 7) 9월에는 평양에 檀君祠堂을 짓고 五禮儀에 따라 단군을 모셨는데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9월 신유(25일)], 이때 그 神主는 ‘朝鮮侯檀君之位’라 하여 위패로 모셔졌다[『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갑술(6일)].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조에서는 그 건립 시기를 세종 11년(1429)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신주는 이후 ‘朝鮮檀君神主’로 고쳐졌다가 1456년(세조 2)에 다시 ‘朝鮮始祖檀君之位’로 바뀌었다[『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7월 무진(1일)]. 이에 대해서는 김성환, 1992, 「朝鮮初期 檀君認識」, 『明知史論』 4, 103~135쪽; 김성환, 2009, 「국가 제사에서의 단군과 참성단 제사」, 『강화도 참성단과 개천대제』 참조. 단군사당은 영조 때 崇靈殿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804년(순조 4) 평양성의 큰 화재로 사당 전체가 불에 탔으나[『순조실록』 권6, 순조 4년 3월 을미(6일)] 곧 증건되었다.

로 모셔졌다. 조선 전기에 제주에서는 천외당신(川外堂神) 화상을 모시고 있었고,¹⁶ 다른 곳에서는 무당의 말만 듣고서 화상을 그려 돈을 걸어놓기도 하였다.¹⁷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와 함께 조선에 왔던 오명제(吳明濟)는 조선에서 마고선녀(麻姑仙女)의 화상을 본 적이 있다고도 하였다.¹⁸

조선 후기까지 경순왕과 고려 태조 등의 화상이 전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것과 달리 단군과 기자의 화상은 사정이 다르다. 기자화상(箕子畫像)은 평양 유림의 의견을 수용한 예조판서 이정구(李廷龜, 1564~1635)가 인조반정 직후 평양의 인현서원(仁賢書院)에 봉안할 것을 건의하여 그 화상을 온윤(溫潤)한 모습으로 그려놓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하지만 정묘호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평양 유학 양의원(楊懿元) 등의 상소로 기자화상은 1633년(인조 11)에야 서원에 봉안되었다.¹⁹ 또 1700년(숙종 26)에는 평안도 유생들의 요청으로 성천

16 『세조실록』 권39, 세조 12년 7월 병신(27일). “承政院奉旨馳書于濟州牧使李由義曰 前者 姜遇文啓 川外堂神畫像已燒 今得遇文造言生事之情 已治罪 其堂神 依舊致祀.”

17 『성종실록』 권98, 성종 9년 11월 정해(30일). “弘文館副提學成俔等上疏曰 …… 今世之人爭信鬼神 凡有吉凶禍福 一聽於巫 或畫像掛錢 或邀魂入室 或趨聽空唱 或親祀城隍 或施納奴婢 是皆聖朝所禁而著於續典者也 殿下深知其弊 又令法司盡刷巫覡 放于城外.”

18 여기에는 李德懋(1741~1793)의 반론도 있다(『청장관전서』 권34, 淸脾錄3, 「朝鮮詩選」 참조). 한편 오명제는 『朝鮮世紀』라는 역사서를 저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성환, 2002, 「『朝鮮世紀』를 통해본 明人 吳明濟의 朝鮮歷史 認識」, 『고조선단군학』 7, 135~184쪽 참조.

19 『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10월 무진(9일). “平壤幼學楊懿元等上疏曰 我太師箕子 尹茲東土 教以八條 彝倫攸斁 免於夷狄之鄉 得爲禮義之邦 其功其德 極天罔墜 而至治之澤 尤在此地 景慕之誠 切於羹牆 故往者八溪君鄭宗榮爲監司時 儒生請建書院于蒼光之陽 井田之北 以爲講明之所 厥後監司金繼輝 號曰洪範書院 儒生楊德祿等 封章陳乞 獲揭仁賢之額 反正之後 又陳疏 其時禮曹判書李廷龜 請以畫像奉安 既已募畫粹容 而遽值胡亂 未得奉安 多士鬱悒 卽今邊事稍安 斯文事興 已成之命 寢而不行 此實國家之欠典 況粹容久置齋室 亦實未安 請令禮官 下送香祝 俾行曠世之盛儀 禮曹回啓以爲 依疏辭施行爲當上從之.”

백령동에 기자사당을 세우고 그 화상을 봉안했다.²⁰ 서북한 지역에서 기자화상 봉안과 관련한 이 같은 움직임은 조선 후기에 소중화에서 조선중화주의로의 확대에 따른 기자 인식의 확장과 함께 동방교화지주(東方教化之主)로서 기자의 사회문화적인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단군과 관련된 목상(木像)이나 화상 자료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확인되지 않는다.²¹ 이 점은 역사적 존재로서 단군이 조선 후기까지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지 못하고 추상적인 모습으로 전해졌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상황은 역사인식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민속종교에서 모셔지던 단군의 화상(무속화)은 전해졌을 것이다. 1930년대 전후의 필사자료로 보이는 『무당내력』에서 무속과 단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은²² 이런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갖추어진 영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림 형태의 단군상(檀君像)은 대종교 중광 이전에 이미 확인된다. 정인호(鄭寅琥, 1869~1945)가 정치사를 중심으로 1908년에 편집 간행한 『초등대한역사』의 ‘단군조선’에서는 「동국(東國)을 창립

20 『속중실록』 권34, 인조 26년 8월 신미(11일). “平安道儒生等 摸箕子畫像 建祠於成川百靈洞而奉安之 上疏請宣額 上下其疏 禮曹言 箕子即東方聖君 下同書院 頒賜恩額 事體未安 宜令本道監司 從便守護 以爲永久奉安之地 上從之.” 기자화상의 봉안과 관련해서는 1714년(숙종 40)에 황해도 장연 유생 金景游 등이 本府에 廟享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때 장연 유생들은 “원나라 順帝가 고려에 유람했을 때 은밀히 간직하고 있던 기자화상이 文殊庵에 봉안되어 있었는데,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소재를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 鶴林寺에서 발견되었다. 그 화상은 遺像이 완연하고 그 위에 ‘箕子像’ 세 글자가 있는데, 우선 좁은 초가에 임시로 봉안했으나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경유 등은 예전에 朱子書院의 건립을 청했다가 수용되지 않자 이런 주장을 다시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용되지 않았다[『속중실록』 권55, 숙종 40년 7월 계해(24일) 참조].

21 물론 구월산 삼성사에서 환인[檀因]·환웅[檀雄]과 함께 단군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까지 木像으로 모셔졌지만, 이후 위패로 바뀌었다. 또 후술하는 바와 같이 《권업신문》에서는 1912년 직전에 평양 승령전에 모셔진 단군영정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권업신문》 제34호, 1912년 12월 15일자).

22 서영대, 2015, 「《巫堂來歷》 소재 단군 기사의 검토」, 『민족문화논총』 59, 37~93쪽.



그림 1 「東國을 創立하신 檀君의 像」
(정인호, 1908, 『초등대한역사』)

(創立)하신 단군(檀君)의 상(像)」(그림 1)이라는 삽화 형태의 작은 상반신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²³ 이 삽화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단군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단군화상(檀君畫像)은 1910년 경 예술국치 직전에 간행된 『신궁건축지(神宮建築誌)』에서 목판본으로도 소개되고 있다. 이 자료는 일제와 친일파들이 일본 신도(神道)에서 천황가의 출발로 설정된 아마테라스 오미카

미[天照大神], 조선의 이태조(李太祖)와 함께 단군을 모시는 일한신궁(日韓神宮)을 짓기 위한 계획서 성격으로 간행되었다.²⁴ 「대조선국시조(大朝鮮國始祖) 단군천황(檀君天皇)」(그림 2)으로 소개된 이 상(像) 역시 목판이라는 특성 때문에 세부적인 표현이 대폭 축약되어 있고 회화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 두 화상은 현재까지 알려진 단군화상 중에서 시기적으로 비교적 앞선 것으로 파악된다. 머리에 쓴 작은 모자 형식의 머리쓰개와 나뭇잎으로 덮은 어깨와 허리, 덩실룩한 수염의 표현 등이 이후 등장하는 단군영정과 기본적으로 같다는 점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이런 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단군상(檀君像)이 앞선 시기부터 제작되어 전하고 있었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매일신보》는²⁵ 다음과 같이 대중교에서 단군영정의

23 정인호 편집, 1908, 『초등대한역사』, 옥호서림. 여기에는 「敎化를 倡興하신 箕子의 像」도 소개되어 있다.

24 최광식, 2000, 「『神宮建築誌』의 내용 및 의미」, 『고조선단군학』 3, 269~313쪽.

25 《매일신보》는 1904년 7월 영국인 裋說 베델(Ernest Thomas Bethell)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를 일제가 개편한 것으로, 국권침탈 직후인 1910년 8월 30일부터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三處影幀 - 檀君大宗教에서 同胞兄弟姊妹가 檀君聖像을 拜謁하고 敬奉修教하는 誠心이 益切기 爲하야 眞像所奉處에 畫師를 送하야 三幀을 模來하야 都司教本部和 南北兩司教部에 同一奉安하기로 議定되었다더라”《매일신보》 1910년 9월 23일자)

단군대종교(檀君大宗教)에서 화가에게 3분의 단군영정을 모사하여 도사교본부와 남사교부·북사교부에 봉안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이때는 국권피탈이 있던 1910년 8월 29일에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나철(羅喆) 등이 중광한 (원)단군교가 북부지사교[北司教部]를 맡고 있던 정훈모와의 갈등으로 대종교와 단군교로 분리된 지 한 달이 갓 지난 상황이었다. 이른바 한일병합이라고 일컫는 국권피탈이 있던 지 열흘 후 9월 10일, 정훈모는 이유성·유탁·서평보 등과 함께 단군교의 명칭을 지킨다는 이유로 (원)단군교²⁶에서 교단분립을 선언하고 나철의 대종교와



그림 2 「大朝鮮國始祖 檀君天皇」[1910, 『신궁건축지(神宮建築誌)』]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운영되었다(김현주, 2009, 「1910년대 초 『매일신보』의 사회 담론과 공공성」, 『현대문학의 연구』 39, 235~273쪽; 윤상길, 2011, 「식민지 공공영역으로서의 1910년대 《每日申報》」, 『한국언론학보』 55, 56~76쪽).

- 26 대종교가 정훈모의 단군교와 분리되기 이전의 敎名에 대해 조인성은 ‘proto’의 뜻을 앞에 붙인 ‘(원)단군교’를 사용하였다. 조인성, 1989, 「韓末 檀君關係史書의 再檢討; 《神檀實記》·《檀奇古史》·《檀檀古記》를 中心으로」, 『국사관논총』 3 참조. 필자 역시 이 견해를 수용한 바 있다. 김성환, 2010, 「〈단군교포명서〉의 단군 인식」, 『국학연구』 7 참조. 그런데 《매일신보》에 보이는 ‘檀君大宗教’라는 명칭은 일

결별하여 단군교의 교주가 되었다. 또 합방공신(合邦功臣) 민병한(閔丙漢)·정두화(鄭斗和)·박영효(朴泳孝) 등을 교인으로 받아들여 일제에게 단군교의 공인을 얻어 교세의 확장을 꾀하였다.²⁷ 단군대종교의 단군영정 3곳 봉안은 이런 분위기에서 추진되었고, 《매일신보》의 친일성향으로 미루어 이 조치는 대중교보다 단군교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⁸ 여기에서 확인되는 ‘단군대종교’라는 용어에는 언론에서의 이해이지만, 이런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군영정의 봉안 목적은 동포 형제자매가 단군의 성상(聖像)을 찾아뵙고 공경히 받들어 서로 교류하는 참된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하려 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때의 단군영정이 어떤 모습인지 확정할 수 없다.

1912년 4월 신채호·한형권 등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권업회(勸業會)의 기관지로 창간한 《권업신문》에서도²⁹ 그해 12월 15일자에 단군영정에 관한 보도를 실고 있다. 《권업신문》 제34호에는 「단군대황조어진(檀君大皇祖御眞) 촬영」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승령전에 봉안된 단군영정을 수년 전에 내지[조선]의 한 사진관에서 촬영했는데, 이것을 최병숙이라는 사람이 한 본(本)을 구하여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일전에 그곳에 살고 있는 김태봉·함동철씨와 상의하고 중국인 이완사진관에서 다시 촬영하여 조선인들에게 한 본씩 봉안하게 함으로써 건국 시조를 기념하게 하려 한다”는³⁰ 것이다. 《권업신문》에서는 단군영정의 출처를 평양 승령전(崇靈殿, 단군사당)에서 찾고 있다. 즉, 승령전에 모셔졌다는 단군영정의 원본은 이전에 이미 없어져 최병숙

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교단 분리를 전후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27 李康五, 1992, 『韓國新興宗教資料篇』, 「檀君信仰(總論 I)」, 26쪽.

28 한편 심사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은 都司敎本部는 나철, 南司敎部는 오기호, 北司敎部는 정훈모의 집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대중교와 단군교가 분리되기 이전의 (원)단군교에서의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29 박환, 1993, 「『勸業新聞』에 대한 일고찰」, 『사학연구』 46, 145~208쪽.

30 「檀君大皇祖御眞 撮影」, 《권업신문》 1912년 12월 15일자.

이 지니고 있던 사진본을 승령전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증을 받은 후, 1912년 12월 이전에 이를 중국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재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를 신뢰한다면, 대략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조선 세종 때 창건된 단군사당인 승령전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단군영정을 봉안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단군영정은 1912년 12월 훨씬 이전에 이미 사라져 그곳에 봉안했던 영정의 사진본을 어렵게 얻어 현지 주민의 고증을 거쳐 재촬영하였다. 세 번째, 재촬영한 단군영정은 보급용으로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그런데 《권업신문》의 승령전에 단군영정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보도는 조선 전기 이후 국가제사에 속해 있던 단군사당(승령전)의 성격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승령전에서의 단군제사는 1909년 1월 조정에서 평안남도관찰사를 보내 승령전에 치제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되듯이³¹ 한말까지 지속되었다. 이때까지 승령전에서의 신주는 유교식 위패인 ‘조선시조단군지위(朝鮮始祖檀君之位)’였을 것으로, 1909년까지 승령전은 국가제사에 편제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승령전의 단군영정 봉안에 대한 《권업신문》의 기사는 조선시대 국가제사에서의 위패로 봉안된 신주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물론 1804년(순조 4) 봄에 있었던 평양성 화재로 전소되었던 승령전이 중건되면서 단군영정이 위패 대신 모셔졌다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 개연성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1910년 국권피탈 직후 국가제사의 폐지로 민간에서 모셔지던 승령전에 평양 일대에서 전래되던 단군영정이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

31 『순종실록』 권3, 순종 2년 1월 31일(양력). “詔曰 東方首出之聖 廟貌有血 崇靈殿 遣平安南道觀察使致祭 聞衣履之藏 在江東地 至今指點謂檀君陵 而無沒不治 殊欠崇奉之禮 其自今封植守護之節 磨鍊舉行 又詔曰 仁賢八條之教 肇啓人文 萬世永賴 崇仁殿 遣平安南道觀察使致祭 又詔曰 此高麗舊疆也 緬懷乙支文德 雄圖摧敵 國威用張 千載雖遠 英氣不昧 其墓地訪問修治 令地方官致祭 又詔曰 師承既正 學問尤邃 爲關西士林之所矜式 贈判書鮮于浹 特施節惠之典 窮經篤行 爲近來人士之模楷 故執義朴文一 故郡守朴文五 竝施地贈之典 又詔曰 襄毅公金景瑞 襄武公鄭鳳壽 忠勇尤著 毅然爲西山之望 各其墓遣地方官致祭.”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 그 소재를 알 수 없었다. 이에 보급을 위해 1912년 12월 직전 어렵게 그 사진본을 구해 몇몇 사람의 고증을 거쳐 이를 재촬영할 수 있었다.

《권업신문》은 러시아 동포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1912년 단군 성탄절을 맞아 11월 10일 게재한 논설에서 “우리는 단군에서 출발하는 신성한 민족으로 항상 단군을 공경하고 생각하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³² 또 다음 날인 11일에 권업회 총람소에서 단군성탄일 경축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³³ 17일에는 수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설·황궁도·조장원 등이 주도하여 기념식을 거행하였다.³⁴ 단군대황조어진의 촬영은 이런 분위기에서 추진된 것으로, 그 결과는 「단군대황조 어진 발행」이라 하여 “평양 승령전에 봉안했던 우리의 건국시조 단군대황조 어진을 다시 촬영하고 본사에서 발행하여 한 본(本)에 50전에 판매하니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봉안하여 단군대황조를 사모하고 첨양하기를 잊지 말자”는 같은 날 실린 사고(社告)로³⁵ 매듭지어졌다.³⁶

1909년 1월 15일 나철·오혁·강우·최육·유근·정훈모·이기·김인식·김춘식·김운식 등 10여 명은 서울 북부 재동의 6칸 초가에서 「단군교포명서」를 공포하고 단군교를 증광하였다. 이때 그 신격인 단군은 ‘대황조단군성신지위(大皇祖檀君聖神之位)’라는 유교식의 위패로 봉안되었다. 영정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대종교 측의 자료에 의지한다면, 대종교와 단군교에서는 주요 신앙

32 「단군대황조성탄절」, 《권업신문》 1912년 11월 10일자.

33 잡보, 《권업신문》 1912년 11월 10일자.

34 잡보, 《권업신문》 1912년 11월 17일자.

35 「檀君大皇祖御眞發行」, 《권업신문》 1912년 12월 15일자.

36 이 社告는 1912년 12월 29일자, 1913년 1월 5일자, 1913년 2월 9일자에도 실렸다. 그리고 1914년 7월에는 을지문덕과 이순신 장군의 초상, 민영환의 사진과 혈족, 이준의 사진과 헤이그에 세운 비석, 안중근의 사진과 하얼빈 정거장 등과 함께 단군대황조의 어진을 25전에 판매한다는 社告가 나왔다[《권업신문》 제119호(1914년 7월 12일자)와 제120호(1914년 7월 19일자) 「한반도와 큰사람의 그림」 참조].

의 대상인 단군을 ‘대황조단군성신지위’라고 쓰인 종이로 만든 위패[紙牌]로 북벽(北壁)에 모셨을 것이다. 또 영정이 봉안되었다면 위패와 함께 역시 남향하도록 봉안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단군영정은 대종교의 중요한 기념일인 어천절·개천절의 경배식은 물론, 평상시의 종교적인 모임에서 주요 신앙대상물로 모셔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때 모셔진 단군영정이 어떤 것인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단군영정의 전래와 관련하여 대종교 측의 자료에 따르면, 백봉대종사가 홍암 나철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1908년 두일백(杜一白)을 일본에 파견하여 12월 31일(음력 12월 9일) 도쿄 가이헤이칸[蓋平館]에 머물고 있던 나철과 정훈모에게 『삼일신고』·『성경팔리』 등의 경전류와 함께 단군영정을 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나철을 대신하여 병문안을 와 있던 정훈모가 이들을 가지고 이튿날, 즉 1909년 1월 1일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고 한다.³⁷ 단군영정은 바로 직전인 1908년 12월 5일에 도쿄 세이코칸[淸光館]에서 나철이 두일백에게서 전수받았다는 「단군교포명서」,³⁸ 1909년 10월 3일에서 머지않은 때 마무리된 「단군교오대종지포명서」 등과 함께 단군대종교의 중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대종교 도통 전수 과정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단군영정 전수와 관련한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종교 중광 단계에서 그 존재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영정의 기능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1908년의 『초등대한역사』, 1910년 『신궁건축지』에 실린 단군영정은 갖추어진 모습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말 이전부터 단군의 모습이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크다. 즉, 작은 모자 형식의 머리쓰개, 나뭇잎으로 덮은 어깨와 허리, 덩수룩한 수염 등은 두 자료가 공통적인데 이런 형식은 조선시대에 전래되던 단군영정의 기본 요소였다

37 정진홍 편, 1937, 『단군교부흥경략』, 5쪽.

38 대종교중경중사편수위원회, 1971, 『대종교중광육십년사』 「重光源由」.

고 생각된다. 1910년 9월 단군대종교에서 도사교본부 등 3곳에 봉안하기 위해 모사했던 단군영정이나, 1912년 12월 보급용 영정을 제작하기 위해 촬영한 승령전에 봉안되었던 단군영정도 이와 유사한 형식이었을 것이다. 한편 보급용 영정을 제작하기 위해 승령전에 봉안되었던 단군영정을 택한 배경에는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된 영정이 없는 상황에서 15세기 중엽 이래 국가에서 공인한 단군사당인 승령전의 역사성에 기대어 그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대중의 호응을 얻고자 했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1920년 《동아일보》가 창간과 더불어 시작한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이 진행되기 이전까지 단군영정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어떤 매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해 국조(國祖)에서 민족시조로 확대되어 조선 독립을 위한 중요 매개로 작용했던 단군의 사회적인 위상과 관련해서 일정한 한계로 생각된다.

Ⅲ. 단군영정의 화본(畫本) 검토

한말 이후 일제강점기의 왜곡된 역사를 경험하면서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광복을 맞기까지 지속되었다. 그 중심에 대종교가 있었는데, 조선민족의 단결과 조선혼의 결집을 위해 국조 단군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단군을 모신 종교로는 대종교뿐만 아니라 단군교, 그리고 교세가 비교적 약했던 대천교(代天敎) 등이 있었다. 이들 종교에서는 단군의 신주를 위패와 영정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영정은 교인들이 신앙 주체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매개였다.

1909년 1월 나철 등이 발표한 「단군교포명서」는 대종교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격·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다.³⁹ 대종교 측에서는 「단군교포명서」의 발포(發

39 김성환, 2006, 「대종교 관련 필사본 《포명본교대지서(佈明本敎大旨書)》에 대하여」, 『고조선단군학』 14, 155~210쪽.

佈) 시기와 장소를 개극입도(開極立道) 4237년 갑진년(1904) 10월 초 3일 백두산 고경각(古經閣)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는 1909년 인쇄본으로 전하는데, 여기에는 단군영정이 실리지 않았다. 저간의 사정을 알길 없지만, 가장 중요한 신주의 모습을 교인(敎人)에게조차 알리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단군교포명서」에서는 「백두산단목영궁지도(白頭山檀木靈宮之圖)」(그림 3)라는 간략한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백두산단목영궁지도」(「단군교포명서」, 1909)

이 그림에서는 백두산을 상징적으로 정면 상단에 높게 배치하고, 그 아래에 3칸 초가의 단목영궁(檀木靈宮)이 있으며, 왼쪽 화면 가득하게 신단수로 보이는 나무를 배치하여 백두산과 신단수가 단목영궁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 후기 안정복의 언급에서 처음 확인되는 백두산과 태백산,⁴⁰ 그리고 단군을 적극적으로 연결한 결과이다. “단군을 모신 신성한 공간”이라는 단목영궁 안에 단군영정이 모셔져 있을 것이라고도 짐작되지만,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대종교단에서 단군영정의 전수와 관련해서는 신라 화가로 알려진 솔거가 그린 영정이 이후 전래·이모(移模)되면서 전해지던 것을 봉안했다는 전승이 있다. 김교헌(金敎獻, 1868~1923)은 『신단실기』에서 솔거가 단군영정을 그렸고, 이규보가 고려시대의 유명 화가들이 이모한 여러 신조상(神祖像)을 전하고 있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동사유고(東事類考)』라는 자료를 인용하여 서술하고

40 『동사강목』 부록, 하권, 「太伯山考」.

있다.⁴¹ 대종교 측에서 말하는 두일백이 나철에게 전했다고 하는 단군영정은 그렇게 당시까지 전래된 화본(畵本) 중에 하나였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나철은 1910년 9월 21일에 ‘대황조단군성신지위(大皇祖檀君聖神之位)’라는 유교식 위패를 단군영정으로 교체하고, 1911년부터 교인들도 봉안하게 하고자 사진으로 인출한 단군영정을 나누어주었다고 한다.⁴² 비록 단군 성상(聖像)을 모시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단군대종교에서 단군 진상(眞像)을 봉안한 곳에 화사(畵師)를 보내 영정 3부를 모사해왔다는 앞서의 《매일신보》 보도도 이런 분위기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 《권업신문》 제34호의 기사와 같이 그 장소로 평양 승령전을 특정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만 《매일신보》의 단군대종교에서의 단군영정 모사 봉안은 《동아일보》를 통해 1922년에 공개된 대종교의 「단군 천제의 영정」과 같은 화본(畵本)일 가능성이 있다.

《매일신보》에는 정훈모의 단군교 총본부에서 1913년 정월에 『성경팔리』 등의 교리서 출판과 함께 단군영정의 인쇄를 허가받았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⁴³ 이때 인쇄 허가를 받은 단군영정은 단군교 포교를 목적으로 평소에도 교인들이 휴대할 수 있도록 한 보급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단군교 총본부에서는 이듬해 8월에 교단 본부의 협소함을 이유로 이전에 기호학교(畿湖學校)가 있었던 서울 교동의 한 가옥을 수리하여 단군영정을 봉안했다고⁴⁴ 한다. 그렇지만 단군교의 단군영정도 실물이 확인되지 않아 어떤 모습의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단군교 총본부에서는 1913년 정월 이전에 단군영정을 봉안하고 있었고, 이후 이미 보급용으로 제작하여 교인들에게 배포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점에

41 김교헌, 1914, 『神檀實記』 「神異徵驗」(한뿌리, 1987, 192~193쪽).

42 대종교총본사, 1971, 『大宗教重光六十年史』 158쪽 및 《調達季報》 1911년 4월 23일자. 또 대종교 중광 이듬해의 御天節에 공공진인이라 노인이 술커가 그린 영정을 나철에게 전했다고도 한다.

43 《매일신보》 1913년 1월 1일자.

44 《매일신보》 1914년 8월 11일자.

서 주목할 수 있는 영정이 『성경팔리』에 실린 채색본 단군영정이다(화본 Ⅳ 참조). 즉, 1921년 간행된 『성경팔리』에 실린 단군 천신(天神)의 영정이 1913년 전후 하여 단군교 총본부에서 불안하고 있던 영정과 다르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단군영정은 단군교에서 모셔지며 보급용으로 인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⁵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의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 결과 56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그 수준을 논외로 할 경우 당시 전해지거나 창작된 단군의 이미지가 다양했음을 의미한다. 그 모습은 대략 머리에 일반적인 관(冠)의 형태가 아닌 모자(帽子) 형태의 머리쓰개를 쓰고, 어깨와 허리에 나뭇잎을 걸치거나 덮고 있다. 머리쓰개를 쓰고 있는 것은 성현을 통해 유교적인 질서가 정립되기 이전의 신화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어깨와 허리에 나뭇잎을 걸치고 있는 것은 반고(盤古)와 복희(伏羲)·신농(神農)과 같은 중국의 신화적 인물들에 대한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모두 단군의 신화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된다. 특히 신농은 얇은 갈땃잎과 넓은 잎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신농씨는 중국신화에서 처음으로 농사법과 의약법, 불의 사용을 알려준 신화적 인물로, 이런 인류에 대한 계몽적 성격을 단군상(檀君像)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이 『해동이적(海東異蹟)』에서 서술하고 있는 단군의 ‘생민지치(生民之治)’⁴⁶라는 교화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추측할 수 있다. 즉, 조선 후기에 『삼재도회』나 『역대군신도상』 등의 화보류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중국의 신화적 도상을 단군영정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4 참조).

1908년의 『초등대한역사』에 소개된 단군상을 비롯하여 단군영정을 그렸다고 전하는 지운영의 아들인 지성채(池盛彩, 1899~1980)가 1945년 광복 직후

45 이것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시 대중교와 단군교에서 불안하고 있던 단군영정의 화본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6 『海東異蹟』 하, 「檀君」.



그림 4 『삼재도회』에서의 중국신화 인물상

작업한 ‘단군천진(檀君天眞)⁴⁷이 봉안⁴⁸ 되기 이전까지 필자가 확인한 단군상은 약 17건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에는 낮은 수준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모두 17건의 단군영정이 확인된다. 이들은 크게 전신상과 반신상으로 나눌 수 있고, 채색본도 있으며(4·16), 구월산 삼성사(8·12) 또는 삼신각(三神閣)(12)에 봉안된 영정이라고 밝혀져 있는 것도 있다. 또 중국 상해에서 인쇄된 것도 있는데(3·6·13), 13의 경




47 《동아일보》 1945년 12월 14일.

48 봉안식은 1945년 12월 17일에 있었는데,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조소앙·洪震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동아일보》 1945년 12월 17일자). 또 이를 봉안하는 檀君殿 건축의 결의도 있었다(《동아일보》 1946년 6월 17일자).

〈표 1〉 한말·일제강점기의 단군상·단군영정

명칭	영정	시대	전거	화본 종류
1 東國을 創立 하신 檀君의 像		1908	『初等大韓歷史』(鄭寅琬)	화본 I (반신상)
2 大朝鮮國始祖 檀君天皇		1910	『神宮建築誌』	화본 II (반신상)
3 檀君天皇祖 御眞		1917	박찬익 집안 소장본 (중국 상해 인쇄)	화본 III (반신상)
4 檀君天眞		1921	『聖經八理』 (정훈모, 단군교본부)	화본 IV (전신상, 채색본)
5 단군 천제의 영정		1922	《동아일보》	화본 III (전신상)

	명칭	영정	시대	전거	화본 종류
6	大皇祖檀君肖像 대황조檀君肖像		1923	《독립신문》 1923년 11월 10일자 (중국 상해 임시정부)	화본 Ⅲ(반신상)
7	檀君		1924	『道德淵源附忠賢錄』 (金道東, 大東管文社)	화본 Ⅲ(전신상)
8	檀君		1926	『中等朝鮮歷史』(황의돈, 鴻文園) (在九月山三聖祠)	화본 Ⅴ(반신상)
9	三神上帝 한배檀君		1928	이용태 소장본	화본 Ⅲ(전신상)
10	檀君		1930	『五千年 朝鮮歷史』 (高裕相, 동문관)	화본 Ⅳ(전신상)

명칭	영정	시대	전거	화본 종류
11 檀君大皇祖		1932	『續修增補江都誌』 (朴憲用)	화본 VI(반신상)
12 大皇祖檀君		1933	『衆明(중명)(李昌煥 편집) (在三神祠)』	화본 VII(전신상)
13 倍達始祖 檀君御眞		1937	『연하엽서』 (중국 상해 배달공사)	화본 III(반신상)
14 檀君聖祖御眞		1937	『檀君教復興經略』 (鄭鎮洪)	화본 III(전신상)
15 단군시조		미상	『조선위인지』	화본 VIII(반신상)

	명칭	영정	시대	전거	화본 종류
16	부여 천진전 단군영정		미상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369호 (34×53cm)	화본 Ⅲ(전신상)
17	단군천진		1945	대종교총본사 봉안 (지성채, 60×138cm)	화본 Ⅸ(전신상)

우에는 연하엽서로 제작되었다. 그런데 이들을 살펴보면, 그림의 ‘본(本)’이 되는 화본이 다양하다. 1945년 지성채가 그린 「단군천진」을 제외하면 그 종류는 8종으로 파악되는데, 화본 종류에 따라 표기된 I~Ⅷ이 그것이다. 이들이 《동아일보》의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에 응모했던 56건의 작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8종의 화본 중에 대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화본 I·Ⅱ(1·2)를 제외하고 화본 Ⅲ(3·5·6·7·9·13·14·16)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화본 Ⅲ이 전반적으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명칭은 「단군 천제의 영정」·「대황조단군초상(大皇祖檀君肖像)」·「단군」·「삼신상제(三神上帝) 한배단군(檀君)」·「배달시조단군어진(倍達始祖檀君御眞)」·「단군성조어진(檀君聖祖御眞)」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지금까지 단

군영정의 가장 이른 화본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1922년의 개천절을 기념하여 《동아일보》에 공개된 화본 Ⅲ의 사진이었다. 《동아일보》의 공모 결과가 기대에 많이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종교 또는 단군교에서 모시고 있던 영정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⁴⁹ 그런데 단군영정 현상공모 캠페인 결과 《동아일보》에 처음 소개된 단군영정(5)은 부여 천진전에 봉안된 단군영정(16)과 같은 화본 Ⅲ이어서 주목된다.⁵⁰

천진전의 단군영정은 대종교 남도본사에서 활동했던姜우(姜虞, 1862~1932)가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동아일보》에 소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두 자료가 같은 화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대종교 남도본사에서 최소한 1922년 11월 개천절 이전에 화본 Ⅲ과 같은 단군영정을 봉안하여 각종 경배식에서 숭배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⁵¹ 또 대종교인이었던 이용태(1890~1966)가 1928년 2월 대종교에 입교할 무렵 남도본사에서 받아 왔다는 보급용 사진본(9)이 확인되고, 단군교에서 1937년에 간행한 『단군교부흥경략(檀君教復興經略)』에서도 동일한 화본(14)이 확인된다.⁵² 반신상과 전신상이라는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역시 대종교에서도 보급용 사진본으로 단군영정을 제작하여 교인들에게 배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일신보》 1910년 9월 23일자에서는 단군대종교가 단군영정 3본을 모사하여 도사교본부와 남사교본부·북사교본부에 봉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때의 결정이 그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그 이전에는 도사교본부에서도 단군영정을 봉안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49 김성환, 2018, 앞의 글, 45~50쪽.

50 현재는 부여 정림사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51 앞서 서술한 것처럼 《매일신보》에 따르면, 단군교의 경우 1913년 정월 이전이었다.

52 이용태 소장본 단군영정은 「三神上帝 한배檀君」이라 명칭되고 있어 1930년 11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한배단군상」과 함께 1920년대 「단군 천제의 영정」으로 소개되었던 단군영정의 명칭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단군영정이 이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것은 대종교와 단군교 교리가 체계화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그림 5 「단군대황조어진」(1917, 박찬익 집안 소장본, 14.5×20cm)

1922년 개천절에 공개된 「단군 천제의 영정」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것이어서 1910년 이후 10여 년 정도 사이에 단군영정에 대한 전승 과정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1917년 인쇄된 보급용 단군영정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명칭은 「단군대황조어진(檀君大皇祖御眞)」(3)(그림 5)이다. ‘대황조’란 ‘가장 지극한 조상’ 정도의 뜻으로, 조선 민족이 단군에서 출발하는 혈연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다.⁵³ 대중교에서 모시는 신격이 고조선의 건국 시조인 단군이었기 때문이다.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 과정과 관련된 민족의 개념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정은 일찍부터 대중교에 입교하여 신규식(申圭植)과 함께 상해에서 동제사(同濟社)를 결성했으며, 그를 보좌하고 그의 사후에는 대중교 외교를 주도했던 박찬익(朴贊翊) 집안 소장본이다. 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대중교의 단군영정과 「박찬익 집안 소장본 단군영정」은 많이 닮아 있다. 전신상과 반신상이라는 차이를 빼고는 거의 흡사하다. 박찬익 집안 소장본은 강우가 소장했었다는 「부여 천진전 영정」과 같은 전신상의 화본을 대상으로 상반신만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찬익 집안 소장본 단군영정」과 「부여 천진전 단군영정」·「단군 천제의 영정」(《동아일보》)을 비교할 때, 시기적으로 앞서는 작품은 1917년 제작된 박찬익 집안 소장본이다. 「박찬익 집안 소장본 단군영정」은 현재 전하는 「부

53 김성환, 2010, 앞의 글.

여 천진전 단군영정」·「단군 천제의 영정」의 편년을 제시하는 기준 작품으로, 《동아일보》를 통해 공개된 단군영정의 상한을 5년 이상 올려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 반신상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영정 형태의 단군상(檀君像)으로서 현재 유통되는 자료 중에서 제일 이른 시기의 것이다.⁵⁴

실제 이 영정은 1922년 개천절에 《동아일보》에 실린 「단군 천제의 영정」과 비교하여 안면과 수염의 표현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⁵⁵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두 자료의 제작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없다. 최소한 대중교 서도본사가 있던 중국 상해에서도 그들이 망명 당시 모시고 갔거나, 현지에서 제작했던 단군영정을 봉안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동아일보》 1925년 11월 27일자에는 상해에서 연례적으로 거행되었던 건국기원절(개천절)에 대한 경축식이 민단(民團)의 주최로 개최되었음을 보도했는데,⁵⁶ 이때에도 보급용 단군영정이 참여자들에게 배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⁵⁷ 《독립신문》의 1923년 개천절 기념호에 실린 「대황조단군초상(大皇祖檀君肖像)」(6)과 1937년 중국 상해 배달공사에서 「연합업

54 김성환, 2018, 앞의 글, 41~65쪽.

55 이에 대해 조준희는 나철이 등사했던 영정을 신규식이 상해에 갈 때 가지고 갔다가 1917년 상반신만 편집하여 다시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 신규식 등과 함께 활동했던 申性模(1891~1960)는 대중교 입교 후 단군영정을 휴대하거나 집에 모셨다고 하는데, 그 영정은 신건식 소장본과 같은 것이었다는 유족의 증언이 있다. 이 역시 조준희의 자문에 따른다.

56 《동아일보》 1925년 11월 27일자. “建國記念日 상해에서거행 지난음력십월삼일은 단군의건국기원절(建國紀元節)의기념하는날임으로써년례에의지하야상해에서는 당일에성대한경축이잇섯는데 오전에는 청년동맹회(青年同盟會)와 삼일공학(三一公學)에서경축식이잇섯고밤에민단(民團)의주최로써거류민전례의경축식이잇섯으며식이끝난뒤에각각하여져서곳곳에서경축의잔치를배푸렀다더라(상해)”. 만주 용정촌에서도 檀君紀念祭日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동아일보》 1925년 12월 7일자).

57 한편 《동아일보》 1935년 1월 1일자에는 어린이를 위한 부록에 ‘예전부터 제일 유명한 분’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단군을 비롯하여 제일가는 장수로 을지문덕 등을 소개했는데, 을지문덕의 초상을 싣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단군은 영정을 싣지 않고 백두산 천지의 사진을 수록하였다.

서」로 제작한 「배달시조(倍達始祖) 단군어진(檀君御眞)」(13)은 이런 점에서 유용하다.⁵⁸

박찬익 집안 소장본의 모본이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기탁된 「부여 천진전 단군화상」(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69호)과 화본 Ⅲ이 같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부여 천진전 단군화상」이 중국산 인조비단에 전신을 얹게 채색한 것에 비해 박찬익 소장본은 반신상으로 인쇄되어 있다. 후자는 여러모로 전자에 비해 의복 주름의 표현 등에서 필선이 간략화되어 있다. 또 「부여 천진전 단군화상」에서 보이는 고목 형태의 의자도 생략되었다.

「부여 천진전 단군화상」을 중심으로 화본 Ⅲ의 제작 시기 및 의도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⁵⁹ 이 영정은 조선 후기 초상화 형식을 기반으로 20세기 초에 제작된 작품이다. 먼저 초상 속 인물은 정면 전신상으로 그려졌다. 정면상 초상은 중국 명대에 유행한 형식으로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잠시 유행하였다. 이후 이 형식의 초상은 일부 사대부 초상에서 그려지다가 20세기 이후 채용신, 김은호, 조석진 등이 사진기술과 서양화법을 접목하여 사실적인 정면 초상을 다수 제작하였다. 화본 Ⅲ은 이런 20세기의 정면상 초상화의 양상을 따르고 있다.

자세와 의복에서도 조선 후기 관복과 야복을 입은 사대부 초상화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 정면을 향해 공수한 자세는 관복을 입은 공신초상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이후의 초상에서는 오히려 이전까지 금기시되던 두 손을 드러내고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비해 이 작품은 오히려 전통적 구도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단군이 입은 백색 포의는 조선 후기 관복과 심의(深衣)의 특징을 지닌다. 두 다리 사이에 평평한 면을 배치하며, 다리 부분에서 주름을 잡고, 오른쪽을 살짝 들어 속을 보이는 치마는 관

58 《독립신문》1923년 11월 10일자.

59 이와 관련한 회화사적인 서술은 이원복(전 문화재위원, 전 부산박물관장)과 심경보(전곡선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자문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필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



그림 6 조선 후기 초상화와 단군영정의 비교

복을 입은 사대부 초상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이다. 그리고 길게 늘어뜨린 대대(大帶)와 풍성하게 주름진 상의의 표현은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심의를 입고 그린 초상에서도 잘 드러나는 특징이다. 특히 치마에 비해 많이 짧은 대대의 모습은 20세기에 제작된 심의를 입은 사대부 초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발은 풀을 엮어 만든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두툼한 형태와 신발의 코 부분을 중심으로 장식이 이루어진 것은 조선시대 관복에 갖추어 신던 목화(木靴)의 형태를 닮아 있다. 의자는 고목으로 만들어져 신비감을 주려 하지만, 둥글게 말아 돌아가는 손잡이 부분의 형태를 통해 공신 초상화에 등장하는 교의(交椅)가 참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21년 단군교 본부에서 편찬한 『성경팔리(聖經八理)』에서는 채색본의 전신상 「단군천진」(화본 Ⅳ)(그림 7)이 소개되고 있다. 이 영정은 앞서 살펴본 대종교의 단군영정과 차이가 있다. 백두산과 신단수로 생각되는 그림을 배경으로 단군이 교의 형태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대종교의 단군영정이 아무런 배경 없이 의자에 앉은 단군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단군교의 것은 「단군교포명서」에 소개되어 있는 백두산 단목영궁(檀木靈宮)에서 단목영궁을 단군으로



그림 7 「단군천진(정훈모, 1921, 『성경팔리』)」

대체하고 있다. 물론 두 영정의 인물에 대한 양식과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얼굴의 표현에서 약간 다를 뿐이다. 이 영정은 화본 Ⅲ보다 진전된 점이 확인된다. 즉, 1909년 나철에 의해 포고된 「단군교포명서」의 ‘백두산 단목영궁지도(白頭山檀木靈宮之圖)’와 화본 Ⅲ의 단군영정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염두에 둔 창작으로 보인다. 이 화본은 1930년에 고유상이 저술한 『오천년 조선역사』에 「단군」(10)이란 제목으로도 실렸다.⁶⁰ 그렇지만 이 결과가 대종교와 단군교의 분리 이후 각 교단에서 별개의 단군영정을 봉안

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후의 자료에서 대종교에서 봉안했을 것으로 보이는 「단군 천제의 영정」을 단군교에서도 봉안하고 있어 최소한 정훈모의 단군교에서는 두 영정이 함께 공유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단군교부흥경략』에 실려 있는 「단군성조어진(檀君聖祖御眞)」(14)은 이런 점에서 참고된다.

1933년 5월 창간된 잡지 『중명(衆明)』의 창간호⁶¹에 이창환(李昌煥)이 쓴 「조선역사강화(朝鮮歷史講話)」에는 또 다른 화본의 단군영정이 실려 있다. 「대황조단군(大皇祖檀君)」이라는 명칭으로 실린 이 영정(화본 Ⅷ)(그림 8)은 삼신사(三神祠)에 봉안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삼신사는 환인·환웅·단군의

60 高裕相, 1930, 『五千年 朝鮮歷史』.

61 《동아일보》 1933년 5월 25일자. 『衆明』은 전주이씨대동종약소의 사업으로 1933년 5월 15일 창간된 종합잡지이며, 조선을 本位로 한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발행되었으나, 8월에 3호를 마지막으로 종간되었다.

삼신을 모신 사당을 뜻하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곳이 구월산의 삼성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영정은 위쪽에 장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두루마리 양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그 구도는 기본적으로 화본 Ⅲ과 동일하다. 이것을 화본 Ⅶ로 분류하는 것은 얼굴의 표현이 앞의 영정들과 비교하여 전혀 다르다는 점에 있다. 특히 눈매와 표정, 귀불 등에서 차이가 확연하다. 양다리 안쪽으로 내려와 있는 옷고름은 화본 Ⅲ 및 화본 Ⅳ와 비교하여 반대로 되어 있다. 또 교의에서도 화본 Ⅲ 및 화본 Ⅳ와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며, 신발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신발은 화본 Ⅳ의 것에 가깝다. 전신상의 단군영정 중에서 완성도가 제일 낮다고 평가되며, 제작 시기도 가장 늦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황의돈은 『중등조선역사』(1926)에서 구월산 삼성사에 봉안되어 있다는 반신상의 단군영정(8)을 소개하고 있는데,⁶² 자세하지 않지만 1916년 정월 나철이 삼성사에서 순교한 이후 훼손되었던 삼성사를 대중교선교회에서 중건하고 있는 것과⁶³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영정은 이제까지 살펴본 것들과 전혀 다른 형식(화본 Ⅴ)이며, 1933년 삼신사에 모셔져 있다는 「대황조단군」과도 확연하게 다르다. 1932년 박헌용이 편찬한 『속수증보강도지』에도 “지금부터



그림 8 「대황조단군」(1933, 『중명』)

62 황의돈, 1926, 『中等朝鮮歷史』. 이 영정은 현재의 『반만년조선역사』(1928)에도 실려 있는데, 『반만년조선역사』의 원래 저술인 『동국사략』(1906)에는 실리지 않았다.

63 《동아일보》 1926년 9월 5일자. 이때 대표는 최남선이 맡았다.

4,200년 전에 참성단에서 제천하시던 단군대황조”라는 제목으로 반신상의 영정을 소개(화본 Ⅵ)하고 있으며, 『조선위인지』라는 자료에 실린 「시조 단군」의 반신상(화본 Ⅷ)도 삽화 형태의 성격이 강하지만, 앞서 검토한 단군영정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들이다.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화본 Ⅲ을 중심으로 단군영정을 그린 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전한다. 솔거가 그린 영정이 1,000여 년 이상 이모되어 전해져오다가 이를 김은호(金殷鎬, 1892~1979)가 그렸다는 설(A)과 김은호의 회고에 따라 그의 스승인 안중식(安中植, 1861~1919)이 그렸다는 설(B),⁶⁴ 중광 이듬해의 어천절에 공공진인(空空眞人)이 나철에게 전한 것을 지운영(池雲永, 1852~1935)이 모사했다는⁶⁵ 설(C)이 그것이다.⁶⁶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화본의 영정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B설에 따르면, 안중식이 단군영정을 제작했다는 시점은 대종교 중광 직후로, 그 과정 또한 김은호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후에 전해 들은 말을 회고 형식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대종교와 단군교에서 솔거나 조선 말기의 궁정화원이었던 안중식·김은호, 또 서화로 유명했던 지운영 등이 영정을 제작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작품의 가치와 의의를 높이고자 했던 의도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⁶⁷ 또 전신상을 대상으로 하는 화본도 3점(그림 9)이 확인되

64 김은호는 안중식의 단군영정 제작에 대해 “어느 해인가 단군의 개천절과 같은 날인 10월 3일 운양 김윤식의 생일잔치에 초대된 이시영과 조소앙 등 여러 사람들이 단군교 설립을 제안했고, 운양도 집 한 채를 내놓겠다고 했다. 운양은 권농동의 조그만 집을 희사해서 단군을 모시기로 했고, 그 초상을 심전 안중식이 맡기로 하여 심전은 매일 어두컴컴한 방에서 단군초상을 그리느라 두문불출했다”고 회고했다(김은호, 1977, 『서화백년』, 232쪽).

65 대종교총본사, 1998, 『대종교요감』(4판), 3~4쪽. 백남규의 증언에 따르면, 이 영정이 姜湖石에 의해 대종교 남도지사에서 봉안해오다가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단군전에 봉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6 조준희, 2005, 「단군 영정」, 『알소리』 7.

67 안중식이 화본 Ⅲ의 단군영정을 그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도 있다(조은정, 2017, 「심전 안중식 인물 표현-실존으로의 이행」, 『인물미술사학』 13, 112~



그림 9 단군영정 화본 Ⅲ·Ⅳ·Ⅴ의 비교

는 것처럼⁶⁸ 어느 한 사람으로 특정하기보다 각 화본의 화가로 그들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⁶⁹ 그렇지만 단순한 추측만으로 단군영정의 각 화본과 화가들의 관계를 거론할 수 없다.

114쪽). 한편 화본 Ⅲ의 단군영정에 대해 “의습선은 굴절이 심하고 보통 초상화에서 흔히 쓰는 철선묘 기법이 아니고 음영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조선 말의 화가 채용신 계통의 기법으로 보인다”고 하여 20세기 이후에 제작되었다는 안휘준 교수의 간략한 코멘트가 있다(「국내最古 檀君影幀 발견」, 《경향신문》 1987년 4월 9일자).

- 68 조준희는 이 중에서 화본 Ⅲ은 안중식, 화본Ⅳ는 김은호가 그렸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조준희, 2005, 앞의 글).
- 69 일제강점기에 단군영정은 여러 형태로 제작되고 있었다.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여럿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31년 12월에 여성독지가인 이원식은 영정 봉안을 위해 檀君奉贊會에 집을 기부했으며(《동아일보》 1931년 12월 10일자), 200여 명의 교인으로 구성된 교세가 적은 代天敎에서도 단군영정을 모시고 있었다(《동아일보》 1928년 1월 4일자). 영정 이외의 신앙 대상물로서 단군 塑像의 존재도 확인된다. 1925년 겨울에 단군교의 정훈모는 황해도 구월산 바위 속에서 단군의 소상을 발견하였다고 한다(《동아일보》 1927년 1월 18일자). 정훈모는 이를 봉안하는 大聖殿을 짓기 위해 단군천조대성전기성회의 발기회를 1927년 정월에 발족하였다.

IV. 맺음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제작된 단군 이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삼성과 같은 단군을 모신 사당과 무속과 관련한 신앙의 주체로서 그 이미지를 염두에 둘 수 있으나, 이조차 확인하기 쉽지 않다. 17세기 중엽에 평양의 인현서원 등에서 기자가 화상으로 봉안되고, 그 영정으로 전하는 조선시대의 것이 현전하는 상황과 비교된다.

단군과 관련한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한말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부각되었다. 1910년 국권피탈을 전후하여 정상적인 영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삽화 또는 목판화 형태의 이미지가 확인된다. 1908년 정인호가 간행한 『초등대한역사』에 실린 「동국을 창립하신 단군의 상」과 1910년 『신궁건축지』에 목판본으로 소개된 「대조선국시조 단군천황」이다. 이들 자료의 존재를 통해 한말 이전부터 단군을 이미지로 구체화한 영정 형식의 자료들이 전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종교 측에서는 중광 과정에서 1908년 백봉의 지시를 받고 두일백이나철에게 전수한 단군영정이 있었다고 한다. 이 전승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초등대한역사』에 실린 단군상(檀君像)과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909년 정월에 있었던 대종교의 중광기념식에서 단군을 ‘대황조단군성신지위’라는 유교식의 위패로 북벽에 모셔졌음이 확인된다.

단군교에서는 1910년 9월 말에 바로 단군영정 3분을 제작하여 각각의 도사교본부와 남북의 사교부(司敎部)에 봉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목적은 동포형제자매가 단군의 성상을 배알하고 받들어 진실한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일 강제병합 직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일제 식민통치 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옮긴 대종교에서는 단군을 중심으로 조선혼을 아우르고 그 에너지를 독립운동과 연결하였다. 1912년 말에는 권업회를 중심으로 평양 승령전에 모셔졌던 단군영정을 나뉜 고증을 거쳐 보급용으로 제작·판매하였다. 그런데

이때 승령전에 봉안되어 있던 단군영정은 1910년 국가제사로서 승령전 제사가 폐지된 이후 평양 민간에서 봉안한 영정으로 추측된다. 승령전에서는 유교적인 절차에 따라 위패를 모시고 거행되었던 제사가 1909년까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령전에 봉안되어 있는 단군영정을 보급용 화본으로 선정한 것은 그곳의 영정이 우수했기 때문이기보다는 승령전의 역사성과 권위에 기대기 위한 장치였다고 해석된다.

대종교 측에서는 술거나 이규보를 개입시켜 단군영정의 화자(畫者)와 전래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따르기 어렵다. 1909년 간행된 「단군교포명서」에서는 단군영정을 대신하여 「백두산단목영궁지도」라는 간략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까지 단군영정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1913년 정월 단군교 총본부에서도 보급용 단군영정의 인쇄를 허가받고, 8월에는 총본부를 서울 교동으로 옮겨 단군영정을 봉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21년 간행된 『성경팔리』에 채색본 단군 천신의 영정이 실려 있는데, 이것이 1913년에 단군교에서 봉안한 영정인지는 불분명하다.

단군영정의 기본적인 형태는 모자 형태의 머리쓰개를 쓰고, 어깨와 허리에 나뭇잎을 걸치거나 덮고 있는데, 반고, 복희, 신농 등 중국의 신화 인물의 도상과 흡사하다. 단군의 신화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국신화에서 농사법과 의약법, 불의 사용을 알려준 존재로 알려진 신농씨는 얇은 갈댓잎과 넓은 잎을 입고 있는데, 이 같은 계몽적 성격을 단군상(檀君像)에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조선 후기에 『삼재도회』나 『역대군신도상』 등의 화보류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중국의 신화적 도상을 단군영정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한말 일제강점기의 단군영정으로 확인되는 것은 약 17건이다. 또 이를 그림의 종류(화본)로 나누면 8종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동아일보》에 실린 화본 Ⅲ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군영정으로 보인다. 화본 Ⅲ은 이 외에 대종교 남도본사에서 활동했던 강우의 소장본 등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반신상인데도 1917년의 제작연도가 분명한 「박찬익 집안 소장본 단군영정」은 기존 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종교에서는 최소한 1917년 이전에 전신상의 단군영정을 봉안하고

있었고, 그 보급을 위한 반신상의 제작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현전하는 단군영정은 조선 후기 초상화 형식을 기반으로 20세기 초에 제작된 작품들이다. 조선시대 민간에서 전래되던 단군영정이 모본이 되었을 것이다. 작자에 대해서 안중식·김은호·지운영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다양한 화본의 영정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어느 한 사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각 화본의 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자료

『고려사』, 『동국이상국전집』, 『선화봉사고려도경』, 『속동문선』,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인조실록』, 『숙종실록』, 『순조실록』, 『순종실록』, 『오주연문장전산고』, 『芝山集』, 『청음집』, 『청장관전서』, 『택당집』
《경향신문》, 《권업신문》, 《독립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調達季報》
『단군교부흥경략』(정진홍 편, 1937), 『단군교포명서』(1909), 『道德淵源附忠賢錄』(金遺東, 1924), 『中等朝鮮歷史』(황의돈, 1926), 『聖經八理』(정훈모, 1921), 『續修增補江都誌』(朴憲用, 1932), 『神宮建築誌』, 『神檀實記』(김교현, 1914), 『五千年 朝鮮歷史』(高裕相, 1930), 『衆明(중명)』(李昌煥, 1933), 『초등대한역사』(정인호 편집, 1908)

저서

김성환, 2002,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노명호, 2012, 『고려 태조왕건의 동상-황제제도 고구려 문화 전통의 형상화』, 지식산업사.
대종교경중사편수위원회, 1971, 『대종교중광육십년사』.
대종교총본사, 1998, 『대종교요감』(4판).

논문

김성환, 1992, 「朝鮮初期 檀君認識」, 『明知史論』 4, 명지사학회.
_____, 2002, 「『朝鮮世紀』를 통해본 明人 吳明濟의 朝鮮歷史 認識」, 『고조선단군학』 7, 고조선단군학회.
_____, 2006, 「대종교 관련 필사본 《포명본교대지서(佈明本教大旨書)》에 대하여」, 『고조선단군학』 14, 고조선단군학회.
_____, 2009, 「국가제사에서의 단군과 참성단 제사」, 『강화도 참성단과 개천대제』, 경인문화사.
_____, 2010, 「〈단군교포명서〉의 단군 인식」, 『국학연구』 7, (사)국학연구소.

- _____, 2018, 「남파 박찬의 집안 소장 단군영정」, 『정신문화연구』 151, 한국학중앙연구원.
- _____, 2018, 「고려시대 太祖의 眞殿과 奉業寺」, 『선사와 고대』 57, 한국고대학회.
- 김현주, 2009, 「1910년대 초 『매일신보』의 사회 담론과 공공성」, 『현대문학의 연구』 39, 한국문학연구학회.
- 박환, 1993, 「『勸業新聞』에 대한 일고찰」, 『사학연구』 46, 한국사학회.
- 서영대, 2015, 「『巫堂來歷』 소재 단군 기사의 검토」, 『민족문화논총』 5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윤상길, 2011, 「'식민지 공공영역'으로서의 1910년대 《每日申報》」, 『한국언론학보』 55, 한국언론학회.
- 李康五, 1992, 『韓國新興宗教資料篇』, 「檀君信仰(總論 I)」.
- 정영훈, 1995, 「한국사 속에서의 '檀君民族主義'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
- _____, 2013, 「한민족의 정체성과 단군민족주의」, 『민족문화논총』 55,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조은정, 2017, 「심전 안종식 인물 표현-실존으로의 이행」, 『인물미술사학』 13, 인물미술사학회.
- 조인성, 1989, 「韓末 檀君關係史書의 再檢討: 《神檀實記》·《檀奇古史》·《桓檀古記》를 中心으로」, 『국사관논총』 3, 국사편찬위원회.
- 조준희, 2005, 「단군영정」, 『알소리』 7, 국학연구소.
- 최광식, 2000, 「『神宮建築誌』의 내용 및 의미」, 『고조선단군학』 3, 고조선단군학회.

20세기 초 단군영정의 보급과 화본(畫本) 검토

김성환

단군과 관련한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한말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부각되었다. 1910년 국권피탈을 전후하여 갖추어진 영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삽화 또는 목판화 형태의 이미지가 확인된다. 그럼에도 1909년 정월에 있었던 대종교의 중광기념식(重光記念式)에서 단군은 ‘대황조 단군성신(大皇祖 檀君聖神)의 위패’라는 유교식의 위패로 북벽에 모셔졌다.

단군대종교에서는 1910년 9월 말에 단군영정을 제작하여 봉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목적은 대종교와 단군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겠지만, 일제의 강제병합 직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종교에서는 단군을 중심으로 조선훈을 아우르고 그 에너지를 독립운동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또 권업회에서는 평양 승령전에 모셔졌었다는 단군영정을 나뉜 고증을 거쳐 1912년 12월에 보급용으로 제작 판매하였다.

‘단군유훈(檀君遺訓)’을 좇겠다는 다짐을 창간호 만평에 실은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초에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응모된 총 56건의 작품에서 당선작을 내지 못하였다. 《동아일보》는 1922년 개천절에 「단군 천제의 영정」이라 하여 대종교에서

불안하고 있던 전신상의 영정을 공개하였다. 이것은 대종교에서 불안하고 있던 단군영정 이후 단군영정의 기준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하였다.

대종교와 단군교에서는 술거나 이규보를 거론하며 단군영정의 화자(畫者)와 전래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따르기 어렵다. 단군영정의 기본적인 형태는 모자 형태의 머리쓰개를 쓰고, 어깨와 허리에 나뭇잎을 걸치거나 덮고 있다. 조선 후기에 『삼재도회』나 『역대군신도상』 등의 화보류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중국의 신화적 도상을 단군영정에 그대로 적용했는데, 단군의 신화적 성격과 계몽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한말 일제강점기의 단군영정으로 확인되는 것은 약 17건이고, 이를 그림의 종류(화본)로 나누면 8종이다. 이 중에서 《동아일보》에 실린 화본 Ⅲ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군영정으로 보인다. 특히 1917년의 제작연도가 분명한 보급용 「박찬익 집안 소장본 단군영정」은 기준 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전하는 단군영정은 조선 후기 초상화 형식을 기반으로 20세기 초에 제작된 작품들이다. 작자로는 안중식·김은호·지운영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다양한 화본의 영정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어느 한 사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주제어: 단군영정, 대종교, 단군교, 단군영정 현상모집 캠페인, 단군영정화본(檀君影幀畫本)

ABSTRACT

The Dissemination of Dangun's Portrait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a Review of Drawings

Kim Sunghwan

The interest in the images of Dangun emerged together with the rise of democracy during the Hanmal (韓末, end of the Korean Empire) period. While the concerns cannot be said to have immediately followed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of 1910, these illustrations and images in the form of wood carvings have been confirmed. In spite of this, in the New Light Ceremony (重光) of Daejonggyo (大宗教) on New Year's Day of 1909, the image of Dangun was enshrined at the north wall in the form of a Confucian-style ancestral tablet named "Dangun, the Great Holy Spirit (大皇祖檀君聖神)."

Dangungyo (檀君教) maintains that a decision was made at the end of September 1910 to produce and enshrine the portraits of Dangun. The aim was to bring under control a society in chaos immediately after the forced annexation with Japan. Daejonggyo holds that the portraits were disseminated to unite the soul of the Joseon people with Dangun

as the center, linking the energy with the independence movement. Thus, in 1912, the portrait of Dangun hanging in Pyongyang's Sungnyong-jeon Shrine (崇靈殿) underwent a historical examination, after which copies of the portrait were mass produced and sold.

In Daejonggyo and Dangungyo (檀君教), Solgeo (率居), a painter from the Silla period, and Yi Gyu-bo (李奎報), a writer from the Goryeo period, have be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artistry of the Dangun portrait as well as its dissemination to future generations, although the process of this line of reasoning is hard to follow. The basic form of the portrait of Dangun shows him wearing a headgear resembling a hat with leaves spread over or covering his shoulders and waist. In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aspects of Chinese mythological portraits — well-known through pictorials such as *Samjae-dohoe* (三才圖會) and *Yeokdae-gunsin-dosang* (歷代君臣圖像) — were applied to the portraits of Dangun to show his deification and enlightenment.

There are approximately 17 images of Dangun confirmed to be produced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the Korean Empire period. These images can be divided into eight classifications called the “basic form.” Among these classifications, Type III, published in *Dongailbo*, is the version of Dangun's portrait that is widely known, especially with the portrait of Park Chan-ik (朴贊翊)'s possession mass-produced in 1917,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standard. These emerging images of Dangun, produced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were based on the form of portraits dating from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Credit for the portraits has been attributed to artists such as An Jung-sik (安中植), Kim Eun-ho (金殷鎬), Ji Un-yeong (池運永) and others, but the artist's true identity remains

unclear. Indeed, considering the variety of the basic forms that have been confirmed, one would encounter difficulties in assigning any one artist's style to all. Hereafter, an examination of each portrait type would be needed.

Keywords: Dangun's portrait, campaign to collect portraits of Dangun, Daejonggyo (大倥敎), Dangungyo (檀君敎), basic form of the portrait of Dangu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50년대 전반기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동향과 고구려

– 고구려 사절이 아프라시아 궁정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이성제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장

- I. 머리말
- II. 문제의 제기
- III. 서돌궐(西突厥)의 대두(擡頭)와 당군(唐軍)의 원정(遠征)
- IV. 아프라시아 궁정벽화의 고구려 사절과 돌궐인(突厥人)의 세계(世界) 인식(認識)
- V. 맺음말



I. 머리말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는 1965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시의 아프라시압 도성지(都城址)에서 도로 공사 중 발견되었다.¹ 그리고 여기에 그려진 인물들 가운데 새 깃털 2개를 꽂은 모자를 쓰고 환두대도(環頭大刀)를 찬 두 사람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곧 고대 한국인으로 판단되었지만,² 어디에서 온 사절이었을까, 혹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묘사인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들을 고구려 사절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또 그간의 연구들이 ‘고구려가 당(唐)에 맞서기 위한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멀리 중앙아시아 사마르칸드까지 사절을 보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고구려의 왕도(王都) 평양성(平壤城)에서 7,000km 넘게 떨어진 곳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초원의 길 등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들 경로는 고구려의 영역 밖이었다. 이 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력은 있었는데 하는 점은 필수적인 의문에 해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이해에서는

* 투고: 2019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19년 8월 19일, 게재 확정: 2019년 8월 23일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시 역사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와 한국·우즈베키스탄의 교류” 국제학술회의(2019년 4월 17일, 사마르칸드시)에서 발표한 원고를 보완한 것이다.

1 발굴 경과와 벽화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穴澤啄光·馬目順一, 1976, 「アフラシヤブ都城址出土の壁畫にみえる朝鮮人使節」, 『朝鮮學報』 81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2 관련 내용의 소개는 盧泰敦, 1989, 「高句麗·渤海人と内陸아시아住民과의交渉에 관한 一考察」, 『大東文化研究』 23, 244쪽 및 권영필, 2008, 「아프라시압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43~57쪽의 정리를 참고하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나아가 고구려가 수천 km 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 제국(諸國) 혹은 서돌궐(西突厥)과 연결한다는 것이 과연 대외전략으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벽화의 서벽에는 소그드[康國]의 왕 바르후만[拂呼纒]과 돌궐인(突厥人)들, 그리고 고구려와 당의 사절이 함께 그려져 있다. 그동안의 연구는 고구려 사절로 보이는 인물들이 벽화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 장면은 강국을 방문한 사실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런데 고구려와 당은 645년 이래 교전을 이어오고 있었다. 적대관계에 서 있는 양국의 사절이 제3국에서 대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607년 동돌궐(東突厥) 계민가한(啟民可汗)의 아장(牙帳)에서 고구려 사절을 마주했을 때 수(隋) 양제(楊帝)가 보였던 당혹감과 분노를 상기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민가한의 변심으로 드러났던 동돌궐과 고구려의 연계 시도는 수측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례로 보아, 적대관계의 양국 사절이 강국의 왕정(王庭)에 나란히 서 있는 벽화의 내용은 사실을 묘사한 장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당시 고구려와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멀리 사마르칸드의 강국 궁정벽화에 고구려 사절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II. 문제의 제기

아프라시아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사절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어왔던 까닭은 고구려인의 발길이 그 먼 지역에까지 미쳤다는 점에 있다. 수·당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고구려가 다각적으로 연대의 상대를 구하였다라는 것은 6~7세기 국제관계에서 보이는 특이점의 하나였다. 이 점에서 아프라시아 벽화의 고구려 사절은 그 같은 노력이 중앙아시아 지역에까지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로 여겨졌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관심들은 연계의 구체적 내용을 살피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즉, 7,000여 km나 떨어진 지역을 상대로 고구려는 어떻게 협력을 꾀할 수 있었을까 또는 고구려가 연대하려 했던 상대는 어떤 세력이었을까 하는 점 등은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사절을 볼 때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의문점일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절의 경우 노선을 살핀 연구는 고구려가 과거 돌궐(突厥)·설연타(薛延陀)와 교섭했던 사실을 들어 고구려 사절이 몽골의 오르콘강 상류 초원지대에 이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프리카시압 벽화가 있는 사마르칸드까지는 소그드인의 조력을 받아 닿을 수 있었다³고 한다. 한편 당시 사마르칸드의 강국은 서돌궐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지리적 위치에서 서돌궐의 본거지 이리하-이식쿨 지역보다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고구려 사절이 사마르칸드에 이르려면 서돌궐 지역을 경유해야 했다는 점에서, 고구려 사절의 주 임무는 서돌궐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데 있었다고 이해된다.⁴

고구려인이 강국에 이를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이해를 위해 꽤나 고무적인 일이라 본다. 이를 토대로 교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
- 3 오르콘 상류의 초원지대에서 서쪽으로 셴룽계강 상류를 지나 한가이산맥(Khangai Mts.)의 북부지대를 거친 뒤, 알타이산맥을 넘어 준가리아에 들어간다. 준가리아에 서는 짐사(Dzimsa, 지금의 신강유오이자치구 길목살이현, 당의 庭州) 부근을 지나 일리강(ILI R.) 계곡을 통해 발하슈호(Balkhash L.) 남방의 제티수(Zhetysu, 七河 지방)에 도착한다. 여기에서 계속 서남쪽으로 나아가 이식쿨(Issyk Kul, 熱海)로 흘러들어가는 추강(Chu R, 楚河, 碎葉水)의 하류를 건너 탈라스(Talas)와 타슈켄트(Tashkent, 石國)를 지난 뒤 시르다리아(Syr-Daria)강을 건너 사마르칸드에 도착한다(이재성, 2013, 「아프리카시압 宮殿址 壁畫의 ‘鳥羽冠使節’에 관한 고찰-고구려에서 사마르칸드[康國]까지의 路線에 대하여」, 『중앙아시아연구』 18-2, 19쪽). 이보다 앞서 소략하지만 고구려가 당과 적대 상황에서 돌궐-소그드 관계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이해가 나온 바 있다(穴澤味光·馬目順一, 1976, 앞의 글, 31쪽; 권영필, 2008, 앞의 글, 34~35쪽).
- 4 여호규, 2018, 「7세기 중엽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 대외관계의 추이」, 『大丘史學』 133, 19~20쪽.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거기까지 나아가려 했던 전략은 무엇이며 그것은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 하는 문제부터 살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판단이 드는 까닭은 아래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A. “(貞觀)十九年, 謂其使人曰, 語爾可汗, 我父子竝東征高麗, 汝若能寇邊者, 但當來也. 夷男遣使致謝, 復請發兵助軍, 太宗答而優詔而止. 其冬, 太宗發遼東諸城, 破駐蹕陣, 而高麗莫離支潛令靺鞨誑惑夷男, 陷以厚利, 夷男氣懼不敢動, 俄而夷男卒, 太宗爲之舉哀. 夷男小子肆葉護拔灼襲殺其兄突利失可汗而自立, 是爲頡利俱利薛沙多彌可汗. 拔灼性褊急, 馭下無恩, 多所殺戮, 其下不附. 是時復以太宗尙在遼東, 遂發兵寇夏州, 將軍執失思力擊敗之, 虜其衆數萬, 拔灼輕騎遁去, 尋爲迴紇所殺, 宗族殆盡.” (『舊唐書』卷199下 北狄, 5346~5347쪽)

위 기록은 고구려가 투르크계 북방세력과 연대를 꾀한 실례로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설연타는 철륵(鐵勒)의 여러 부 가운데 하나로 힐리가한(頡利可汗)이 당에 패망하자, 동돌궐을 대신하여 북방 유목세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세력이었다. 당에 맞서기 위해 고구려가 손을 내밀 만한 존재였던 것이다. 더욱이 설연타의 수장 이남[夷男, 진주가한(眞珠可汗)]이 아장을 세운 곳은 울독군산[鬱督軍山, 도근산(都斤山) 혹은 오덕건산(烏德健山)이라고도 함, 현재 몽골 항애산(杭愛山, Khangai Mt.)] 아래로, 몽골 오르콘강 상류 초원지대 그곳이었다. 앞서 소개한 고구려 사절의 경유 노선 연구에 따르면, 고구려를 떠난 사절은 우선 여기에 이르고 나서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장도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점에서 고구려와 설연타의 접촉 사건은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섭 문제를 살피는 데 좋은 사례가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高麗莫離支潛令靺鞨誑惑夷男, 陷以厚利, 夷男氣懼不敢動.”의 구절이다. 이에 따르면 연개소문은 후리(厚利)를 내세워 설연타를 움직이려 했지만, 설연타의 진주가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많

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고구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진주가한은 당에 적대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설연타가 태도를 바꾸어 당을 공격한 것은 이 해 말의 일이었다. 당 태종이 고구려 전선에서 아직 귀환하지 않은 틈을 탄 군사행동이었다. 진주가한의 뒤를 이은 다미가한(多彌可汗)은 고구려와 당의 전쟁을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대비하고 있던 당군의 요격에 설연타는 대패하였고,⁵ 끝내 패망하고 말았다. 그 결말로 보아 진주가한이 감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연유를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다. 당은 고구려와의 전쟁에 나서면서도 설연타를 대비한 전력을 충분히 마련해두었고, 진주가한은 그러한 당의 강성함과 용의주도함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당과 전쟁 중인 고구려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당군의 창 끝을 자신에게 돌리게 하는 행동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설연타와 연계를 꾀하였던 것은 과연 실현 가능한 전략이었을까.⁶ 고구려의 외교가 북방 초원지대까지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나머지 그 연계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은 간과되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

5 당 태종은 출전에 앞서 장수 집실사력과 돌궐병을 夏州의 북쪽에 배치하여 설연타에 대비케 하였다(“上之征高麗也，使右領軍大將軍執失力將突厥屯夏州之北，以備薛延陀”). 태종이 고구려전쟁 기간에 북방 방어라는 중임을 집실사력에게 맡길 수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李孝宰, 2013, 「7세기 東突厥系 蕃將과 蕃兵의 활동- 麗唐戰爭 시기 활동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5, 191~195쪽을 참조.

6 설연타는 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꾀하였다. 이남은 당의 가한 책봉을 받고서야 아장을 열 수 있었고, 그 후원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時太宗方圖頡利，遣遊擊將軍喬師望從間道齋冊書拜夷男爲眞珠毗伽可汗，賜以鼓纛，夷男大喜，遣使貢方物，復建牙於大漠之北鬱督軍山下，在京師西北六千里，東至靺鞨，西至葉護，南接沙磧，北至俱倫水，迴紇·拔野古·阿跌·同羅·僕骨·霫諸大部落皆屬焉.”, 『舊唐書』 卷199下). 또한 위 기록에 언급되고 있듯이,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에 참전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설연타가 당 중심의 국제질서를 부정하고 거기에 항거하려 했다고는 여길 수 없다. 고구려와 당이 전쟁하는 사이에 당의 북변을 침범했지만, 전면적인 대결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는 것이다.⁷ 특히 고구려가 설연타를 움직이기 위해 나섰던 시점이 주필산(駐蹕山) 전투에서 패한 이후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그것도 대패를 당해 위기 상황에 몰리고 난 뒤에야⁸ 고구려는 설연타를 부추기려 했던 것이다. 대당 전략의 일환으로 당초부터 설연타와의 연계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점에서 고구려가 설연타를 움직이려 했던 것은 성사의 가능성을 보고 시도된 전략이라기보다는 위급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응급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나면 고구려가 설연타를 움직이려 했던 일은 우리의 관심사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섭을 살피는 데 중요한 문제를 던져준다. 즉,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효한 것이었는지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없고서는 고구려가 기울인 외교적 노력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

한편 고구려와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교섭을 살피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의 하나가 바로 고구려 왕도~가한의 아장 간 경로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위의 기록은 연개소문의 뜻이 몽골 오르콘강 상류 초원지대에 있던 진주가한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이때의 교섭은 말갈(靺鞨)을 매개로 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고구려 사절이 몽골 초원지대까지 나아갔는지의

7 위 사건을 두고 고구려에 호응한 설연타가 당을 침입했고, 이 때문에 고구려 전선에 나와 있던 당군이 퇴각하게 되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徐榮教, 2003, 「고구려의 대당전쟁(對唐戰爭)과 내륙아시아 제민족-安市城 전투와 薛延陀」, 『軍史』 49: 김지영, 2011, 「7세기 중반 거란의 동향 변화와 고구려-660년 거란의 이반을 기점으로」, 『만주연구』 12). 그러나 그렇게 보면 ‘진주가한의 사망-고구려 전선의 당군 미환-설연타의 침공-집실사력 군의 요격’이라는 시간적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李成制, 2015, 「高句麗와 투르크계 北方勢力의 관계」, 『高句麗渤海研究』 52, 159~162쪽 참조.

8 『舊唐書』 卷199上 東夷 高麗. “延壽·惠眞率十五萬六千八百人請降, 太宗引入轅門. 延壽等膝行而前, 拜手請命. 太宗僞薩以下酋長三千五百人, 授以戎秩, 遷之內地, … 高麗國振駭, 后黃城及銀城並自拔, 數百里無復人烟.”

여부도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말갈을 매개로 하였다는 것은 고구려가 직접 사절을 보낼 수 있는 지역적 범위가 제한적이었음을 알려준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묘사 상황이 650년대 전반기라고 한다 면,⁹ 이 무렵 고구려의 연계 시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력은 누구였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살핀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¹⁰ 한편 중앙아시아 지역은 몽골 초원에서 다시 서쪽으로 천산산맥을 지나 한참을 더 나아가야 이를 수 있는 그야말로 멀고 먼 곳이었다. 이에 대해 최근의 연구는 몽골초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는 데 소그드인의 협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소그드인은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일부, 아마다리야와 시르다리아강 사이의 소그테어나 지방이라 부른 오아시스에 살았던 이란계 사람이다. 이들은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을 담당했던 상인으로 유명하며, 중국 후한(後漢) 시대 이후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하며 활약하였다. 고구려인에게는 거의 미지의 세계였을 수천 km의 경로를 오갔던 이들인 것이다. 이 점에서 이들이 협력해준다면 몽골 초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소그드인들은 당시 국제질서의 바깥에 놓여 있던 독립적인 세력이

-
- 9 고구려 사절이 그려진 서벽 벽화에서는 이 벽화의 주제와 제작 연대를 알려주는 명문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이 벽화의 주인공이 바르후만왕임을 알 수 있다. 바르후만왕은 당 高宗이 康居都督으로 冊封했던 拂呼纒(『新唐書』卷221下 西域下, “高宗永徽時, 以其地爲康居都督府, 卽授其王拂呼纒爲都督.”)과 동일인이다(O. I. 스키르노바가 밝힌 사실이라고 하는데, 관련 글은 구하지 못하였다). 벽화는 그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가장 기념할 만한 일을 묘사한 것으로 재위 말년인 690년대에 제작되었다고 한다(야케그리아모프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구하여 보지 못하였다. 관련 내용은 穴澤啄光·馬目順一, 1976, 앞의 글, 13쪽). 그간의 연구에서는 묘사된 상황의 시기를 655년을 전후한 시기로 보아왔다. 필자는 서돌궐과 당, 그리고 고구려가 모두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650년대 전반기라고 보겠다.
- 10 고구려와 설연타의 교섭을 매개해준 말갈에 대해서는 粟末靺鞨이라고 보는 이해(이재성, 2013, 앞의 글, 17쪽)가 있을 뿐이다.

결코 아니었다. 동돌궐이 강성했을 때에는 그 세력 내에 있던 소그드인들이, 그 패망 이후에는 대거 당에 투항해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를 말하여준다. 특히 당에 들어간 소그드인들은 당의 주현(州縣)체제 아래 편제되어, 그 수령들은 당의 관인(官人)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당의 관리로서 특권을 얻는다는 측면보다 저들의 본업인 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평가된다.¹¹ 이러한 성향으로 보아, 소그드인들이 당에 반하는 행위임에 분명한 일의 성사를 위해 유라시아 대륙의 동반부를 관통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에 협력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Ⅲ. 서돌궐(西突厥)의 대두(擡頭)와 당군(唐軍)의 원정(遠征)

이제 앞 장의 논의를 토대로 650년대 전반의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북방 유목세계는 어떤 정세를 보이고 있었는가를 살필 차례다. 당의 거센 공격을 받은 설연타는 결국 646년 괴멸하고 만다. 이로써 몽골 초원은 당의 지배 아래 들어가, 서쪽으로는 알타이산맥 동쪽까지 북으로는 고비사막 이북에 당의 도독부(都督府)와 자사부(刺史府)가 들어서게 되었다.¹² 그리고 설연타의 뒤를 이어 당에 대항한 세력이 서돌궐이었다. 그동안 당에 맞섰던 세력은 막북(漠北)의 여러 세력이었는데, 그 중심이 알타이산맥을 넘어 천산산맥(天山山脈) 서북의

11 이상의 소그드인에 대한 이해는 福島惠의 연구를 참조하였다(福島惠, 2017, 『東部ニユラシアのソグド-ソグド人漢文墓誌の研究』, 汲古書院). 한편 당은 서역으로 들어가는 문호인 하미(현 新疆自治區 哈密市)를 차지한 뒤 西伊州를 설치했다가 632년 이주로 개칭하고, 伊吾·納職·柔遠의 3개 현을 설치하여 내지와 동일하게 편제하였다(『新唐書』 卷40 地理4. “伊州伊吾郡, 下. 本西伊州, 貞觀六年更名. … 戶二千四百六十七, 口萬一百五十七, 縣三, 伊吾·納職·柔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길은 天山산맥 동쪽부터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다.

12 이 시기 당의 통제력이 몽골 초원 전역으로 미치게 되었던 경과에 대해서는 정재훈, 2016,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사계절, 379~388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서돌궐로 옮겨졌던 것이다.

서돌궐의 성장을 이끈 아사나하로(阿史那賀魯)는 당의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요지도독(瑤池都督)에 임명되었던 이로, 당 태종 사후 10성(姓) 부락¹³을 통합하기 시작하여 650년 무렵에는 사발략가한(沙鉢略可汗)을 칭하며 당에 반기를 들었다.¹⁴ 천산산맥 서북방의 이리하(伊犁河)와 이식쿨(Issyk-kul)호(湖) 일대를 거점으로 했던 서돌궐이 당에 대적하자,¹⁵ 천산산맥 동부의 처월부(處月部) 등도 호응하여 당에 대항하였다.¹⁶

그러자 당은 652년과 655년¹⁷ 그리고 657년에 걸쳐 세 차례 원정군을 파견하였고, 658년 2월 석국(石國,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아사나하로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¹⁸ 특히 657년의 원정은 소정방(蘇定方)을 이려도행군대총관(伊麗道行軍大總官)으로 삼아 천산산맥 남북의 두 경로로 진공했던 것으로,¹⁹ 도주한 아사나하로를 석국까지 추격했다는 점에서 당이 사태 해결에 기울인 관심의 정

13 서돌궐은 현재의 신강위구르자치구와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강역으로 하였다. 10성은 서돌궐을 구성한 부를 가리키는데, 碎葉(키르기스스탄의 토크마크 지역) 동쪽에 거주했던 다섯 부락의 연합체 咄陸과 그 서쪽에 거주했던 다섯 부락의 연합체 弩失畢로 나뉜다(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1-新唐書 外國傳 譯註 上』, 183쪽).

14 『舊唐書』 卷4 高宗 永徽元年 12月.

15 『舊唐書』 卷4 高宗 永徽2年 7月. “丁未, 賀魯寇陷金嶺城·蒲類縣, 遣武侯大將軍梁建方·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弓月道總管以討之.”

16 『新唐書』 卷3 高宗 永徽2年 12月. “壬子, 處月朱邪孤注殺招慰使單道惠, 叛附于賀魯.”

17 『舊唐書』 卷4 高宗 永徽6年 5月. “癸未, 命左屯衛大將軍·盧國公程知節等五將軍帥師出葱山道以討賀魯.”

18 『舊唐書』 卷4 高宗 顯慶3年 2月. “壬午, … 蘇定方攻破西突厥沙鉢羅可汗賀魯及啞運·闕啜, 賀魯走石國, 副將蕭嗣業追擒之, 收其人畜前後四十餘萬, 甲寅, 西域平, 以其地置濠池·崑陵二都護府.”

19 당군의 공격로와 전투 지역에 대해서는 任寶磊, 2012, 「多邏斯川, 双河及金牙山-唐將蘇定方西征路線考辨」, 『中國歷史地理論叢』 27-3의 내용이 상세하다. 특히 천산산맥의 남북로에서 雙河와 金牙山까지의 경로를 지도로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앞서 고구려가 설연타를 움직이려 시도했던 사례가 있고, 서돌궐은 650년 대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반당세력이라는 점에서 고구려의 새로운 연계 상대가 될 만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고구려 사절이 서돌궐에 이르렀고, 그 예하에 있던 강국(康國), 즉 현재의 사마르칸드까지 방문했다고 보기도 한다.²⁰ 고구려 사절이 서돌궐에 가기 위해서는 몽골 초원을 지나 알타이산맥을 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기록은 서돌궐로 가는 경로가 몽골 초원에서 가로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B-1. “阿史那賀魯之盜北庭，婆閏以騎五萬助契苾何力等破賀魯，收北庭，又從伊麗道行軍總管任雅相等再破賀魯金牙山，遷右衛大將軍，從討高麗有功。”(『新唐書』卷217上 回鶻上, 6113쪽)

-2. “公諱乙突，朔野金山人，蓋鐵勤之別部也，… 皇朝左武衛大將軍·金微州都督，… 及父歿，傳嗣還(授)本部都督，統率部落，遵奉聲教，迴首面內，傾心盡節，俄以賀魯背誕，方事長羈，爰命熊罷之軍，克剿犬羊之衆，公迺先鳴制勝，直踐寇庭，無勞拔識之謨，卽取塞旗之效。”
「僕固乙突墓誌」

B-1 기록에 등장하는 파운(婆閏)은 설연타가 사라진 몽골 초원에서 새롭게 세력을 키우고 있던 회골(回鶻, 회홀(回紇) 또는 위구르)의 수장이었다. 그런 그가 서돌궐 아사나하로를 공격하기 위해 편성된 원정군에 5만의 병력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657년의 원정에도 참여하여 소정방을 도와 금아산(金牙山)에서 아사나하로를 격파하였고, 그 공으로 우위대장군(右衛大將軍)에 오르

20 권영필, 2008, 앞의 글, 57~59쪽; 방용철, 2015, 「연개소문의 집권과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동」, 『韓國古代史研究』 80, 187~188쪽; 여호규, 2018, 앞의 글, 19~20쪽.

기도 하였다. 설연타를 격파한 당이 몽골 초원을 통제해 나갔고,²¹ 거기에 부응하여 회골은 당의 서돌궐 원정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다.

B-2 기록은 금미도독(金微都督) 복고을돌(僕固乙突)의 묘지(墓誌) 일부로, 2009년 몽골공화국의 울란바토르에서 북서쪽으로 280km 떨어진 터우아이막 자마르숨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다.²² 금미도독의 금미주(金微州)는 설연타의 멸망 뒤 복고부가 당에 복속하자 여기에 두어진 기미주(靺廝州)였다.²³ 복고부는 회골과 함께 철록(鐵勒)의 9성을 이루는 유력 부족이었다.²⁴ 그러한 부의 수장인 복고을돌이 당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아사나하로를 공격하여 공을 세웠음을 위의 묘지 기록은 전하고 있는 것이다.

B-1 기록에 따르면 당의 서돌궐 공격에는 회골부만이 참전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복고을돌의 묘지 기록으로 당시 공격군에는 복고부를 포함한 다른 철록 제부도 포함되어 있었다²⁵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설연타가 사라진 몽골 초원에

21 당은 유목 부락들의 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그 고유 영역을 보장함과 동시에 군사적 동원을 통해 이들의 물적 욕구를 충족시켰다(정재훈, 2016, 앞의 책, 387쪽).

22 관련 묘지기록은 石見清裕의 글(石見清裕, 2014, 「靺廝支配期の唐と鐵勒僕固部-新出「僕固乙突墓誌」から見て-, 『東方學』 127)에서 취하였다. 이 묘지의 발견으로 복고부를 포함한 철록 제부의 지리적 분포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중국학계는 복고부의 위치를 몽골리아의 동부, 울란바토르의 동쪽으로 설정해왔다(譚其驥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 第5冊, 74쪽). 그러나 복고을돌이 울란바토르의 북서 280km 지점에 매장되었다는 점에서 그간의 이해는 동쪽으로 지나치게 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石見清裕, 2014, 앞의 글, 10~11쪽).

23 『舊唐書』 卷199下. “(貞觀)二十一年, 契苾·迴紇等十餘部落以薛延陀亡散殆盡, 乃相繼歸國. 太宗各因其地土, 擇其部落, 置爲州府, 以迴紇部爲瀚海都督府, 僕骨爲金微都督府, … 凡一十三州. 拜其酋長爲都督·刺史, 給玄金魚以爲符信, 又置燕然都護以統之. 是歲, 太宗以鐵勒諸部並皆內屬, 詔賜京城百姓大酺三日.”

24 『唐會要』 卷98 回紇. “其九姓一曰回紇, 二曰僕固, 三曰渾, 四曰拔曳固(卽拔野古), 五曰同羅, 六曰思結, 七曰契苾, 以上七姓部, 自國初以來, 著在史傳, 八曰阿布思, 九曰骨崙屋骨, 恐此二姓天寶後始與七姓齊列.”

25 石見清裕, 2014, 앞의 글,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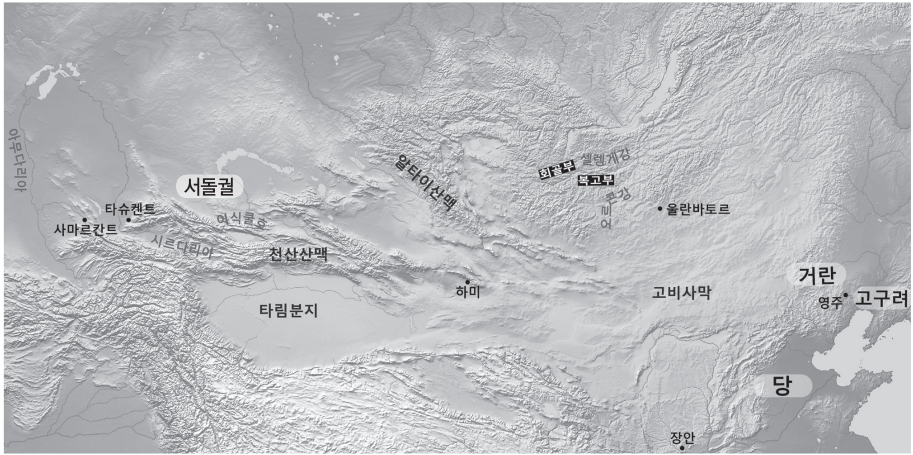


그림 1 650년대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분포도

는 회골과 복고부를 비롯한 철록 제부가 남아 있었지만, 이들 모두는 당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다. 서돌궐이 당에 저항하자 철록 제부는 그 토벌군의 일원으로 동원되었고, 그 공을 인정받은 수장은 당의 고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몽골 초원을 통과하여 서돌궐로 가려는 시도가 무망했음을 알려준다. 650년대 전반기의 시점에서 몽골 초원은 당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 지배의 정도는 한 차례의 원정에 5만의 병력을 문제없이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했다면 고구려가 서방으로 사절을 보내려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절은 몽골 초원을 벗어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당시 주요 세력들의 지리적 위치를 <그림 1>에 표시하였다.

그러면 서돌궐과 당의 대결이 한창이던 무렵, 고구려가 보인 움직임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이 눈길을 끈다.

C. “冬十月，王遣將安固出師，及靺鞨兵，襲契丹，松漠都督李窟哥禦之，大敗我軍於新城.”，(『三國史記』卷22，高句麗 寶藏王 13年)

위 기록에 따르면 654년 10월 고구려는 장수 안고(安固)를 보내 거란(契丹)을 기습하였다. 신성(新城)에서 벌어진 전투는 결국 고구려군의 패배로 끝났지만²⁶ 이 사건이 가진 의미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그간의 대당관계에서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고구려가 모처럼 보인 공세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무렵 당은 서돌궐 방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정군을 거듭 보내고 있었다. 당의 관심이 서돌궐 방면에 모아져 있던 틈을 타서, 고구려는 군사행동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고구려가 서요하(西遼河) 중상류의 거란 방면으로 진출하려 했다고 이해하고 있다.²⁷ 전투가 벌어진 신성은 요령성(遼寧省) 무순시(撫順市)의 신성이 아니라 시라무렌하의 신성이며,²⁸ 토호진수(吐護眞水)에서 또 다른 전투가 벌어졌다는 점²⁹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는 611년 무려성(武厲城)을 상실한 뒤 요하 이서의 지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³⁰ 이 점을 고려하면 요하선상에서 당과 대치하고 있었을

26 보다 자세한 내용이 『新唐書』에 전한다(『新唐書』卷220 高麗, “永徽五年, 藏以靺鞨兵攻契丹, 戰新城, 大風, 矢皆還激, 爲契丹所乘, 大敗, 契丹火野復戰, 人死相藉, 積尸而冢之. 遣使者告捷, 高宗爲露布于朝.”).

27 나동욱, 2009, 「7세기 중반 고구려의 동몽고 진출과 군사전략」, 『韓國史研究』 144;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재성, 2011, 「麗唐戰爭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 26; 김지영, 2011, 앞의 글; 방용철, 2015, 앞의 글; 여호규, 2018, 앞의 글.

28 노태돈, 2009, 앞의 책, 118~119쪽; 이재성, 2011, 앞의 글, 184~192쪽.

29 『舊唐書』卷77, 韋挺傳 附 待價, “子待價, 初爲左千牛備身. 永徽中, 江夏王道宗得罪, 待價卽道宗之壻也. 緣坐左遷盧龍附果毅. 時將軍辛文陵率兵招慰高麗, 行至吐護眞水, 高麗掩其不備, 襲擊敗之. 待價與中郎將薛仁貴受詔經略東蕃, 因率所部救之. 文陵苦戰, 敵漸退, 軍始獲全. 待價被重瘡, 流矢中其左足, 竟不言其功, 以足疾免官而歸.”

30 무려성은 고구려가 遼河 以西의 요서 동부지역에 마련한 주요 거점의 하나였다. 현재의 北鎮市 寥屯鄉 大亮甲村 지역에 있던 이곳은 漢代 이래 요서 동부지역의 요지였을 뿐 아니라 요서와 요동을 오가는 교통로의 경유지였다(李成制, 2013, 「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厲邏」, 『大丘史學』 113).

고구려가 갑자기 서요하 중상류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일단 거란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고구려가 요하 이서 지역의 회복을 의도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하기로 한다.

IV. 아프리카시압 궁정벽화의 고구려 사절과 돌궐인(突厥人)의 세계(世界) 인식(認識)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지역 간의 왕래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적어도 650년대 전반의 시기, 몽골 초원의 철륵 제부는 당에 복종하며 충실한 변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이로써 고구려에서 서방으로의 교통은 몽골 초원에서부터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고구려 사절의 모습이 아프리카시압 궁정벽화에 그려진 배경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벽화의 구성 내용에 관심이 간다. 벽화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시압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궁정벽화의 복원도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보겠다.

아프리카시압 궁정벽화는 동서남북의 4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구려 사절이 그려진 곳은 서벽이다. 이 벽면의 윗부분은 발굴 이전부터 훼손되어 없어졌고, <그림 2>가 남아 있는 복원도다. 하단의 오른쪽 끝에 보이는 고구려 사절 두 명을 포함하여 등장인물은 모두 58명이다.³¹ 정면 상단의 바르후만왕을 중심으로 중앙에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 차레를 기다리고 있는 대열이 있고, 그 좌우로 앉아 있는 그룹들과 그 아래로 사절들의 모습이 보인다. 적어도 현재의 복원도

31 권영필은 모데(M. Mode, 1993)의 복원도를 근거로 이들의 수효를 48명이라 하여 (권영필, 2008, 앞의 글, 40쪽), 현지 박물관의 복원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바르후만왕의 모습과 좌우의 시종들, 그리고 좌우측의 인물군 구성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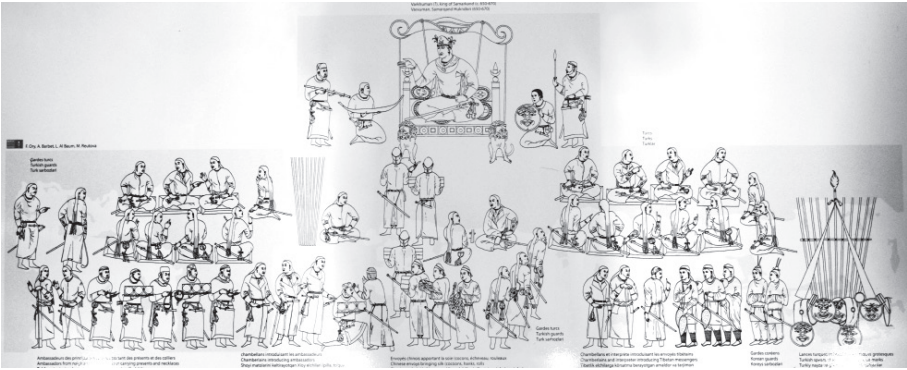


그림 2 궁정벽화 서벽 부분의 복원도. 강승우 촬영

에 따르면 이 벽화는 고구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보낸 사절들이 강국의 바르후만왕에게 예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³²

그런데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보면, 이 벽화의 묘사는 역사적 사실을 그려낸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를 벽화의 구성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면 중앙부에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 차레를 기다리는 대열이 있는데, 가장 아래에 보이는 세 사람은 당이 보낸 사절이라고³³ 한다. 즉, 묘사된 내용으로 보면 당의 사자가 사마르칸드의 강국 궁정을 방문했을 때, 고구려 사절도 거기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된다.

고구려와 당은 645년 이래 교전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벽화는 적대 관계에 서 있던 양국 사자가 바르후만왕 앞에서 대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607년 동돌궐 계민가한의 아장에

32 穴澤啄光 등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 벽화에 묘사된 사절단의 방문은 바르후만왕의 치세 말년인 690년대 이전에 행해졌다(穴澤啄光·馬目順一, 1976, 앞의 글, 13쪽).

33 穴澤啄光·馬目順一, 1976, 위의 글, 8쪽.

서 벌어졌던 사건이 떠오른다.³⁴ 계민가한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수 양제는 장성(長城) 인근의 유림(楡林)까지 나아가 계민의 아장을 방문하였다. 거기에서 양제는 때마침 와 있던 고구려 사자를 목도하였고, 당혹감과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다.³⁵

그런데 계민가한의 아장에 고구려 사자가 와 있다는 사실은 본래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다. 고구려 사자가 머물고 있다는 것은 계민이 수와 고구려 사이에서 앞으로의 향배를 저울질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수 양제의 북방 순행으로 발각되기까지 양국은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고구려와 당의 사절이 강국의 왕정에 나란히 서 있는 벽화의 내용은 사실을 묘사한 장면으로 볼 수 없다. 고구려 사자가 강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측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던 것이다.³⁶

필자는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사절의 모습이 고구려인에 대한 이미지 혹은 도상(圖像)³⁷이라고 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도상의 출처는 당으로, 장안

34 『隋書』卷67 裴矩傳, “從帝巡于塞北, 幸啓民帳, 時高麗遣使先通于突厥, 啓民不敢隱, 引之見帝, 矩因奏狀曰 高麗之地, 本孤竹國也, 周代以之封于箕子, 漢世分爲三郡, 晉氏亦統遼東, 今乃不臣 別爲外域, 故先帝疾焉, 欲征之久矣, 但以楊諒不肖, 師出無功, 當陛下之時, 安得不事, 使此冠帶之境, 仍爲蠻貊之鄉乎, 今其使者朝於突厥, 親見啓民, 合國從化, 必懼皇靈之遠暢, 慮後伏之先亡, 魯令入朝, 當可致也, 帝曰, 如何, 矩曰, 請面詔其使, 放還本國, 遣語其王, 今速朝覲, 不然者, 當率突厥, 即日誅之, 帝納言, 高元不用命, 始建征遼之策.”

35 고구려와 동돌궐 간의 교섭과 이를 둘러싼 제 논의에 대해서는 李成制, 2015, 앞의 글, 153~156쪽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36 강국은 631년 당에 사절을 보내 臣屬하기를 청하였지만, 태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이 생기면 군대가 1만 리를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가치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新唐書』卷221下 西域下 康國). 이 일화는 강국 나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이 당시 국제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던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강국은 이후에도 사절을 보내 진귀한 동물 등의 공물을 당에 바치곤 하였다.

37 Kageyama Etsuko, 2002, “A Chinese way of depicting foreign delegates discerned in the painting of Afrasiab”, *Sutudia Iranica*, No. 25, Paris; 정호섭, 2013, 「鳥羽冠을 쓴 人物圖의 類型과 性格 - 외국 자료에 나타난 고대 한국인의 모습을 중심으로」, 『嶺南學』 24.

(長安)이나 둔황(燉煌)에서 전해져 현지에서 그것에 따라 그린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고구려인이 벽화의 끝자락을 차지하고 있는 배치는 그 나라가 동쪽의 끝에 자리한 국가라는 인식 아래 나온 것이며, 그 같은 세계관(世界觀)은 당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본다.

궁정 벽화의 인물 배치는 강국(康國)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이나 지리적 이해 속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의 출처(出處)가 과연 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고구려 사절이 그려진 서벽 벽화의 인물 배치를 보면, 정면의 바르후만왕이 앉아 있는 단 아래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무리가 있고, 다시 그 아래에 고구려 사신을 비롯한 각국의 사절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서 왕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들에 관심이 간다. 이들은 돌궐인³⁸으로 외국 사절로 이루어진 대열과는 뚜렷한 구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바르후만왕의 국정 운영을 곁에서 지켜보는 듯한 모습인데, 당시 강국이 서돌궐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사정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반면 당의 사절은 예물을 왕에게 바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대열 속에서 보인다. 적어도 벽화의 묘사는 강국에 미치고 있던 당의 영향력이 대단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강국에서 볼 때 동쪽의 끝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아래의 기사는 그 같은 인식이 돌궐인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준다.

D. “(그들의 장례식에) 문상객(으로서) 동쪽에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뷔클리(필자 주: 고구려), 쉘 백성, 중국, 티베트, 아바르, 비잔틴 ... 거란, 타타브(奚) 이만큼의 백성이 와서 애도하였다고 한다.” <켈 테긴 비문>³⁹

38 루스탐 X, 술레이마노프, 2008, 「7세기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에 대한 40년간의 연구결과」, 『중양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312~313쪽.

위 기록은 몽골의 오르콘 강가에서 발견된 돌궐비(732년 제작)의 내용으로, 기술 내용이 켈 테긴의 조상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시점은 8세기 당시가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기가 된다. 여기에서 동쪽 끝, 해가 뜨는 곳의 나라로 고구려를 지목하고 있다. 즉, 돌궐인들은 고구려가 동쪽 끝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벽화의 끝자락에 고구려 사절을 배치한 세계관은 바르후만왕의 전면에 앉아 사절을 굽어볼 수 있었던 서돌궐인들에게서 유래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나아가 도상의 계통 역시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간의 연구들은 조우관(鳥羽冠)을 쓰고 있는 모습을 중시하였지만, 사마르칸드 궁정벽화의 고구려 사절처럼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중원(中原)에서 나온 각종 인물도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당 장희태자묘(章懷太子墓)의 사신도에 보이는 비무장으로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와 달리, 고구려인을 허리에 칼을 찬 무인(武人)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별개의 정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돌궐비인 <빌개 가한 비문>의 뷔클리, 즉 고구려에 대한 언급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그 선대가 중국에 예속되어 있을 때 해 뜨는 곳 뷔클리까지 출정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⁴⁰ 돌궐인에게 고구려는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551년 돌궐의 군대가 고구려의 신성(新城)과 백암성(白巖城)을 공격해 왔던 일이나 7세기 초 돌궐이 고구려와 교역(交易)했던 사실 등은⁴¹ 돌궐과 고구려의 교류가 결코 일시적이거나 어느 한 방면에 치우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나아가 비문 내용처럼 돌궐인들은 수나 당의 번병(蕃兵)으로 고구려 전선에 동원

39 Talat Tekin, 이용성 역, 2008, 『돌궐비문연구』, 제이앤씨, 90쪽.

40 “중[국에 봉사하는] (튀르크) 베그들은 중[국 칭호를 받아들여 중국 황제에게 예속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50여 년 동안] 봉사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동쪽으로는 해 뜨는 곳에서 뷔클리 [7]간까지 출정하였다고 한다.”(Talat Tekin, 이용성 역, 2008, 위의 책, 136쪽).

41 『三國史記』 卷 19 陽原王 7年(551) 및 『舊唐書』 卷75 韋雲起傳.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돌궐인이 가지게 되었을 고구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동쪽의 끝, 해가 뜨는 곳의 나라라는 지리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믿어진다. 서돌궐 혹은 강국인에게 중앙아시아까지 그 세력을 뻗어오고 있는 당의 위세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당의 거듭된 공격을 좌절시키고 있던 고구려의 저력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인상적인 존재야말로 강성한 당의 사절과 함께 바르후만왕의 치세를 보다 더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벽화의 등장인물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여겨진다.

V. 맺음말

수·당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고구려가 다각적으로 연대의 상대를 구하였다는 것은 6~7세기 국제관계에서 주목되는 현상의 하나다. 그간의 연구들은 그 사례의 하나가 아프리카시암 궁정벽화의 고구려 사절이라고 보아왔다. 하지만 벽화에 고구려 사절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에만 주목한 나머지 과연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피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다. 당시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정세에 대한 이해가 소홀했던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몽골 초원과 천산(天山)산맥 동쪽의 정세를 살펴보았다.

당의 거센 공격을 받은 설연타(薛延陀)는 646년 괴멸하였고, 몽골 초원은 당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서쪽으로는 알타이산맥 동쪽까지 북으로는 고비사막 이북에 당의 도독부(都督府)와 자사부(刺史府)가 들어섰던 것이다. 이후 새롭게 당에 대항한 세력이 서돌궐(西突厥)이었다. 그동안 당에 맞섰던 투르크계 북방세력은 막북(漠北)의 여러 세력이었는데, 그 중심이 알타이산맥을 넘어 천산산맥 서북의 서돌궐로 옮겨졌던 것이다.

서돌궐은 반당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연계 상대가 될 만하였지만, 고구려에서 서돌궐로 가는 경로는 가로막혀 있었다. 그 경유지인 몽골 초원이

당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다. 당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회골(回鶻)·복고부(僕固部) 등의 철록(鐵勒) 제부(諸部)를 서돌궐 토벌군의 일원으로 동원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고구려에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오갈 수 있었다고 본 그간의 이해와는 달리 고구려가 사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몽골 초원을 벗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이 무렵 고구려가 말갈병을 동원하여 거란을 공격한 사건은 대당관계에서 방어로 일관했던 고구려가 모처럼 보인 공세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요하 이서 지역의 회복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연구에서 아프라시압 벽화의 고구려 사절은 이들이 강국(康國)을 방문했다는 실제 사실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이 벽화에는 고구려와 적대관계에 있던 당의 사절도 그려져 있다. 607년 동돌궐(東突厥) 계민가한(啟民可汗)의 아장(牙帳)에서 수(隋) 양제(楊帝)가 고구려 사절을 마주했을 때 보였던 당혹감과 분노를 떠올려보면, 고구려와 당의 사절이 강국의 왕정(王庭)에 나란히 서 있는 벽화의 내용은 사실을 묘사한 장면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벽화에는 돌궐인들이 왕을 중앙에 두고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마치 강국 국왕의 국정 운영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강국이 서돌궐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반면 당의 사절은 예물을 왕에게 바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대열 속에서 보인다. 적어도 벽화의 묘사는 강국에 미치는 당의 영향력이 서돌궐에 견줄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고구려인의 모습을 벽화의 끝자락에 배치한 지리적 인식이나 세계관은 당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유사한 인식이 <궐 태긴 비문> 등의 돌궐비(突厥碑)에 보인다는 점에서 고구려는 동쪽의 끝에 있는 나라라는 세계관은 돌궐인에게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고구려 사절을 조우관을 쓰고 칼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 도상 역시 중원(中原)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비무장으로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중원계 도상의 이미지와 달리, 고구려인을 허리에 칼을 찬 무인(武人)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6세기 이래 양국의 교류를 통해, 돌궐인에게 고구려는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심지어 돌궐인들은 수·당의 변병(蕃兵)으로 고구려 전선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돌궐인들은 고구려에 대해 동쪽의 끝, 해가 뜨는 나라라는 지리관을 넘어서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고구려는 저 강성한 당의 거듭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대항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상적인 고구려였기에 강성한 당의 사절과 함께 바르후만왕의 치세를 더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등장인물로 벽화에 묘사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隋書』
『唐會要』
『舊唐書』
『新唐書』
『三國史記』

穴澤啄光·馬目順一, 1976, 「アフラシヤブ都城址出土の壁畫にみえる朝鮮人使節」,
『朝鮮學報』 81.

譚其驤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 제5책.

노태돈, 1989, 「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 『大東
文化研究』 23.

Kageyama Etsuko, 2002, “A Chinese way of depicting foreign delegates discerned
in the painting of Afrasiab”, *Sutudia Iranica*, No. 25, Paris.

徐榮教, 2003, 「고구려의 대당전쟁(對唐戰爭)과 내륙아시아 제민족-安市城 전투와
薛延陀」, 『軍事』 49.

권영필, 2008, 「아프라시아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대한 연구」, 『중앙아시아 속
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루스탐 X. 슬레이마노프, 2008, 「7세기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대한 40년간의 연구결
과」,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Talat Tekin 저·이용성 역, 2008, 『돌궐비문연구』, 제이앤씨.

나동욱, 2009, 「7세기 중반 고구려의 동몽고 진출과 군사전략」, 『韓國史研究』 144.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지영, 2011, 「7세기 중반 거란의 동향 변화와 고구려-660년 거란의 이반을 기점으로」,
『만주연구』 12.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1-新唐書 外國傳 譯註 上』.

任寶齋, 2012, 「多羅斯川, 双河及金牙山-唐將蘇定方西征路線考辨」, 『中國歷史

- 地理論叢』27-3.
- 이재성, 2011, 「麗唐戰爭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26.
- 李成制, 2013, 「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厲邏」, 『大丘史學』113.
- 이재성, 2013, 「아프라시아 궁전지 벽화의 '조우관사절'에 관한 고찰-고구려에서 사마르칸드(康國)까지의 路線에 대하여」, 『중앙아시아연구』18-2.
- 李孝宰, 2013, 「7세기 東突厥系 蕃將과 蕃兵의 활동-麗唐戰爭 시기 활동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125.
- 정호섭, 2013, 「鳥羽冠을 쓴 人物圖의 類型과 性格-외국 자료에 나타난 고대 한국인의 모습을 중심으로」, 『嶺南學』24.
- 石見清裕, 2014, 「靺鞨支配期の唐と鐵勒僕固部-新出「僕固乙突墓誌」から見て」, 『東方學』127.
- 방용철, 2015, 「연개소문의 집권과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동」, 『韓國古代史研究』80.
- 李成制, 2015, 「高句麗와 투르크계 北方勢力의 關係-이해의 방향과 연구방법의 모색」, 『高句麗渤海研究』52.
- 김호동, 2016, 『아틀라스 중앙아시아사』, 사계절.
- 정재훈, 2016,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사계절.
- 福島恵, 2017, 『東部ユラシアのソグド-ソグド人漢文墓誌の研究』, 汲古書院.
- 여호규, 2018, 「7세기 중엽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 대외관계의 추이」, 『大丘史學』133.

650년대 전반기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동향과 고구려

- 고구려 사절이 아프리카시암 궁정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

이성제

그간의 연구는 고구려 사절로 보이는 인물들이 벽화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 장면은 이들이 강국(康國)을 방문한 사실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런데 이 벽화에는 당(唐)의 사절도 그려져 있다. 적대관계에 있던 양국의 사절이 제3국에서 대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607년 동돌궐(東突厥) 계민가한(啟民可汗)의 아장(牙帳)에서 수 양제가 고구려 사절을 마주했을 때 보였던 당혹감과 분노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와 당의 사절이 강국의 왕정(王庭)에 나란히 서 있는 벽화의 내용은 사실을 묘사한 장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벽화에는 돌궐인들이 왕을 중앙에 두고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마치 왕의 국정 운영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당시 강국이 서돌궐(西突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반면 당의 사절은 예물(禮物)을 바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대열 속에서 보인다. 적어도 벽화의 묘사는 강국에 미치고 있던 당의 영향력이 대단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고구려인의 모습을 벽화의 끝자락에 배치한 강국인

의 지리인식(地理認識)과 세계관(世界觀)은 당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고구려가 동쪽 끝에 있는 나라라는 인식은 <궐 테긴 비문>에 보인다. 벽화의 지리인식과 세계관은 서돌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조우관을 쓰고 칼을 찬 모습의 도상 역시 당이 아닌 다른 계통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중원(中原)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비무장(非武裝)으로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인 데 반해, 이 도상은 허리에 칼을 찬 무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돌궐과 고구려는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에서 교류하였다. 나아가 돌궐인들은 수(隋)나 당(唐)에 의해 고구려 전선(戰線)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돌궐인들이 가지게 되었을 고구려에 대한 이미지는 동쪽의 끝, 해가 뜨는 나라라는 지리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서돌궐 혹은 강국인이 중앙아시아까지 그 세력을 뻗어오고 있는 당의 위세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당의 거듭된 공격을 헛되이 만들고 있던 고구려의 저력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인상적인 존재야말로 강성한 당의 사절과 함께 바르후만 왕의 치세를 보다 더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등장인물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여겨진다. 아프라시아 벽화의 고구려 사절이 가진 역사적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아프라시아 궁정벽화, 고구려 사절, 서돌궐(西突厥), 조우관(鳥羽冠), 궐 테긴 비문

ABSTRACT

A Trend of Turkic Northern Power and Koguryo in the First Half of the 650s: A Review on the Background for the Appearance of Koguryo Envoys in the Wall Painting of Afrasiab Palace

Lee Seongj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figures who are believed to be Koguryo envoys appear in the wall painting of Afrasiab Palace, and considered that the scene of the wall painting are portraying the actual fact that the envoys visited Samarkand (康國). However, this wall painting also depicts the envoys of the Tang Dynasty. Could it be possible that the envoys of the two countries in a hostile relationship faced each other in a third countr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call the embarrassment and anger that were observed when Emperor Yang of Sui (隋煬帝) faced with the envoys of Koguryo in 607 at Yazhang (牙帳) of Qimin Khan (啟民可汗) of Eastern Turkic Khaganate (東突厥). The scene of the wall painting, in which the envoys of Koguryo and Tang are standing side by side in the courtyard of

Samarkand, is hardly seen to be depicting the fact.

The wall painting depicts Turkic people with the king in the center. This scene, as if they are watching the king's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by his side, seems to be related to the fact that Samarkand was under the influence of Western Turkic Khaganate (西突厥). On the other hand, Tang's envoys are in the line waiting for their turn to offer presents. The depiction of the wall painting shows that the Tang did not have a huge influence over Samarkand. In this regard, it is presumed that the geographical perspective and the world view of Samarkand which placed the figure of Koguryo at the corner of the wall painting did not originate from Tang.

The Kul Tigin inscription shows a perspective that Koguryo is a country at the eastern end. Therefore, the geographical perspective and the world view of the wall painting may have originated from Western Turkic Khaganate. Furthermore, the image of wearing a Jou-gwan (鳥羽冠, feathered hat) and a sword was also derived from other origins than Tang. While, the figures are politely gathering their hands together in the images from the Zhongyuan (中原, the Central Plain), those images of the wall painting are depicted as warriors with swords at their side.

The exchange between Koguryo and Turk took place in various ways for a long time. Furthermore, Turkic people were mobilized in the Koguryo's front by Sui or Tang. The image of Koguryo which they had from the exchange was beyond the geographical perspective of the eastern end and a country of the sunrise. Considering that Western Turkic Khaganate or Samarkand felt the power of Tang extending to Central Asia, would not they consider Koguryo's power as a remarkable force? It is then considered that such an impressive presence, as well as

powerful Tang's envoy, was enough to make the reign of King Barfuman more glorious. This i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Koguryo envoys in the wall painting of Afrasiab Palace.

Keywords: the wall painting of Afrasiab Palace, Goguryeo envoy, Western Turkic Khaganate, Jou-gwan(feathered hat), Kul Tigin inscrip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20년대 일본의 인구문제와 이식민론(移植民論)

박양신 |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I. 머리말
- II. 인구문제 논쟁
- III. 인구식량문제조사회와 이식민론
- IV. 식민정책학자의 인구문제 인식과 이식민론
- V. 이식민론의 향방
- VI. 맺음말



I. 머리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2018년 1월 22일 정기국회에서 행한 시정 방침 연설 첫머리에서 “일본은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라는 ‘국난’으로 칭할 만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모든 일본인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¹ 1990년 전년 합계출산율 1.57명이라는 이른바 ‘1.57쇼크’ 이래로 일본은 본격적인 저출산 사회로 들어섰고, 2007년에는 고령 인구의 비율 21.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제 일본에서 인구문제는 ‘국난’으로까지 칭해질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인구문제는 비단 현대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1945년 이전 근대 일본 사회에서도 인구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현재와는 정반대로, 중일전쟁 이후 일시적 기간을 제외하면 인구증가, 즉 ‘인구과잉’이 핵심이었다. 일본은 호적법에 의거해 최초로 작성된 인구통계에서 약 3,480만(1872년)의 인구를 기록한 이래 매년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였다. 즉, 일본 인구는 19세기 말 이후 매년 약 30~40만 명, 1910년대에는 약 50~60만 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1920년대에는 급기야 매년 약 90~100만 명이라는 가히 폭발적인 추세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 사회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근대 일본에서 인구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논의된 시기가 바로 1920년대이다. 그 한 계기는 식

* 투고: 2019년 5월 11일, 심사 완료: 2019년 8월 19일, 게재 확정: 2019년 8월 23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4394)

1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20180122siseihousin.html

〈표 1〉 1920년대 일본의 인구

(단위: 천 명)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인구	56,666	57,390	58,119	58,876	59,737	60,741	61,659	62,595	63,461	64,450

*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통계데이터「我が國の推計人口 大正9年~平成12年」

량부족을 강하게 인식시킨 ‘쌀소동’ 사건(1918년)이었으나, 인구문제가 보다 더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20년대 중반, 즉 1925년에서 1926년경부터이다. 당시 한 학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 문제가 인구문제라는 것은 중론이 일치하는 바이다. 인구문제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역사상 드물게 보는 일대 난관에 봉착하여,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는가에 우리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자각하게 되었다”²라고 말했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은 우선 학계와 논단에서 인구문제의 소재를 둘러싼 논쟁을 야기했고, 그 대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내로라하는 잡지들은 앞다투어 인구문제 특집을 편성했고,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사회적 관심과 움직임을 바탕으로 마침내 정부는 1927년 ‘인구식량문제조사회’를 발족시켜 인구문제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들의 인구 대책은 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정부의 증대를 꾀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인구문제 대책으로서 해외 ‘이식민(移植民)’(=이민·식민)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 일본에서 인구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인구를 해외로 배출하여 조절하자는 ‘이식민론’이었다. 이런 이식민론이 대두된 것은 메이지 중기, 곧 1880년대 말 이후이다. 당시 이식민론은,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 증가폭도 크지만 이를 감당할 토지와 식량은 한정되어 있어 빈곤은 필연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잉인구를 해외로 ‘이식민’해야 한다

2 神川彦松, 1926, 「人口問題の見地より我外交政策の基調を論ず」, 『中央公論』 41-4, 87쪽.

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이처럼 인구증가 문제에서 출발한 이식민론은 그 전개 과정에서 차츰 인구의 이식민을 통한 해외 상권 확장 내지 해상권 확장론으로 연결되어갔다.³ ‘인구증가=해외 이식민’이라는 담론은 청일전쟁 이후에는 마침내 대외팽창 내지 제국주의 주장의 한 근거로 기능하게 되었다. 단적으로 러일전쟁 개전을 촉구한 이른바 ‘7박사’로 불린 도쿄제국대학 교수들은 당시 매년 5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장래 인구 과다로 인한 식량부족, 거주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⁴ 러일전쟁 이후에 전개되는 조선, 만주로의 식민론에서도 인구문제는 주요한 근거로 거론되었다.

그렇다면 정작 인구문제가 가장 심각화한 1920년대에 이식민론은 과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갖는 대책이었을까. 이 글에서는 근대 일본에 만연된 인식이었던 ‘인구증가=해외 이식민’의 담론을 인구증가가 가장 급격했던 1920년대의 상황 속에서 그 유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총래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인구문제의 ‘질’과 ‘양’에서 ‘질’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즉, 우생학적 측면에서의 대응이나 사회정책 면에서의 대응을 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었다.⁵ 인구문제의 ‘양’적 측면에 주목하여 이식민론을 함께 검토한 것은 전전의 인구학자 요시다 히데오[吉田秀夫]의 연구⁶가 거의 유일하나, 거기서는 시기적으로 청일전쟁기까지만 다루고 있다. 한편 이

3 吉田秀夫, 1944, 『日本人口論の史的硏究』, 河出書房, 제3장 참조.

4 박양신, 2003, 「러일전쟁 개전론과 ‘7박사’」, 『진단학보』 95, 120~121쪽.

5 廣嶋博志, 1980, 「現代日本人口政策史小論: 人口資質概念をめぐって(1916~1930年)」, 『人口問題硏究』 154; 杉田菜穂, 2009, 「日本における人口政策論の水脈: 永井亨の人と思想」, 『經濟學雜誌』 110-1; 杉田菜穂, 2013, 『〈優生〉・〈優境〉と社會政策: 人口問題の日本の展開』, 法律文化社; 杉田菜穂, 2015, 「日本における人口認識の史的展開: 人口抑制から社會保障へ」, 『經濟學硏究』 116-3; 安田理人, 2016, 「近代日本における人口政策構想の一斷面(1): 内務省保健衛生調査會を對象とした一考察」, 『國際文化學』 29 등.

6 吉田秀夫, 1944, 앞의 책.

식민론 연구는 각국 이민사 연구를 제외하면 대체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으로의 이식민론을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즉, 러일전쟁 이후 조선 및 만주로의 식민론과 만주사변을 전후한 시기의 만주(만몽)이민론, 그리고 남방으로의 이주론을 다루는 연구가 그것이다.⁷

이에 이 글에서는 인구문제가 가장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1920년대의 인구문제를 과잉인구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이식민론과의 관련에서 고찰함으로써 ‘인구증가=해외 이식민’이라는 담론을 재검토한다. 즉, 이식민론을 당시 인구문제를 둘러싼 학계, 정부 위원회, 식민정책학자의 인구문제 논의의 전체 구도 속에서 조망하여 그 적실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이 시기 이식민론의 논리와 향방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해내고자 한다.

II. 인구문제 논쟁

한 해 인구의 증가가 거의 90만, 100만에 육박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1925년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 사회에서는 인구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쇼와[昭和] 벽두 2, 3년간은 인구문제가 정치적·학문적으로 가장 큰 유행 문제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⁸

-
- 7 小野一郎, 1976, 「日本帝國主義と移民論-日露戰後の移民論」, 小野一郎·行澤健三 編, 『世界經濟と帝國主義』, 有斐閣; 滿州移民史研究會 編, 1976, 『日本帝國主義下の滿州移民』, 龍溪書舍; 矢野暢, 1995, 『南進の系譜』, 中央公論社; 정태연, 1993, 「대한제국 후기 일제의 農業殖民論과 移住殖民政策」, 『한국문화』 14; 함동주, 2006,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국식민론과 식민주의적 문명론」, 『동양사학연구』 94; 최혜주, 2013, 「일본 식민협회의 식민 활동과 해외이주론」, 『송실사학』 30 등이 있다. 본고와 직접 관련해서는 長谷川雄一, 1990, 1991, 「一九二〇年代・日本の移民論(一, 二, 三)」, 『外交時報』 1265, 1272, 1279 참조.
- 8 南亮三郎, 1936, 『人口論發展史: 日本に於ける最近十年間の總業績』, 三省堂, 1쪽. 이 장에서 다루는 인구문제 논쟁의 정리에는 이 책을 참고했다.

이 시기에 인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본격 논의된 데에는 인구증가의 폭발성에 더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돌아섬에 따라 심화된 실업문제도 한몫을 했다. 1925년의 국세조사 이전 실업자 수의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공업노동자 수의 통계를 통해 볼 때 1920~1931년은 그 이전과 이후에 비해 노동자의 수가 정체된 취직난의 시기였다.⁹ 이에 정부는 1925년 처음으로 일당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업구제를 위한 공공사업을 도쿄를 비롯한 6대 도시에서 실시했고, 1929년부터는 그 실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¹⁰ 이처럼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실업의 위기가 인구증가의 문제를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인구문제 논쟁에서 인구문제=실업문제라는 마르크스의 인구론을 강력하게 소환시켰던 것이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은 우선 학계와 논단에서 인구문제 분석의 이론을 둘러싼 논쟁을 야기했다. 가장 먼저 인구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한 논문을 발표한 것은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 교수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였다. 이에 대해 같은 경제학부의 오우치 효에[大内兵衛]가 비판 논문을 게재하면서 인구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쟁의 실마리를 열었다.

야나이하라는 논문에서 ‘인구과잉’에 관한 두 가지 유력한 이론을 검토하고 있다. 맬서스(T. R. Malthus)와 마르크스(K. Marx)의 인구론이 그것이다. 이후 논쟁은 ‘맬서스냐 마르크스냐’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므로, 먼저 이 두 이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둔다. 주지하듯이 맬서스의 인구론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증가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사회가 빈곤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즉, 인구와 식량—야나이하라는 식량을 포함한 ‘생활자료’라는 개념을 사용한다—의 관계에서 인구과

9 加瀬和俊, 2011, 『失業と救済の近代史』, 吉川弘文館, 35~36쪽.

10 加瀬和俊, 2011, 위의 책, 46~47쪽. 1929년에는 봉급생활자에 대한 실업구제사업도 실시되어, 관공청 사무의 일부를 실업한 봉급생활자에게 제공했다. 이 시기에 정부에서는 실업보험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재계의 반대로 추진을 중지했다. 일본에 실업보험제도가 창설된 것은 1947년이다.

잉의 문제를 파악한다.¹¹

이에 비해 마르크스의 인구론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인구과잉의 문제를 파악하여 실업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조직에서는 자본 축적의 상태가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데,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자본 축적은 항상 불변자본이 가변자본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런데 노동에 대한 수요는 총자본액이 아닌 가변자본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총자본액의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을 줄이는 가변자본에 따라 노동 수요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그 결과 자본의 수요를 초과하는 상대적 노동인구의 과잉=실업자를 낳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늘어난 노동자는 산업예비군을 구성하는데, 그들은 자본 축적의 요구에 따라 상비군이 되었다가 자본 축적이 정체되면 다시 예비군에 편입된다. 이와 같은 산업예비군, 즉 실업자의 발생과 그 재차의 현역 편입은 자본가적 생산방법에 본질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¹²

야나이하라는 논문에서 맬서스 인구론의 등장과 그 후의 비판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다시금 맬서스 이론이 소환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한 뒤, 자신도 맬서스 이론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즉, “맬서스의 인구법칙은 근본적 의미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자본가적 생산사회에서 노동인구 대 노동수요의 관

-
- 11 맬서스 인구론은 187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 소개되어 이 시기에는 이미 ‘상식화’된 상태였다. 일본에 소개된 최초의 맬서스 인구론 번역은 마르사스(馬爾去斯), 大島貞益 譯, 1877, 『人口論要略』, 有吉三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맬서스의 원전이 아닌 맬서스 설을 소개한 책을 번역한 것이었다. 이후 1880년대에 맬서스 인구론은 여러 잡지 등을 통해 맬서스에 대한 비판설과 함께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당시 비판설이 많이 소개되었지만, 그것은 그 설에 대한 비판을 확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맬서스 설이 상식화되고 보급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된다(吉田秀夫, 1944, 앞의 책, 48쪽). 맬서스의 『인구론』의 원전을 번역한 것은 마르사스, アッシレー 抄略, 三上正毅 譯, 1910, 『人口論』, 日進堂이다. 이 책은 1912년 재판을 출판한 이후 판을 거듭하여 1919년 5판을 출판할 정도로 많은 이에게 읽혔다고 한다(猪谷善一, 1966, 「マルサス人口論の日本導入過程」, 『亞細亞大學經濟學紀要』 1, 25쪽).
- 12 矢内原忠雄, 1925, 「人口過剩に關する若干の考察」, 『經濟學論集』 4-2, 24~25쪽.

계, 즉 실업문제는 특수한 중요성을 갖지만, 인구과잉은 궁극적으로는 항상 인구 대 생활자료의 관계이다”¹³라고 지적하여, 마르크스 인구론이 제시한 실업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맬서스의 인구론을 무력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오우치는 같은 잡지의 다음 호에 야나이하라의 논문을 비판하는 논문을 게재했다. 오우치는 맬서스의 인구론은 자연적 법칙으로, 거기서는 사회의 분배문제가 과거에서 미래까지 무한히 상존하는 초역사적인 문제로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⁴ 반면 마르크스의 인구법칙은 “자본가적 생산방법에 특유한 인구법칙”, 즉 역사적인 한 시대의 법칙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그 결정 요인을 자본과 노동이라는 사회관계에서 구함으로써 하나의 사회법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¹⁵ 오우치는 이 두 이론의 관계에 대해 마르크스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자연적 법칙에 대해 사회적 법칙으로, 초역사성에 대해 역사성으로 완전히 대치했다고 결론 내린다. 그는 인구문제는 인간의 번식력이 사회의 식량 증가를 초과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른바 절대적 인구과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생산력 발달이 기존 인구를 초과하고 그로부터 직업을 빼앗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이른바 “상대적 인구과잉의 문제”, “실업 인구문제”라고 주장했다.¹⁶

오우치의 비판에 대해 이듬해 야나이하라는 자신의 논문의 논지는 두 이론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논문을 썼다. 이들의 인구이론을 둘러싼 학문적 논쟁을 계기로 이후 인구문제 논쟁은 ‘맬서스냐 마르크스냐’라는 틀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 즉 일본은 인구과잉이 아니며 오히려 더 인구를 늘려야 한다

13 矢内原忠雄, 1925, 위의 글, 36쪽.

14 大内兵衛, 1926, 「人口論におけるマルサスとマルクスの交錯」, 『經濟學論集』 4-3, 36~38쪽.

15 大内兵衛, 1926, 위의 글, 45~48쪽.

16 大内兵衛, 1926, 위의 글, 64쪽.

는 제3의 입장을 발표하여 논쟁의 또 다른 지평을 연 학자가 있었다. 당시 규슈 [九州]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였던 사회학자 다카다 야스마[高田保馬]이다. 발단은 「낳아라, 늘려라(産めよ殖えろ)」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짧은 글이었다. 이 글 속에서 그는 일본의 인구가 매년 70, 80만씩 증가하는데 식량에는 한계가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곤란이 닥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근시안적인 견해”라고 일축한다. 다카다는 진짜 문제는 오히려 다가올 출생률의 감소, 즉 인구증가가 멈추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구증가가 멈추려는 조류의 조짐이 이미 대도시 지식계급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¹⁷

다카다는 식자들이 문제의 소재를 잘못 인식한 원인을 제1차 세계대전 시 호경기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상승했지만, 이후 불경기로 경제는 어려워졌으나 생활수준은 내려가지 않아 생활난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런 상황에서 인구는 증가하고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니 인구의 증가가 생활난의 원인이라고 오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생활수준을 조금만 낮춘다면 먹고살 길은 도처에 있다고 강변한다. 또한 산아제한에 대해서는 “민족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해외 이식민의 장려에 대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향후 10년간 100만의 인구를 해외로 내보내기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¹⁸ 그리고 “그저 낳아라, 늘려라. 고식적인 구제책 따위에 의지하지 않아도 문제는 해결된다. 궁하면 통한다. (인구를) 늘리기만 하면, 그리고 이에 따라 모든 문화적 활동 특히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지면 국내는 다수의 인구를 양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¹⁹고 주장했다. 이 세 페이지에도 못 미치는 짧은 글이 다수의 식자를 자극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교토[京都]제국대학 경제학부 교수 가와카미 하지

17 高田保馬, 1926, 「産めよ殖えろ」, 『經濟往來』 1-5, 15쪽.

18 高田保馬, 1926, 위의 글, 16쪽.

19 高田保馬, 1926, 위의 글, 16~17쪽.

메[河上肇]는 절대적인 과잉인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논의들에 대해 제동을 가했다. 그는 인구증가율이 최근에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아닌데 이것이 문제시되는 데에는 다른 사회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바로 절대적 과잉이 아닌 “자본의 수요에 대한 상대적 과잉”, 즉 실업자의 증가 때문이라고 진단한다.²⁰ 이어서 오우치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인구론의 유효성에 대해 설명한 뒤, 세간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대책, 즉 이식민, 상공업 진흥, 산아제한은 모두 대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과잉인구의 발생은 자본주의 말기의 질환이며, 그 질환의 근원은 자본주의 기구 자체에 내재해 있으므로 현존하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대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²¹

가와카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카다의 앞의 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다카다가 불경기에도 생활수준을 낮추지 않아서 인구를 ‘과잉’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한 점에 대해, 노동자들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라고 반박했다.²² 또한 다카다의 주장은 인구를 더 늘리고 노동자의 생활을 한층 더 저하시켜 임금을 내리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상공업 입국의 기초가 확립”된다는 것, 즉 “자본가적 생산 만세”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²³

이 비판에 대해 다카다는 1년 뒤에 반비판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가와카미가 자신의 글을 ‘자본주의 변호론’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신의 글 어디에도 자본주의 경제를 옹호하는 내용이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가와카미의 글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신이 말한 ‘상공업 입국’을 가와카미가 ‘자본가적 생산’으로 이해하여 자신이 자본가적 생산을 발

20 河上肇, 1927, 「資本主義末期の一病狀としての人口過剩のうめき:人口過剩の原因および對策に關する世論批判」(1926), 『人口問題批判』, 叢文閣, 13쪽.

21 河上肇, 1927, 위의 글, 42쪽.

22 河上肇, 1927, 「生活難の事實を言葉の上で否認することにより之を解決せんとする高田, 氣賀二博士の意見」(1926), 『人口問題批判』, 52~55쪽.

23 河上肇, 1927, 위의 글, 57쪽.

달 존속시키려고 한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²⁴ 이어서 다카다는 가와카미가 의거하고 있는 마르크스의 인구법칙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즉, 마르크스 인구법칙에서 상대적 인구과잉을 설명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총자본액이 증가하면 가변자본의 비율이 감소할지라도 가변자본액 자체도 증가하므로 과잉인구는 오히려 감소 또는 소멸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반론했다.²⁵

이 둘의 논쟁에 대해서 다시 여러 식자가 언급하면서 논쟁은 확산되어갔는데, 대표적으로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교수 나스 시로시(那須皓)를 들 수 있다. 나스는 그 논쟁의 주요 쟁점을 마르크스 인구법칙의 타당성 문제와 과잉인구 대책으로서의 상공업 진흥의 유효성 문제로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스는 과잉인구를 “해당 사회에서 일반 생활 정도를 저하함 없이는 수용할 수 없는 인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면 과잉인구=실업자로 이해한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 유지 증진을 주안으로 인구문제를 생각할 때 이러한 과잉인구의 개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²⁶ 더욱이 농업인구가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고 공업인구는 약 20%에 불과한 인구 구성에서 볼 때, 일본은 노동 부문의 실업자를 ‘상대적 과잉인구’로 문제시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산업구조라고 지적했다.²⁷ 결국 나스는 일본에서 과잉인구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맬서스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일본의 자본 증식이 빠르지 않은 것은 천연자원이 적고 생산능률이 낮은 데다 국민 소비의 총량이 크기 때문이며, 상공업 방면의 소경영자가 점차 대기업에 의해 압도당하고, 그 대기업도 외국과의 경쟁에서 점차 불리

24 高田保馬, 1927, 「人口問題の反批判」, 『人口と貧乏』, 日本評論社, 225~226쪽, 230~232쪽.

25 高田保馬, 1927, 위의 글, 250~251쪽.

26 那須皓, 1927, 「河上高田兩博士の人口論を評す」, 『人口食糧問題』, 日本評論社, 221쪽.

27 那須皓, 1927, 위의 글, 240쪽.

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스는 이런 사정이라면 산업진흥이 충분히 인구문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²⁸ 그는 또 이런 일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잉인구가 생긴다면 국외로 내보낼 수밖에 없겠지만, 1년에 1~2만 정도를 해외로 보내서는 매년 100만씩 늘어나는 인구의 대책으로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식민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²⁹

나스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카다가 다시 반론하는 한편, 나스의 인구론을 둘러싸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논쟁은 이론 내부로 파고드는 경향을 보이고, 본래 출발점인 인구문제라는 사회문제의 논의에서 멀어져갔다.

그런데 이상의 논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맬서스 설에 의거하든, 마르크스 설에 의거하든 ‘인구과잉’의 문제를 인구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업문제를 인구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마르크스 설에 의거할 경우는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 자체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이니 자본주의의 폐지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본래 도덕적 억제로 인구증가를 조절하여 해결하려는 것이었으나, 이 논쟁의 논자들은 오히려 식량(생활자료)을 증대하는 방법—산업진흥, 농업개량, 식량수입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즉, 양쪽 모두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한 해외 이식민이나 산아제한에는 부정적이었다.³⁰

28 那須皓, 1927, 위의 글, 256쪽.

29 那須皓, 1927, 「人口食糧問題の國際的研究」, 『人口食糧問題』, 160쪽.

30 일본의 산아제한운동은 1922년 산아제한운동의 지도자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운동은 당초 노동운동과 연결되어 사회주의 좌파의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나, 그 중심 인물인 아마모토 센지[山本宣治]의 이탈 이후는 아베 이소[阿部磯雄]가 중심이 되어 산아 조절 실행을 위주로 하는 사회정책으로 운동을 추진해갔다(藤目ゆき, 1986, 「戰間期日本の産兒調節運動とその思想」, 『歴史評論』 430 참조). 그러나 정부는 산아제한에 소극적이었고, 식자 및 사회의 호응도 적극적이지 않아 이 운동의 사회적 확산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인구증가율만으로는 인구‘과잉’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해, 다카다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듯이 인구수가 국력을 좌우한다는 증상주의 시대 이래의 인구관이 여전히 뿌리 깊어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Ⅲ. 인구식량문제조사회와 이식민론

이와 같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정부는 1927년 7월 인구문제에 관한 첫 자문위원회인 ‘인구식량문제조사회’(이하 ‘조사회’로 약칭)을 발족시켰다. 조사회는 수상인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를 회장, 내무대신 스즈키 기사부로[鈴木喜三郎]와 농림대신 야마모토 데이지로[山本梯二郎]를 부회장으로 하고, 관계 각 부처 차관급 관료, 귀족원과 중의원의 국회의원, 학자, 재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른바 범대책위원회적인 성격을 띠었다. 1927년 7월 20일 제1회 총회를 열고 여기서 정부로부터 조사회에 대해 두 가지, 즉 ‘인구문제에 관한 대책’과 ‘식량문제에 관한 대책’이 자문에 부쳐졌다. 이후 조사회는 인구부와 식량부의 둘로 나뉘어 조사, 심의를 진행해갔다.

제1회 총회에서 조사회 회장인 다나카 수상은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인구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이식민정책에 기초한 이식민의 보호 장려가 그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도항하는 이식민의 수는 매년 겨우 1만 5천이 안 되니, 도저히 인구증가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히 내지(内地)의 이주 또는 이른바 사회정책상의 각종 시설에 의해 더 유효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입국(立國)의 방책을 세워 내지 및 해외 영토에 걸친 통일적인 계획하에 생산조직의 개선, 중요 공업의 확립, 무역의 진흥, 기타 일반 산업의 균등한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이유는, 산업 방면으로 인구의 흡수를 피함으로써

산업경제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소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³¹

곧 이식민은 인구증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오히려 ‘산업경제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 수상이었던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와카쓰키는 당시 여당인 헌정회(憲政會) 지방장회의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식민 장려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해외 이민에 의한 인구감소는 해마다 증가하는 인구의 근소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므로 해외 이민만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는 곤란하며, 따라서 국내에 개혁의 여지가 있는 곳에 개혁 사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각종 산업의 발전을 꾀하여 산업 이익의 증가를 가지고 증가한 인구의 생활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³² 이런 정부의 입장은 내각이 바뀌어도 계승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식민’보다는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은 조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도 관철된다.

조사회의 인구부회(人口部會)에서는 정부의 자문에 대해 ‘내외 이주방책’, ‘노동의 수급 조절에 관한 방책’, ‘내지 이외 제 지방의 인구대책’, ‘인구통제에 관한 제 방책’, ‘생산력 증진에 관한 방책’, ‘분배 및 소비에 관한 방책’의 여섯 가지를 답신했다. 이 중 이식민과 관련되는 ‘내외 이주방책’ 답신은 그 전문(前文)에서 “이주, 척식은 인구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으나, 국내외를 불문하고 천연자원 개발, 생산력 함양, 기업 및 노동의 이동성 증진 면에서 한 대책일 수 있다. 특히 다년간 봉건 쇄국하에 놓여 토착의 인습에 얽매인 우리 국민에게 국내외 이주의 장려, 이민의 보호를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

31 人口食糧問題調査會 編, 1928, 『人口食糧問題調査會ニ於ケル内外移住方策及勞働ノ需給調節ニ關する方策ノ決議答申ニ至ル經過並ニ議論ノ要点』, 人口食糧問題調査會, 12쪽.

32 「人口問題の解決は海外移民より國內開發」, 《大阪毎日新聞》1926년 6월 26일자 1면.

라고 인정된다”³³고 그 취지를 설명한다. 여기서도 이식민은 인구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그보다는 간접적으로 국내외 경제개발의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장려할 만하다고 권유하고 있다.

이 초안을 집필한 나가이 도오루[永井亨]는 한 글에서 인구문제의 대책으로 해외 이민을 주장하는 자들은 “민족 발전인가 망국인가, 흥국인가 민족 자멸인가”라는 식의 문제 설정으로 민족 발전과 인구증식을 연결시켜서 논하지만, 이러한 문제 설정은 유럽의 중상주의, 메이지 이후 일본의 부국강병책, 그리고 현재의 제국주의가 보이는 프레임일 뿐, 결코 인구과잉을 완화하려는 인구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이민이 과잉인구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경험도, 기대도 없다고 단언한다.³⁴ 나가이는 과잉인구 문제는 일국의 사회의 생산력이 그 나라의 인구수를 지지할 수 없을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생산력의 발전 또는 증진을 기하는 한편, 인구수의 질적·양적 조절을 꾀하는 동시에 생활표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³⁵

하지만 나가이가 인구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이민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현재 이민은 직접 인구수의 제한에 기여하는 역할은 감소하고, 직간접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았다. 이민은 인구수를 줄이는 소극적인 인구대책이 아니라 사회의 생산력을 늘리는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민이 종래처럼 군국주의나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해외로 팽창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인구대책이 될 수 없다고 뼈기를 박았다.³⁶ 이와 같은 나가이의 발상이 답신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3 人口食糧問題調査會 編, 1930, 『人口食糧問題調査會答申說明』, 人口食糧問題調査會, 153쪽.

34 永井亨, 1928, 「人口問題と移民問題」, 『外交時報』 556, 25~26쪽. 나가이는 일본의 이민문제는 출발점부터 국위(國威)의 문제였으며, 인구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족문제’였다고 지적했다(31쪽).

35 永井亨, 1928, 위의 글, 28쪽.

36 永井亨, 1928, 위의 글, 29쪽.

한편, 또 다른 답신 ‘내지 이외의 제 지방의 인구대책’에서도 이런 인식은 관철되고 있다. 그 전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지 이외의 제 지방, 그중 조선, 대만의 인구문제에 대한 근본 방책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고려를 요한다. 단순히 내지 인구문제 해결 면에서 보더라도 이를 등한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방에 다수의 내지인을 이식하는 것은 그 주민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는 데 불과하며, 또한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나아가 이들 토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만몽(滿蒙), 시베리아 및 남양지방에 대해 인구대책을 강구하는 소이는 직접 내지 인구증가의 완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에서의 토지 개척, 자원 개발, 산업 발전에 의해 우리나라 생산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³⁷(밑줄-인용자)

앞서 본 ‘내지 이주방책’의 입장과 호응하여 식민지로의 다수 이주는 식민지의 불안을 조성할 뿐, 실제적인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민지 등의 인구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역시 식민지의 산업 발전으로 일본의 생산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식민지 관련 답신을 둘러싸고는 사안이 외교문제와도 관계가 있고, 세간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답신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에 대해 특별위원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문제는 단순히 일본 ‘내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식민지를 내지 인구의 분출구처럼 사유하는 잘못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해 조사회의 의견을 밝히는

37 人口食糧問題調査會 編, 1930, 앞의 책, 157쪽. 표제에 대한 주석에 따르면 여기서 ‘내지 이외 제 지방’이란 “신영토 및 신영토와 연관되어 일본의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관계를 갖는 지방”을 의미하며, 식민지라는 말은 오해를 부르기 쉬운 단어여서 이를 피했다고 한다(같은 책, 110쪽). 원래 이 답신의 원안을 집필했던 나가이의 초안에서는 표제가 ‘내지 이외의 영토 및 조차지 등의 인구대책’이었으나, 기초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수정되었다(人口食糧問題調査會 編, 1928, 앞의 책, 66, 69쪽).

것도 여론의 교육·계몽의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이 답신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한다.³⁸

이런 맥락에서 위의 전문에 대해 시오자와 마사사다[鹽澤昌貞] 특별위원장 대리는 인구부회 및 총회에서 보고에서 “전문을 취지는 이른바 식민지를 내지 인구의 분출구처럼 생각하는 견해 내지는 인구문제=이민문제로 간주하는 견해 등, 요컨대 세상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계몽적 견지에 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조선 등의 대책으로서는 다수 내지인을 이식시켜서 그 주민에게 기우를 품게 하는 것을 피하고, 오로지 이들 지방 자체의 생산력 발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³⁹ 요컨대 인구대책의 안목은 산업 개발 등에 의한 생산력 증진에 있으므로, 내지도 내지 이외의 ‘제 지방’도 각기 생산력의 증진을 꾀함으로써 인구를 지탱할 길을 강구하는 것을 근본방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는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부회, 총회를 일관해서 지지된 입장이었다고 보고서의 주석자는 밝혔다.⁴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회는 인구문제 대책으로서 해외 이주를 통한 인구 조절에는 부정적이었으며, 다만 증가한 인구를 지탱하기 위한 산업발전책의 일환이라는 간접적인 효과를 내다보고 해외 이식민의 필요성을 한정적으로 인정했다.

인구대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인구 조절에 관한 조사회 입장이다. 조사회가 발족한 당시, 각 관련 부처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주로 관료들로 구성된 간사회에서 인구문제에 관한 여덟 가지 조사 항목을 확정했다. 이에 의하면 당초 ‘산아제한에 관한 조사’가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이 항목은 그 후의 간사회에서 ‘우생운동에 관한 조사’로

38 人口食糧問題調査會 編, 1930, 앞의 책, 109쪽.

39 人口食糧問題調査會 編, 1930, 위의 책, 111쪽.

40 人口食糧問題調査會 編, 1930, 위의 책, 111~112쪽.

수정되었다가⁴¹ 최종 답신에서는 ‘인구통제에 관한 제 방책’으로 정리되었다. 인구의 출생수를 줄이는 ‘산아제한’이라는 용어를 피한 것이다. 답신 ‘인구통제에 관한 제 방책’에서는 전문에서 일본의 현재 인구 상태를 설명한 후 “이런 상태를 개선해서 수와 질의 면에서 건전한 인구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대책의 세목에서 인구수의 조절과 관련된 것으로는 결혼·출산·피임에 관한 의료 상담을 할 시설을 갖출 것과 피임기구·약품 등의 배포·판매·광고에 관한 부정행위를 단속할 것을 제시하는 데서 그쳤다.⁴² 이 두 대책 또한 그다지 적극적인 산아 조절로는 읽히지 않는다. 결국 조사회의 인구증가에 대한 입장은 증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인구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V. 식민정책학자의 인구문제 인식과 이식민론

사회적 이슈가 된 인구문제에 대해 식민정책학자들도 각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래 식민정책학이란 ‘식민’, 즉 식민지 획득, 식민지로의 이주 등을 연구의 한 본령으로 하는 학문인지라 식민정책학자들은 인구문제 대책과 관련하여 이식민론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먼저 전술한 인구논쟁의 계기를 제공했던 도쿄제국대학 교수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실업이 현재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과잉의 형식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자료에 대한 관계에서 인구과잉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나이하라는 인구문제를 단순한 식량문제가 아니라 식량을 포함한 생활자료의 확보라는 방향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그는 우

41 人口食糧問題調査會 編, 1928, 앞의 책, 8쪽.

42 人口食糧問題調査會 編, 1930, 앞의 책, 158~159쪽.

선 인구문제를 식량문제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본의 인구는 그간 계속 증가했지만, 그에 따라 식량의 공급도 증가했기 때문에 식량 부족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가까운 장래에도 부족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즉, 일본은 그동안 부족한 쌀을 조선, 대만 등 식민지로부터 보충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식민지에 쌀 부족을 초래한 결과 조선은 만주의 조나 외국미를 식량으로 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장래에 식민지민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는 식민지뿐만 아니라 식민지 이외의 국가로부터도 외국미 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³

그렇다면 과잉인구를 지탱하기 위한 생활자료의 증대는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야나이하라는 과잉인구를 지탱하기 위한 생활자료의 증가는 외연적 및 집약적인 생산증가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전자는 인류의 경제적 활동영역의 확장, 즉 식민지이며, 후자는 기술의 개량진보이다. 이 중 야나이하라는 후자에 기대를 걸었다.⁴⁴ 즉, 산업진흥과 국제 교역의 확대를 통한 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이주에 의한 과잉인구의 배출과 새로운 지역의 개척에 의한 생활자료의 증산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주에 의한 인구 과잉의 완화는 대개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식민’에 의한 새로운 지역의 개척은 인류에게 새로운 생산물을 산출함으로써 전 인류적으로 보면 인구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⁴⁵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것일 뿐, 일본의 지금까지의 이식민 실적과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이식민은 그다지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인의 식민지 거주자는 조선 약 40만 명, 대만 약 19만 명, 가라후토[樺太] 15만 명, 해외재류자(관동주 포함)는 약 63만 명이며, 매년 해외 이민은 재도

43 矢内原忠雄, 1963a, 『人口問題』(1927), 『矢内原忠雄全集』第2卷, 岩波書店, 115~123, 129~130쪽.

44 矢内原忠雄, 1963b, 「人口過剩論」(1926), 『矢内原忠雄全集』第1卷, 岩波書店, 639~640쪽.

45 矢内原忠雄, 1963b, 위의 글, 642쪽.

향자를 포함해서 15,000~16,000명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는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하는 인구를 조절할 수단으로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주 대상지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도 그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다. 즉, 대만과 조선은 인구밀도는 일본보다 다소 낮으나, 자본주의적으로는 일본 인구의 이입 여지가 별로 없다. 또 상조(商租)문제⁴⁶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만주는 이주지로서 일본에게는 폐쇄 상태나 진배없고, 미국·캐나다·호주는 일본인 이민 배척의 풍조가 있으며, 남미에서도 무제한으로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⁴⁷ 결국 이식민은 인구문제 대책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배척했다.

야나이하라는 또한 산아제한에 의한 인구 억제는 총생산의 감퇴를 의미하여 인구대책으로서는 “소극적·퇴영적·역전적이며 인류의 발전에 자살적”이라고 반대했다.⁴⁸ 이처럼 야나이하라는 인구문제를 기술 진보에 의한 산업 발전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구의 소극적 조절책인 산아제한이나 적극적 조절책인 이식민에는 모두 반대했다.

한편, 교토제국대학 교수 야마모토 미오노[山本美越乃]는 야나이하라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야마모토는 인구식량문제조사회에도 참여한 바 있다. 야마모토의 인구문제 대책으로서의 이식민에 대한 입장은 1920년대 이전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는 인구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해외 발전의 필요를 낳는다는 당시의 “통설”에 대해 비판하고, 과잉인구의 조절책으로서의 해외발전론—이식민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과거 1세기

46 ‘상조’란 당사자 협상에 의한 자유계약의 토지 대차를 의미한다. 일본은 1915년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관한 조약’으로 남만주에서 일본인의 상조권을 획득했다. 중국 정부는 조약 체결 직후 상조의 세칙인 ‘상조지무수지(商租地畝須知)’를 제정했는데, 상조권의 성질, 지역적 적용 범위 등의 해석을 둘러싸고 일본 측과 대립했다. 또한 중국 측은 일본인의 토지 점유를 방해하기 위해 성령(省令), 지방청 명령으로 상조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일본인의 상조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만주사변 이후 성립한 만주국하에서이다.

47 矢内原忠雄, 1927, 「時論としての人口問題」, 『中央公論』 474, 42쪽.

48 矢内原忠雄, 1963b, 앞의 글, 648쪽.

동안 세계의 사례를 볼 때 인구의 해외 이주가 인구 조절의 수단으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가령 해외 이주의 장려로 일시적으로 인구를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생긴 국내 주민의 생활적 여유는 오래가지 않아 다시 인구를 예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⁴⁹ 그에 따르면 일국의 인구가 과잉인지는 단순히 인구 증가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인구 증가율이 높아도 국내의 산업적 활동의 여지가 많거나 미개발한 부원이 존재할 경우에는 국민의 해외 이주를 장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⁵⁰ 그는 “국민의 이주적 발전을 장려하기에 앞서 국내외에 대한 경제적 발전의 충실을 꾀하는 것이 급무”⁵¹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서는 이식민에 대한 태도가 다소 달라진다. 야마모토는 1920년대 중반에 인구문제가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인구와 식량문제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거기서 인구의 많고 적음은 국가의 성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같은 조건이라면 인구가 많은 편이 이익이므로 인구증가를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증가한 인구에 식량과 직업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직업은 상공업 발전으로 해결하고, 식량은 경지 확장과 정리, 농법 개량, 식민지 농업의 장려 등으로 적극적으로 증산하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산아제한과 같은 소극적인 대책에는 반대했다.⁵²

그런데 이와 더불어 종전과 달리 인구증가의 해결책으로서 이식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당시 이식민에 대해서 “세론의 대다수는 비판론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비판론의 근거는 다년간 이식민의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과 세계 각지의 일본인 배척 움직임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마모토는 매년 증가하는 인구를 모두 국외로

49 山本美越乃, 1917, 「海外發展ノ二意義」, 『經濟論叢』 5-5, 6, 9쪽.

50 山本美越乃, 1917, 위의 글, 10쪽.

51 山本美越乃, 1917, 위의 글, 22쪽.

52 山本美越乃, 1922, 「我が國の人口對食糧問題」, 『經濟論叢』 15-5, 87, 91~92쪽.

이주시키는 것은 공상(空想)이지만, 다년간 이식민 사업에 국민의 반향이 적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곧바로 일본 국민이 이식민 사업에 부적당한 국민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간 이식민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이식민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보호와 장려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³ 그는 이식민 사업은 “국민 생존에 지대한 관계가 있는 실제 문제”라면서 이식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야마모토가 이식민의 효과로서 들고 있는 내용이다. 곧 인구의 해외 이주는 인구의 이동뿐만 아니라 원료·식료 등 화물의 이동, 시장 확대의 기회를 부수적으로 수반한다고 환기시켰다.⁵⁴ 또한 당시 이주지로 부상되고 있던 남미 이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에서 이식민 사업이 상공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했다.⁵⁵ 이와 같이 야마모토는 인구문제의 대책으로 이식민의 유효성을 주장하되, 직접적인 인구수의 조절보다는 해외 이주를 통한 교역지의 확대, 그로 인한 산업 발전의 효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야마모토의 입장은 앞 장에서 검토했던 인구식량문제조사회의 인식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식민정책학자 중 인구문제 해결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식민을 주장한 학자는 홋카이도[北海道]제국대학 교수 다카오카 구마오[高岡熊雄]였다. 다카오카는 평소 “인구문제, 농촌문제 등을 해결할 정책의 하나로서 해외 이민의 필요성을 항상 창도(唱導)”⁵⁶해왔으며, 이 시기에는 구체적으로 브라질로의 이민을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해외 이주지를 모색하기 위해 1923년 남미 일대를 시찰하

53 山本美越乃, 1924, 「移植民獎勵問題と世の謬見」, 『經濟論叢』 18-6, 77~78쪽.

54 山本美越乃, 1924, 위의 글, 81~82쪽.

55 山本美越乃, 1926, 「我國人口問題と移植民政策」, 『パンフレット』 2, 196~197쪽.

56 高岡熊雄, 1925, 『ブラジル移民研究』, 東京寶文館, 1쪽.

고, 그 결과 남미 중 특히 브라질이 유망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카오카는 브라질이 이주지로 적절한 이유로서 다음의 것들을 들었다. 우선 덩지도 춥지도 않은 온화한 기후 조건, 위생 상태가 많이 개선된 점, 다국적 이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종적 차별 관념이 심하지 않은 점, 귀화 외국인에게 법적인 차별을 하지 않는 점, 미개척의 토지가 넓게 존재하는 점, 토지 획득이 용이하고 저렴하며, 자본적 농업보다는 노동적 농업의 성격이 강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인 이민에게 적합하다는 점 등이다.⁵⁷ 다카오카의 브라질 연구는 다음 장에서 보는 이 시기 이식민 단체 및 이식민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카오카는 만주사변 이후 만주로의 농업이민 문제가 부상했을 때도 브라질과 만몽(滿蒙) 두 곳 중에서 일본 이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브라질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⁵⁸

한편, 주오[中央]대학 교수 이나다 슈노스케[稻田周之助]는 인구과잉론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노동력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이식민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나다는 인구과잉론은 허구라고 말한다. 인구는 무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생계에 허덕이는 자, 실업자의 존재를 근거로 과잉인구를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인구의 과잉이 아니라 산업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⁵⁹ 또한 예로부터 인구문제를 논하는 자는 꼭 식민지 경영이나 이민에 대해 언급하지만, 식민지 경영에서 본토의 인민을 식민지로 이주시키는 것은 필수적 조건이 아닐 뿐더러 실제로 선진 식민국을 보면 식민지로의 이동보다는 미국 등으로의 이주 수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⁶⁰ 그는 일본의 경우 집약적 농업 형태로 인해 인구가 과잉인 것처럼 보이지만, 종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 간 경향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산업이 더 발전할수록 인구가 도시로 더 집중되

57 高岡熊雄, 1925, 위의 책, 56~100쪽.

58 高岡熊雄, 1933, 『ブラジル移民と滿蒙移民』, 札幌修身講話會, 16쪽. 다만 만주는 이와 별도로 국방,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이민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9 稻田周之助, 1924, 『人口問題』, 稻田周之助, 14쪽.

60 稻田周之助, 1924, 위의 책, 98~99쪽.

어 농촌에는 노동력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이식민으로 노동력을 해외로 배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⁶¹ 그가 이렇게까지 인구 유출을 우려한 것은 결국 민족의 성쇠를 결정짓는 것은 인구증식력의 강약, 즉 인구증식력이 왕성한 나라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망한다는⁶² 중상주의 시대 이래의 국력 신화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도쿄쇼카[東京商科]대학 교수 우치야마 마사아키[山内正瞭]는 인구문제 대책으로서 산업장려와 이식민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장려에만 기울면 생산과잉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식민만 중시하면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여 산업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⁶³ 와세다[早稻田]대학 교수 아사미 도로[淺見登郎]는, 일반인은 식민지의 영유가 곧바로 과잉 인구의 배출구가 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근대의 세계 식민지는 대체로 본국의 인구 조절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면서 식민지를 인구의 조절기(調節器)로 간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⁶⁴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일본 국내의 인구 조절의 필요와 식민지 통치경영을 위해 그간 부진했던 식민지로의 이주는 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장려와 보호를 촉구했다.⁶⁵

이상, 식민정책학자들의 이식민에 대한 입장은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야나이하라와 이나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식민을 주장하는 다카오카, 그리고 산업진흥, 농업개량 등과의 병행을 주장하는 아마모토 등으로 견해가 갈렸다.

61 稲田周之助, 1924, 위의 책, 119쪽.

62 稲田周之助, 1926, 「民族の消長-所謂人口問題及び其對策を評す」, 『法學新報』 36-8, 5쪽.

63 山内正瞭, 1927, 「人口問題」, 『商學研究』 6-3, 65쪽.

64 淺見登郎, 1926, 「新日本の植民政策(一) 植民地と母國人口との關係」, 『外交時報』 517, 63~65쪽.

65 淺見登郎, 1926, 「新日本の植民政策(四) 植民地としての日本人」, 『外交時報』 520, 76, 80쪽.

그러나 다카오카를 제외하고는 이식민의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인구수의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이식민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V. 이식민론의 향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식민’은 그다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식자층의 중론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이식민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논리와 논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

우선 대만총독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후 1924년부터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도고 미노루[東郷實]는 대표적인 이식민론자였다. 도고는 그의 식민정책론의 원점을 이루는 『일본식민론』(1906)에서 인구증가를 국가의 발전, 대외 팽창과 연결시켜 논했다. 인구증가가 식민의 유력한 동기를 이룬다고 지적하는 한편, “인구의 증가 여하는 국운(國運)의 소장(消長)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국력의 발달이 광대함을 증명하는 것이다”⁶⁶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산아제한 등을 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며, 오히려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⁶⁷ 그 당시 그가 문제로 생각한 것은 경지가 협소하고 농업 인구가 많은 데서 오는 일본 농업의 영세성이었다. 그래서 그는 농촌의 과잉인구를 해외로 옮겨 농업 경영 규모를 넓힘으로써 농민을 구제해야 한다는 농업식민론을 주장했다.⁶⁸ 결론적으로 그는 인구정책의 가장 완전한 방법은 식민정책을 취하여 해외의 신영토로 과잉인구를 배

66 東郷實, 1906, 『日本植民論』, 文武堂, 108쪽.

67 東郷實, 1906, 위의 책, 101쪽.

68 東郷實, 1906, 위의 책, 177~178쪽. 도고의 식민정책론에 대해서는 박양신, 2013, 「도고 미노루(東郷實)의 식민정책론-농업식민론과 ‘비동화주의」, 『역사교육』 127 참조.

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⁶⁹

도고의 이런 관점은 1920년대에도 변함이 없었다. 도고는 이식민을 논할 때 주로 ‘해외 발전’이라는 용어와 등치시켜 사용하곤 했다. 그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여러 논의를 일일이 반박한다. 산업입국론에 대해서는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서 국내에서만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인구 문제도 이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⁷⁰ 또한 식량 부족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면서 식량의 확실한 공급을 위해서는 ‘해외 발전’(=이식민)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농업의 영세성이 농촌의 빈곤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로의 배출보다는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적절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도 이식민이 한 해 100만씩 늘고 있는 인구를 조절하는 데에는 직접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1만, 2만이라도 해외로 가면 그만큼 인구식량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개중에는 증가 인구의 1할도 나가지 않는 ‘해외 발전’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논의도 있으나,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해서는 국가의 진보가 멈춘다”고 쏘아붙였다.⁷¹ 앞서 나가이 도오루가 지적한 “민족 발전인가 망국인가”의 프레임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논의인 것이다.

또 다른 이식민론자로는 인구식량문제조사회에 특별위원으로도 참여했던 이노우에 마사지[井上雅二]가 있다. 그는 잘 알려진 아시아주의자이자 “실천으로 해외발전사를 쓴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일본인의 해외 진출을 꾸준히 주장하고 실천한 인물이다.⁷² 그는 수많은 직함을 갖고 있으나, 1924년에 4개의 이민 취급회사가 통합하여 설립된 해외흥업주식회사(1917년 설립)의 사장이 되는 동시에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노우에는 경작면적이 전 면적의

69 東郷實, 1906, 위의 책, 239쪽.

70 東郷實, 1928, 「海外發展の機運に際して(三)」, 『植民』 7-3, 7쪽.

71 東郷實, 1928, 위의 글, 7~8쪽.

72 이에 대해서는 藤田賀久, 2013, 「近代日本のグローバリスト井上雅二: その人物像を中心に」, 『多摩大學グローバルスタディーズ學部紀要』 6 참조.

1할 7푼에 불과하고 인구 조밀국가인 일본에서 해외로의 이주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⁷³ 또 당시의 인구식량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곤란을 타개할 방법은 ‘해외 발전’이며, 해외 발전은 국민을 전 세계로 내보내는 이민사업에 의해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⁷⁴ 다른 글에서도 인구문제 해결책으로 제시 되는 네 가지, 즉 산업 발전, 국내 개발, 해외 이민, 산아제한을 거론한 뒤 이 중 해외 이민이 “그 효과가 현저한 점과 성질상 급속한 실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서둘러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이민의 장려가 국내의 실업자와 생활난에 허덕이는 빈민에게 해외 일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인구문제의 핵심인 사회문제의 발생을 완화, 제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민 상대국과의 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여러 부대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⁷⁵ 앞서도 언급했던 이식민론에 대한 비판, 즉 해외 이민자의 수가 적어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과거 정부의 이민정책이 억제주의로 일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던 탓으로 돌리고, 앞으로의 이민 장려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⁷⁶

도고와 이노우에에서 보듯이 해외 이식민의 주장은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 해외로 배출하는 수밖에 없다는 극히 단순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이식민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논자가 이와 동일한 논지를 보인다. 그 논리는 용이하게 ‘민족발전’론과 결합했으며, 기존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이민장려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식민론에 가해진 합리적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이식민론이 종전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식민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도고가 “해외 발전은 침략주의나 제국주의가 아니라 평화주의이며, 세계 인류의 평화, 향상으로 나아가려는 매

73 井上雅二, 1925, 「排日の米國と迎日の南米」, 『外交時報』 502, 28쪽.

74 井上雅二, 「切迫せるわが國の人口食糧問題(三)」, 《中外商業新報》 1927년 2월 23일자, 4면.

75 井上雅二, 1928, 「人口問題に關する對策(一)」, 『植民』 7-3, 11쪽.

76 井上雅二, 1928, 위의 글, 12쪽.

우 도덕적인 견지에서의 주장”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그 침략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⁷⁷

한편, 1924년 미국의 이민법 성립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이 막히자, 이노우에는 새로운 해외 이주지로써 남미, 즉 남아메리카를 지목했다. 남미는 넓은 영토가 미개발 상태이며, 인종문제에서도 이미 혼혈이 많기 때문에 인종적 편견이 적다는 점에서 일본인의 이주지로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미 중에서도 특히 브라질이 가장 바람직한 이주지라고 강조했다.⁷⁸ 여기서 단적으로 보이듯이 이 시기에는 미국을 대체할 이주지로써 브라질이 급속히 부각되었다. 이노우에가 사장으로 있는 해외흥업주식회사는 브라질로의 이민을 권유하는 홍보를 강화했고, 여러 사람이 남미 내지 브라질 현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민 관련 잡지인 『식민』은 1927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매호 브라질을 집중 조명하고, 그 이후도 브라질에 관한 정보를 계속 게재했다.

이처럼 남미, 브라질이 새로운 해외 이주지로 시끄럽게 거론되는 한편, 또 하나의 지역을 이주지로 주장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바로 만몽(滿蒙) 지역이다. 러일전쟁으로 남만주 지역의 조차권을 획득한 이래 다수의 일본인이 그 지역으로 옮겨갔으나, 대부분은 관청과 만철에 근무하는 관리, 그들을 상대로 하는 상인, 자영업자들이었다. 1915년에 국책 수준에서 실시되었던 만주로의 집단이민 계획은 다화이자툰(大槐家屯)에 건설된 아이카와촌(愛川村)에 입식한 19가구가 전부였으며, 같은 시기에 만철이 계획한 만철 수비대 만기자를 대상으로 한 입식도 4년간 34명에 그쳐 실패로 돌아갔다.⁷⁹ 그 후로 만주로의 이주론은 힘을

77 東郷實, 1928, 앞의 글, 8쪽. “우리의 인구문제 해결은 정의와 인도, 그리고 경제적 배경에 의한 이식민정책의 확충에 있다”(新垣金造, 1926, 「大國民的海外發展」, 『移民之友』, 移民之友社, 12쪽)라든가, “나는 일본민족이 세계적으로 팽창하는 것이 세계평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日本民族の移住策, 『東方公論』 1-7, 1926, 5쪽)는 등이다.

78 井上雅二, 1925, 앞의 글, 37~38쪽.

79 기요까와 코지, 2004, 「일본으로부터의 만주농업이민」, 『만주연구』 1, 75~76쪽.

않게 되었으나, 인구문제의 대두와 미국의 이민 배척을 계기로 만몽 지역으로의 이주를 주장하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다.

독일 특명전권대사 히오키 에키[日置益]는 인구과잉의 해결은 인구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수는 힘이다”라는 원칙을 인정한다면 산아제한이 아닌 해외로의 이출(移出)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지로서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남미 이민은 인구의 처분 방법으로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즉, 브라질로 1년에 1만 명을 보낸들 효과가 없을 것이며, 10년도 못 되어서 브라질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배일의 움직임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⁸⁰ 그는 이민은 가능한 한 고향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근접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만몽, 시베리아가 이주지로서 적당하다고 주장했다.⁸¹

중일합작회사인 중일실업(中日實業)의 부총재 다카키 리쿠로[高木陸郎]도 매년 70만씩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일본은 물자처럼 인간의 수출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어디서도 이 수출품을 환영해주는 곳은 없다면서 ‘만몽’ 지역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몽 지역은 “거액의 국고와 국민의 피”로 얻은 세력권으로, 만몽책은 “우리 국민의 사활문제”라고 했다.⁸² 또 다른 논자는 인구문제의 대책으로 이식민이 가장 효과가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서, 이주지와 관련해서는 “남미 이주열은 일종의 유행병”처럼 상당히 높지만, 특히 거론되는 브라질로 어느 정도나 이민이 가능할지,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브라질 의회에서 해마다 배일(排日) 법안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본 배척의 분위기가 강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⁸³ 반면 만몽은 지리적으로 남미에 비해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역시 국가의 ‘생존권’을 근거로 만몽으로의 진출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80 日置益, 1924, 「日本人處分問題と外交政策」, 『外交時報』 474, 24쪽.

81 日置益, 1924, 위의 글, 27쪽.

82 高木陸郎, 1926, 「移民問題を基調としての對滿政策」, 『外交時報』 514, 62~63쪽.

83 井上義孝, 1928, 「人口問題から觀た滿蒙の農業移民」, 『東洋』 30-6, 19쪽.

로는 척식회사를 창설하여 그 회사의 보호하에 집단으로 대이민을 꾀할 것을 주장했다.⁸⁴ 이들 만몽으로의 이주를 주장하는 이식민론자는 그 지역이 일본의 세력권이라는 점에 의거하여, 남미 이민론과 비교해볼 때 훨씬 더 대외팽창론의 성격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문제를 빌미로 교착상태에 빠진 만몽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촉구했던 것이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192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해진 인구증가에 대한 일본 사회의 논의와 그 대책으로서의 ‘이식민’의 유효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식민론자들의 논리를 함께 살펴보았다.

‘인구증가=해외 이식민’이라는 담론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대외팽창론의 한 근거로 자리해왔다. 일본 사회의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된 이 담론은 정작 인구증가가 가장 극심해진 1920년대에 오히려 그 유효성을 검증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먼저 인구문제의 소재를 둘러싸고 학계에서 이론 논쟁이 벌어졌다. 맬서스의 설, 즉 ‘인구 대비 식량(생활자료) 부족’이 맞느냐, 마르크스의 설 ‘자본 대비 고용 부족=실업’이 맞느냐를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는 한편, 인구증가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다른 차원의 논의와 그 이해방식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에 서더라도 인구문제의 대책으로서 이식민이 진지하게 검토될 여지는 없었다. 이미 1년에 100만 가까이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외로의 이식민으로 인구수를 줄이는 방법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 때문이다. 더욱이 1924년 미국의 이민법 성립으로 미국으로의 이민도 막히고, 식민지로의 이주도 이미 정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실효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다.

84 井上義孝, 1928, 위의 글, 27쪽.

1927년 정부가 조직한 ‘인구식량문제조사회’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조사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산업 진흥을 통한 경제력 증진으로 인구증가 문제에 대처한다는 방침을 확립했다. 이식민에 대해서는 인구수의 조절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배제한 뒤, 다만 이식민이 상대국과의 통상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일본의 경제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간접적 효과를 내다보고 이식민의 장려를 권고했다.

식민정책학자들은 인구문제 대책으로서의 이식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에서부터 국내 경제의 생산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존재했다. 하지만 이식민론자들의 주장처럼 이식민의 효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식민론자들의 주장은 종전과 다름이 없었다. 인구를 해외로 배출하는 이식민을 ‘해외 발전’과 등치하여 논했고, 실제로 그것이 국내의 인구 조절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족 발전’, ‘국가의 진보’라는 가치였다. 이 시기에 그들은 꼭 막힌 해외 이주지의 폐쇄 상황을 남미, 특히 브라질과 만몽 지역에서 찾아 타개하려고 했다.

인구증가에 따른 과잉인구를 둘러싸고 대책을 강구하던 정부의 인식은 중일 전쟁의 장기화, 총력전화를 계기로 ‘인구증식론’으로 전환한다. 이제 인구대책의 초점은 노동력=인적 자원의 확보로 바뀌게 된 것이다.⁸⁵ 이런 인식의 전환이 국책으로 제시된 것이 1941년의 ‘인구정책확립요강’이다. 이 요강에서는 인구의 영원한 발전성을 확보할 것, 증식력 및 자질에서 타국을 능가할 것 등의 목표를 세우고, 그 달성을 위해 1960년의 내지인 총인구를 1억으로 늘린다는 구체

85 高岡裕之, 2008, 「戰時人口政策の再検討: 「人口政策確立要綱」の歴史的位相」, 川越修·友部謙一 編, 『生命というリスク: 二〇世紀社會の再生産戰略』, 法政大學出版局, 154쪽.

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전시하에서 노동력 확보가 중요해진 마당에 실업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1920년대 일본 사회를 진감(震撼)시켰던 인구증가 문제와 실업문제는 대외 전쟁으로 인해 해소되고, 오히려 인구증식과 노동력 확보에 부심해야 하는 사태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高木陸郎, 1926, 「移民問題を基調としての對滿政策」, 『外交時報』 514.
- 高田保馬, 1926, 「産めよ殖えろ」, 『經濟往來』 1-5.
- _____, 1927, 『人口と貧乏』, 日本評論社.
- 高岡熊雄, 1925, 『ブラジル移民研究』, 東京寶文館.
- _____, 1933, 『ブラジル移民と滿蒙移民』, 札幌修身講話會.
- 吉田秀夫, 1944, 『日本人口論の史的研究』, 河出書房.
- 那須皓, 1927, 『人口食糧問題』, 日本評論社.
- 南亮三郎, 1936, 『人口論發展史:日本に於ける最近十年間の總業績』, 三省堂.
- 大内兵衛, 1926, 「人口論におけるマルサスとマルクスの交錯」, 『經濟學論集』 4-3.
- 稻田周之助, 1924, 『人口問題』, 稻田周之助.
- _____, 1926, 「民族の消長—所謂人口問題及び其對策を評す」, 『法學新報』 36-8.
- 東郷實, 1906, 『日本植民論』, 文武堂.
- _____, 1928, 「海外發展の機運に際して(三)」, 『植民』 7-3.
- 山本美越乃, 1917, 「海外發展ノ二意義」, 『經濟論叢』 5-5.
- _____, 1922, 「我が國の人口對食糧問題」, 『經濟論叢』 15-5.
- _____, 1926, 「我國人口問題と移植民政策」, 『パンフレット』 2.
- 矢内原忠雄, 1925, 「人口過剩に關する若干の考察」, 『經濟學論集』 4-2.
- _____, 1927, 「時論としての人口問題」, 『中央公論』 474.
- _____, 1963, 『矢内原忠雄全集』 第1, 2卷, 岩波書店.
- 神川彦松, 1926, 「人口問題の見地より我外交政策の基調を論ず」, 『中央公論』 41-4.
- 新垣金造, 1926, 『移民之友』, 移民之友社.
- 永井亨, 1928, 「人口問題と移民問題」, 『外交時報』 556.
- 人口食糧問題調査會 編, 1928, 『人口食糧問題調査會ニ於ケル内外移住方策及勞

動ノ需給調節ニ關する方策ノ決議答申ニ至ル經過竝ニ議論ノ要点, 人口食糧問題調査會.

_____, 1930, 『人口食糧問題調査會答申説明』, 人口食糧問題調査會.

日置益, 1924, 「日本人處分問題と外交政策」, 『外交時報』 474.

井上雅二, 1925, 「排日の米國と迎日の南米」, 『外交時報』 502.

_____, 1928, 「人口問題に關する對策(一)」, 『植民』 7-3.

井上義孝, 1928, 「人口問題から觀た滿蒙の農業移民」, 『東洋』 30-6.

淺見登郎, 1926, 「新日本の植民政策(一) 植民地と母國人口との關係」, 『外交時報』 517.

河上肇, 1927, 『人口問題批判』, 叢文閣.

연구문헌

加瀬和俊, 2011, 『失業と救済の近代史』, 吉川弘文館.

岡崎陽一, 1999, 『日本人口論』, 古今書院.

高岡裕之, 2008, 「戰時人口政策の再檢討: 「人口政策確立要綱」の歴史的位相」, 川越修・友部謙一 編, 『生命というリスク: 二〇世紀社會の再生産戰略』, 法政大學出版局.

廣嶋博志, 1980, 「現代日本人口政策史小論: 人口資質概念をめぐる(1916~1930年)」, 『人口問題研究』 154.

金子勇 編, 2003, 『高田保馬リカバリー』, ミネルヴァ書房.

기요카와 코지, 2004, 「일본으로부터의 만주농업이민」, 『만주연구』 1.

藤目ゆき, 1986, 「戰間期日本の産兒調節運動とその思想」, 『歴史評論』 430.

藤田賀久, 2013, 「近代日本のグローバリスト井上雅二: その人物像を中心に」, 『多摩大學グローバルスタディーズ學部紀要』 6.

杉田菜穂, 2009, 「日本における人口政策論の水脈: 永井亨の人と思想」, 『經濟學雜誌』 110-1.

_____, 2013, 『〈優生〉・〈優境〉と社會政策: 人口問題の日本的展開』, 法律文化社.

_____, 2015, 「日本における人口認識の史的展開: 人口抑制から社會保障へ」,

『經濟學研究』116-3.

小野一郎, 1976, 「日本帝國主義と移民論－日露戰後の移民論」, 小野一郎・行澤健三 編, 『世界經濟と帝國主義』, 有斐閣.

安田理人, 2016, 「近代日本における人口政策構想の一斷面(1):内務省保健衛生調査會を對象とした一考察」, 『國際文化學』29.

長谷川雄一, 1990, 1991, 「一九二〇年代・日本の移民論(一, 二, 三)」, 『外交時報』1265, 1272, 1279.

猪谷善一, 1966, 「マルサス人口論の日本導入過程」, 『亞細亞大學經濟學紀要』1.

1920년대 일본의 인구문제와 이식민론(移植民論)

박양신

이 논문은 근대 일본에 만연된 인식인 ‘인구증가=해외 이식민’이라는 담론을 인구증가가 가장 급격했던 1920년대의 상황 속에서 그 유효성을 검토한다. ‘인구증가=해외 이식민’이라는 담론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대외팽창론의 한 근거로 작용해왔다. 일본 사회의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되던 이 담론은 정작 인구증가가 가장 급격해진 1920년대에 오히려 그 유효성을 검증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인구문제의 소재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학자들이나, 정부가 조직한 ‘인구식량문제조사회’의 인식은 어디까지나 산업 진흥을 통한 경제력 증진으로 인구증가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식민정책학자들의 의견은 이식민 찬성에서 반대까지 다양했으나, 이식민론자들의 주장처럼 이식민의 효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매년 100만 가까이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외로의 이식민으로 인구수를 줄이는 방법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1924년 미국의 이민법 성립으로 미국 이민의 길도 막히고, 식민지로의 이주도 이미 정체된 상태여서 그 실효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이식민론자들의 주장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인구를

해외로 배출하는 이식민을 ‘해외 발전’과 등치하여 논했고, 실제로 그것이 국내의 인구 조절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구문제의 해소보다는 ‘민족 발전’, ‘국가의 진보’라는 가치였던 것이다.

주제어: 인구문제, 인구증가, 식민, 이민, 식민정책학, 멜서스

ABSTRACT

The Population Issue and the Theory of Transplantation of Japan in the 1920s

Park Yangshin

This paper examines the discourse of “population increase equals transplantation to foreign countries,” a perception that was prevalent in modern Japan in the 1920s when the country was experiencing the sharpest population growth. Since the Sino-Japanese War, the doctrine of “population increase equals transplantation to foreign countries” has served as a basis for Japan’s expansion theory. This doctrine, which had been consistently advocated by some in Japanese society, was put in a paradoxical situation in the 1920s, when population growth was at its most extreme.

Scholars who argued over the whereabouts of the population issue and the government-organized Commission on Population and Food Issues tried to cope with the problem of population growth by boosting economic power through industrial development. The opinions of colonial policy scholars varied from pro-transplantation to

anti-transplantation, but they did not actively recognize the effectiveness of transplantation as claimed by proponents of transplantation. Still, the claims by the proponents of transplantation were not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They perceived the population-exporting transplantation as “foreign development,” and were not really strict about how effective it would be in controlling the nation’s population. What mattered to them was the value of “national development” and “national progress” rather than the resolution of the population issue.

Keywords: population issue, population growth, colonization, transplantation, colonial studies, T.R.Malthus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바다, 천하 그리고 근대국가

– 『천하의 바다에서 국가의 바다로: 해양의 시각으로 본

근대중국의 형성』, 조세현, 일조각, 2016

이영옥 |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I. 낭만, 현실 그리고 역사연구
- II. 바다의 법적 지배로 나아가는 여정
- III. 천하, 해양 그리고 영해
- IV. 첨연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낭만, 현실 그리고 역사연구

많은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려운 일로 마음이 답답할 때 위로를 주는 공간이자 존재이다. 바다는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넓은 가슴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바다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었던 시대에 많은 사람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한 공간이었다. 동경과 모험의 대상으로서 바다를 학문의 대상으로 다가가는 일은 마치 토끼가 방아를 찧는다는 달에 우주선을 보냈던 일과 비교될 수 있다. 따뜻함과 신비로움을 걷어내는 순간 낯선 대립과 냉혹한 현실과 마주칠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동경의 대상인 바다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조세현 교수의 저서(이하 『바다』)를 만나게 된 것은 중국사 연구자로서 흥미롭고 즐거운 일이면서 동시에 딱딱하고 분석적인 현실을 마주하는 경험이다.

1980년 이래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에서는 매년 상당한 분량의 일반 통사와 전문 통사가 82종이나 발간되었고,¹ 해양사 연구도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22쪽)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중국사 연구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쏟아져 나오는 중국의 연구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중국사 연구자들은 스스로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자가 쓴 중국사 전문 분야의 저술은 아주 드문 편이다. 이런 점에서 근대중국의 전개과정을 바다라는 공간과 그 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진 각축을 통해 접근한 『바다』는 단지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하고 평가받을 만한 학문적 성과이다. 이 글은 먼저 그 내용을 정리한 후 중국 바다의 전문 연구자가 아닌 청나라 정치사 연구자의 관점에서 『바다』에 대해 작은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

1 柳鏞泰, 2019, 「개혁개방시기 中國의 通史·文明史 편찬과 그 인식체계」, 『東洋史學研究』 第147輯.

II. 바다의 법적 지배로 나아가는 여정

『바다』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발표된 네 편의 논문에서 출발하여 여덟 편의 논문을 더하여 완성된 책이다. 저자는 원래 무정부주의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 사상사를 연구하였다. 2007년 해양수산 분야가 특화된 항구도시의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었다. 2010년 청나라가 타의에 의해 외국과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해양 관련 조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를 다루었다. 그 뒤에 만국공법의 해양 관련 조항을 통한 청나라의 해양 수용 방식과 사례 분석, 해양 개념과 바다 이미지의 변화, 북양수사와 한중관계 등을 다룬 논문들을 차례로 발표하였다(492쪽). 이 논문들이 『바다』의 뼈대가 되었다. 그 뼈대에 여덟 편의 논문을 추가한 다음, 「서론 해금과 해방」, 「제1편 해양질서의 재편: 1840~1894」, 「제2편 영해의 탄생: 1895~1911」, 「제3편 바다를 둘러싼 근대 한중관계」, 「결론 해양과 근대중국」 등으로 이루어진 튼실한 구조를 갖추서 『바다』라는 몸체를 완성하였다.

서론에서는 해양(海洋)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청나라의 해금정책과 해관의 특징, 해방체제와 해강의 의미 등을 다루었다. 중국인에게 해양은 “삶의 터전이자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공간”(35쪽)이었다. 만주인의 청나라는 중국의 정통을 계승한 왕조로서 우뚝 서려 하였는데, 바다 너머 타이완을 은신처로 삼아서 만주인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파리를 틀고 있었다. 만주인은 해금정책을 통해 반청운동의 싹을 잘랐다. 그들은 타이완을 정복하고 해금정책을 폐지한 뒤에도 해관을 통해 바다로 드나드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청나라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바다를 관리하기 위한 해방체제를 확립하고 수사(水師)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오늘날의 “영해 개념에 비해 폭넓은 ‘해강(海疆)’이라는 통치영역에 좀 더 관심이 있었던 듯하다”(45쪽). 간단히 정리하면, 서양인들이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등장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는 대체로 “모호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날의 영해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제1편 해양질서의 재편: 1840~1894」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아편전쟁부터 청일전쟁까지 청나라가 바다를 통해 등장한 열강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를 다루었다.

제1장에서는 두 차례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후 청나라가 열강과 맺은 조약에서 해양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청나라가 통상조약에서 거의 모든 해양 분야의 불평등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해양 주권을 자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제2장에서는 근대적인 해운업이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였다. 저자는 청나라가 영국 해군의 도움을 통해 해적을 소탕하고, 양무운동을 거치면서 신식 윤선을 도입하여 조량의 해운을 본격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해양질서가 재편되고, 윤선초상국이라는 근대 해운회사가 등장하는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여겼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만국공법²에 나타난 해양 관련 국제법, 그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만국공법은 해양과 관련하여 영해와 공해, 해적, 선점과 정복, 항구봉쇄, 포획물과 전시금지품, 임검권과 포획면허장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조항들이 청나라가 바다 위에서 일어난 대고구(大沽口) 선박사건, 유구(琉球) 표류민사건, 강화도조약 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184쪽)고 여긴다.

제5장에서는 청나라의 전통적 수사(水師)가 근대적 해군으로 바뀌는 과정과 관련하여 함선을 구매해줄겠다는 서양인에게 횡령을 당한 레이-오스본 함대 사건, 문포선·순양함·철갑선 등의 구매 과정을 살펴보았다. 저자는 1890년대 초 청나라 해군의 군함이 같은 시기 유럽 함선에 근접한 수준을 갖추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호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2 헨리 휘턴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로렌스 판본, 1855)를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이 글에서는 서명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체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서 서명 부호를 생략한다.

제6장에서는 청프전쟁과 청일전쟁 때 일어난 해전과 그 과정에서 야기된 국제법 분쟁을 분석하였다. 청프전쟁에서는 프랑스가 제3국 중립문제를 전시금지 품과 관련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고, 청일전쟁에서는 일본이 포로와 민간인을 살해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 저자는 청나라가 “만국공법의 조문만으로는 체제를 수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247쪽)고 여겼다.

「제2편 영해의 탄생: 1895~1911」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청일전쟁 전후부터 신해혁명까지 청나라가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를 진행하고, 와해된 해군을 중건하고, 바다 위의 분쟁에 대처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제7장에서는 청나라가 청일전쟁 이후 독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과 맺은 조차조약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청나라가 조차조약을 체결하면서 해역에 대한 관할 범위의 설정을 위해 조약에 영해 개념도 포함하게 되었고,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영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1908년 일본과 영해 관련 대외교섭을 진행하면서 영해라는 용어가 공문서에서 자주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제7장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였다. 1931년 중화민국정부가 “정식으로 3해리 제도를 받아들였음을” 알렸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중국의 바다는 영해라는 범주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되었다”(295쪽).

제8장에서는 청나라가 능동적으로 해운과 해군에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국제조약을 체결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청나라는 해운과 관련하여 워싱턴 회의에 참가하고, 항해충돌방지장정(1889)이라는 국제조약에 가입하였으며, 중국 선박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헤이그평화회의에 두 차례 참가했으며, 해전과 관련된 국제조약들에 가입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청나라의 행보를 “양무에서 외무의 단계로 나간 사실 혹은 만국공법에서 국제법의 단계로 나아간 사실”(393쪽)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겼다.

제9장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 해군의 중건 과정을 광서 말기와 선통 시기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청나라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해방론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전후에 영국과 독일의 전함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군을 재건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다를 통제하는 힘을 의미하는 해권(海權)이 수용되었다. 저자는 해권과 해권론의 등장을 청나라가 바다가 지닌 중요성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제10장에서는 청말 신정 시기의 어업·해계·도서분쟁 사례를 통해 청나라의 해양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신정 시기 청나라는 “국제법을 이용해 자국의 해양 권익을 얻어내려는 외교태도가 분명해졌고, 해군력을 동원하여 중국 해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났다”(392쪽). 저자는 청나라 조정이 서사군도와 같은 변방의 섬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영해 주권에 대한 근대적인 해양 인식을 반영하는 것”(392쪽)이라고 여겼다.

「제3편 바다를 둘러싼 근대 한중관계」는 2개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19세기 후반 청나라 북양수사의 조선 내정 개입, 해운과 어업 활동에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분쟁의 전개 양상을 다루었다.

제11장에서는 1880년대 북양수사의 활동이 조청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추적하였다. 북양수사는 순양함을 갖추고 황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신속하게 군대를 보내서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였고, 1888년 북양함대로 발전한 뒤에는 일본, 블라디보스토크 해역부터 사이공, 마닐라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저자는 청나라가 신속한 군대 파병이 가능한 군함을 보유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정책을 가능하게 만들었음을 밝혔다.

제12장에서는 해운과 어업이 개방된 뒤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해양분쟁이 처리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는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조약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바뀌었다. 저자는 당시 양국관계에서 해운과 어업의 구분이 모호하였고 “해군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밀무역이었다는 사실”(457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결론 해양과 근대중국」은 해양사의 관점에서 근대중국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였다. 저자는 근대 조약들이 중국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중국이 만국공법을 통해 국제질서를 받아들였으며, 근대 해군의 부침이 중국의 해권 의식을

강화하였고, 해양 인식의 변화는 조청관계에도 반영되었다고 여겼다.

요컨대, 『바다』는 근대중국에서 바다가 법적 지배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여정을 분석하고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국가권력이 해양에 침투하는 과정을 추적해 근대국가가 바다를 어떻게 지배했는가를 알아보려는”(29쪽) 목적에서 저술하였다. 그리고 근대에 식민주의와 국민국가가 출현하면서 “열린 공간으로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자유로운 바다를 영토화시켰다”(479쪽)고 여긴다.

그렇다면 저자의 『바다』는 독자들에게 바다, 해양질서, 영해, 식민주의, 국민국가 등이 어우러진 근대중국의 모습을 제목, 구성, 내용 등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였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장을 바꿔서 살펴보겠다.

Ⅲ. 천하, 해양 그리고 영해

1. 천하의 개념

『바다』라는 제목은 저자가 서론에서 밝힌 책의 저술 목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저자는 해양의 시각으로 근대중국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였고, 그 과정을 다시 천하의 바다에서 국가의 바다로 바뀌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천하의 바다와 국가의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자는 “천하국가³를 포괄하여”(6쪽) 천하의 바다에서 국가의 바다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말한다. 천하의 바다에서 천하, 국가의 바다에서 국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자는 “전통적 ‘천하(天下)’의 바다”와 “근대적 ‘국가(國家)’의 바다”(15쪽)라고 하여 천하와 국가에 각각 전통적·근대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하였다. 저자는 천하를 전통(왕조), 국가를 근대(국가)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김한규, 2005, 『천하국가: 전통 시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소나무.

따라서 “천하의 바다에서 국가의 바다로”를 풀어보면 ‘전통왕조 시대의 바다에서 근대국가 시대의 바다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바다』가 서술하는 내용을 고려한다면, 천하를 천하질서, 국가를 국가(국제)질서로 이해하는 것(296쪽)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천하국가라고 하였을 때 천하는 천자가, 국(國)과 가(家)는 제후와 경대부가 다스리는 대상을 의미하였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천하와 국가를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하였다. 또한 천하는 천자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천자가 다스리는) 천하의 바다’는 저자의 말처럼 “열린 공간”이나 “무국적(無國籍)”(15쪽)일 수 없다. 중국의 왕조시대에 천자(황제)의 머릿속에서 천하의 바다는 천자의 것이었다.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천하와 국가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천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의문을 고려하여, 저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밝혀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해양과 해양질서의 붕괴

저자는 「제1편 해양질서의 재편: 1840~1894」에서 청영아편전쟁부터 청일전쟁까지 열강들이 청나라를 침탈하고 조약들이 체결된 것을 바다 위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청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시기는 그 이전까지 작동하던 해양질서가 붕괴되는 과정이었다. 열강들은 힘으로 청나라를 압박하여 청나라를 둘러싼 해양의 질서를 재편하였고, 청나라는 그 힘에 눌려 자국 중심의 해양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청나라가 영국을 시작으로 열강과 체결한 통상조약은 점진적으로 항구의 개방을 이끌어냈다. 연해항행권, 연안무역권, 인수권, 군함정박권 등은 모두 열강의 필요에 따라 용인되었고, 청나라 연해와 항구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약의 규정들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열강들이 물밀 듯이 청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만국공법을 비롯한 국제법 관련 서적들이 번역되고 전통적인 수사가

해군으로 재편되었다.

저자는 만국공법의 해양 관련 조항과 동북아의 해양분쟁들을 분석하여 청나라가 만국공법을 국제관계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일본이 조선과 관련하여 만국공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도 서술하였다. 반면 청나라가 조선과 관련하여 만국공법을 편의적으로 이해하여 반자주속국으로 대하고 있었던 사실과 관련한 서술이 부족하다. 이 점이 보완된다면, 청나라 중심의 해양질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더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프전쟁과 청일전쟁은 청나라에게 명예롭지 못한 역사였다. 명예롭지 못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은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전쟁에서 청나라는 전쟁 중에 발생한 분쟁에 국제법을 적용하였지만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 저자는 그런 경험을 통해 “만국공법의 조문만으로 체제를 수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247쪽)고 평가하였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청나라는 단지 국제법을 내밀 수 있었을 뿐이고 그것을 관철시킬 힘이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자가 충분히 “값비싼 교훈”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청나라 조정 혹은 관련 인물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구체적인 사례가 특정되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프전쟁 이후 전력 증강이나 신정 시기의 해군 중건을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

3. 영해의 수용

저자는 「제2편 영해의 탄생: 1895~1911」에서 청나라가 청일전쟁 이후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 영해의 개념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고 여겼다. 그런데 “영해의 탄생”은 어떤 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명확하지 않다. 저자는 청나라의 주변 바다에 영해로 규정되는 공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영해의 탄생”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해는

이미 국제법에 규정되어 존재하였기 때문에, 청나라(이후 중화민국)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해의 개념과 규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영해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면서 “자유로웠던 중국의 바다는 영해라는 범주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되었다”(295쪽)라든가 “바다가 국가의 영토 속에 갇히는 가를 추적”(365쪽)하였다는 서술은 영해를 구속으로 받아들였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저자는 영해와 관련하여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국제조약을 체결했던 것이나 해권 의식이 고양되었던 것을 청나라의 적극적인 대외행보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는 영해의 선포를 “영해의 탄생”으로 보는 관점과 영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관점이 혼재해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청나라가 영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는 「제3편 바다를 둘러싼 근대 한중관계」에 잘 나타나 있다. 굳이 해양의 관점에서 근대중국의 형성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1880년대 이후 청나라의 조선정책은 열강의 방식을 속국이라고 여겼던 조선에 강요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점에서 제3편의 사례가 따로 묶이는 것보다 제2편에 함께 서술하는 것도 청나라의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데 효율적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IV. 참언

『바다』는 저자가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여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결과물이다. 독자는 『바다』를 통해 근대중국의 바다 및 그와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식이 제시된 방법론은 연구자들에게 자극을 준다. 그러한 성과와 비교한다면 사소하게 보이는 몇 가지 참언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먼저, 12개의 장은 독립적이면서도 3~6개의 장이 해양질서의 재편, 영해의 탄생, 바다를 둘러싼 한중관계 등의 주제를 갖고 세 편으로 묶여 있다. 독자들은 필요에 따라 하나의 장이나 하나의 편을 선택하여 참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장과 편을 배치하려 했지만 각 장이나 편에 시
기나 내용이 중복되는 단점이 보인다. 예를 들면, 국제법과 관련하여 제3, 4장
과 제7장의 만국공법에 대한 서술은 내용의 전개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하여
서술되었다. 『바다』를 좀 더 대중적인 형태로 가공할 기회가 있다면, 중복된 부
분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다음으로, 『바다』는 근대중국의 해양을 다룬 분야사 저술이다. 분야사 저술
은 전체 역사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바다』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분야사는 전체 역사의 전개를 고려하였을 때, 큰 틀에서 일정하게
어긋나지 않는 것이 옳다. 중국근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외부의 압박에 양보하
는 수동적인 자세가 많이 나타났다. 『바다』의 서술은 상대적으로 청나라의 능동
적인 자세가 돋보인다. 국제법의 수용, 해양에 대한 인식, 분쟁의 처리 등이 능
동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당 주제들과 관련하여 중국 쪽의 자료가 많
이 이용되었기 때문인 듯한데,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바다』에서 다룬 해권(海權)은 근대중국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의 바
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개념이고 주제이다. 저자는 국내 학계에
서 사용하는 ‘해양력’ 대신에 중국에서 쓰는 ‘해권’을 사용하고 있다. 바다에 대
한 장악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양력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보인
다. 이미 사용되는 용어와 혼선을 피하고, 의미전달의 편의성을 생각하여 해양
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논총』 연구윤리규정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논총』의 발간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연구 활동에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계, 연구과정,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과정 또는 결과 도출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중복 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

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구자의 의무)

1. 연구자는 『동북아역사논총』 투고 시 연구윤리준수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2. 본 규정에 저촉되어 제소된 연구자는 『동북아역사논총』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발표 및 학술지 투고, 게재, 서적 출판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그리고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및 기타 편집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는 『동북아역사논총』 발행 또는 기계재된 연구와 관련하여 제4조에 저촉되는 사안을 발견하거나 제보를 받을 경우, 해당 사안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2. 심의위원회는 『동북아역사논총』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3. 편집간사는 서기로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단, 의견권은 갖지 않는다.

제6조(심의)

1. 『동북아역사논총』 발행과 관련하여 제4조에 저촉되는 사안을 발견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접수자는 이를 곧바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을 심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심의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의 과반 의결에 따라 판정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의 이전 또는 심의 과정 중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단, 초빙된 외부 전문가는 의결 권한을 갖지 않는다.
5.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편집위원 중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7. 편집위원장이 심의 안전을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제소자와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1. 제소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의 신원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단,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심의 과정 중 피제소자의 명예·권리·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피제소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진술·이의제기·변론 등과 같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재심의)

1.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때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
2.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초 심의와 동일한 과정 및 절차를 걸쳐 재심을 진행하며 결과를 통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재심의 위원은 최초 심의위원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3. 재심의 결과가 최초 심의 결과와 동일할 경우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
4. 재심의 결과가 최초 심의와 달라지고 패소한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와 동일한 과정 및 절차를 걸쳐 진행한다.
5. 세 번째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결과는 번복할 수 없으며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지 않는다.

제9조(결과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제소의 내용(조사 대상 연구결과물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 내용)
- 나. 심의 절차와 논의 내용
- 다. 심의 결과
- 라. 심의 결과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마. 심의 결과에 따른 제소자 혹은 피제소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0조(판정 및 징계)

1.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한다.
2.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가. 기계재된 『동북아역사논총』 투고문 게재 취소.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해당 논문 삭제
 - 나. 향후 5년간 『동북아역사논총』 투고 금지
 - 다. 판정 이후 처음 발간되는 『동북아역사논총』에 판정 내용 공시
 - 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관련 사실 통보

제11조(기록의 보관·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부터 5년간 보관한다.
2.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13조(예외사항)

이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승인 2019. 5. 17)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개정 2015. 12. 23. 규칙 제105호

타규개정 2017. 12. 27. 규칙 제180호

[시행 2018. 9. 3] [규정 제92호, 2018. 9. 3., 타규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실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 12. 23, 2017. 12. 27, 2018. 9. 3>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80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83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92호, 2018. 9. 3>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등)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직제규정과 관련된 재단의 다른 내규는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이 규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정책실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강성호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경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재윤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양인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5호(2019. 9)

초판 1쇄 인쇄 2019년 9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19년 9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